

국역 승총명록
-4,5권-

구상덕 지음

경상남도 고성군청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연 구 원 : 김건우(전주대학교 교수)

최연숙(한국국학진흥원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상현(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 구상덕의 《승총명록》(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43호 총5권) 중 4권~5권을
번역하였음.

* 번역기간 : 2013년 12월 5일~2014년 9월 30일.

승충명록(勝聰明錄) 권4

4권은 공(公)이 45세인 경오년(1750 영조26)부터 50세인 을해년(1755 영조31)까지 6년간의 일기이다. 책장수는 60장이다.

상장 돈장(上章敦祥)¹⁾ 경오년 서기 1750년 영조 26년 청나라 고종(高宗) 건륭(乾隆) 15년 경오. 공의 당시 나이 45세.

1월 소월(小月). 1일 을사. 13일 우수 월중. 27일 경칩 영절(令節).

2월 대월(大月). 1일 갑술. 14일 춘분 월중. 28일 한명 삼절(三節).

3월 소월. 1일 갑진 곡우 월중.

4월 소월. 1일 계유 입하절. 16일 소만 월중.

5월 대월. 1일 임인. 3일 망종. 12일 하지 월중.

6월 소월. 1일 임신. 4일 소서절. 9일 초복. 20일 대서 월중.

7월 대월. 1일 신축. 7일 입추절. 22일 처서 월중.

8월 소월. 1일 신미. 8일 백로절. 23일 추분 월중.

9월 대월. 1일 경자. 9일 한로절. 24일 상강 월중.

10월 대월. 1일 경오. 9일 입동절. 24일 소설 월중.

11월 대월. 1일 경자. 9일 대설절. 24일 동지 월중.

12월 소월. 1일 경오. 8일 소한절. 23일 대한 월중.

1월 소월(小月).

1월 1일(을사) 닭이 울기 전에 남풍이 잠깐 불었다. 남쪽에 구름이 가로질러 있다가 닭이 운 후에 동북풍이 불었다. 새벽에 사또가 성묘를 배알하였다. 식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식후에 날씨가 고르지 않고 밤이 깊은 후에 바람이 불었다.

1월 2일(병오) 향교에 들어갔다.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고 구름이 질게 깔 듯하더니 저물녘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구름이 흩어졌으며 날씨가 온화해졌다.

1월 3일(정미)

1월 4일(무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월 5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각기병(脚氣病)에 땀을 내기 위해 향교에 있었다.

¹⁾ 상장 돈장(上章敦祥) : 고갑자(古甲子)로, 상장은 경(庚)을 가리키고, 돈장은 오(午)에 해당한다.

1월 6일(경술) 동남풍이 불고 춥지 않았다.

1월 7일(신해) 식후에 동풍이 불고 흐렸으며 날씨는 고르지 못하였다. 지금 여질(癘疾)이 점점 기승을 부려 사람들이 대부분 출막(出幕)²⁾하니 길이 막혀 다니기가 어려웠다. 남문 안에서 병자들이 향교 길가에 천막을 치고 있기에 내가 이임(里任)을 불러 즉시 치워 옮기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1월 8일(임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 서방이 어제 소도살 혐의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1월 9일(계축)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시다가 그쳤으나 짙게 낀 구름은 흩어지지 않았다. 이 서방을 대신하여 글을 써서 관에 소장을 올렸다.

“저는 이제 겨우 약관의 나이로 다른 사람과 나쁜 감정을 맺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고를 당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는 모두 전생의 악업을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재앙을 곧바로 달게 받아야지 힘들게 변론해서는 안 됩니다. 청천백일은 머리 위에서 여전히 밝게 비치고 있으니 저의 지극히 원통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증명할 이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인자하신 사또 앞에 정성을 다해 급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20일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약간의 상차림을 하였는데 상에 올라온 것들은 다 해산물이었고, 이른바 별식이라면 사랑(蛇梁)에서 온 산노루 2마리 뿐이었습니다. 소고기 반점도 원래 사다 쓴 일이 없었는데 공공연하게 턱도 없이 소를 도살했다는 법에 걸려들었습니다. 생각건대, 성왕의 시대를 만나 나라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또 신명(神明)한 교화를 입었으니 제가 도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래지 않아 다시 조사하는 자리에서 저절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이 사천(四川)과 진주(晋州)의 경계에 있어 순찰사와 통제사가 있는 도청(都廳)과 가깝기 때문에 오늘의 일에 대해 진위 여부는 모두들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 조사하기도 매우 쉽고 실상을 캐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사또의 기운을 마땅히 수렴하여 감옥에 있으면서 현경(懸鏡)³⁾의 기약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문을 받는 날 제 아버지는 닷새나 병으로 고생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삼일 밤낮을 감옥에 있으면서 하늘도 부르다가 아버지 부르다가 할 뿐이었는데, 과연 오늘 아침에 하인을 급히 보내 왔으니, 천륜에 있어 자식이 어찌해야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효로 다스리는 치하에서 더욱더 참작하신 뒤에 잠시 보석으로 풀어주어 돌아가 아버지 병을 살펴 부자간의 정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런 뒤에 감옥으로 돌려보내 다시 엄격하게 조사하되 만약 실제 범행을 저질렀거든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천하의 지극히 공정한 법을

2) 출막(出幕) :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따로 수용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막을 치고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현경(懸鏡) : 높은 집에 거울을 걸어 놓으면 사물이 다 비취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순정(純正)하여 사리를 밝게 살피는 것을 말한다.

밝히고 간악한 백성이 속이는 습성을 징계하소서.” 이에 이 서방이 풀려났다.

1월 10일(갑인) 서풍이 불고 온화하였다. 이날 밤에 사또가 객사⁴⁾의 동헌(東軒)에 나가 안정사의 나대승(儼隊僧)을 불러 들여 뜰에서 많은 유희를 즐기면서 남녀노소로 하여금 담처럼 모여 서서 보게 하였다. 마침내 문을 지키며 사람들을 골라 한정(閑丁)을 많이 얻으니, 이것은 케우(詭遇)⁵⁾의 도이다. 진실로 축하할 만한 일은 못된다.

1월 11일(을묘)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1월 12일(병진) 비가 내려 약간의 진흙탕을 만들었다. 두포(頭浦)의 파총(把總) 이국립(李國霖)이 죽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공의 어질고도 덕스러움으로도	以公仁且德
하늘은 어찌하여 보답을 아끼는가	天報一何慳
백도 ⁶⁾ 의 가문을 누가 이을까	伯道家誰克
자식을 낳기가 더욱 어려웠네	原生產愈艱
육십 평생 날아가는 새와 같아	六旬如過鳥
한 조각 깃발로 빈산에 오르네	片旛上空山
큰 과일을 양자에게 전하니	碩果傳螟子
이제서야 눈물을 닦으며 보내	吾今拭淚看

이때 전염병이 치성하여 사망자가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

1월 13일(정사) 구름이 날렸다.

1월 14일(무오) 굿은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1월 15일(기미) 북풍이 불고 구름이 끼어 흐렸다. 집의 여종이 와서 춘아(春兒)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고하기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약을 복용하고 땀을 내게 하였다.

4) 객사(客舍) : 궐패를 모셔두고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내려오는 벼슬아치나 일반관리들을 대접하고 묵게 한 곳이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었다. 고성의 객사는 1900년도 화재로 소실되고 빈터를 객사마당으로 불렀다. 객사마당은 싸전을 비롯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각종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객사마당은 1919년 3월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일본 산구현상업고등학교(山口懸商業高等學校)에 다니면서 '2·8독립선언'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고성읍 성내리 출신인 안태원과 부산상고에 다니던 서동조 등이 1919년 3월22과 4월1일 두 번에 걸쳐 고성보통학교(고성초등)학생 200여명을 이곳으로 이끌고 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가행진을 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지금은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 건물이 들어서 있다.

5) 케우(詭遇) : 수레를 잘 모는 왕량(王良)이 해사(奚斯)와 같이 사냥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에 다시 가서는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다. 왕량이 말하기를, “해사는 소인(小人)이니 같이 사냥하지 못하겠다. 법도대로 말을 달리니 한 마리도 못 잡고, 짐승을 속여서 만나게[詭遇] 하니 짐승을 잡는다.” 하였다. 《맹자》

6) 백도(伯道) : 진(晉)나라 하동 태수(河東太守) 등유(鄧攸)가 석능(石勒)의 병란 때에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피난하다가 둘을 모두 보호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는, 자기 아들은 버려두어 죽게 하고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을 대신 살렸는데, 그 뒤에 끝내 후사를 얻지 못하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하늘이 무지해서 백도에게 아들이 없게 했다. [皇天無知 使伯道無兒]”라고 탄식했다는 고사가 《진서(晉書)》 권90 등유전에 나온다. 백도(伯道)는 등유의 자이다

1월 16일(경신) 찬비가 내렸다. 춘아의 병이 점점 심해졌다.

1월 17일(신유) 어둑어둑하였다. 성산(省山)에 사는 춘아의 병이 몹시 위중하였기 때문에 석노(石奴)의 집으로 가서 묵도록 하였다. 밤이 되자 인사불성이 되었다.

1월 18일(임술) 새벽에 비가 내렸다. 묘시에 춘아가 사망하니 가련하다. 그 사람이 우리집에 온지 1년이 안되었는데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니, 32살로 기해생(己亥生)이다. 그의 수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악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의 심덕(心德)이 애석하다.

1월 19일(계해) 안정사(安靜寺)에 갔다가 돌아왔다. 아관(阿觀)이 사천(泗川)에서 왔다.

1월 20일(갑자) 동풍이 불고 비가 와서 시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성산(省山)에 사는 춘아의 어머니와 아들이 와서 곡을 하였다.

1월 21일(을축) 아침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다가 저물녘에 구름이 모여 추웠다. 성산의 노파가 인사하고 돌아갔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1월 22일(병인)

빗소리 새벽에도 계속 되니	雨聲曉仍在
외로운 잠자리 꿈에서 자주 놀라네	孤枕夢頻驚
정성이 통하는 곳에 장수를 기원하니	祈壽誠通處
등불만이 한 점 밝구나	燈兒一點明

저물녘게 눈이 내렸다.

1월 23일(정묘) 인간(寅艮, 북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24일(무진)

1월 25일(기사)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1월 26일(경오) 북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관이 주도하여 울천(栗川)⁷⁾에서 여제(癘祭)를 지내고 무기정(舞妓亭) 뒤 교외에 시장을 열었다.

1월 27일(신미) 동풍이 불었다.

1월 28일(임신) 약간 흐렸다.

1월 29일(계유)

2월 대월(大月).

2월 1일(갑술)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고 비가 내렸다.

7) 울천: 고성의 진산 무량산, 천왕산과 고성대가저수지에서 두호리 간사지로 흐르는 시내로 밤내라고 불렀다. 예전엔 소소강이라 했으며 지금은 고성천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월 2일(을해) 구름이 끼어 흐렸다.

2월 3일(병자) 이슬비가 내렸다.

2월 4일(정축) 석전제(釋奠祭)를 지낼 때 비가 갑자기 내리더니 종일 퍼붓듯이 내렸다. 향교의 임원을 모두 교체하였다.

2월 5일(무인)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했다.

2월 6일(기묘) 햇벌이 났다.

2월 7일(경진) 약간 흐렸다. 환조(還租) 한 섬당 전(錢) 5, 6전(錢)이었다.

2월 8일(신사) 갑자기 서늘해졌다.

2월 9일(임오) 맑고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0일(계미) 바람이 서늘하였다.

2월 11일(갑신) 맑고 온화하였다.

2월 12일(을유) 날씨가 위와 같다. 이 서방이 왔다.

2월 13일(병술)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14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 서방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5일(무자) 청명하였다.

2월 16일(기축)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2월 17일(경인) 따뜻하였다.

2월 18일(신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청어(靑魚) 한 마리 값이 2푼 5리였다.

2월 19일(임진) 흐렸다.

2월 20일(계사) 비가 주룩주룩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2월 21일(갑오) 맑았다. 술을 가지고 거류산(巨流山)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였다.

2월 22일(을미) 흐렸다.

2월 23일(병신) 약간 흐렸다.

2월 24일(정유) 청량하였다.

2월 25일(무술) 잔 구름이 끼었다.

2월 26일(기해) 날씨가 위와 같다.

2월 27일(경자) 새벽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 수일 전에 광이(光二)의 박태만(朴太萬) 아들 형제와 양구웅(梁九雄)의 아들이 석회를 실은 채 바다에 빠져 죽었으나 아직 시체를 건지지 못했다. 그래서 광일(光一)과 광이로 출발하면서 도선(道善)의 연호군(烟戶軍)을 데리고 가서 줄을 묶어 어제부터 바다를 가르고 찾았지만 아직 시체를 찾지 못했다. 화곡(禾谷)⁸⁾에 가서 유숙하였다.

2월 28일(신축)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8) 화곡(禾谷):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마을.

2월 29일(임인) 서북풍이 불었다.

2월 30일(계묘) 바람이 어제처럼 불고 조금 구름이 끼었다.

3월 소월.

3월 1일(갑진) 약간 흐리고 가끔 햇별이 나왔다. 서풍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화곡(禾谷)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왔다.

3월 2일(을사) 가끔 햇별이 나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였다. 해질 무렵 비가 내렸다.

3월 3일(병오) 닭이 울기 전에 빗소리가 들렸다. 화로의 재를 뒤적여 담배[痰破]를 피웠다. 다시 누워 자려고 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아 절구 한 수를 지었다.

밤비가 처마 끝에서 시끄럽게 떨어지니
쓸쓸하게 혼자 자다 꿈에서 또 놀라네
깊은 재를 다 뒤적이느라 잠 못드니
이른 아침 닭이 두세 번 우는구나

簷頭夜雨亂鈴鳴
冷落孤衾夢又驚
撥盡深灰眠不假
早鷄啼送兩三聲

이날 천둥이 쳤다.

3월 4일(정미) 이슬비가 내리고 가끔 햇별이 나왔다.

3월 5일(무신) 바람이 불고 흐렸다.

3월 6일(기유) 구름이 끼어 흐리더니 비가 내렸다. 화곡(禾谷)의 배소사(裴召史) 방에 가서 묵었다. 이날 저녁에 비가 쏟아지고 밤에 크게 천둥번개가 쳤다.

3월 7일(경술) 비가 개고 바람이 불어 추웠다. 그대로 화곡에 머물렀다.

3월 8일(신해)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9일(임자) 수면에 얼음이 얼어 갓 자란 벼모를 상하게 할까 염려되었다. 배소사를 데리고 왔다.

3월 10일(계축) 얼음이 얼고 나뭇잎이 시들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11일(갑인) 근래 된서리가 겨울처럼 내려 새로 난 어린 잎들을 다 죽였다. 오늘 아침에는 서리가 조금 내렸으나 날씨가 조금 풀렸다.

3월 12일(을묘) 맑고 온화하였다.

3월 13일(병진) 이슬비가 내렸다.

3월 14일(정사) 자욱한 안개가 걷히지 않고 가랑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3월 15일(무오) 강분(絳纈)은 울지 않는데 분시(粉翅)가 먼저 놀라니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낮에는 천둥번개가 쳐 들판의 냇물이 불어 넘쳤다.

3월 16일(기미) 쾌청하였다.

3월 17일(경신) 햇벌이 났다. 향교의 일 때문에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3월 18일(신유) 햇벌이 났다. 통영에 머물렀다.

3월 19일(임술) 구름이 끼어 흐렸다. 저물녘에 향교 임원 이춘욱(李春旭), 강창언(姜昌彦)과 함께 구허치(丘墟峙)⁹⁾로 돌아오니 날이 벌써 저문데다가 비도 내렸다. 대치(大峙)¹⁰⁾에 이르자 캄캄해져서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도선(道善)¹¹⁾ 주점에 이르러 묵고가려고 하니, 짹짹마다 통곡소리가 들리는데 놀라움을 이길 수가 없었다. 곧바로 향교의 종을 시켜 햇벌 한 자루를 얻어오게 하여 비를 맞으며 나왔다. 거운지(巨雲之)¹²⁾에 이르자 불이 다 꺼져버렸다. 바람도 불고 비도 따라 내리니 낭패스런 행장으로 어렵사리 향교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 이미 2경쯤 되었다.

3월 20일(계해) 비가 그쳤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21일(갑자)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성산(省山)의 송씨(宋氏) 노인 부부가 와서 곡하고 그대로 묵었다.

3월 22일(을축)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송씨 노인이 돌아갔다.

3월 23일(병인) 구름이 끼어 흐렸다.

3월 24일(정묘) 이슬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3월 25일(무진) 가랑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26일(기사) 하늘이 맑다가 저물녘에 흐리더니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27일(경오) 따뜻하였다. 이때 여질(癘疾)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3월 28일(신미)

3월 29일(임신) 흐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소월.

4월 1일(계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향교에 머물렀다.

4월 2일(갑술)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머물렀다. <서기 1750년 영조대왕 26년 경오년>

4월 3일(을해) 가끔 흐렸다. 관에서 유림의 청원서로 인해 병영(兵營)에 다음과 같이 논보(論報)하였다. “본현의 유생 이성년(李星年), 이정인(李挺寅), 최석봉(崔錫封) 등 50

9) 구허치: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고개.

10) 통영시 광도면과 도산면에 있는 고개.

11) 통영시 도산면

12) 거운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의 마을로 본래 고성군 동읍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매수동, 거운지 일부를 병합하여 월평리라 해서 철성면(고성읍)에 편입되었다가 1974년 매수, 홍류, 거운 등 3개의 행정 마을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거운지(巨雲池)라는 못이 있어 거운이라는 동명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마을 앞의 들(野)을 거운지(巨雲地) 또는 개운지라 일컫는다.

여 명이 연명으로 올린 정장(呈狀)에, ‘이번 본읍의 유학(幼學) 구봉승(仇鳳升)과 구봉조(仇鳳朝) 등의 7대조인 주부(主簿) 아무개는 바로 진사(進士)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옛날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 성읍의 기와가 무너지는 것에 분개하고 종사가 먼지를 뒤집어쓰는 상황에 통탄하여 아들 아무개, 사위인 전 군수(郡守) 박광춘(朴光春)과 함께 의령(宜寧) 세간리(世干里) 군영으로 의병장인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선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선생께서는 의롭고 가상하게 여겨 편장(編將)을 맡기셨습니다. 부자가 군역에 나가 죽으나 사나 시종일관 힘을 다해 무수히 많은 화살을 쏘아 적을 쓰러뜨리고 적의 수급(首級)을 벤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절(搶攘)이었지만 포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빠르게 제기되었습니다. 선생이 방어사(防禦使)로 있을 때 조정에 상주하고 도원수(都元帥)인 권율(權慄)도 포상을 청하는 계문(啓文)을 올렸지만 상을 받기도 전에 전장터에서 과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의로운 기개에 대한 소문은 지금까지도 마치 어제 일처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뒤는 대대로 후손이 미약하여 마치 망가진 등지속의 위태로운 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유풍은 어지러운 세상(搶桑)에서 다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세상에서는 학교를 귀결처로 삼고 때때로 과장을 따라가야 할 방향으로 삼지만 언행과 문예가 실로 우리 유학의 이름 아래에 있는 선비입니다. 뜻하지 않게 몇해전에 충훈부(忠勳府)의 관문(關文)으로 인해 원종공신(原從功臣) 자손을 찾아 책을 만들 즈음에 무지한 충익(忠翼)들이 사목(事目) 안의 유학(幼學)과 거업(學業)을 따지지 말라고 한 규정을 살피지 못하고 뒤섞어 마감하여 멋대로 상번(上番)에 넣어 평범하게 군에 갔다가 적의 칼에 죽은 자들의 자손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 지역의 많은 선비들이 모두들 원망하여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신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저가난한 사람들을 서캐와 이를 보듯 하여 한 번 공문을 첨부하여 이첩(移牒)하는 것도 이처럼 지체하고 있으니 어찌 의로운 선비가 나라를 위해 죽은 정성을 도리어 선조의 업을 실추시킨 후손의 재앙으로 남긴단 말입니까? 구봉승 등 선조의 집안은 원래 일시적으로 모집한 선비가 아니지만 적을 죽이고 포로를 바친 공적은 관문의 첨부문서에 대략 나타나고, 친족과 인척으로 임진왜란 후의 장적에 수록된 자들을 뚜렷하게 고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안(儒案)에 열거되어 과거장에 출입하는 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도 오히려 변방의 병역을 면할 수 있거늘 하물며 의로운 집안의 여운을 지니고 모래사장의 학이 강에서 낚시한다는 구절을 검비한 데 이겠습니까? 이른바 충익에 이름이 올려진 것은 실로 뜻밖의 환란입니다. 그 집안에서 원통할 뿐만 아니라 먼 지방의 풍속을 격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들은 탄식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거친 말을 내는 것이니, 바라건대 충성을 높이고 즐겁게 생육하는 사또의 치하에서 특별히 외로운 후손을 불쌍하게 여기고 격려한다는 의리를 살피 영문에 논보하되 첨부문서와 함께 이첩하여 처리한다면 많은 선비들에게도 매우 다

행이고 세도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을 이길 길이 없기에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청원서로 아뢰입니다.’ 하였습니다. 비단 많은 선비들의 청원서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현령(縣令)이 또 그 사람을 보니 위의 구봉승 등은 학교에 자취를 의탁하고서 삼가면서 예양하는 모습이 흡사 선비의 풍도를 가지고 있으며, 문장은 아름다워 또한 성장할 희망이 있습니다. 이른바 충익은 세초(歲抄)와 다름없이 당번으로 배를 내야합니다. 당초 조사하여 가려 뽑을 때 유학과 거업은 원래 거론한다는 명령이 없었는데 무지한 충익 무리들이 잘못 뽑아 마감한 일입니다. 구봉승 등은 선조의 공이 이와 같은데 구봉승 등을 곧바로 저들을 따라 또 이렇게 하였으니, 결코 상한이나 충익의 예로서 편성하여 배를 납부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첩보합니다. 사또께서는 참작하시어 이러한 뜻으로 충훈부에 보고함으로써 군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4월 4일(병자) 청량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또 선달(先達) 배한장(裴漢章)이 사위를 맞이하는 곳에 갔다가 돌아왔다.

4월 5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6일(무인)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4월 7일(기묘) 비가 그쳤다.

4월 8일(경진) 청명하였다. 계동(契洞)¹³에 가서 아내를 잃은 선달 박형(朴炯)을 조문하고 임시거처에서 유숙하였다.

4월 9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동에 머물렀다.

4월 10일(임오) 구름이 많이 끼었다. 성중(城中)에서 묵었다.

4월 11일(계미) 빗방울이 떨어졌다. 지난번 병영에 올린 보고에 대한 병영의 회답에 “과연 보고한 대로라면 이러한 실상을 곧바로 해당 부처야 보고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하였다. 그 때문에 직접 해당 부처에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상황을 베끼지 않고 만력(萬曆) 26년(1598, 선조31)과 36년(1608, 선조41)의 일을 덧붙여 쓰고는 발사(跋辭)를 고쳐 ‘많은 선비들의 청원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현령도

13) 계동: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마을로 잣골이라도 한다. 기월마을을 예전에는 계화동(桂花洞) 또는 계동(桂洞), 계동(契洞)이라 불렀다. 계화동이란 이름이 생긴 연유는 이곳에 큰 계수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계수나무 옆에는 또한 어느 부자(富者)의 고택이 있어 계수나무에 꽃이 만발할 때면 주위 풍광이 이를 데 없이 아름다웠다. 인심이 후하던 시절이라 원근 각처에서 찾아온 구경꾼들이 이 부자집에 들려 하룻밤 묵어 가곤 하였다. 식객(食客)이 끊일 날이 없자 이 집 안주인에게 고된거리가 생겼다. 늘상 잔반(殘飯)이 남아 그 처리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식은 찬밥을 주인 식구들이 먹어치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연중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노스님에게 안주인은 넉넉하게 시주를 하고나서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다. “스님, 항상 남아도는 잔반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요?” 그러자 스님이 일러주기를 “개를 한 마리 잡아 옥곡산봉(지금의 마을앞 동산)에 있는 샘에 버리시오, 그러면 찬밥을 먹는 일은 없을 것이오.” 안주인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곧장 실행에 옮겼다. 그후, 스님의 말대로 이 부자집에는 식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부자집의 가산도 차츰 기울어 마침내는 하루 끼니를 잇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 그 스님이 계수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서 계수나무에도 그 후론 꽃이 피지 않았다고 전한다.

보고 살핀 바가 있으니, 구 아무개 등의 세계에 음(蔭)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처럼 옛 자료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종사하여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예양과 문장이 과연 선비들이 사모하는 수준이라면 진실로 충익의 군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거늘 당초 조사하는 뽐을 때 무지한 담당자들이 사목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보고하였습니다. 한번 마감된 뒤에 천 리 멀리 떨어진 바닷가 사람이 신원할 길이 없으니, 이른바 충익으로 당번 베를 납부하는 것은 수륙(水陸) 방군(防軍)의 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 아무개가 원통함을 품은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 사림들이 청원하여 구제해 주기를 바란 것은 형편상 반드시 이르는 바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도리에 있어 군역을 탈급(頒給)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첩보하니, 사또께서는 참작하시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심으로써 탈급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병영에 첩보해 주소서.’ 라는 내용으로 회송하였기 때문에 연유를 첩보하니, 위의 구 아무개 등에게 부여된 충익의 군역을 절대 탈급해 주시어 옛 과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이상의 내용으로 충훈부에 첩정을 보냈다.

4월 12일(갑신) 가랑비가 내렸다.

4월 13일(을유) 구름이 걷혔다.

4월 14일(병술) 가끔 흐렸다.

4월 15일(정해)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4월 16일(무자) 맑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17일(기축) 날씨가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8일(경인)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개였다.

4월 19일(신묘) 해질 무렵에 소낙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4월 20일(임진) 날이 건조하고 잠깐 비가 내렸다.

4월 21일(계사)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22일(갑오) 청량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3일(을미)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24일(병신) 더러는 얇은 구름이 끼기도 했다. 용동(龍洞)¹⁴의 자형이 진시(辰時)에 사망했다고 하니 통곡하고 통곡한다. 가동(可洞)¹⁵의 질부(侄婦)는 이미 19일에 사망

14) 용동: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선조 13년) 김해김씨(金海金氏)가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어 왔으며, 1945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신용리 1구 또는 대릉골이라고도 한다. 대릉골이라 명칭이 붙은 것은 마을 안에 대나무가 무성하여 숲을 이루고 있어 대나무골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대나무가 없어지고 현재는 용동이라 한다. 용동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이곳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용(龍)이 승천하였다하여 용자(龍字)를 따고 동자(洞字)를 붙여서 용동이라 하였다. 조선조중엽 고성현 광남면 용동이라 하다가 1914년 광일면과 광남면을 병합하여 거류면 신용리라 하였고, 194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용리 1구(마동, 용동)라 하다가 1961년 다시 행정구역 조정으로 마동과 용동이 분리되어 용동마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 가동: 고성군 가동면의 내가동 마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대가면에 편입되어 대가면 금산리 가동마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조 초기에는 안씨(安氏)가 입주하여 살면서 안부동(安富東)이

했다고 한다. 한 집안에서 고부(姑婦)의 상이 며칠 사이로 나오니, 어찌 시절의 험함이 이토록 심한 것인가?

4월 25일(정유) 비가 와서 냇물이 흘렀다.

4월 26일(무술) 구름이 끼었다.

4월 27일(기해) 더러 가랑비가 내렸다.

4월 28일(경자) 동운(同雲)¹⁶이 끼었다. 화곡(禾谷) 배소사(裴召史)의 성질이 못 되어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적출(嫡出)인 종형(從兄) 좌수(座首) 배순석(裴舜錫)에게 편지를 썼다. 내용을 대략 다음과 같다. “함께 지낸 지 여러 날 되지 않았지만 벌써 사나운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저물녘 침소에서 조용히 가르치기를 여러 가지로 해보았지만 일상생활이 대부분 색양(色養)의 의리¹⁷를 놓치고, 하루 저녁 지아비에게 음식을 바치며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일인지를 모른 채 죽 쏜 얼굴로 입은 꼭 다물고 있는데, 창틈으로는 바람이 들어오고 상자에서는 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낮춰 떠받드는데도 저는 도리어 통명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마치 악을 쓰는 미친개가 사람을 쫓아오듯 하니 나도 모르게 온 몸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게다가 부엌일을 하는데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이리와 같은 눈과 승냥이와 같은 목소리로 멧대로 욕을 하기를 ”기필코 네 배를 베고 네 창자를 저미고 말 것이다.“ 하였다. 늙은 부친은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식사를 줄이고 늘 눈물을 흘린 채 상처를 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비된 심정이 이미 어떠하겠으며, 자식된 도리가 또 어떠하겠습니까? 가시방석에 앉은 듯하고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몸은 떨리고 마음은 놀라 혼이 나간 듯 뼈가 서늘합니다. 대개 배를 찌거나 배추를 뽑아 버리는 일은 집안사람들의 작은 과실입니다. 그런데도 용납하지 못하고 개를 나무라듯 여중에게 욕을 해대니 부녀자가 자잘한 과실에도 있으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물며 마주앉은 남편조차도 음식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데이겠습니까? 어미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어 삶도 보장하지 못하고 연로한 노친으로 하여금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데이겠습니까? 이처럼 순종적이지도 못하고 자애롭지도 못한데다가 또 효성스럽지도 않으니, 세 가지 큰 악행을 저지른 자를 조금에 집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문에 누를 끼치고 다른

라는 현령(縣令)을 배출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임진란 전에 칠원 제씨인 제말장군(諸沫將軍)이 입주하여 터전을 마련하고 살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많은 의병을 창모(倡募)하여 의병장이 되어 영남 각지에 침략하는 왜적을 섬멸하여 살신구국의 대공을 세웠으며 그 뒤에 함안 조씨(趙氏), 함안이씨(李氏)가 입주하고 일제 때에 진양 하씨(河氏)를 비롯하여 여러 성씨가 입주하여 지금은 9성이 살고 있다.

16) 동운(同雲) : 눈이 내리기 전 온 하늘에 가득히 낀 먹구름을 뜻한다. 《시경》 〈소아(小雅) 신남산(信南山)〉에 “상천(上天)이 일색(一色)으로 먹구름이 낀지라 함박눈이 필필 내리네.[上天同雲 雨雪雰雰]”라고 하였다.

17) 색양(色養)의 의리 : 자식이 낮빛을 화기롭게 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 혹은 자식이 부모의 안색을 살피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자하(子夏)가 효(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색난(色難)’이라고 대답한 데에서 나온 말로, 자식이 즐거운 얼굴색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어렵다는 해설과 부모의 안색을 잘 살피서 봉양을 잘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해설이 있다.

《論語 爲政》

사람들을 놀래킬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우선 편안하게 용서하고 더 성토하지는 마십시오, 저의 송아지 활은 정[舐犢]¹⁸⁾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인해 그와 부부의 연을 끊기로 한 것이니, 바라건대, 날마다 채찍질하여 기필고 고칠 수 있도록 한다면 거의 합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래 건강한 준마의 습성을 지니고 있으니 만약 나아가든 물러나든 행동을 한다면 집에서도 잘못을 고치고 국가에서도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4월 29일(신축) 맑고 햇볕이 났다. 화곡에서 배소사가 돌아오자 집 밖으로 내쫓아 보냈다.

5월 대월.

5월 1일(임인) 청량하고 동풍이 불었다. 내가 직접 화곡의 배소사를 데리고 용전(龍田) 아래까지 전송하고 허 원장(許院長) 댁에서 숙박하였다.

5월 2일(계묘) 구름이 끼었다. 읍에 갔다.

5월 3일(갑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4일(을사) 가끔 구름이 끼었다.

5월 5일(병오) 구름이 많았다. 향교에 들어갔다가 성묘(聖廟)에 들어간 미친 사람을 발견하고 채실 뜰 기둥에 포승줄로 묶어놓았는데 야심한 밤에 포승줄을 풀고 도망쳤으니, 괴이할 노릇이다.

5월 6일(정미) 구름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7일(무신)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8일(기유) 구름이 날렸다.

5월 9일(경술) 서쪽 산에는 비가 오고 동쪽 산에는 해가 났다.

5월 10일(신해) 햇볕이 났다.

5월 11일(임자)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해가 내리쬐었다.

5월 12일(계축) 날이 건조하였다.

5월 13일(갑인) 바람이 서늘하고 날이 건조하였다.

5월 14일(을묘) 저녁에 잠깐 비가 내렸다.

5월 15일(병진) 새벽에 꿈에서 깨니 빗소리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내려 냇물을 불어

18) 송아지 활은 정[舐犢] :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양수(楊修)가 일찍이 조조(曹操)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뒤에 조조가 양수의 아버지 양표(楊彪)에게 왜 그토록 야위었느냐고 묻자, 양표가 대답하기를 “김일제와 같은 선견지명이 없었음은 부끄러우나 아직도 늙은 소가 송아지를 활아 주는 정만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愧無日磾先見之明 猶懷老牛舐犢之愛]”라고 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송아지를 활한다는 것은 곧 자녀를 몹시 사랑하는 부모의 애정을 비유한다. 《後漢書 卷54 楊震列傳》 김일제(金日磾)는 한 무제 때의 재상으로, 무제의 곁에서 총애를 받으며 자란 자신의 큰아들이 궁녀와 희롱하는 것을 보고는 죽여 버린 인물이다.

나게 하고는 그쳤다.

5월 16일(정사) 서풍이 불었다.

5월 17일(무오) 날씨가 위와 같다. 새벽에 월식(月食)이 있었다.

5월 18일(기미) 구름이 날리고 날이 건조하였다. 안세진(安世軫)이 전염병으로 요절하니, 불쌍하다.

5월 19일(경신)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에 머물렀다.

5월 20일(신유)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에 머물렀다.

5월 21일(임술) 구름이 많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2일(계해) 해질 무렵에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3일(갑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24일(을축) 바람이 불었다.

5월 25일(병인)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6일(정묘)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27일(무진) 구름이 날렸다.

5월 28일(기사)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29일(경오) 날씨가 위와 같다. 조정의 명령에 따라 객사에서 학생들에게 소학(小學)을 읽도록 권했다.

5월 30일(신미) 단비가 퍼붓듯이 내려 물의 근원지를 충분히 적셔주었다. 향교에 머물렀다.

6월 소월.

6월 1일(임신) 쾌청하고 서남풍이 불었다. 향교에서 청원서를 올리는 일로 두세 명의 당원들과 함께 통영(統營)에 갔다.

6월 2일(계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통영에 청원서를 올려 본현에 있는 조30석을 향교에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밤에 향교로 돌아갔다.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6월 3일(갑술) 가끔 비가 오다가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6월 4일(을해) 비가 잠깐 개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이 뒷간에서 낙상을 당해 통증이 심하니, 마음 졸이고 걱정스럽다.

6월 5일(병자) 약을 지었다.

6월 6일(정축) 더웠다. 아관(阿觀)이 향교에서 거접(居接)하였다.

6월 7일(무인) 날씨가 위와 같다. 박 의사(朴醫師)가 방문하였다.

6월 8일(기묘) 저녁에 흐렸다.

6월 9일(경진) 비가 와서 개울에 물이 넘쳤다.
 6월 10일(신사) 가랑비가 잠깐 내렸다.
 6월 11일(임오)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12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13일(갑신)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14일(을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6월 15일(병술) 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가끔 그쳤다.
 6월 16일(정해)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6월 17일(무자) 저녁에 비가 내렸다. 아버님의 환후가 조금 나아졌다.
 6월 18일(기축)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6월 19일(경인) 비가 쏟아져 냇물이 불어났다.
 6월 20일(신묘) 비가 오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6월 21일(임진) 비가 내렸다.
 6월 22일(계사) 가랑비가 잠깐 내렸다.
 6월 23일(갑오) 구름이 날렸다.
 6월 24일(을미) 가끔 비가 내리다가 햇볕이 나오다가 하였다.
 6월 25일(병신)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26일(정유) 북쪽 하늘에 우레소리가 들렸다.
 6월 27일(무술)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28일(기해)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29일(경자) 날씨가 위와 같다. 관에서 실시하는 강(講)에 통(通)을 얻은 생도들이 두꺼운 종이 10장을 상으로 받았다.

7월 대월.

7월 1일(신축) 서남풍이 불고 날씨가 더웠다. 임촌포(林村浦)¹⁹⁾에서 생선회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2일(임인)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3일(계묘) 가끔 비가 내렸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19) 임촌포: 경남 고성군하일면 임포마을. 임포(林浦)는 학림리의 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로 수백년 전부터 풍치림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명을 수풀 임(林)자와 개 포(浦)자를 따서 임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마을로 임포와 평촌의 2개 마을이 있다. 임포마을은 자란만의 바닷가에 수백년전에 방풍림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마을 앞 바다 건너에 자란도가 있으며 마을 서쪽의 학림천 주변에 있는 농경지는 경지가 정리된 양질토로서 비옥하며 자란만의 청정해역에는 각종 어패류를 비롯한 수산물의 생산이 풍부한 포구(浦口)로 형성된 지세이다.

7월 4일(갑진) 더웠다.
 7월 5일(을사)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6일(병오) 오후에 가랑비가 잠깐 떨어지더니 몹시 날이 더웠다.
 7월 7일(정미) 갑자기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7월 8일(무신) 매우 더웠다.
 7월 9일(기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7월 10일(경술) 이슬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7월 11일(신해) 저녁에 비가 쏟아졌다.
 7월 12일(임자) 더러 가랑비가 내렸다.
 7월 13일(계축) 구름이 끼었다.
 7월 14일(갑인) 날씨가 위와 같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7월 15일(을묘) 잠깐 비가 내렸다.
 7월 16일(병진) 아침에 잠깐 비가 쏟아졌다. 창가에서 매화를 보며 심정을 담아 소용천(蘇凝天)²⁰ ‘수척한 아내[瘦妻]에 관한 시’에 다음과 같이 화운하였다.

지난번 이별이 꿈이던가 생시던가	向來離別夢耶眞
만사는 꽃과 같아 묵은 자취가 되었네	萬事如花迹已陳
세상 밖의 아름다운 인연이 또 맺히니	世外佳人緣又結
새로운 정 혹 이어져도 옛정이 친밀하네	新情尙續舊情親

또

세상 밖의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인가	世外佳人子是眞
아리따운 말로 묵은 인연 꺾려하네	嬌辭如欲跪敷陳
향기는 황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서	香魂不負黃昏約
홀연 창가에 이르러 인연을 맺는구나	忽到窓前許結親

7월 17일(정사)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
 7월 18일(무오) 동풍이 불었다.
 7월 19일(기미) 비로 인해 물이 불어 밭이 수재를 입었다.
 7월 20일(경신) 又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20) 소용천(蘇凝天) : 소용천(1704~1760)의 호는 춘암(春庵), 본관은 진주(晉州)로, 금마면 출신이다. 문명(文名)이 높고 서예에도 능했다. 성격이 호탕하여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국내 명승지를 주유하며 음풍영월(吟風?月)로 일생을 마쳤다. 호탕한 성격이어서 생전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문집 《춘암유고(春庵遺稿)》 필사본 7권6책이 전해진다.

7월 21일(신유) 갑작스런 비가 수시로 내렸다.

7월 22일(임술) 바람 불고 해가 나는 것이 위와 같다.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7월 23일(계해) 잠깐 비가 내리더니 더워졌다.

7월 24일(갑자) 잠깐 비가 내렸다. 송정(松亭) 산소의 백호(白虎) 땅에 어떤 무인이 과녁을 세웠으므로 형제들이 가서 곧바로 제거하였다.

7월 25일(을축) 떠다니던 구름이 비를 뿌렸다.

7월 26일(병인) 더웠다.

7월 27일(정묘)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28일(무진)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29일(기사)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30일(경오)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소월.

8월 1일(신미) 서남풍이 불고 저녁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8월 2일(임신) 가랑비가 내렸다.

8월 3일(계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때 생선이 매우 귀해 가난한 사람들이 칼등을 두드리며[彈鋏]²¹⁾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8월 4일(갑술)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8월 5일(을해) 맑았다. 지난 달 20일 경에 광이(光二) 범법당(凡法堂) 장좌동(壯佐洞)²²⁾의 남녀 13명이 창포(倉浦)²³⁾의 시장에 가기 위해 좌하천진(佐火川津)²⁴⁾에 도착하였다. 나룻배는 통영의 신은(新恩) 김유재(金有載)의 소유였지만 짐이 냄새가 나서 못쓰게 될까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13명이 시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여 물이 새는 배를 얻어 타고 가다가 중류에서 물이 새어 들어와 배가 난파되어 물에 익숙한 2

21) 칼등을 두드리며[彈鋏]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사람 풍환(馮驩)이 맹상군(孟嘗君)의 식객(食客)으로 있을 때 좌우로부터 천시를 받아 제공받는 음식이 초라하자 그가 칼등을 두드리며 “장협아, 돌아가야겠다. 밥에 고기가 없구나. [長鋏歸來乎 食無魚]”라고 하며 불편한 심정을 노래했던 고사가 있다. 《戰國策 齊策 4》

22) 장좌동: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壯佐里) 마을. 동해면 소재지에서 구절산(九節山)의 구절령과 철마산(鐵馬山)의 철마령을 경계로 반대편에 위치한, 면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법정리(法定里)로 본래 포도면(葡萄面)의 지역으로써 장자골 또는 장좌곡(壯佐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상장동, 중장동, 하장동과 광이면(光二面)의 선동(仙洞) 일부를 병합하여 동해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진왜란 때 중국 명나라에서 귀화한 무장 총장공 천만리(千萬里)를 기리는 사당이 있다. 행정리로는 우두포(牛頭浦), 상장(上狀), 하장(下壯), 구학포(九鶴浦)의 4개 마을이 있다.

23) 창포: 경남 창원시 합포구 창포.

24) 좌하천진: 경남 고성군 동해면 좌부천(佐夫川). 좌부천(佐夫川)이란 동명은 임진왜란 때 당항포해전 시에 본 마을이 전략상 요새지(要塞地)로 방어 및 보급기지가 되어 이때 마을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의병(義兵:일명 대장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여 좌부(佐夫)라 하였고, 또한 마을 앞바다가 내(川)와 같이 생겼다 하여 좌부천이라 명칭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명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나머지는 모두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 ○ 당동(堂洞) 사람이 회현(會賢) 해변에서 소금을 구웠다. 하루는 도도암(閭屠庵) 중이 밖에서 나룻터로 왔는데, 뱃사공이 병으로 누워 배를 저을 사람이 없었다. 그 중이 갇힌 한 켄레를 주면서 부탁하자 당동 사람이 마침내 허락하였다. 중의 요청대로 강을 건너다가 중류에 이르러 가벼운 노에 맞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 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이익을 쫓다가 죽은 것이다.

8월 6일(병자) 날씨가 더웠다. 아버님의 환후가 조금이 차도가 없으니, 마음 졸이고 걱정되는 심정을 말로 다할 수 없다.

8월 7일(정축)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8일(무인)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비가 내렸다.

8월 9일(기묘) 이슬비가 내렸다.

8월 10일(경진)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11일(신사)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8월 12일(임오) 찌는 듯이 더웠다.

8월 13일(계미)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더웠다. 이날 아버님의 환후가 매우 위중하여 여러 자녀와 손자들이 다 모였다. 이날 밤 술시(戌時) 말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때 하늘이 맑고 달은 밝았다. 초상(初喪)에 정명열(丁命說), 정하중(丁夏中), 김상연(金尙演)이 죽을 준비했다. 염(斂)을 하는데 길이 3자 6치 반, 넓이 6자 2푼, 높이는 위와 같게 하며, 관(棺)은 길이 3자 9치 7푼, 넓이 1자 1푼으로 하였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나와 있는 베의 길이를 가지고 한 것이다.

8월 14일(갑신) 더위가 한여름 같았다. 습(襲)을 하고 빈소(殯所)에 음식을 차렸다. 정재장(丁再章)이 관을 만드는 목수의 밥을 준비했다. 정명열, 정창윤(丁昌胤), 정하명(丁夏明), 추영재(秋永才), 김상연이 각각 한 상씩, 두포(頭浦)²⁵⁾의 매형댁에서 두 상을 마련했다.

8월 15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저녁에 관을 들어 청(廳)에 봉안하였다.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빈소 설치를 끝냈다.

8월 16일(병술) 구름이 날리고 날씨가 더웠다. 저녁에 성복(成服)을 하였다.

8월 17일(정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누이들과 조카들이 각자 돌아갔다.

8월 18일(무자)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8월 19일(기축) 구름이 끼었다.

8월 20일(경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8월 21일(신묘) 비가 쓸쓸하게 내렸다.

8월 22일(임진) 닭이 처음 울 무렵에 일어나 세 번 울기를 기다려 제사를 지냈다. 이

25) 두포(頭浦):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마을. 일명 머릿개라고 한다.

때 동풍이 기세를 부리더니 찬비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내렸다. 동쪽에서 해가 뜰 무렵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더니 식후에 광풍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천지를 뒤집을 듯 하고, 나무가 부러지고 지붕이 뒤집어져 죽이고 치며 다 없애는 변고와 다를 바가 없었다. 식후부터 빈소를 지키며 나무를 들여 지탱하였으나 바람 앞에서는 마치 공중에 있는 집과 같았다. 형제와 여러 조카들, 온 가족이 바람과 비를 맞아가며 사방 모퉁이에 개미처럼 붙어 겨우 빈소가 전복되는 상황을 모면하였다. 저물녘에 비가 걷히고 바람이 잠잠해졌다. 사람들이 난리를 겪은 뒤와 같았으니, 나도 모르게 통곡하였다. 이날. 밤에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았다.

8월 23일(계사) 농사가 크게 피해를 입었다.

8월 24일(갑오) 잠깐 비가 내렸다. 시달(時達)에 가서 지사(地師) 정성행(丁聖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5일(을미)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8월 26일(병신) 날씨가 위와 같다. 바람에 쓰러진 벼가 빗물에 잠겨 싹이 나오니 농사가 실망스럽다.

8월 27일(정유) 약간 구름이 끼었다. 도선(道善) 길에서 지사 정성행을 만나 갈산(葛山)에 들어갔다.

8월 28일(무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갈산에 머물렀다.

8월 29일(기해) 맑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대월.

9월 1일(경자) 구름이 조금 끼고 해가 많이 나왔다. 지사 정성행(丁聖行)과 함께 산에 올라 두루 터를 살펴보고 내려왔다.

9월 2일(신축) 비가 그치지 않았다. 곡식에 싹이 트니 농부들이 모여 한숨을 내쉬었다.

9월 3일(임인)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그쳤다. 형제와 조질(朝姪), 재종 정창래(丁昌來)가 지사와 함께 포도산(葡萄山)²⁶에 갔다가 장기(場基)²⁷의 박씨 집에서 묵었다.

9월 4일(계묘) 비가 내렸다. 포룡산(抱龍山)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9월 5일(갑진) 날씨가 위와 같다. 연화산(蓮花山)에 올라갔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26) 포도산: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소재한 구절산으로 높이는 570m이다. 곡산(曲山)이라고도 했다. 봉수대가 있었다. 동해면을 예전에는 포도도(葡萄島)라 했다.

27) 장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지 마을.

9월 6일(을사) 따뜻하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9월 7일(병오) 비가 내렸다. 형님이 진해(鎭海)에 가서 황우집(黃遇鑣)을 만나 장례일을 택일할 계획이다. 시가[市直]가 조금 줄어 중벼[中稻]는 13말 반, 쌀은 5말 혹은 5말 반이다.

9월 8일(정미) 따뜻하였다. 형님이 집으로 돌아왔다.

9월 9일(무신) 날씨가 위와 같다. 내가 통영에 가서 장례일을 택일하였다.

9월 10일(기유) 해질 무렵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대로 통영에 머물렀다.

9월 11일(경술) 장례일을 택일하고 돌아왔다.

9월 12일(신해) 구름이 끼었다. 아관(阿觀)이 사천(泗川)에 갔다.

9월 13일(임자) 저녁에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9월 14일(계축) 따뜻하였다.

9월 15일(갑인) 날씨가 위와 같다. 지사(地師)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6일(을묘) 비가 내렸다.

9월 17일(병진) 따뜻하였다. 아관이 돌아왔다.

9월 18일(정사) 안정사(安靜寺)²⁸에 올라서 유숙하였다. 임아(臨阿)가 갈곡(葛谷)에 갔다.

9월 19일(무자) 지사 정성행(丁聖行)이 왔다. 외동(外洞)의 최 상인(崔喪人)이 왔다.

9월 20일(기미) 따뜻하였다. 지사와 함께 포도산(葡萄山)에 갔다가 돌아왔다.

9월 21일(경신) 지사와 함께 벽방산(碧芳山) 곤룡(坤龍)에 갔다가 내려왔다. 최 상인과 동행하였다. 저녁을 먹은 뒤에 지사가 최 상인의 요청을 받아 외동(外洞)에 갔다.

9월 22일(신유) 정 지사가 또 왔다.

9월 23일(임술) 따뜻하였다. 또 대동(垞洞)의 산소에 가서 임좌(壬坐: 남남동향) 언덕으로 묘터를 정하고 오후에 지사 정성행과 대둔(大屯)에 갔다.

9월 24일(계해) 청량하였다.

9월 25일(갑자)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9월 26일(을축) 아관(阿觀)을 진주(晉州)와 사천(泗川) 사이에 사는 점쟁이 집에 보냈다.

9월 27일(병인) 따뜻하였다.

9월 28일(정묘)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29일(무진)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이 점쟁이 송씨를 만나 다음달 26일 묘시(卯時)를 길일을 정하고 왔다.

9월 30일(기사) 날씨가 위와 같다. 당시 좌수 허검(許黔) 집안 가묘(家廟)에 도적이 들

28) 안정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벽방산에 있는 사찰로 현재 의상암, 가섭암, 은봉암 등 3개의 암자가 있다.

어 신주를 꺼내 진흙탕에 버렸다고 하니, 괴이하다.

10월 대월.

10월 1일(경오) 인간(寅艮, 북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 시가 [市直]가 조(租) 13말, 쌀 5말이다. 농사가 이미 흉년으로 판가름 났지만 시가는 오히려 변동이 없으니 괴이하다. 소금이 귀해 쌀 3되로 소금 2되를 살 수 있고, 조 1되로 소금 3되를 살 수 있었다. 과일도 특히 귀해 큰 감은 전 1문(文)에 2개를 살 수 있고, 조금 큰 배 1개의 값은 1전(錢)이었다. 말린 감 상품 1첩(貼)은 8, 9전 혹은 1냥 정도까지 하였다.

10월 2일(신미) 북풍이 갑자기 서늘하였다. 굴조개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읍 앞의 아차(阿次) 등의 포구에 다녀왔다.

10월 3일(임신)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4일(계유) 동북풍이 불었다.

10월 5일(갑술) 찬 구름이 비를 몰고 왔다.

10월 6일(을해) 서풍이 불었지만 그다지 춥지 않았다.

10월 7일(병자) 북풍이 서늘하였다.

10월 8일(정축)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9일(무인) 따뜻하였다. 임아(臨阿)가 도망간 여종 옥단(玉丹)을 잡아 왔다.

10월 10일(기묘)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11일(경진)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12일(신사) 구름이 날렸다.

10월 13일(임오)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이었다. 오시(午時)에 뗏자리를 뗏다. 재종 정창래(丁昌來)가 5일부터 병을 얻었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니 참혹하고 슬프다. 오늘 개토할 때 선산에 아울러 고유(告由)하였다. 태질(泰姪)이 술잔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가문이 흉악한 재앙을 입어 갑자기 조부에게 미쳤습니다. 지난 8월 13일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기를 ‘천년의 유택(幽宅: 무덤)을 선산 근처에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지사를 청해 선영을 살피게 하였더니 길옆에 옛 무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땅을 살피 무덤을 파면 오래전에 죽은 옛사람들의 해골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어 마침내 선영 좌측의 임좌(壬坐) 언덕을 길지를 잡았습니다. 곧바로 주산(主山) 임해룡(壬亥龍) 아래에 별도로 하나의 구멍을 만들었는데 선영 위의 구덩에서 나온 줄기가 갈라지는 옆이었습니다. 풍수가 길하고 형세도 기묘하기에 지금 길일을 잡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세상의 부자지간으로 사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만나 기쁨을 나누었으니, 지극한 부자간의 정리를 보건대 혼령도 편안하게 여기는 곳일 듯합니다. 부디 높으신 영령께서는

특별히 음덕을 내려 후환이 없게 하시고 길이 만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15일(갑신) 따뜻하였다.

10월 16일(을유)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17일(병술) 짙게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걷혔다. 이날 여섯 마리 소를 끌고 월치(月峙) 아래의 자해석(自解石)을 묘소로 옮겼다. 안정사(安井寺)에 갔다가 묘터를 닦는 곳을 지나 돌아왔다.

10월 18일(정해) 조금 따뜻하였다. 또 황토 40섬을 산소 아래로 옮겼다.

10월 19일(무자) 밤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종들을 산소에 보내어 흙을 쌓게 하고, 금정(金井)을 열었다.

10월 20일(기축) 매우 따뜻하였다. 무덤을 파고 흙을 채웠다. 대개 산소에 부은 자해석과 황토가 모두 12섬이었다. 지사에게 와 주기를 청하였다.

10월 21일(경인)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10월 22일(신묘) 묘터의 일을 시작하였다. 저녁에 가랑비가 잠깐 지나갔다.

10월 23일(임진)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개었다. 묘터를 닦는 데 갔다.

10월 24일(계사) 새벽에 비가 잠깐 지나갔다.

10월 25일(갑오) 하늘이 맑다가 저물녘에 비가 갑자기 내리자 앉아있던 손님들이 어수선하게 일어났다. 잠시 후에 곧바로 개고 구름이 사라졌다.

10월 26일(을미) 축시(丑時)에 발인(發引)하고 묘시(卯時)에 하관(下棺)하였다. 성산(省山)의 망인(亡人) 송소사(宋召史)도 이날 축시에 파빈(破殯)하고 묘시에 입관(入棺)하였다. 동시에 선영 아래에 하관하였다. 이날 만장(挽章)을 베껴 썼다.

지상의 신선이 천상의 신선이 되었으니	地上仙爲天上仙
마침내 무슨 말로 슬픈 편지를 쓸까	竟將何語寫哀牋
금초관 ²⁹⁾ 을 쓰고 큰 충애를 받아 해로하고	金貂寵極偕老處
보배로운 나무 ³⁰⁾ 가 복된 밭에 줄을 잇네	寶樹芳聯種福田
지난번 벽계단 ³¹⁾ 의 일은 꿈이 되고 말았으니	往事鷄壇成一夢

29) 금초관(金貂冠) : 황금당(黃金璫)과 초미(貂尾)로 장식한 관으로, 높은 품계의 관원을 뜻한다.

30) 보배로운 나무 :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자질(子姪)들에게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묻자, 조카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데서 유래한 말로, 훌륭한 자제가 많음을 뜻한다.

31) 벽계단(碧溪壇) : 닭 모양으로 생긴 벽옥(碧玉)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단이다. 한나라 선제(宣帝) 때 어떤 방사(方士)가 “익주(益州)에 말 모양으로 생긴 금과 닭 모양으로 생긴 벽옥이 있어 이미 신물(神物)이 되었으니,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가져와야 한다.”고 하자, 선제가 당시에 간대부(諫大夫)로 있던 왕포(王褒)를 파견하여 익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가져오게 하였다. 《漢書 卷64 王褒傳》

슬픔을 참으며 흰 깃발로 삼천³²⁾을 여네
끝내 가서 도기 잡고 관을 부여안고 통곡하니
새로 생긴 무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堪悲鶴旆啓三泉
終邁執斧麾棺哭
悵望新阡涕泪漣

시생 안락(安樂) 이명기(李命杞)

스스로 인척되어 서로 따르면서
늘그막까지 덕과 은혜 우러렀네
세상에 살면서 마음 진정 간절하여
나이 잊은 깊은 인연 과연 굳세었네
뜰 앞 옥나무는 인의 보답이고
당상의 은사는 성인이 높이는 바이네
중뢰연³³⁾을 끝낸지 오늘이 얼마이던가
그때 축수한 것이 해가³⁴⁾가 되었네

自添姍末始相隨
仰德承恩及暮衰
處世臻情真切切
忘年深契果僣僣
庭前玉樹仁之報
堂上銀獅聖所推
宴罷重牢今幾日
薤歌完似壽爲時

시생 진양(晉陽) 후인 강성주(姜聖周)

생전에 즐거움이 사후에 슬픔이 되니
청안³⁵⁾으로 만날 날 다시 없으리
직접 상여줄 잡지 못하니 슬픔이 어찌 끝이 있으리
후일에 지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야지

生前歡笑死後悲
青眼相逢更無時
身未執紼情何極
他年冥榻細話宜

문성(文城) 후인 류천정(柳天禎)

화악의 신선이 학을 타고 올라가니
금광은 해동가에서 부질없이 늙었네
뜰에서는 효도가 부족하다며 삼천갑을 부르고
여인들은 아흔번의 봄이 길다 원망하네

華嶽仙人駕鶴辰
金光虛老海東濱
庭號孝短三千甲
閨怨年長九十春

32) 삼천(三泉) : 무덤 속을 가리킨다. 《사기》 권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진 시황의 무덤을 만드는 것을 말하면서 “삼천까지 뚫고 들어가 구리를 녹여 붓고 그 속에 관을 넣었다. [穿三泉 下銅而致棺]” 하였다.

33) 중뢰연(重牢宴) : 회혼연(回婚宴)으로, 결혼한 지 61년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34) 해가(薤歌) : 만가(挽歌)이다. 해(薤)는 부추 종류인데 사람의 목숨이 부추 앞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35) 청안(青眼) : 다정한 눈길이라는 뜻이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속된 사람을 만나면 백안(白眼) 즉 흰 눈자위를 드러내어 경멸하는 뜻을 보이고, 의기투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안 즉 검은 눈동자로 대하여 반가운 뜻을 드러낸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簡傲》

오래 살았으니 황천객이 된 걸 탄식하리오
세상에서 대부의 몸이 되었네
한쌍의 지란 이슬에 젖어 창포에 가득하니
넉넉한 녹이 있어 가난하지 않으리라

壽域肯嘆黃壤客
世間曾作大夫身
雙蘭浥露餘蓀滿
厚祿於公不爲貧

시생 진양(晉陽) 강창언(姜昌彦)

구십 년 세월이
틈새로 지나가는 망아지 같구나
그 안에 오복이 있으니
공은 얻었다 하리
중죄연이 끝나자
다시 천작을 띠었네
자손에 집에 가득하니
남은 경사 보답하네
보잘것없는 내가
함께 출입하였는데
가르침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니
서리 속 국화 함께 본지 몇 해던가
병이 갑자기 위독해져
이렇게 속히 데려가시나
오늘 상여줄을 잡으니
슬픔을 누를 수 없네
벽 위를 돌아보니
활집에 먼지가 쌓였네
옛날을 추억하니
난정³⁶⁾의 묵은 자취로다
새벽달에 통곡하니
저승과 이승은 영원히 떨어져있네
몇 줄 글을 올리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 이야기를 다 꺼내네

九十光陰
如駒過隙
這裡五福
公可謂得
重牢宴罷
更帶天爵
子孫滿堂
餘慶攸酢
顧我無似
同所出入
不屑承誨
幾年霜菊
一疾遞劇
奪我斯速
執紼今日
悲不自抑
回看壁上
塵生弓匣
緬憶疇昔
蘭亭陳迹
痛哭曉月
幽明永隔
數行哀泪
討盡心臆

36) 난정(蘭亭): 중국 절강성 회계현 산음(山陰) 지방에 있던 정자이다. 왕희지가 명사 42인과 함께 상사일(上巳日)에 회계산(會稽山)의 난정(蘭亭)에 모여서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쫓는 계사(禊事)를 행하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는데, 왕희지가 지은 <난정기(蘭亭記)>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밀성(密城) 박용서(朴龍瑞)

향년 여든에 홀연히 떠나가니
옛날의 풍모는 꿈임을 탄식하네
몇 줄 애사를 지어 영결을 고하니
늙은 인생 옷자락에 눈물을 적시네

享年八耄忽云亡
嘆惜風儀入夢場
數句哀詞成永訣
暮天殘日淚沾裳

시생 문성(文城) 류광춘(柳光春)

지금 공의 소박한 경사를 누가 견주리
구십 평생 지상의 신선이었네
장수하여 중죄연을 한 이 세상에 드무니
뜰 가득 난옥은 모두 면과³⁷처럼 이어지리

今公朴慶孰能肩
九十終年地上仙
天爵重牢前世罕
滿庭蘭玉摠瓜綿

시생 완산(完山) 최석경(崔錫慶)

참 신선은 속세에 머물려 하지 않아
새벽에 맑은 하늘로 영거타고 갔네
학은 날아 구름 낀 먼 요양에 있는데
봉래 바다에 자취를 거두었네
영화로운 이름은 수역에 전해지고
일월은 유독 한적하게 무덤을 비추네
난옥은 뜰 가득 오이덩쿨처럼 이어지니
인생살이 오복 중 누가 이에 비하리

眞仙不欲下界居
曉向晴天駕靈車
鶴遠遼陽雲烟在
宴收蓬海杖履餘
榮名留耀傳壽域
日月偏閑照玄廬
蘭玉盈庭如瓜瓞
人寰五福孰比諸

사위 문성(文城) 류동춘(柳東春)

상여를 보내며 곡을 하고 슬퍼하니
인간세상 생사의 길 누리기 어렵네
인간만사 남은 여한 없으리니
종손이 자식을 대신함에 눈물 흘리네

將賀靈輻哭改悲
塵寰難饒死生期
人間萬事無餘恨
應淚宗孫代子儀

37) 면과(綿瓜) : 면면과질(綿綿瓜瓞)의 준말로, 오이 덩굴이 끝없이 뻗어나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뜻한다. 《詩經 大雅 綿》

합천(陝川) 이방영(李邦榮)

도산에 치우쳐 사는 대로이고
위연하게 오늘을 사는 옛 사람일세
신령스런 거북은 신으로 변했음을 알리고
상서로운 봉황은 성은이 순박함을 전하네
옛날에 장수하는 자리에서 꽃이 춤을 추었는데
만사로 오늘 저녁에 돌아가는 상여를 전송하네
애사에 마음 속 한을 다 담지 못하니
긴 밤은 아득하여 몇 번이나 새벽을 맞으려나

僻在道山是大老
巍然今世古之人
靈龜卜得神方化
瑞鳳含傳聖渥淳
花舞昔年迎壽席
薤歌今夕送歸輪
哀詞不盡心中恨
長夜迢迢幾日晨

사위 문성(文城) 류천구(柳天龜)

저승길 멀고머니 얼마나 위험하던가
세상사람 한 번 떠나면 모두들 슬퍼하네
공으로도 이러한 행차를 하게 되니
천하에 신선 없는 것 또 마땅치 않네

泉路重重幾險危
世人一去摠爲悲
以公猶有斯行色
天下無仙不亦宜

시생 분성(盆城) 허전(許銓)

장수하는 것은 하늘의 봄이요
회혼은 세상에 드문 바이네
영거에 붉은 깃발 달았으니
적송자³⁸가 돌아간줄 누가 알리

齒爵天之春
回婚世所稀
靈輻丹旌下
誰識赤松歸

안락(安樂) 이동만(李東晩)

서리바람 소슬하게 붉은 깃발에 날리니
한 곡조 만사를 불러야 할 때라네
아들 있고 손자 있는데 장수까지 하였으니
이번 행차 위로해야지 슬퍼하면 안 되리

霜風蕭苾吹丹旌
一曲薤歌欲發時
有子有孫兼有壽
此行宜慰不宜悲

38) 적송자(赤松子) : 고대 전설상의 선인이다. 장량(張良)이 유방(劉邦)을 도와 한(漢)나라를 세운 뒤에 권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적송자와 노닐기 위해 벽곡(辟穀)과 도인(道引) 등 신선술을 닦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시생 파산(巴山) 이무징(李鷓徵)

화봉의 삼축³⁹을 누군들 바라지 않으리
원한 자는 많으나 얻은 자는 드무네
공은 이미 그것을 잡고 신의까지 겸하니
하늘이 내린 은덕이 또 어찌 이리 큰가

華封三祝孰無希
願者雖多得者稀
公既綏之兼信義
自天恩爵又何巍

시생 파산(巴山) 이익징(李鷓徵)

장수하고 부유하고 자식 많고 장수하니
중퇴연의 자리는 신선의 이름을 차지하네
지금 행차 천지에 유감이 없으리니
한 조각 붉은 깃발 무덤에 빛나리

壽富多男爵又榮
重牢宴席擅仙名
今行天地無餘憾
一片丹旌耀舊塋

시생 파산(巴山) 이영징(李鷓徵)

우리 공은 진정 지상의 신선이니
적송자와 부구백⁴⁰이 다 허명이네
효주에서 정성껏 금단을 바치니
하늘이 은혜를 내려 옥패를 펴려이네
못을 두르고 잔치 열리니 회혼일이고
다시 주묵을 이루니 가솔을 거느릴 때이네
도원의 봄 모두 이치 아님이 없으니
부정에 남아 글 올리고 궤연에 나아가네

嗟我公眞地上仙
赤松丘伯摠虛焉
孝廚誠供金丹鍊
天階恩推玉佩翩
一宴瑤池回燭日
再成朱墨挈家辰
桃源春盡無非理
留鳥阜亭卽几筵

공이 지금 여기에서 떠나니
응당 우리 선인을 찾아가리
어찌 황천의 일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일진을 얻게 하리

公今從此去
應訪我先人
安以泉垵事
爲吾得一陳

39) 화봉(華封)의 삼축(三祝) : 화(華) 땅에 봉해진 사람이 요(堯) 임금에게 장수를 누리고 부를 지니고 많은 아들을 낳으라는 세 가지의 송축을 올리자, 요 임금은 거절하기를 “장수하면 욕되는 일이 많고 부자가 되면 하는 일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니, 이런 것들은 다 덕을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데서 나온 성어이다. 《莊子 天地》

40) 부구백(浮丘伯) : 옛 선인(仙人)인데, 혹은 황제(黃帝) 때 사람이라 하고, 혹은 주 영왕(周靈王) 때 사람이라고도 하며, 혹은 한(漢) 나라 초기 사람이라고도 한다.

시생 파산(巴山) 이봉징(李鳳徵)

세상에선 아들 많고 장수하고 부자라 하는데
관직은 통정대부에 올랐도가
솔바람 차가운 달 친구들과 함께 하니
한 폭의 붉은 깃발 오복이 풍성하네

俗號多男壽富翁
官啣通政大夫公
松風霜月親朋裡
一幅丹旌五福豐

천성은 순박하고 근실하며
집에서는 효도하고 어질었네
지금은 내가 통곡할 때이니
세의가 가장 많이 이르렀네

天性純而謹
家聲孝與仁
此辰吾所慟
世誼最相臻

파산(巴山) 이호징(李虎徵)

삼가 당숙께서는
세상에 보기 드문 복을 누리
부부가 해로하고
중죄연을 맞이했으며
자신은 장수하고
성은은 망극하였네
어느날 저녁 닭의 꿈(41)을 꾸고
세상을 이리도 빨리 버리십니까
진짜도 아니고 꿈도 아니니
통곡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외로운 조카 살피지 않고
갑자기 사백을 통곡하니
망연자실한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恭惟堂叔
世所罕福
夫婦偕老
重牢成的
身帶天爵
一夕鷄夢
厭世斯速
非眞非夢
痛矣何及
不省孤侄
奄哭舍伯
惘然女失
莫知所薄

41) 닭의 꿈 : 죽을 조짐을 말한다. 《진서(晉書)》 제79권 사안전(謝安傳)에, “사안이 병이 위독해지자 구슬프게 부모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환온(桓溫)이 있었을 적에 내가 항상 온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홀연히 꿈에 환온의 가마를 타고 16리를 가다가 흰 닭 한 마리를 보고는 꿈을 깨었습니다. 환온의 가마를 탄 것은 그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고, 16리를 간 것은 지금이 그의 자리를 대신한 지 1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흰 닭은 유(酉)를 주관하는데, 지금의 태세(太歲)가 유(酉)입니다. 그러니 저의 병은 아마도 낫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오호라 영령께서는	嗚呼惟靈
멀리 떠나려 하시니	遠歸將迫
황천길 바라보며	幸望泉路
집안 소식 알리리다	報家消息
이 밤이 지나면	過此厚夜
영원토록 이별이라	千古永訣
붉은 깃발 펄럭이니	丹旌翩翩
목이 메여 참기 어렵습니다	難抑嗚咽
애사를 다하니 눈물이 흐르고	詞盡泪下
청산은 찢어질 듯 합니다	靑山欲裂
옛집을 돌아보니	回看古宅
하늘엔 차가운 있습니다	空留霜月

이성 당질(堂侄) 의창(義昌) 정창윤(丁昌胤)

구슬 바다 선인 복숭아는 이미 열매 맺었는데	瑤海蟠桃已結子
우선은 말을 돌려 표연히 떠나셨네	羽仙回駕去飄然
마고가 빈 단 향해 눈물 흘리니	麻姑泣向虛壇立
함께 하며 속세의 허물 벗지 못함이 유감이네	恨未携据共蛻蟬

완산(完山) 후인 최기전(崔起全)

일포제(日晡祭)⁴²를 지냈다. 매형 류천귀(柳天龜)가 제문을 올렸다. 널을 옮기며 제사를 지냈다. 매형 류동춘(柳東春)이 제문을 올렸다. 발인제(發引祭)를 지냈다. 조카 류문경(柳文經)이 제문을 올렸다. 제문을 올리며 잔을 올린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 갈곡(葛谷)⁴³의 사돈집에서는 김하추(金夏秋), 김준망(金俊望), 박유장(朴有章)이 제문을 올렸다.

23일 묘터를 닦을 때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매형 이국신(李國臣)이다. 22일 묘터를 닦을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정재장(丁再章)이고, 술을 제공한 사람은 안수(安秀), 정창윤(丁昌胤), 정개남(鄭介男), 이수만(李守萬), 정하명(丁夏明)이다. 23일 술을 제공한 사람은

42) 일포제(日晡祭) : 발인(發引) 전에 영결(永訣)을 고하는 제사로, 조전(祖奠)을 말한다.

43) 갈곡: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마을. 갈천리는 본래 대둔면(大屯面)의 지역으로써 내(河川)가 갈라져 있다 하여 "갈내" 또는 "갈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에 중생(宗生)마을을 병합하여 대가면 갈천리(법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외갈(外葛)과 내갈(內葛), 중생(宗生)마을이 있다.

한득량(韓得良), 박원재(朴元才), 이진대(李進太), 김준망(金俊望)이다. 장례를 지낼 때 모인 손님들에게 저녁을 제공한 사람은 매형 이국신으로, 하루치의 밥까지 제공하였다.

초상(初喪)에 부의(賻儀)한 사람들이다. 이진성(李進成) 장지(壯紙) 5장, 향교(鄉校) 짚으로 만든 자리[草席] 1립(立), 보학소(補學所) 백지(白紙) 1묶음과 자리 1립, 이오좌미(李五佐味) 황촉(黃燭) 1자루, 갈곡(葛谷) 사돈집 풀솜[雪綿子] 1꾸러미, 피마(皮麻) 1묶음, 사위 이유춘(李囿春) 목화(木花) 4근(斤)과 백지 1묶음, 전기룡(田起龍) 피마 1묶음과 백지 1묶음, 고읍(古邑) 사돈집 자리 1립과 백지 10장, 피마 2묶음, 은어 20마리, 박계림(朴桂林) 목화 1근, 만화당(萬和堂) 백지 1묶음, 자리 1립, 윤상징(尹商徵) 백지 1묶음, 정재장(丁再章) 피마 1묶음. 갈곡에서 또 참깨[眞荏] 3되와 들깨[水荏] 3되를 보냈다. 양무당(養武堂) 백지 1묶음, 자리 1립, 집사청(執事廳) 백지 1묶음, 자리 1립, 가섭암(迦葉庵) 선옥대사(禪玉大師) 홍시 30개, 중 극민(克敏) 홍시 100개, 곡산(曲山) 정평금(鄭平金) 석류 5개, 홍시 5개, 백미(白米) 1말, 이유춘(李囿春) 백문어(白文魚) 2마리, 생문어(生文魚) 5마리, 참깨 1말, 생닭 1마리, 이재첨(李再瞻) 살아있는 생선 6마리, 김진원(金進元) 수박[西果] 1개, 오류(五榴) 6개, 생밤 1되, 金順昌, 홍시 5개, 석류 5개, 구석주(仇碩柱) 들깨 1말, 김하석(金夏石) 백미 2말, 누룩[曲子] 一元, 생닭 1마리, 장의암(壯義庵) 홍시 20개, 배석장(裴石長) 석류 3개, 김중구(金重九) 유자(柚子) 4개, 최준망(崔俊望) 생닭 1마리, 윤만첨(尹萬瞻) 유자 9개, 표고(藥古) 1홉(合), 구세항(仇世恒) 생선 5마리, 한득량(韓得良) 백지 1묶음, 안정사(安井寺)의 중 찬식(贊湜) 백지 1묶음, 꿀[清密] 3홉, 중명선(明善) 홍시 六개, 모과[木瓜] 4개, 전(錢) 1전(錢), 중 국찬(國贊) 전 2전(錢), 표고 5홉, 중 찬기(贊機) 황촉(黃燭) 1자루, 류천정(柳天禎) 돈 4전(錢), 중 섭경(攝敬) 백미 5도(刀), 석류 5개, 생밤 30개, 청광(淸光) 양명세(梁命世) 백미 1말, 말린 밤[乾栗] 1되, 통영(統營) 김일태(金一泰) 유자 5개, 질녀 허순(許珣) 말린 감 1접, 대소(大召) 1되, 김익중(金益中) 백문어 1마리, 정하중(丁夏中) 백미 1말, 박후발(朴後發) 생닭 1마리, 김삼득(金三得) 옹기 2립(立), 전 2전(錢), 남초(南草) 1다발, 박담미(朴淡未) 생닭 1마리, 류광춘(柳光春) 백미 1말, 유자 4개, 정창백(丁昌百) 남초 1다발, 이문재(李文梓) 홍시 5개, 김하석(金夏石) 맑은 장[淸漿] 1병, 배준도(裴浚度) 백미 1말, 생닭 1마리, 이선창(李善昌) 생닭 1마리, 한독동(韓禿同) 생닭 1마리, 김노성(金老成) 석류 10개, 곡산(曲山) 전만이(全萬伊) 석류 10개, 류행춘(柳行春) 백미 1말, 김한우(金漢佑) 백미 1말, 이방열(李房悅) 생닭 1마리, 담근 감[沈柿] 4개, 석류 3개, 윤빙국(尹聘國) 백미 1말, 생선 4마리, 이국삼(李國森) 백미 1말, 백순건(白順健) 백미 1말, 조카 이정호(李挺虎) 대구(大口) 1마리, 윤평로(尹平老) 백미 1말, 생닭 1마리, 김백겸(金伯謙) 생닭 1마리, 강일복(姜一復) 백미 1말, 최석경(崔錫慶) 생밤 1도(刀), 향(香) 3조각, 정진수(鄭晋秀) 백미 1말, 담근 감 15개, 이득춘(李得春) 담근 감 30개, 강도희(姜道羲) 생닭 1마리, 정인찬(鄭仁贊) 생닭 1마리, 황순태(黃順太) 백미 1말, 이동기(李東杞) 유자 5개, 이이춘(李利春) 황촉 1쌍, 유

자 6개, 강위빙(姜渭聘) 백미 1말, 최세구(崔世九) 백미 1말, 백명흡(白命翁) 백미 5되, 백과부(白寡婦) 정씨(鄭氏) 백미 1말, 이덕수(李德秀) 대구 1마리, 이만정(李萬禎) 백미 1말, 박응준(朴膺俊) 유자 5개, 생닭 1마리, 허여한(許汝漢) 대구 1마리, 김일세(金日世) 백미 1말, 김광옥(金光玉) 백미 1말, 김익흥(金益興) 백미 1말, 강섬(姜暹) 백미 1말, 최희징(崔希徵) 말린 해삼[乾海蔘] 1꼬치. 손만의(孫萬宜) 생밤 1되, 석류 4개, 와동(瓦洞) 종매(從妹) 최 과부(崔寡婦) 전 4전(錢). 오후에 조질(朝侄)과 함께 먼저 모시고 반혼(返魂)한 뒤에 돌아와 곧바로 초우(初虞)를 행했다.

10월 27일(병신) 온화하였다. 용동(龍洞) 매형의 장례일이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우리 집안의 형제와 자식, 조카들이 가서 보지 못한다면 정의로 볼 때 서운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재우(再虞)를 지냈다. 조문객에 대해 별도 목록을 실었다.

10월 28일(정유) 매우 따뜻하였다. 임시로 삼우(三虞)를 행한 뒤에 형님이 임아(臨兒)와 함께 도선(道善)과 병미포(井未浦)의 산소에 가서 용동의 매형 장례를 보았다. 이날 오후에 서쪽에 구름이 점점 일더니 저녁이 되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매형 류동춘(柳東春)이 또 삼우를 지낼 때 제문을 올렸다.

10월 29일(무술) 구름이 걷히고 흠비가 내려 흐렸다. 추기: 장례시 집안에 마련된 물품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떡 만들 쌀[餅米] 17말, 술 빚을 쌀[酒米] 25말, 죽 만들 쌀[酒粥米] 2말, 두부 만들 콩[造泡太] 2말 5도(刀), 흰수수쌀[白糖米] 5도, 국수 만들 메밀[麵木麥] 1말, 묘태(苗太) 2말, 관을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造棺手價] 전 1냥 6전, 성복(成服)할 때 쓸 제사 비용 5전, 제사 물품에 쓸 돈 5전, 제사에 입을 옷 1벌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마포(麻布) 값 전 1냥 1전 8푼, 심의(深衣) 1벌을 마련하는데 드는 전 1냥, 방랍(方笠) 전 4전, 평량랍(平涼笠) 전 9푼, 흠포(欵布) 전 1냥, 5전, 다진 고기[切肉] 전 1냥 1전, 임리(荏梨) 전 1냥, 제수용 소 값 2냥 2전, 지사(地師) 1냥, 하관포(下棺布) 15자 값 6전, 다양한 생선 전 3냥 8전 6푼, 사발(沙鉢) 2죽(竹), 중발(中鉢) 1죽, 대접 1죽, 전 5전 2푼. 제수 물품을 형님댁에 더 보냈는데 전 9전, 술을 빚을 쌀 4말, 떡 만들 쌀 1말이다. 조카 봉조(鳳朝)의 집에서 술 빚을 쌀 3말, 떡 만들 쌀 1말, 백문어 1마리, 명태(明太) 5마리, 홍합(紅蛤) 1꼬치, 전복(全卜) 2개, 말린 감 2꼬치를 보냈다.

10월 30일(기해) 서북풍이 불어 낙엽이 어지럽게 날렸다. 형제, 조카들과 함께 묘소에 가서 성묘하였다.

11월 대월.

11월 1일(경자) 서북풍이 불고 하늘이 맑았다. 졸곡제(卒哭祭)를 지냈다. 식후에 읍에 가서 술과 음식으로 지사(地師)와 장례 때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정규(李挺奎)가 그의 부친의 병환 때문에 성주(星州) 집쟁이 팔일(八

日)을 찾아가 집을 보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일(신축) 하늘이 맑았다.

11월 3일(임인)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오후에 천둥이 쳤다. 박사문(朴思文)이 방문하고 돌아갔다.

11월 4일(계묘) 북풍이 불었다. 지사 정성행(丁聖行)을 만나고 돌아왔다.

11월 5일(갑진) 오후에 비가 오다가 밤이 깊어진 후에 구름이 사라졌다. 허영(許瑛)이 방문하고 돌아갔다.

11월 6일(을사) 싸락눈이 내렸다.

11월 7일(병오) 매우 추웠다. 아관(阿觀)이 사천(泗川)에 갔다. 나는 지사(地師)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계동(契洞)에 숙박하였다. 이날 균세사(均稅使)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진해(鎭海)에서 와서 본현에 들어갔다.

11월 8일(정미) 따뜻하였다. 재종 정창윤(丁昌胤)과 함께 지사를 만나 산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9일(무신) 흐리고 흠비가 내렸다. 죽은 재종 정창래(丁昌來)의 효행에 관하여 문장(文狀)을 작성했다. 정 지사(丁地師)와 함께 월치산(月峙山)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11월 10일(기유) 춥지 않았다.

11월 11일(경술) 따뜻하였다. 시가[市直]가 쌀 5말, 정조(正租) 11말, 대구 1마리 값이 전 15문(文) 혹은 12, 13문이다.

11월 12일(신해) 저녁에 비가 내렸다.

11월 13일(임자) 이슬비가 내렸다. 또 재종 정창래(丁昌來)의 효행에 관하여 향중 사림들의 문장을 작성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선한 사람을 포상하는 것은 국가의 성대한 은전이고, 선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향리의 좋은 풍속입니다. 선이 있는데도 아래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위에서 선행을 들을 길이 없고, 선행을 듣고도 위에서 포상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선행을 권면할 길이 없으니, 이 때문에 저희들이 향중의 의견을 들어 일제히 호소하고 선창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개 본현에 살았던 죽은 유학(幼學) 정창래는 궁벽한 마을에서 태어나 특별히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있게 하였으며, 이웃친척에게는 온화하게 대했고 향당(鄉黨)에서는 의(義)로써 처신하여 모든 행동이 다 옛날 선인의 모범[柯則]⁴⁴⁾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으로 남들이 잘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다들 칭송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지난 계축년(癸丑年) 대흥년이 들었던 해 봄 3월에 온가족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병으로 죽을 지경이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떨어뜨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연장시켰습니다. 또 그 어머니가 뒤이어 죽을 지경이

44) 가칙(柯則) : 표준, 전범(典範) 또는 귀감. 도끼로 도끼자루 감을 벨 때는 자기가 잡고 있는 도끼자루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말이다. 《시경(詩經)빈풍(邠風) 벌가(伐柯)》

되자 다시 다른 손가락을 잘라 회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영원히 이별하는 날이 되자 부모에 대한 망극한 심정을 조금 뚫으니, 아, 이 사람이 과연 먼 바닷가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3년 동안 상중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슬퍼 몸을 상하면서 상례와 제례를 제대로 하여 정성과 예법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두 명의 어린 아우를 사랑해 길러 부모가 살아 계실 때보다 정이 더욱 돈독하였으며, 각자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는 차마 형수(荊樹)도 나누지 못하여⁴⁵⁾ 종신토록 함께 살며 한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낸 지극한 효성과 떳떳한 양심은 실로 우리들이 보고 흥기해야 할 점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 한 고을의 백성들과 선비들이 돌아가며 현부(縣府)와 영문(營門,)에 청원서를 올려 고작 음식물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선행을 포상하는 은전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한데 불행하게도 한달 전에 우연히 정창래가 죽으니 나이 겨우 47세입니다. 애석합니다. 이 사람이 이미 효성스럽고 어진데도 과연 장수하지 못하고 또 수문이 없단 말입니까? 아,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면 누군들 남의 자식이 아니겠으며, 누군들 자식된 직분을 다하고 사람의 도리를 수행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창래처럼 제대로 효도하고 우애하며 예가 있고 의로운 사람을 고금의 서적과 역사서에서 찾더라도 실로 많이 얻기는 어렵습니다. 혹 효행의 일이 다 없어지게 된다면 장차 누가 백성들을 격려하겠습니까? 한 고을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니 탄식을 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효성으로 다스리는 성주(城主)께서는 특별히 깊은 골짜기에 핀 향기로운 꽃을 따다가 깊은 구덩이에서 우는 학의 울음⁴⁶⁾을 밝힘으로써 한편으로는 지하에 있는 님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바닷가의 백성들을 권면한다면 세도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하고 향풍에 있어서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또 영성군(靈城君)에게 청원서를 올리고자 하여 마지막 부분을 고쳤다. ‘몇 년이 되었습니다’ 아래를 다음과 같이 고쳤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합하께서 직접 어명을 받들어 멀리 시골에까지 오셨으니, 이는 바로 향리의 좋은 풍속을 알 수 있고, 국가의 성대한 은전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특별히 깊은 골짜기에 핀 향기로운 꽃을 따다가 깊은 구덩이에서 우는 학의 울음을 밝히소서.”저녁에 구름이 흩어지고 바람이 불어 추웠다.

11월 14일(계축) 춥지 않았다.

45) 차마 …… 못하여 :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함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 전진(田眞)이란 사람의 형제 세 사람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고 나니, 당전(堂前)에 자형수(紫荊樹) 한 그루만이 남았으므로, 세 사람이 이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의 하고, 다음날 그 나무를 자르려고 가 보니, 나무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있었다. 그러자 전진이 크게 놀라 아우들에게 말하기를 “나무가 본디 한 그루인데 장차 쪼갬다는 말을 듣고 이 때문에 말라 버린 것이니, 우리는 나무만도 못하다.” 하고, 다시 그 나무를 베지 않기로 하니 나무가 그 즉시 잎이 무성해졌다. 형제들이 거기에 감동하여 다시 재산을 합해서 삶으로써 마침내 효우(孝友)의 가문이 되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續齊諧記》

46) 깊은 …… 울음 : 《시경》 〈학명(鶴鳴)〉에 “학이 구고의 늪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鶴鳴于九臯 聲聞于天]” 하였는데, 이는 은거하는 군자의 덕이 멀리까지 알려지는 것을 비유하였다.

11월 15일(갑인) 저녁에 비가 내렸다.

11월 16일(을묘) 가끔 비가 내리더니 해질 무렵에는 천둥이 쳤다.

11월 17일(병진) 이 서방이 왔다. 대구를 1냥 값으로 23, 24마리를 살 수 있었다. 거제(巨濟)의 여러 섬에서는 3~40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하였다.

11월 18일(정사) 새벽에 꿈을 꾸었다. 아버님이 다룡동(多龍洞)의 눈을 감독하러 가는 데 따라가 물길을 살피는 내용이었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11월 19일(무오) 맑았다.

11월 20일(기미)

11월 21일(경신) 몹시 추웠다. 교촌(校村)⁴⁷에서 타작을 감독하였다. 조(租) 22말로 2냥을 사들였다.

11월 22일(신유) 갑자기 비가 내렸다.

11월 23일(임술) 매우 따뜻하였다.

11월 24일(계해) 자야(子夜: 자시(子時)로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에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다가 천둥번개가 쳤는데 축지는 않았다.

11월 25일(갑자) 추웠다.

11월 26일(을축) 날씨가 위와 같다.

11월 27일(병인) 그다지 춥지 않았다.

11월 28일(정묘)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11월 29일(무진) 추위가 심했다. 이날 새벽에 무너로 하여금 죽은 두 부인의 옷장을 태우게 하여 귀신에게 알렸다.

11월 30일(기사)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어 추웠다. 이유춘(李圉春)이 왔다.

12월 소월.

12월 1일(경오) 동풍이 갑자기 불다가 그쳤다. 이 서방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난리를 겪은 뒤에 고성(固城), 거제(巨濟), 웅천(熊川)에 추가 설치한 소모사(召募使)와 육진(六鎭)을 혁파하고자 하여 순중군(巡中軍)이 내려왔다.

12월 2일(신미) 북풍이 불고 몹시 추웠다. 남촌진(南村鎭)의 아전이 와서 진의 형편에 관한 글의 초본을 써주기를 청하고 갔다.

12월 3일(임신)

12월 4일(계유) 몹시 추웠다.

12월 5일(갑술) 매우 추웠다.

12월 6일(을해) 날씨가 위와 같다. 관찰사 민백상(閔百祥)이 어제 본현에 왔다가 오늘

47) 교촌: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예전의 향교(鄕校)가 자리한 마을이라 해서 교동(校洞)으로 불린다.

통영으로 갔다.

12월 7일(병자) 추웠다.

12월 8일(정축) 그다지 춥지 않았다. 승아(升阿)가 개인적으로 저축한 돈 7냥을 가지고 결보리[皮牟] 6말이 생산되는 김상연(金尙演)의 밭을 매입하였다.

12월 9일(무인) 조금 따뜻하였다.

12월 10일(기묘)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11일(경진) 날씨가 위와 같다. 정 상인(丁喪人) 집에서 뗏자리를 폈다.

12월 13일(신사) 날씨가 위와 같다. 관아(觀阿)가 사천(泗川)에서 돌아왔다.

12월 14일(계미) 따뜻하였다.

12월 15일(갑신) 날씨가 위와 같다. 재종 정창래(丁昌來)를 안장(安葬)하였다.

12월 16일(을유)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17일(병술) 북풍이 불고 갑자기 추웠다.

12월 18일(정해) 동풍이 불었다. 본현의 사또가 거상(居上)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호가 절도에 마땅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다.[耆好宜節, 善治本優]”는 것이었다.

12월 19일(무자) 찬비가 밤새 내렸다.

12월 20일(기축) 구름이 끼었다. 군포(君浦)의 딸아이가 비단 버선 한 켤레를 만들어 보냈다.

12월 21일(경인)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어 흐렸다. 고읍(古邑)의 며느리 신행이 밤에 집에 도착하였는데 중간에 위태로운 상황을 꽤 있었다.

12월 22일(신묘) 비가 내렸다. 신행의 일행이 돌아가지 못했다.

12월 23일(임진) 따뜻하였다. 지나가던 손님이 돌아왔다. 관에서 조정의 명령에 따라 중인과 서인들을 군역에 충원시키기 위해 조사하였다.

12월 24일(계사) 한 고을의 중인과 서인들에 대해 다 서류를 만들어[捧疤]⁴⁸⁾ 한 사람도 군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다. 그 때문에 나는 어제 읍에 머물면서 중인과 서인들이 군역에 충원되는 것을 보았다.

12월 25일(갑오)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6일(을미) 읍에 들어갔다.

12월 27일(병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8일(정유) 춥고 눈이 내렸으며 날씨가 몹시 매서웠다.

12월 29일(무술) 북풍이 갑자기 불고 날씨가 조금 추웠다. 이날 집안 창고에 있는 곡물을 조사하니 조(租) 16섬 15말, 쌀 4단지였다. 올해 농사가 처음에는 가뭄에 피해를 보고 또 장마비에 피해를 입더니 또 홍수에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바람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는데 혹 벌레로 인한 손실도 있었다. 초가을 시가는 쌀 5말 반이던 것이 겨울에

48) 서류를 만들어[捧疤] : 봉과(捧疤)는 얼굴 모양과 그 특징을 적는 서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는 4말, 조 10말이었다. 논곡식의 출하가 많아도 30말에 불과하지만 천상(天上)의 멍쌀 [稻米] 출하는 조금 많았다. 밭곡식은 원래 제대로 익은 것이 없었다. 본현의 수령이 병으로 감영(監營)의 행차를 하지 못하고 보고하는 데에도 부지런히 하지 않아 조금 수확이 있는 고을[稍實邑]에 들어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환곡을 받는 날이 되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거나 수확물에 대신 부과하는 등 난리통 같아 도망치거나 흩어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한 것에 대해 조사하여 바로잡는 정사를 향임(鄕任)에게 위임하니 옥석이 함께 불타 길에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비방하였다. 청어(靑魚) 4마리 값이 1전(錢), 대구 22, 23마리 값이 1냥이었는데 지금은 그 값으로 14, 15마리밖에 살 수가 없었다. 생선과 소금을 통해 얻는 이익은 전적으로 균역청(均役廳)과 통제사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중광 협흡(重光協恰)⁴⁹⁾ 신미년(1751년 영조27)

1월 대월(大月). 1일 기해. 9일 입춘절. 24일 우수 월중.
 2월 소월(小月). 1일 기사. 9일 경칩절. 24일 춘분 월중.
 3월 대월. 1일 무술. 10일 청명절. 25일 곡우 월중.
 4월 소월. 1일 무진. 11일 입하절. 26일 소만 월중.
 5월 소월. 1일 정유. 13일 망종절. 29일 하지 월중.
 윤5월 대월. 1일 병인. 15일 소서 육절(六節). 25일 초복.
 6월 소월. 1일 병신. 대서 월중. 17일 입추 7월절.
 7월 소월. 1일 을축. 3일 처서 월중. 19일 백로 8월절.
 8월 대월. 1일 갑오. 5일 추분 월중. 21일 한로 9월절.
 9월 대월. 1일 갑자. 6일 상강 월중. 21일 입동 10월절.
 10월 대월. 1일 갑오. 5일 소설 월중. 20일 대설 11월절.
 11월 소월. 1일 갑자. 5일 동지 월중. 20일 소한 12월절.
 12월 대월. 1일 계사. 5일 대한 월중. 20일 입춘 정월절.

1월(경인) 대월(大月).

1월 1일(기해) 북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1월 2일(경자) 조금 따뜻하였다.

1월 3일(신축) 저녁에 따뜻하였다.

49) 중광 협흡(重光協恰) : 고갑자(古甲子)로, 중관은 신(辛)을 가리키고, 협흡은 미(未)에 해당한다.

1월 4일(임인)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5일(계묘)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6일(갑진) 추웠다.

1월 7일(을사) 춥고 흐렸으며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읍에 갔다가 돌아왔다.

1월 8일(병오) 비가 내렸다.

1월 9일(정미) 맑았다.

1월 10일(무신) 구름이 끼어 흐렸다.

1월 11일(기유) 찬비가 종일 내렸다.

1월 12일(경술) 새벽에 눈이 내렸다.

1월 13일(신해) 몹시 추웠다.

1월 14일(임자)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15일(계축)

1월 16일(갑인) 이상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17일(을묘) 몹시 추웠다.

1월 18일(병진) 청명하였다.

1월 19일(정사) 약간 흐렸다. 갈곡(葛谷)의 사형(査兄) 박태중(朴泰中)이 어제 방문했다가 오늘 임아(臨兒)와 함께 사천(泗川)으로 갔다. 내가 남문 안까지 전송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임아는 따로 살았다.

1월 20일(무오) 흐리고 가끔 햇볕이 나왔다. 오늘 관에서 여역귀(癘疫鬼)에게 제사를 지냈다.

1월 21일(기미) 맑고 온화하였다.

1월 22일(경신) 구름이 걷혔다.

1월 23일(신유) 밤 자시(子時)에 잠깐 비가 내렸다.

1월 24일(임술) 맑고 추웠다.

1월 25일(계해) 약간 흐리다가 저물녘에 맑았다.

1월 26일(갑자) 구름이 끼어 흐리고 매우 추웠다.

1월 27일(을축) 바람 부는 날의 추위가 매우 혹독하였다. 옷이 얇은 자는 감히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1월 28일(병인) 날씨가 어제처럼 매우 춥고 또 눈꽃이 날렸다.

1월 29일(정묘) 추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30일(무진) 북풍이 불고 춥고 구름이 끼었다. 밤에 바람소리가 더욱 심하여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올봄의 추위는 근래 없던 것이다.

2월 소월(小月).

2월 1일(기사) 축간(丑艮, 북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 한기가 뼈에 스며들었다.
 2월 2일(경오) 북풍이 불고 갑자기 추워졌다.
 2월 3일(신미) 날씨가 위와 같다. 읍에 갔다가 그곳에 머물렀다.
 2월 4일(임신) 비가 내렸다. 그대로 읍에 머물렀다.
 2월 5일(계유) 읍에 머물렀다.
 2월 6일(갑술)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렸다. 읍에 머물렀다.
 2월 7일(을해) 북풍이 불고 약간 흐렸지만 날씨는 조금 따뜻하였다.
 2월 8일(병자) 집으로 돌아왔다.
 2월 9일(정축) 따뜻하였다. 읍에 가서 환자(還上)를 받았다.
 2월 10일(무인) 온화하였다.
 2월 11일(기묘)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2월 12일(경진) 비가 내렸다.
 2월 13일(신사) 청명하였다. 큰 아이가 정내서(丁來瑞), 조카 이승룡(李升龍)과 함께 대전(大殿)에 존호(尊號)를 올린 경사를 축하하는 전문(箋文)의 집사로 통영에 갔다.
 2월 14일(임오) 저녁에 비가 내렸다.
 2월 15일(계미) 아침에 비가 그쳤다.
 2월 16일(갑신)
 2월 17일(을유)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읍에 머물렀다.
 2월 18일(병술) 구름이 날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9일(정해) 춥지 않았다.
 2월 20일(무자)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갈산(葛山)⁵⁰의 매형집에서 둘째 사위를 맞이하였다.
 2월 21일(기축)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2월 22일(경인) 새벽에 비가 오다가 아침에 갠으나 밤에 다시 흐려졌다.
 2월 23일(신묘) 비가 내렸다.

50) 갈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마을을 예전에 갈촌, 갈산이라 불렀다. 같이 많았다 하여 갈산이라 하였는데 건너편 송산리에 송정마을이 있어서 소가 갈을 뜯어먹기 때문에 이 마을이 가난해 진다하여 후에 용산(龍山)으로 고쳤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조일촌 지내동을 병합하여 용산리라 하여 거류면에 편입되었다. 지금부터 약 500 여 년 전 1462년(선조 7년)에 성주 배씨(星州裨氏)가 처음 입주하여 오호촌(烏呼村)이란 마을을 만들었으며 그후 백씨(白氏), 강씨(姜氏), 김씨(金氏)가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1662년(현종(玄宗) 3년)에 갈촌(葛村)으로 개칭하였으며 1850년(철종 2년)에 용산리로 개칭하고 이씨(李氏), 조씨(趙氏)가 입주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고, 특히 이 마을 내에 과거 동피라고 전해지는 동피가 현재 마을 앞에 있다. 마을에 많은 가구가 늘어나 180여호가 되어 단일 마을로서는 호수가 너무 많아 1979년 용산 1구, 용산 2구로 분동되어 행정도 분리하여 관리해오다가 1995년 12월 다시 용산 1구, 용산 2구를 합동하여 용산마을로 개칭되었다. 거류면의 단일 마을은 화당, 거산, 용산 마을이 있다.

2월 24일(임진)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5일(계사) 낮에 서풍이 불고 잠깐 비가 내렸다.

2월 26일(갑오)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이었다.

2월 27일(을미) 약간 햇별이 났다.

2월 28일(병신) 산머리에 가랑비가 내렸다. 이서방이 어제 와서 계속 머물렀다.

2월 29일(정유) 서북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어 비가 오려고 하였다.

3월 대월.

3월 1일(무술) 동풍이 불고 몇 점 눈이 내렸다.

3월 2일(기해) 따뜻하였다.

3월 3일(경자) 날씨가 위와 같다. 이 서방이 계속 머물렀다.

3월 4일(신축) 맑고 온화하였다. 이서방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고읍(古邑)⁵¹⁾의 며느리가 작년 여름부터 임신한 듯하였는데 지금 벌써 산달을 넘기고 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 너무도 괴이하였다. 아관(阿觀)을 진해(鎭海)의 의사 박범석(朴範錫)에게 보냈다.

3월 5일(임인)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아관이 진해에서 돌아왔다.

3월 6일(계묘) 비가 그쳤다. 큰 아이가 팔진(八鎭)에 갔다.

3월 7일(갑진) 흐렸다. 큰 아이가 돌아왔다.

3월 8일(을사) 저녁에 산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3월 9일(병오) 온화하였다. 팔진(八鎭) 장인의 외거노비가 진주(晋州) 북면(北面) 동물곡리(冬勿谷里) 기동촌(基洞村)에 살고 있는데 외손인 정태성(鄭泰省)과 정태삼(鄭泰三) 등에게 횡탈을 당한 사실이 지금에서야 드러났다. 그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출발하여 갈곡(葛谷)에 묵었다.

3월 10일(정미) 따뜻하였다. 말 타고 대탄(大灘)을 건너 진양읍(晋陽邑)을 지나 의곡령(義谷嶺)을 넘어 기동(基洞)에 들어가 처남 박동욱(朴東郁)을 만났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여종인 귀대(貴代)의 남편 이백지(李白只)의 집이었다. 그대로 머물렀다.

3월 11일(무신) 구름이 끼어 흐렸다. 종과 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계속 이백지의 집에 머물렀다. 식후에 진주관에 갔지만 송사를 끝내지 못했다.

3월 12일(기유) 맑았다. 계속 머물렀다.

3월 13일(경술) 흐렸다. 또 진주관에 갔는데, 진주 목사는 안극효(安克孝)인데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다고 할 만하였다.

3월 14일(신해)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3월 15일(임자) 날씨가 위와 같다. 진주 목사가 부모의 병환을 이유로 오늘 새벽에 본

51) 고읍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마을.

가로 출발하였다.

3월 16일(계축) 새벽부터 서풍이 심하게 불더니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3월 17일(갑인) 쾌청하였다. 새벽에 방장산(方丈山) 머리에 눈이 하얗게 내린 것을 보았다. 처남 박동욱이 감영으로 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황류진(黃柳津)을 건너 갈곡(葛谷)에 묵었다. 덕비(德婢)와 금노(今奴)가 마침 그때 왔다.

3월 18일(을묘) 맑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구름이 끼었다.

3월 19일(병진) 약간 흐리다가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20일(정사)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21일(무오) 비가 쏟아졌다.

3월 22일(기미)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23일(경신) 저물녘에 또 비가 내렸다.

3월 24일(신유) 비가 오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3월 25일(임술) 약간 흐렸다.

3월 26일(계해)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3월 27일(갑자) 어둑어둑하였다.

3월 28일(을축)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3월 29일(병인) 흐렸다.

3월 30일(정묘)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절구 4수를 지어 관에 올려 조사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풍자하였다.

천리 밖 고을은 쓸쓸한데	一千里外邑蕭條
임금을 그리고 백성을 걱정하느라 귀밑머리 쉬려 하네	戀闕憂民鬢欲焦
자산 ⁵²⁾ 은 어찌 모든 이들을 건너주려 하였던가 ⁵³⁾	子產安能人盡濟
나루터에 무지개 다리 걸리기만 바랄뿐	渡頭惟望駕虹橋

또

바닷가의 창생은 모두 일개 생물이라	海國蒼生等介鱗
부지런히 내 몸만 이롭게 할 생각뿐이네	孳孳一念利吾身

52) 자산(子產) : 춘추 시대 정(鄭)나라의 현대부(賢大夫)인 공손교(公孫僑)를 말한다.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룰 적에 외교 정책을 잘 펼쳐서 약소국인 정나라가 그 사이에서 무사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가 죽자 공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의 유애(遺愛)라고 평한 고사가 전한다. 《春秋左氏傳 昭公20年》

53) 자산이 정나라 국정을 잡고 있을 때 진수와 유수 지역 사람들이 어렵게 강물을 건너 다닌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수레를 활용하여 진수와 유수를 건너도록 해 주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정자산은 백성들에게 작은 은혜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孟子 離婁 下》

밝은 조정은 백성의 송사를 판가름하는데
모래사장의 학은 낚싯배에서 옛사람을 증명하네

明庭可判筠民訟
沙鶴釣舡證古人

또

외로운 학은 모래사장에서 오랫동안 즐고
외로운 피꼬리는 골짜기를 벗어나려 하지 않네
거위와 오리 사리에서 낮게 나니
깃털이 다른줄 누가 알리

獨鶴眠沙久
孤鶯出谷遲
低飛鵝鴨裡
誰識羽毛奇

또

낚싯배는 여전히 닻줄에 매여 있으니
언덕의 학은 몇 번이나 울었던가
석호 마을⁵⁴ 앞길에서
밤에 개 짖는 소리 수치스럽구나

釣舡猶繫纜
阜鶴幾時鳴
石壕村前路
羞聞夜犬聲

이때 향중 명문가의 집 소속으로 밖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과 중인, 서인의 무리들이 모두 선무군관(選武軍官)과 봉수감고(烽隊監考)의 침탈을 받았는데 우리집은 거기에서 벗어났다.

4월 소월.

4월 1일(무진)

4월 2일(기사) 이상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4월 3일(경오) 따뜻하고 햇별이 났다. 대왕대비전하(大王大妃殿下)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경사로 인해 사문(赦文)이 내려왔다.

4월 4일(신미) 비가 내렸다.

4월 5일(임신) 쾌청하였다.

4월 6일(계유) 약간 흐렸다.

4월 7일(갑술) 온화하였다. 운곡(雲谷)의 생원(生員) 박증윤(朴增潤)이 조문하러 왔다

54) 석호(石壕) 마을 : 석호는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진(鎭) 이름으로, 두보(杜甫)의 시 '석호리(石壕吏)'에, "저물어서 석호촌에 투숙하니, 한밤중에 사람 뒤지는 아전이 있네[暮投石壕村 有吏夜捉人." 하였다. 석호리는 두보가 석호 마을을 지나다가 이 마을의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벼슬아치를 보고 그 정상을 읊은 시이다.

가 그대로 머물렀다.

4월 8일(을해) 햇볕이 났다. 박 생원이 돌아갔다.

4월 9일(병자)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밤에 비가 쏟아졌다.

4월 10일(정축) 가랑비가 내렸다.

4월 11일(무인) 구름이 흩어졌다.

4월 12일(기묘) 비가 내렸다.

4월 13일(경진) 약간 흐렸다.

4월 14일(신사)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15일(임오) 서남풍이 불더니 저녁이 되자 동풍이 불었다. 이 서방이 왔다.

4월 16일(계미) 가끔 비가 내렸다. 이 서방이 돌아갔다.

4월 17일(갑신) 가랑비가 내렸다. 조금 햇볕이 났다.

4월 18일(을유) 서풍이 불었다.

4월 19일(병술) 동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4월 20일(정해) 서남풍이 불었다.

4월 21일(무자) 맑고 온화하였다. 시가[市直]가 조(租) 7말, 쌀 3말이다. 그러나 시중의 곡물은 희귀해서 백성들의 굶주림이 이미 심했다.

4월 22일(기축)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23일(경인) 용동(龍洞)에 갔다. 해질 무렵에 구름이 끼어 흐렸다.

4월 24일(신묘) 저녁에 비가 내렸다. 이날은 용동 자형의 첫 기일이었다. 제사를 지낸 뒤에 소질(泰侄)과 항질(恒侄)이 먼저 돌아가고 나는 그대로 머물렀다.

4월 25일(임진) 빗물이 도랑에 넘쳤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6일(계사)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4월 27일(갑오) 맑고 온화하였다. 큰아이가 영창(營倉)에서 분배하는 환곡 조 10섬을 돈으로 바꾸고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8일(을미) 찌는 듯이 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9일(병신) 질게 구름이 끼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다. 보리밭에 메뚜기가 매우 많아 사람들이 놀라 떠들썩하였다.

5월 소월.

5월 1일(정유) 동풍이 불고 구름이 많이 끼었다. 일식(日食)이 있었다.

5월 2일(무술)

5월 3일(기해) 이상 날씨가 구름이 끼어 흐렸다.

5월 4일(경자) 약간 흐렸다. 마을의 생원(生員) 생원 안서구(安瑞壽)가 79세인데 숙병

으로 오늘 세상을 떠났다.

5월 5일(신축) 흙비가 내렸다.

5월 6일(임인) 바람이 불고 흙비가 내렸다.

5월 7일(계묘) 날씨가 위와 같다. 안정사(安靜寺)의 중 법징(法澄)의 기재(基齋)에 갔다가 돌아왔다.

5월 8일(갑진) 구름이 끼어 흐렸다.

5월 9일(을사) 서풍이 잠깐 불었다.

5월 10일(병오) 비가 내렸다.

5월 11일(정미)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걷혔다.

5월 12일(무신)

5월 13일(기유)

5월 14일(경술) 이상 날씨가 서풍이 불고 하늘이 맑았다.

5월 15일(신해) 동북풍이 불다가 더러 서풍이 불었다.

5월 16일(임자)

5월 17일(계축)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18일(갑인) 하늘이 맑고 날씨가 더웠다.

5월 19일(을묘)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20일(병진) 양기(陽氣)가 심하지 않았다.

5월 21일(정사)

5월 22일(무오)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3일(기미) 오전에 가랑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흩어졌다. 사흘 동안 비가 내렸지만 도랑에 빗물이 흐르지 않았다.

5월 24일(경신) 다시 흐리더니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5일(신유) 갑자기 우레가 치더니 비가 내렸다.

5월 26일(임술) 구름으로 동쪽으로 흘렀다.

5월 27일(계해) 날씨가 위와 같다. 근래 비가 부족해 이앙이 매우 어렵다.

5월 28일(갑자) 저녁에 비가 충분히 내렸다.

5월 29일(을축) 식후에 비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졌다.

윤5월 대월.

윤5월 1일(병인)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없어지고 동풍이 나뭇잎에 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지난 25일부터 옆구리가 당기는 병이 생기니, 마음 졸이고 걱정스럽다.

윤5월 2일(정묘)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윤5월 3일(무진) 습한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큰아이를 보내어 처방을 받아 오게 하였다.

윤5월 4일(기사) 구름으로 동쪽으로 흘렀다. 의사를 맞이하였다.

윤5월 5일(경오) 하늘이 맑고 날씨가 더웠다. 의사가 돌아갔다.

윤5월 6일(신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윤5월 7일(임신) 아침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맑게 개었다. 나는 의사와 함께 읍에 가서 목향순기산(木香順氣散) 3첩을 지어 왔다. 갈산(葛山)에 숙박하였다.

윤5월 8일(계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비가 퍼붓듯이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팔진(八鎭)의 처남 박군이 염병으로 지난달 20일에 세상을 떠나니 슬프고 슬프다.

윤5월 9일(갑술)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어머님께서 탕약을 복용하였다.

윤5월 10일(을해) 구름이 끼고 찌는 듯이 더웠다.

윤5월 11일(병자) 비가 쏟아졌다. 올해 보리농사는 심각한 흉작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 시가[市直]가 10말에 불과하였다.

윤5월 12일(정축) 비가 그치지 않아 별판의 냇물이 넘쳐흘러 골을 튀우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김매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 여름 보리는 흉작이 특히 심했다. 그제 저녁에 밀죽[小麥粥]을 올리고 어제 저녁에 또 보리죽[麥托]을 올리니 계축년(癸丑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윤5월 13일(무인)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윤5월 14일(기묘) 구름이 날렸다. 고읍(古邑)의 며느리가 창증(脹症)이 생겼는데 어떤 약도 효험이 없기에 지금 또 닭오줌을 달여 만든 술을 복용하였다. 어머님 환후에 조금 차도가 있지만 여전히 약을 쓰지도 않을 정도는 못 되었다. 나는 가슴과 배의 통증으로 인해 점차 진기(眞氣)가 크게 약해졌고 며느리의 병도 조금의 효험이 없으니, 이것저것으로 인해 간이 타는 듯 걱정이 된다. 세상에 살면서 조금도 즐거운 일이 없으니 가련하고 가련하다. 낮에 비가 흥건하게 내리더니 밤새도록 퍼붓듯이 내렸다.

윤5월 15일(경진) 아침에 비가 퍼붓듯이 내리고 종일 동풍이 불고 짙게 낀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윤5월 16일(신사) 비가 그치지 않아 농부들이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다.

윤5월 17일(임오) 비가 쏟아지다가 저물녘에 그쳤다.

윤5월 18일(계미) 식후에 비가 개고 맑고 더웠다.

윤5월 19일(갑신) 빗물이 불어났다.

윤5월 20일(을유) 어둑어둑해지며 비가 오다가 곧바로 구름이 흩어졌다.

윤5월 21일(병술) 해질 무렵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쳤다.

윤5월 22일(정해) 흐렸다가 갠다가 일정하지 않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윤5월 23일(무자) 저녁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윤5월 24일(기축) 저녁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윤5월 25일(경인) 새벽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윤5월 26일(신묘) 가끔 비가 내렸다.
윤5월 27일(임진) 아침에 비가 내렸다.
윤5월 28일(계사) 구름이 많았다.
윤5월 29일(갑오)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윤5월 30일(을미) 동북풍이 불고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이었다.

6월 소월.

6월 1일(병신) 곤신(坤申) 방향에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다. 한달 전에 미륵산(彌勒山)⁵⁵⁾ 봉수대(烽燧隊) 감고(監考) 허용(許壻)이 번(番)을 선 지 오래지 않아 나무좀벌레에 괴로워하고 또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잠깐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21일 밤에 봉군(烽軍) 하나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 통영의 비장(裨將)이 죄상을 조사할 때 감고가 자리를 비운 사유를 통제사에게 보고하였다. 통제사가 관문(關文)을 내어 붙잡아 들이고 남문 밖에서 효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형벌을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우후(虞候)가 구해주기를 청하여 다시 하룻밤을 가둔 뒤에 장(杖) 20대를 쳐서 풀어줬다고 하였다.

6월 2일(정유) 새벽에 비가 잠깐 소리 내며 내리더니 식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6월 3일(무술) 저물녘에 맑아졌다.
6월 4일(기해)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5일(경자)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6월 6일(신축) 비가 쏟아졌다.
6월 7일(임인) 비가 내렸다.
6월 8일(계묘)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9일(갑진) 가랑비가 지나가고 저물녘에 하늘이 맑고 날씨가 더웠다.
6월 10일(을사)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11일(병오)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12일(정미)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13일(무신) 구름이 날렸다. 신임 통제사 구선향(具善恒)이 본현에 도착하려고 하였다.

55) 미륵산: 통영시 산양읍에 소재한 산으로 높이는 471m이다. 산정에서 바라보는 조망미를 감상하고자 최근에 설치한 케이블카를 타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즐겨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어 위급 시 미륵산→도산면의 우산→고성군의 좌이산→삼천포의 각산으로 연락했고, 또 다른 연결로는 미륵산→우산→고성군의 천왕점→곡산(구절산)에서 진해로 연락했다.

6월 14일(기유) 구름이 날리고 날씨가 더웠다.

6월 15일(경술) 동풍이 불었다. 전임 통제사 정찬술(鄭纘述)이 통영에서 나가고 신임 통제사 구선향이 사천(泗川)에서 본현에 들어와 인신(印信)을 교대하였다.

6월 16일(신해) 더웠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6말, 황조(荒租) 7말, 정미(精米) 3말, 삼(斗), 모(牟) 8말, 보리 4말 반이다.

6월 17일(임자) 덥고 바람이 불었다.

6월 18일(계축)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6월 19일(갑인) 북풍이 크게 불고 길게 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면서 덧집을 말아올리고 가지를 꺾으니 상황이 위험하였다. 가끔 뜨거운 태양이 찌는 듯이 덥고 이슬처럼 가랑비가 내리기도 했다. 올벼와 중벼가 이삭이 이미 뻗었지만 많이 손상을 입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연일 세게 부는 것은 이 무슨 징조인가? 태어난 이후 처음 보는 것이다. 밤에 바람의 기세가 갑자기 약해졌다.

6월 20일(을묘) 북풍이 또 불어 뜬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자 하니 논밭과 들의 곡식이 마를 지경이었다. 저녁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6월 21일(병진)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큰 아이가 향교에 들어가 공무를 봤다.

6월 22일(정사) 동풍이 불고 구름이 하늘에 짙었다.

6월 23일(무오) 시원스레 비가 내렸다.

6월 24일(기미) 남풍이 불고 맑고 더웠다.

6월 25일(경신) 해질 무렵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6월 26일(신유) 저녁에 비가 내려 개울물이 소리 내며 흘렀다.

6월 27일(임술) 맑은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안정사(安靜寺)에 올라가 빛을 받았다.

6월 28일(계해) 더웠다.

6월 29일(갑자) 서남풍이 불었다. 밤에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져 냇물이 넘쳐 흘렀다. 비로소 올벼를 올리게 되었다.

7월 소월.

7월 1일(을축) 서남풍이 불고 비가 그치지 않았다.

7월 2일(병인) 가랑비가 내렸다.

7월 3일(정묘) 더웠다.

7월 4일(무진) 구름이 어지럽게 날렸다.

7월 5일(기사) 맑았다. 이 서방이 왔다.

7월 6일(경오) 잠깐 비가 내렸다. 이 서방이 돌아갔다. 고읍(古邑)의 사형(査兄) 박 생원이 왔다.

7월 7일(신미)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8일(임신) 아침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사형이 돌아갔다.

7월 9일(계유)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10일(갑술)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11일(을해) 날씨가 위와 같다. 시가[市直]가 곁보리[皮牟] 8말, 황조(荒租) 9말이다.

7월 12일(병자) 매우 더웠다.

7월 13일(정축)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14일(무인)

7월 15일(기묘) 이상 날씨가 동풍이 불고 날이 더웠다.

7월 16일(경진)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17일(신사) 저녁에 비가 지나갔다.

7월 18일(임오) 이른 아침에 송도(松道)⁵⁶에 가서 경애(京艾)를 얻어서 돌아오는데 비가 내렸다.

7월 19일(계미) 약간 흐렸다.

7월 20일(갑신) 저녁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7월 21일(을유) 고읍(古邑)의 사형(査兄)이 또 왔다.

7월 22일(병술) 가끔 흐렸다. 사형이 떠났다.

7월 23일(정해) 맑고 온화하였다.

7월 24일(무자) 날씨가 위와 같다. 한중채(韓重采)의 재기(再碁)에 다녀왔다.

7월 25일(기축) 북통이 있었다.

7월 26일(경인)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27일(신묘) 구름이 끼어 흐렸다. 고읍(古邑)의 며느리가 가마를 타고 본가로 돌아왔다.

7월 28일(임진) 비가 내렸다. 노비들이 고읍에서 돌아와 어제 며느리는 무사하게 잘 도착했다고 보고하였다. 관아(觀阿)는 그대로 고읍에 머물렀는데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7월 29일(계사) 식후에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더웠다.

56) 송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마을. 송도(松島)에는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곳에 학이 떼지어 날아와 군무(群舞)를 추었다고 전한다. 송도는 고성군 서읍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무학동 약재방과 동읍면의 송도를 병합하고 송도와 무학의 이름을 따서 송학리라 하여 철성면(고성읍)에 편입되었다. 그 후 주민수의 증가로 1969년 행정구역 개편 시 다시 송학과 무학으로 분동되었다가 다시 송학리가 되었다.

8월 대월.

8월 1일(갑오) 동풍이 잠깐 불었다.

8월 2일(을미) 서풍이 불고 저물녘에 지진이 났다.

8월 3일(병신) 무지개가 나타났다.

8월 4일(정유) 약간 흐렸다. 이 서방이 왔다. 서쪽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8월 5일(무술) 맑고 따뜻하였으며, 잠깐 비가 내렸다. 이 서방이 돌아갔다.

8월 6일(기해) 약간 흐렸다. 술 7말을 빔었다.

8월 7일(경자) 맑고 따뜻하였다.

8월 8일(신축) 비가 내렸다. 계동(契洞)의 작은 자형이 와서 그대로 머물렀다. 이날 밤 채구덩이 위의 낮은 상자가 불 위로 떨어져 활활 타고 불꽃이 마룻대와 추녀 끝에 옮겨 붙으려고 하였다. 이때가 이미 2경의 야심한 시각이었다. 사람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 나는 시름에 겨워 꿈 꾸다가 깨서 처음 소변을 보려고 창을 열었더니 불빛으로 집이 환하였다. 급히 아이들을 부르니 두 아이가 소리를 듣고 나왔다. 계동의 자형은 정침(正寢)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서 뛰어 나왔다. 마침내 낮은 상자를 들어 부엌으로 던지는 통에 다행히도 불로 인해 이웃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을 수 있었다.

8월 9일(임인) 더웠다.

8월 10일(계묘) 맑고 따뜻하였다. 군포(君浦)의 딸아이가 문안을 왔다.

8월 11일(갑진)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걷혔다.

8월 12일(을사) 서풍이 불고 맑고 온화하였다.

8월 13일(병오) 날씨가 위와 같다. 이날은 바로 선친의 첫 번째 기일이다. 제물을 올린 사람은 군포의 사돈집과 계동(契洞)의 두 자형, 갈산(葛山) 매형, 두포(頭浦) 매형, 정명열(丁命說), 정창윤(丁昌潤), 한득량(韓得良)이다. 마을 사람 중에 제물을 올린 사람은 정재장(丁再章), 정하명(丁夏明), 이진태(李進太)이다. 부의는 다음과 같다. 안수(安秀) 홍시 16개, 생배 5개, 류천정(柳天禎) 점조(粘租) 1말, 최성원(崔成元) 생감 5꼬치, 맑은 장[淸漿] 1그릇, 이진성(李進成) 백미 1말, 김수해(金守海) 조(租) 1말 반, 생감 20개, 추영채(秋永才) 수박[西果] 1개, 갈곡(葛谷)의 사돈집 생배 7개, 김수천(金守天) 백미 1말, 최준망(崔峻望) 남초(南草) 1다발, 박이문(朴以文) 생닭 1마리, 백봉래(白鳳來) 백미 1말, 생감 10개, 석류 2개, 윤상징(尹商徵) 생닭 1마리, 조 1말, 이국삼(李國森) 생닭 1마리, 조 1말, 백순건(白舜健) 생닭 1마리, 윤만첨(尹萬瞻) 전복(全卜) 3개, 윤만흠(尹萬欽) 생선과 고동(古同), 박사문(朴思文) 조기[石首魚] 1묶음, 전 2전(淺), 산 소고기, 김하정(金夏鼎) 유자 4개, 피문어(皮文魚) 3마리, 윤남봉(尹南封) 조 1말, 닭 1마리, 이화춘(李和春) 닭 1마리, 석류 2개, 정개부리(鄭介夫里) 닭 1마리, 구도평(仇道平)과 구도욱(仇道郁) 등 쌀 1말, 청어(靑魚) 1급(級), 명태(明太) 5마리, 이방열(李房悅) 쌀 5되, 허순(許珣) 석

류 5개, 대소(大召) 1도(刀).

8월 14일(정미)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어 흐렸다.

8월 15일(무신) 추석이다. 동남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쳤다. 대동(垔洞)의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낸 뒤에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올해 농사는 밭곡식에 애초에 여물지 않았지만 논곡식은 처음에는 조금 여물더니 뜻하지 않게 황충(蝗虫)이 상도(上道)의 각 고을에서 치성하는 바람에 조정에서 각도에 포제(酺祭)를 지내게 했다. 바닷가 연안의 고성(固城), 남해(南海), 거제(巨濟), 웅천(熊川), 진해(鎭海) 등 다섯 고들은 중앙인 고성에서 포제를 지냈다. 향축(香祝)은 20일에 내려와 제사를 지낼 예정이다. 그래서 큰 아이가 어제 또 향교에 들어가 그대로 머물렀다. 이 서방이 향교에서 왔다. 나는 근래 가슴과 배가 아파 연일 찌를 듯한 고통으로 말라 비틀어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이날 저녁에 매형과 친속들의 강요로 인해 임시로 고기를 올렸다. 아, 내가 가난한 홀아비로 죽을 지경인데 괴질마저 또 일어나 제대로 상중에 있지 못하니, 하늘 끝에 다다른 애통함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밤에 누워 신음하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굶주리면 곧바로 죽어야 하는데 배불러도 살기 어려우니	飢當卽死飽難生
편작은 어찌하여 이 사람을 살렸는가	扁鵲安能救此生
세상 남자들의 뜻을 탄식하노니	咄咄人間男子志
공연히 서생을 고달프게 만드네	公然倣罷一書生

내 병은 몇 차례 상을 당한 뒤 끝에 더 심해졌다. 나는 굶주림 때문에 가슴 통증이 크게 일어나니 깎는 듯한 고통을 참기 힘들었다. 마침내 음식을 먹자 고통이 그쳤으나 복통이 뒤이어 일어나 찌르고 두드리는 듯한 증상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일러 굶어도 죽고 배불러도 죽는 것이라고 하겠다.

8월 16일(기유)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17일(경술) 질게 구름이 끼었다.

8월 18일(신해)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19일(임자) 동풍이 불고 질게 구름이 끼었다. 득옥촉산(得玉燭散)을 짓기 위해 고흥(古邑)에 가려다가 척번정(滌煩亭)⁵⁷에 도착해서 길옆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니 시간이

57) 척번정: 경남 고성군 상리면사무소 소재마을. 척번정리는 마을이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비가 오면 빗물이 깨끗이 씻은 듯이 간데 온데도 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씻을 척(滌), 번뇌 번(煩), 정자 정(亭)자를 따서 척번정리로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불교적인 의미가 짙은 이름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는 대나무가 울창하여 죽번정(竹煩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벌써 정오를 지나고 있었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대곡(大谷)⁵⁸에 이르자 날이 어둑어둑해지려 하기에 마침내 초를 가지고 고읍에 들어갔다.

8월 20일(계축) 동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그대로 고읍에 머물렀다. 이때 황충이 곳곳에서 비집고 나오는데 호남(湖南) 연해가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지금 사천(泗川) 포구가의 들도 다시 치성하니, 황충의 크기가 석 잠 잔 누에와 같았다. 푸르고 누런색이 섞여 있고 줄기와 이삭을 먹어치우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다투어 수확하였다. 한 사람이 벼를 베면 두세 사람이 뒤따르며 충해를 입은 이삭을 거두었다. 이삭을 베어 엮어놓은 곳에 벌레가 또 나무굼벵이를 따라 나오니 떨어진 이삭이 밭에 그득하였다.

8월 21일(갑인) 맑고 화창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관아(觀兒)도 함께 돌아왔다.

8월 22일(을묘) 약간 흐렸다.

8월 23일(병진)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24일(정사) 저녁에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25일(무오)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26일(기미) 맑았다.

8월 27일(경신) 조금 서늘하였다. 상인(喪人) 안수(安秀)가 정한 뒷자리에 갔다가 돌아왔다. 어머니가 우연히 방아에 오른손을 다쳐 솔 밑에 붙은 검은 그을음[百草霜]을 붙이고 그 위에 토장(土漿)을 덧발랐다.

8월 28일(신유) 서늘하였다. 다친 손에 촉유재(燭油滓)를 붙였다.

8월 29일(임술) 구름이 끼어 흐렸다. 신임 사또 민백범(閔百範)이 부임하였다. 관아(觀阿)가 고읍(古邑)에 갔다.

8월 30일(계해) 동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 저물녘에 간축(艮丑)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9월 대월.

9월 1일(갑자) 동풍이 불고 맑고 온화하였다. 전임 관찰사 민공(閔公)이 거제로 유배갔다. 신임 관찰사 조재호(趙載浩)가 좌도(左道)로 순찰을 나갔다.

9월 2일(을축)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阿觀)이 고읍(古邑)에서 돌아와 며느리의 병이 약을 복용해도 효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9월 3일(병인) 맑았다. 어머니의 다친 손에 술찌게미를 붙였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워 참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또 소금 약간을 섞은 건마품(乾馬品)을 붙였다.

9월 4일(정묘) 맑고 온화하였다.

58) 대곡: 경남 사천시 정동면 대곡마을. 대곡마을을 지나면 고읍리가 있다. 고읍리에는 구상덕의 며느리가 살았다.

9월 5일(무진) 새벽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하늘이 맑아졌다.

9월 6일(기사) 청량하였다. 밤에 북풍이 부는데 나무를 부러뜨릴 듯 위세가 대단하였다. 시가[市直]가 조(租) 14말이다.

9월 7일(경오) 맑았다.

9월 8일(신미)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9일(임신) 오전에 찬 구름이 지나가면서 몇 점 비를 내렸다.

9월 10일(계유) 날씨가 위와 같다. 내가 쌀 1말, 전복 2개를 가지고 곡산(曲山) 정태방(鄭台方)의 장례에 부조하고 돌아왔다.

9월 11일(갑술) 약간 흐리다가 밤에 맑아졌다.

9월 12일(을해) 새벽에 잠깐 비가 내리더니 하늘은 맑고 날씨는 서늘해졌다.

9월 13일(병자) 청량하였다.

9월 14일(정축)

9월 15일(무인) 밤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개고 서북풍이 불어왔다.

9월 16일(기묘) 서북풍이 불었다.

9월 17일(경진) 맑았다.

9월 18일(신사) 서풍이 불고 하늘이 맑았다. 관찰사 조재호(趙載浩)가 사천(泗川)에서 본현에 들어왔다. 나는 초가집에 곤궁하게 살면서 온갖 근심이 다 모여들기에 백성들의 사정에 대해 한 통의 문서로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올렸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저는 궁벽한 시골의 보잘것없는 사내로 웅천(瓮天)⁵⁹에서 살며 배우지 못하다 보니 이미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어찌 지식이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성장하여 인심과 세도가 날로 가볍다는 것을 익히 보니 모두 돈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도천(盜泉)⁶⁰의 물은 제멋대로 흘러넘치는데 청렴한 풍속은 없어져 조용하니, 말류의 폐단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아, 옛날 어질고 통달한 선비들 가운데 돈의 해악에 대해 논한 자들이 해와 별처럼 밝게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반드시 공방형(孔方兄)⁶¹을 부르고 사람들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돈을 없애버리지 않으니, 돈을 없애자는 논의는 진실로 책에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눈앞의 농사에 해를 입히는 단서를 들어 감히 지금 남비(攬轡)의 뜻⁶²을 품고 부임하신 사또께 아뢰입니다. 삼가 바라

59) 웅천(瓮天) : 항아리의 안을 천지(天地)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소견이 아주 좁음을 비유한 말이다.

60) 도천(盜泉) : 산둥성(山東省) 사수현(泗水縣)에 있는 샘 이름이다. 《회남자(淮南子)》 〈설림훈(說林訓)〉에 이르기를 “공자가 도천을 지나가면서 목이 말라도 마시지 않았으니, 그 이름을 싫어한 것이다. [孔子過於盜泉 渴矣而不飲 惡其名也]” 하였다.

61) 공방형(孔方兄) : 돈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말. 돈이 둥글고 가운데 모난 구멍이 있으므로 의인(擬人)하여 공방(孔方)이라 함. “세상 사람들이 형처럼 친한 자를 공방이라 했다.”는 구절이 진(晉) 나라 노포의 〈진신론(錢神論)〉에 있다.

62) 남비(攬轡)의 뜻 : 난세를 구할 뜻을 품고 부임지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범방(范滂)이 기주(冀州)로 떠날 즈음 말고삐를 잡고서 개연히 천하를 맑게 할 뜻을 품었는데,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탐관오리들이 그 풍도를 들고는 인끈을 풀어놓고 떠나갔던 고사가 전해 온다. 《後漢書 黨錮 范滂傳》

건대, 조금 더 맑게 살피시어 사람이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의견까지도 폐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체로 작년 농사가 비록 큰 흉작은 아니지만 봄과 여름을 지나는 동안 매우 군색하다는 탄식은 본래 농민들에게 있는 의례적인 걱정입니다. 그 때문에 창고지기의 집에 선물을 가지고 가고 시장의 장사치 집안에 전당을 잡히는데 이들은 장리(長利)나 갑리(甲利) 곱으로 쳐서 받는 이자의 돈을 받아 시장에서 곡식을 팝니다. 시가[市直]가 너무 낮아 1냥 값어치가 쌀 3말, 조(租) 6말로 말의 너비는 되와 같고 되는 홉[合]처럼 작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거칠고 이것저것 섞여있는데다가 썩은 곡식마저 많이 있으니 비록 3말이라고 꾸어주는데 실제로는 2말이 채 되지 않아 여덟 식구가 하루를 먹을 식량으로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런 곡식을 가지고 한 달을 버티다보면 30냥 남짓한 빚이 벌써 쌓여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결역(結役), 호역(戶役), 신역(身役), 종자(種子) 등과 많은 관리를 임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모두 빚입니다. 비록 같은 마을의 가까운 친척들일지라도 조금도 곡식을 꾸어질 뜻이 없습니다. 가을 수확기가 되어 돌려주어야 할 이자를 따져보면 본전은 1냥인데 이자는 거의 2관(貫)에 이릅니다. 시가가 폭등하여 정미(精米) 5, 6말, 정조(正租) 14, 15말이나 되는데 말의 깊이는 곡(斛)과 같고 되는 말처럼 큼니다. 지난 봄 2말의 쌀이 지금은 6, 7말이 되고, 6말의 조(租)가 지금은 1섬[石]이나 됩니다. 더구나 곡식의 곱고 거친 것을 지난봄의 것과 비교하면 어찌 한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이랑에 있는 벼를 다 주고나면 여름을 넘길 물자를 채우기 어려워 말과 소를 전당잡히는 이도 있고 논밭을 파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깨진 것을 서쪽에서 보수하지만 보수되는 대로 터져 빚으로 빚을 갚으니 어느 때에나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매년 이와 같아서 백묘(百畝)를 가진 부잣집이 흩어져 하나의 표주박로 근근이 생활하게 되고 만 가구나 되는 고을이 자잘하게 쪼개져 세 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로 되고 마니, 하늘이 어떻게 돈을 만들었거늘 전적으로 모리배에게 은혜를 베풀고 근본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일반 백성들이 거의 없어질 것이니, 일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군자들을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폐단을 줄일 방도를 생각해보건대 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물건이 고르지 않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또한 제게 부족하나마 하나의 방안이 있으니 혹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떤 상황이나면, 농사가 참혹한 흉년이라면 시가[市直]를 쌀 12말, 조(租) 3, 4말로 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가을에 비록 크게 풍년이 들더라도 쌀 4말, 조 10말에 불과하다면 춘궁기에 먹을 12말 가운데 3, 4말의 이익을 내어 4말, 10말에 수량에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따져보면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곡식을 꾸울 때 쓰는 되의 크기는 작으면서 가을과 겨울에 곡식을 갚을 수

쓰는 되가 큰 것은 실로 농민에게는 불행이며, 수전노(守錢奴)가 즐거워 하는 바입니다. 경사(京司)에서 낙인을 찍어 만들어 내어 1곡(斛)이 15말을 담을 수 있고, 1말이 10되를 담을 수 있게 한 다음 그 되와 말을 각도로 나누어 보내 그대로 모양을 본떠 만들게 함으로써 각 고을과 집에서 그 제도를 한결같이 따르게 하소서. 반드시 낙인이 찍힌 것을 해당 관청에서 사용하게 하여, 일용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전국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차이가 없게 되고 매년 봄가을로 곡식을 꾸고 갚는 데에 증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간악하고 교활하여 농단하는 습성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각읍에 있는 곡자(斛子) 가운데에 크기가 같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겠 습니까? 또한 영문에서 각별히 살펴 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홀로 칠실(漆室)⁶³에 앉아 기국(杞國)의 근심⁶⁴을 이기지 못하나 문장이 짧고 졸렬하여 분명하게 알리지 못 하겠습니다. 합하께서 하나를 들어 세 모서리를 알고⁶⁵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⁶⁶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합하께서는 어리석은 제 말을 택하여 임금 께 아뢰어 주소서. 시가가 10말을 넘지 않게 하여 도량을 헤아려 팔도에 통용되게 함으로써 탐약한 부류들이 요행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본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그 덕에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할 일이다. 본 사또”라는 내용의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날 밤 동문 밖에서 묵었다.

9월 19일(임오) 하늘이 맑고 날씨는 따뜻했다. 향교가 있는 마을에 유숙하였다. 관찰사가 통영으로 떠났다.

9월 20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 부근 마을에 머물렀다.

9월 21일(갑신) 날씨가 위와 같다. 계동(契洞)에 유숙하였다. 관찰사가 통영에서 본현으로 와서 묵었다.

9월 22일(을유) 날씨가 위와 같다. 관찰사가 진해(鎭海)로 떠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

63) 칠실(漆室) : 춘추(春秋) 노(魯)나라의 읍(邑) 이름이다. 칠실이란 읍(邑)에 과년한 처녀가 자신이 시집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임금은 늙고 태자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기동에 기대어 울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가 할 근심이니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 하였다. 《列女傳 卷3 漆室女》 이는 분수에 지나친 근심을 뜻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국사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겸사로 쓰인다.

64) 기국(杞國)의 근심 :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뜻의 겸사(謙辭)이다. 옛날 기(杞)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자기 몸을 붙일 곳이 없게 된다 하여 침식(寢食)을 폐하고 걱정을 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列子 天瑞》

65) 하나를 …… 알고 : 이 말은 네모로 된 것을 한 모서리만을 들어 말하여도 듣는 자는 이를 미루어 세 모서리를 안다는 뜻이다. 공자(孔子)가 “한 가지 일을 들어 보여서, 세 가지 일을 스스로 반증하여 알아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 주지 않는다.[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述而》

66) 하나를 …… 하는 :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자공(子貢)에게 “너와 안회는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자공은 “제가 어찌 안회를 따르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입니다.[賜也何敢望回 回也 聞一以知十 賜也 聞一以知二]” 하였다.

다.

9월 23일(병술)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24일(정해) 온화하였다.

9월 25일(무자) 잠깐 비가 내렸다.

9월 26일(기축) 새벽에 비가 내려 땅을 적셨다. 아관(阿觀)이 고읍(古邑)에서 돌아왔다.

9월 27일(경인) 서풍이 불었다. 큰 아이가 집을 새로 짓는데 기둥을 세웠다.

9월 28일(신묘) 서풍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저녁에 동풍이 잠깐 불었다.

9월 29일(임진)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30일(계사) 날씨가 위와 같다. 저녁이 되자 서쪽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일어나려 하였다. 한밤중에 서풍이 불고 우박이 한바탕 떨어졌다.

10월 대월.

10월 1일(갑오) 서북풍이 불고 구름이 끼어 흐렸으며 날씨가 추웠다.

10월 2일(을미) 춥지 않았다.

10월 3일(병신) 동북풍이 불고 온화하였다.

10월 4일(정유)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5일(무술) 맑고 따뜻하였다.

10월 6일(기해)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7일(경자)

10월 8일(신축)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9일(임인) 서북풍이 불었다.

10월 10일(계묘) 날씨가 위와 같다. 군포(君浦)⁶⁷의 딸아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둘째 아이에게 금노(今奴), 진노(進奴), 석노(石奴), 늦노(蒞奴), 덕비(德婢) 등 노비들을 데리고 동행하게 하였다.

10월 11일(갑진)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했지만 춥지 않았다.

10월 12일(을사) 밤에 소낙비가 내려 갑자기 진흙탕이 되었다. 내일은 정 재종(丁再從)의 첫 기일이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쓸 제문을 지었다.

10월 13일(병오) 북풍이 불어 추웠다. 충익(忠翊)의 일로 경부(京府)에 원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 위해 30리 떨어진 배둔역(背屯驛)에서 숙박하였다. 이세룡(李世龍)이 동행하였다.

10월 14일(정미)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 추웠다. 또 이순(李順)도 동행하여 30리 떨

67) 군포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재 마을.

어진 진주(晉州) 가수(嘉樹)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10월 15일(무신) 약간 흐렸다. 정수(丁樹)와 파산원(巴山院) 북쪽을 지나 40리 정도 떨어진 강기(江基)에서 폴산진(虜山津)를 건너 의령(宜寧) 석곡(石谷) 주점에서 10리 되는 곳에서 잠깐 쉬었다. 때 싸락눈이 갑자기 내렸다. 30리 정도 떨어진 부무리(扶撫里)에서 숙박하였다. 밤에 눈이 조금 쌓였다.

10월 16일(기유) 새벽에 눈을 밟으며 30리 떨어진 초계(草溪)를 지나 보원(步院) 주점에 갔다. 또 50리를 걸어 고령(高靈邑)에 갔다가 30리 떨어진 성주(星州) 안원(安院)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이날 눈이 조금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함안(咸安) 백사리(白沙里)에 사는 송여삼도 동행하였다.

10월 17일(경술) 새벽에 출발하여 20리 떨어진 성주읍(星州邑)에 도착해 머물며 해돋이를 구경했다. 고령 남면 태과곡(太瓜谷)에 사는 박흥서(朴興瑞)와 서면 월막리(月幕里)에 사는 박장한(朴章漢)를 추가하여 성주읍에 유숙하였다. 박흥서와 박장한 두 사람은 바로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 집안사람으로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다.

10월 18일(신해) 달빛을 받으며 일찍 출발하여 대마평(大馬坪)에 도착하였다. 의마총(義馬塚) 앞 10리 쯤에서 의마(義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찬(贊)을 지었다.

답계역에	踏溪之驛
수컷 의마가 있네	有騮者牡
의롭게 울며 크게 싸우니	奮號大鬪
주인을 위한 마음 호랑이보다 사납구나	爲主暴虎
죽게 되자 발로 차고 물어 뜯으며	至死踰嚙
마침내 주인을 온전하게 살렸네	竟全其主
장막을 거두어 장사지내니	斂帷以葬
의로운 살은 썩지 않으리라	義肉不朽

이때도 닭이 아직 울지 않았기 때문에 주점에서 조금 쉬면서 술을 사서 추위를 이겨냈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출발하였다. 구름이 끼고 눈이 내렸다. 30리쯤 가서 개령(開寧) 부상역(扶桑驛)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이날은 북풍이 불어 몹시 추웠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30리 지점인 개령읍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이때 병사(兵使)가 백선산(自善山)을 순행하다가 개령읍에 이르렀다.

10월 19일(임자)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었다. 달빛을 받으며 출발하여 30리 떨어진 선산(善山) 안곡(安谷) 주점에서 점심을 먹고 30리 가서 상주(尙州) 양산지(梁山旨)에서 조금 쉬었다. 10리 정도 걸어 상주읍을 지나고 10리를 가서 가흥정(喜興亭)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10월 20일(계축) 구름이 끼고 추웠다. 새벽에 출발하여 15리를 가서 함창(咸昌) 공거역(公渠澤) 경계를 지나고 15리 떨어진 함창읍에서 아침을 먹었다. 20리를 가서 문경(聞慶) 유곡역(幽谷驛)을 지났다. 가탄(可灘)에서 토잔령(兔棧嶺)을 넘어 신원(新院) 주점까지 20리를 가고, 화봉원(華封院) - 속칭 마포원(馬布院) - 주점까지 20리를 가서 그곳에서 숙박하였다.

10월 21일(갑인) 새벽에 초곡(草谷) 주점을 지나 주흘관(主屹關)까지 10리를 가서 용추(龍湫) 교귀정(交龜亭) 주주서조동문(主主西鳥東門)에서 잠깐 쉬었다. 10리 가서 동화원(東華院)에서 잠깐 쉬고 조령관(鳥嶺關)을 나오는데 10리를 걸었다. 호서(湖西) 연풍현(延豐縣) 고사리(高沙里) 주점까지 2리를 걷고 안보역(安步驛)까지 10리를 갔다. 20리를 가서 수교창(水橋倉)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이날 조령을 넘을 때에는 눈꽃이 어지럽게 날리더니, 안보를 지날 때에는 싸락눈이 내려 진흙탕을 만들었다. 비를 맞으며 수교참(水橋站)에 들어갔다.

10월 22일(을묘) 아침에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고 뻑뻑한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식후에 진흙을 밟으며 출발하여 충주(忠州)의 새 주점까지 10리를 가고 달천(獐川) 단월역(丹月驛) 주점까지 20리를 가서 숙박하였다.

10월 23일(병진) 새벽에 달이 밝더니 아침에 구름이 끼어 흐렸다. 낮이 되자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는 따뜻했다. 이날은 닭이 울자 출발하여 대초원(大初院)까지 30리를 가고 송선(崇善)까지 30리를 갔다. 모두원(毛豆院)까지 10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경기(京畿) 음죽현(陰竹縣)의 무귀역(武貴驛)을 지나 도로원(道路院)까지 30리를 가서 숙박하였다. 시가[市直]가 쌀은 통행하는 되 용량으로 6되이다.

10월 24일(정사)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어 추웠다. 새벽에 출발하여 죽산(竹山) 광암(廣岩) 주점까지 20리를 가고 양지(陽智) 지촌(智村)까지 30리를 갔다. 죽산 좌잔(左棧) 주점까지 30리를 가서 숙박하였다. 날이 아직 어둡지는 않았지만 피곤으로 쓰러져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

10월 25일(무오) 날씨가 위와 같다. 새벽에 출발하여 양지읍(陽智邑)까지 10리를 지나고 용인읍(龍仁邑)까지 20리를 지났다. 열원(列院)까지 10리를 지나고 마우천(于于川)까지 20리를 지나고 광주(廣州) 광교(廣橋) 주점까지 20리를 가서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10월 26일(기미) 맑고 따뜻하였다. 새벽에 출발하여 한강(漢江)까지 40리를 가서 석빙고진(石氷庫津)을 건넜다. 10리를 가서 남대문(南大門)에 들어가 동수문(東水門) 안에 있는 유재중(兪再重)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눈이 1치쯤 쌓였다.

10월 27일(경신) 새벽에도 눈이 개이지 않더니 식후에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졌다. 나는 행군하느라 양쪽 무릎이 시리고 고통스러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어렵게 갔다. 성안을 둘러보고 남대문 안 창동(倉洞)의 고 판서 이덕수(李德粹) 덕행랑에 있는 최험선(崔險先)의 처소에 숙소로 정했다.

10월 28일(신유) 맑고 따뜻하였다. 충훈부(忠勳府)에 들어가 근무 중인 도사(都事)를 만나고 숙소로 돌아왔다.

10월 29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지팡이를 짚고 구경을 다녔다.

10월 30일(계해) 가끔 흐렸다. 중추부(中樞府) 앞 충훈부 서리(書吏)인 홍우적(洪禹績)의 집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창동 유 동지(兪同知)의 행랑에 있는 이순만(李順萬) 처소에 다시 숙소를 정하였다. 서울의 시가[市直]가 쌀 2말 12되, 통행하는 퇴용량으로 계산하면 1전(錢) 값이 4, 5되이다.

11월 소월.

11월 1일(갑자) 눈이 1치쯤 쌓였다. 다리 통증이 아직도 낫지 않으니 걱정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다. 고령(高靈) 박생 두 사람이 눈을 맞으며 돌아갔다. 이순(李順)도 그 뒤를 쫓아갔다. 나는 송여삼(宋汝三), 이서룡(李瑞龍) 등과 함께 그대로 서울에 머물렀다. 충훈부 도사가 자기 숙모의 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아 일이 지연되니 걱정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지금 경기와 충청 지역은 흉년을 벗지 못하였다.

11월 2일(을축) 날씨는 따뜻하여 눈이 녹으려고 했다. 관동(館洞)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와 숙소를 정하였다.

11월 3일(병인) 하늘이 맑았다. 얼음에 올라 한강을 건너다가 우연히 돌아가는 말을 얻어 30리를 가서 신원(新院)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송여삼(宋汝三)도 뒤쫓아 갔다..

11월 4일(정묘) 날이 추웠다. 또 용인과 죽산으로 돌아가는 말을 얻어 다시 타고 가다가 100리 되는 좌잔(左棧)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눈이 내렸다.

11월 5일(무진) 눈이 여전히 어지럽게 날렸다. 송여삼(宋汝三)과 이서룡(李瑞龍) 두 사람을 먼저 돌려보내고 나는 뒤쳐져 갔다. 말을 빌려 가서 광암(廣岩)까지 50리를 가고 또 예천(醴泉)에서 종과 말을 얻어 도로원(道路院)까지 20리를 가서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1치 눈이 내렸다.

11월 6일(기사) 눈이 개고 날씨가 추웠다. 새벽에 출발하여 송선(崇善)까지 40리를 가서 아침밥을 먹었다. 60리를 가서 단월(丹月)에서 숙박하였다.

11월 7일(경오) 하늘이 맑고 날씨가 추웠다. 수교(水橋)까지 30리를 가다가 말에서 내려 걸어서 안보(安步)까지 20리를 갔다. 잠시 5리쯤 말을 타고 가다가 또 말에서 내려 조령(鳥嶺)을 넘었다. 이때 예천 신임 사또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가다가 저물녘에 문희(聞喜) 초곡(草谷)까지 30리를 가서 유숙하였다. 그간 고생한 행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11월 8일(신미) 약간 흐렸다. 문희읍 화봉원(華封院)까지 10리를 가다가 말에서 내려 예천 사람인 강신축(姜辛丑)과 헤어졌다. 걸어서 지팡이를 짚고 신원(新院)까지 20리를

지났다. 저녁에 20리를 가서 유곡역(幽谷驛)의 역리(驛吏) 김만삼(金萬三)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이날밤에 눈이 몇 자 내렸다.

11월 9일(임신) 아침에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식후에 하늘이 맑았다. 함창읍(咸昌邑)까지 20리를 갔다. 길에서 서울 사람인 한씨(韓氏)를 만나 동행하여 공거역(公渠澤)까지 15리를 갔다. 상주 가흥정(喜興亭)까지 15리를 지나고 상주읍까지 10리를 지나 교촌(校村) 박씨(朴氏) 집을 빌려 묵었는데 주인이 후하게 대우해주었다.

11월 10일(계유) 맑고 추웠다. 안곡(安谷)까지 40리를 가서 서울 사람과 헤어져 30리를 가서 개령읍(開寧邑)에 들어가 읍내 동리(東里)를 빌려 숙박하였다.

11월 11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벽에 출발하자 주인이 쌀과 돈을 주며 다급한 사정을 도와주었다. 10리를 가서 마암역(馬岩驛)에서 밥을 먹고 20리를 지나 부상(扶桑)에 이르렀다. 저녁에 40리를 가서 성주읍 동문 안의 파총(把摠) 박진창(朴震昌)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주인이 출타 중이라며 콩죽을 접대하니 통탄스럽고 우습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주인의 선악이 저마다 다르니 놀랍다.

11월 12일(을해) 구름이 끼어 흐렸다. 아침에 성치(星峙)를 넘어 안원(安院)까지 20리를 갔다. 음식을 사서 요기를 했다. 10리를 가서 안원치(安院峙)를 넘는데 눈꽃이 어지럽게 날리고 길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고령읍까지 20리를 지나고 10리를 가서 월막(月幕) 박장한(朴章漢)의 집에 유숙하였다. 이날 저녁에 구름이 흩어지고 밤에 또 눈이 조금 내렸다.

11월 13일(병자) 하늘이 맑았다. 식후에 출발하였다. 고령 이하로는 눈이 몇 자 내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강이까지 눈에 빠졌다. 40리 정도 가서 초계(草溪) 행보원(行步院) 주점에서 잠깐 쉬고 10리 되는 회래치(回來峙)를 넘고 10리를 가서 저물녘에 두모곡(豆毛谷) 주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이날은 북풍이 우리를 쫓아와 눈길에 사람 다닌 흔적이 다 없어졌다.

11월 14일(정축) 맑고 따뜻하였다. 의령(宜寧) 부무(扶撫)까지 10리를 지나고 세간(世干)까지 10리를 갔다. 돌곡(鬲谷)까지 10리를 가고 풀산진(豊山津)을 건너 10리를 갔다. 10리를 가서 함안(咸安) 백사(白沙) 송필삼(宋必三) 집에서 숙박하였다.

11월 15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식후에 출발해서 원북(院北)까지 20리를 가고 진주(晋州) 정수(丁樹)까지 10리를 갔다. 가수(嘉樹)까지 10리를 가고 구만리(九萬里)⁶⁸⁾까지 20리를 가서 작동(鵲洞) 이 유사(李有司)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11월 16일(기묘) 날씨가 위와 같다. 식후에 출발해서 월복치(月卜峙)에 도착하여 쫓아오는 종과 말을 만나 그것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이 편안하였다.

11월 17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8일(신사) 눈이 녹았다.

68) 구만리: 경남 고성군 구만면.

11월 19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다리가 아직도 거북하여 걷는데 건강하지 못했다.

11월 20일(계미) 햇볕이 나고 따뜻하였다. 이 서방이 와서 안부를 물었다.

11월 21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 서방과 읍에 들어갔다. 나는 계동(契洞)에 숙박하였다.

11월 22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돌아가신 세자의 빈궁 조씨(趙氏)⁶⁹⁾ 상이 14일에 나왔다. 관문(關文)에 “무술년(戊戌年, 1718) 단의왕후(端懿王后)⁷⁰⁾의 상에 따라 지방 관원들은 천담복(淺淡服), 오사모(烏紗帽), 오각대(烏角帶) 차림으로 객사에 가서 애도를 표하고 4일이 지나 성복(成服)하며, 포리사모(布裏紗帽), 숙마포단령(熟麻布團領), 생마삼갑대(生麻三甲帶) 차림으로 곡을 하고 재배한다.” 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3일(병술) 날씨가 위와 같다. 본현 사또 생가의 모친이 이 날 밤에 돌아가셨다.

11월 24일(정해) 약간 흐렸다. 이 서방이 병부(兵符)를 가지고 가는 일로 거제에 갔다. 이날 밤 눈이 녹아 물이 줄줄 흘렀다.霽。

11월 25일(무자) 구름이 흩어졌다.

11월 26일(기축) 온화하였다. 이 서방이 돌아왔다. 무신년(戊申年, 1728) 11월 16일에 효장세자의 상을 당했을 때 신민(臣民)이 13일 동안 흰 베로 만든 갓을 쓰고 있었고, 1년 동안 베로 만든 띠를 했는데 이번 빈궁의 상에는 검은 갓을 쓰되 띠를 매지를 얹었다.

11월 27일(경인) 춥지 않았다.

11월 28일(신묘) 북풍이 불었다.

11월 29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눈이 몇 짐 떨어졌다.

12월 대월.

12월 1일(계사) 북풍이 불어 추웠다. 청어(靑魚) 3마리 값이 전 1전(錢)이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3말 혹은 13말 반이고 쌀은 5말이다.

12월 2일(갑오) 몹시 추웠다. 아침 전에 상리(上里)⁷¹⁾의 최(崔)와 이(李) 두 사람이 와서 조문하였다. 조문객은 별도로 기록하였다.

12월 3일(을미) 구름이 끼고 추웠다. 둘째 아이가 가마와 말을 준비하여 고읍(古邑)에 갔다.

69) 빈궁 조씨(趙氏) : 영조의 첫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부인인 현빈(賢嬪)이다.

70) 단의왕후(端懿王后) : 1686~1718. 조선 20대 임금인 경종(景宗)의 왕후 심씨(沈氏). 1696년(숙종 22) 10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경종이 즉위하기 2년 전에 자식 없이 병으로 죽었다. 능은 혜릉(惠陵)으로 경기도 양주에 있다. 시호는 단의(端懿)이다.

71) 상리: 경남 고성군 상리면.

12월 4일(병신) 고읍의 며느리가 왔다.

12월 5일(정유) 몹시 추웠다.

12월 6일(무술) 온화하였다.

12월 7일(기해)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8일(경자)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9일(신축) 날씨가 위와 같다. 감동(甘洞)⁷²⁾에 가서 상인(喪人) 황치흥(黃致興)을 조문하고 돌아왔다.

12월 10일(임인)

12월 11일(계묘) 햇별이 나고 따뜻하였다. 16냥으로 이엽천(李葉千)의 월치(月峙)⁷³⁾ 상자답(詳字畓) 8마지기를 샀다. 계동(契洞)에서 묵었다.

12월 12일(갑진) 날씨가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오니 팔진(八鎭)의 처조카 박창주(朴昌周)가 그의 매부인 칠원(柒原)의 윤덕인(尹德仁)과 와서 묵고는 벌써 돌아갔다.

12월 13일(을사) 구름이 끼고 추웠다. 군포(君浦)의 이 서방이 술을 보내 왔다.

12월 14일(병오) 북풍이 불었다.

12월 15일(정미) 북풍이 불어 추웠다.

12월 16일(무신) 몹시 추웠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9말이다.

12월 17일(기유) 추웠다. 오치(烏峙)의 친척 김조필(金早必)이 와서 유숙하였다.

12월 18일(경술)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19일(신해) 따뜻하였다.

12월 20일(무자) 약간 흐렸다. 이날 밤에 사천(泗川)에 사는 류씨(柳氏) 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먹고 잤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중풍(中風)에 걸린 듯해서 한바탕 사람들을 놀래켰다.

12월 21일(계축) 온화하였다.

12월 22일(갑인) 북풍이 불었다.

72) 감동: 고성에 감동(甘洞)마을은 두 곳이 있다. 《승충명록》에 나오는 감동은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의 감동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감나무가 많아 시동(柿洞)이라 하였다. 지금도 진주방면에서는 시동이라 부르고 있다. 또 다른 감동(甘洞) 마을은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마을로 지금부터 서기 1670년경 밀양 박씨(密陽朴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두 성씨의 집안이 정착하고 경주 이씨(慶州李氏)등이 입주하였다고 한다. 감동(甘洞)이라고 호칭하게 된 내역은 1670년경에 거주할 당시 현재와 같이 농토가 아니었고 물 좋고 숲 좋은 곳을 선조들께서 선정했다. 선정을 해본 결과 약수의 우물(井)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우물의 이름을 감로정(甘露井)이라 하여 감로수(甘露水)의 첫 머릿자를 따서 감(甘)자를 칭하였고 동(洞)은 마을을 형성한다하여 감동(甘洞)으로 불러 내려오고 있다.

73) 월치: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소재 고개. 월치(月峙)는 달(月)자와 고개를 뜻하는 치(峙)자를 합하여 월치(月峙)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 고개를 월치(月峙)고개 또는 달티 고개라고도 한다. 월치 마을의 조산(祖山)은 해발 650m의 벽방산(碧芳山)이 에워싸고 있으며 좌측은 상봉(上峰)으로부터 무등산에 이르러 좌청룡(左靑龍)을 형성하고 우측은 칠성대로부터 문바위, 동뫼, 반월설, 거류산으로 이어진 우백호(右白虎)가 있으며 의삼골, 얼음박골, 큰골로부터 북으로 흐르는 하천이 마을 앞에서 합류하여 정촌(亭村) 마을 앞을 거쳐 쪽시개로 흘러내리고 물은 맑고 노천우물이 곳곳에 있어 수원은 넉넉하다.

12월 23일(을묘) 구름이 끼었다.

12월 24일(병진) 날씨가 위와 같다. 밤에 몹시 춥고 북풍이 불었다.

12월 25일(정사) 전보다 매우 추웠다. 가리동(佳里洞)⁷⁴ 김성추(金成秋) 모친의 첫 기일에 갔다가 돌아왔다.

12월 26일(무오) 몹시 추웠다.

12월 27일(기미) 추운 날씨가 잠깐 풀렸다.

12월 28일(경신)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29일(신유) 밤에 눈이 잠깐 날렸다.

12월 30일(임술) 바람이 서북쪽에서 불어 구름이 날리고 흐리다가 갠다. 추위와 햇볕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조각 눈이 내렸다가 그쳤다 하였다. 빈소(殯所)에 거적을 덮었다. 이날 밤에 하늘이 맑고 서북풍이 갑자기 불었다. 전 23냥으로 정창구(丁昌九)의 다룡동(多龍洞) 논 3두락지를 샀다. 올해는 모종을 적기에 옮겨 심었는데도 보리 흉작이 근래 없던 일이다. 6, 7개월 동안 시가가 조(租) 6말, 쌀 3말, 밀[小麥] 4말, 겉보리 8말이다. 논곡식의 경우 하도(下道)는 조금 익었지만 보리 흉년 뒤끝이라 시가[市直]가 여전히 오르지 않고 정조(正租) 13말, 황조(荒租) 14말, 쌀 5말 반 혹은 6말이었는데 겨울이 되자 정조 9말, 황조 10말, 쌀 4말 7, 8되이다. 밭곡식의 경우는 익지 않아서 콩 6말이고, 목화는 평범했다. 6월 그믐께 비가 와서 도랑이 불은 뒤에 더러 먼지를 적시는 비가 내렸을 뿐이다. 10월 11일쯤 눈이 1자 가량 쌓여 산머리의 하얀 눈이 세모가 되어도 녹지 않았다. 12월에는 전연 비가 내리지 않아 우물과 못이 다 말라 물을 길어오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읍내 사람들은 송도역(松道驛)⁷⁵ 우물에서 물을 길었지만 다들 급박하다는 탄식이 있었다. 각 마을에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이 없긴 하지만 가을과 겨울이 이처럼 가뭄이 드니, 정미년(丁未年)과 사정이 같다. 대구(大口)는 나오면 곧바로 희귀해져서 한 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12마리 혹은 13, 14마리에 불과하였고, 청어(靑魚)는 1전에 4, 5마리를 살 수 있었다. 밀가루는 매우 귀해 세시(歲時)에 술을 많이 빚는 집이 없었다. 올해 농사는 팔도가 모두 풍년이 들지 않았지만 영남(嶺南)이 조금 낫다. 관동(關東)과 관북(關北) 등은 가을이 되기도 전에 서리가 내려 농사가 더할나위없이 흉년이 드는 바람에 영남 바닷가 각 고을에서 진휼곡을 보냈다. 올해 가을과 겨울의 가뭄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충분히 손을 본 밭에서는 보리가 잠깐 나오는 곳이 있었지만 그루같이 [根耕]한 밭에서는 전연 생산되지 않았다. 파 보면 더러 처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살 것 같은 것도 있었지만 원래 생명력이 없는 것이 많았다. 지금 보리를 지은 밭은 마치 손

74) 가리동: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佳麗里). 고성군 광일면(固城郡 光一面)의 지역으로써 거류산(巨流山) 밑에 있는 마을이므로 가리골, 가래골 또는 가리라 하였다.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대동, 하촌동, 양촌동을 병합하여 가려리(佳麗里)로 하여 거류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덕촌과 가동의 2개 마을이 있다.

75) 송도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었던 역원(驛院)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현 북쪽 2리 지점에 있다고 했다.

을 보지 않은 것 같으니 괴이하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가을보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선 기록해둔다. 올겨울 눈이 많이 내린 것도 근래에 없던 일인데 바닷가가 가장 심했다. 본읍에서 여덟 남자가 혼전(魂殿)에서 일하는데 쓴 표이(薰耳) 전 1전(錢), 인산(因山)할 때 5전 8푼, 신임과 전임 사또의 집 실어나르는데 든 비용 전 2냥을 일반 백성들이 삼푼을 내고 양반가에서 6푼을 부조하였다. 집 창고에는 조(租) 20섬 가운데 1섬이 있고, 쌀 5항아리, 점조(粘租) 2섬이 있다. 추가로 균창조(困倉租) 4섬 2, 3말 정도를 들였다.

임신년(1752년 영조28)

1월 대월(大月). 1일 계해. 5일 우수 월중. 20일 경칩 영절(令節).
2월 소월(小月). 1일 계사. 5일 춘분 월중. 20일 청명, 잠절(蚕節). 21일 한식.
3월 대월. 1일 임술. 20일 곡우 월중. 22일 입하 4월절.
4월 소월. 1일 임진. 8일 소만 월중. 23일 망종 5월절.
5월 소월. 1일 신유. 10일 하지 월중. 26일 소서 6월절.
6월 소월. 1일 경인. 12일 대서 월중. 28일 입추 7월절. 1일 초복.
7월 대월. 1일 기미. 15일 처서 월중. 30일 백로 8월절.
8월 소월. 1일 기축. 16일 추분 월중.
9월 대월. 1일 무오. 2일 한로절. 17일 상강 월중.
10월 대월. 1일 무자. 2일 입동절. 17일 소설 월중.
11월 소월. 1일 무오. 대설절. 16일 동지 월중.
12월 대월. 1일 정해. 2일 소한절. 17일 대한 월중. 21일 납일(臘日).

1월 대월(大月).

1월 1일(계해)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고 식후에 흰 조각구름이 날리고 북풍이 노한 듯이 세차게 불어 산의 나무에서 소리가 났다. 밤에 하늘이 맑았다.

1월 2일(갑자) 맑았다. 막내 아이 봉승(鳳升)이 관례(冠禮)를 올렸다. 세 아들에게 산소에 가서 고하도록 하였다.

1월 3일(을축) 그다지 춥지 않았다.

1월 4일(병인) 날씨가 화평하였다. 대곡(大谷)의 박 서방, 전영(田永)의 정 서방의 신행(新行)을 동시에 거행하였다.

1월 5일(정묘) 서북풍이 불었다.

1월 6일(무진) 시가[市直]가 조(租) 5말, 콩 5말, 쌀 4말이다.

1월 7일(기사) 조각 눈이 내렸다.

1월 8일(경오) 눈꽃이 날렸다.

1월 9일(신미) 춥고 바람이 불었다.

1월 10일(임신) 매우 추웠다.

1월 11일(계유) 동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더니 밤에 또 눈이 내렸다.

1월 12일(갑술) 새벽에 산과 들을 보니 다 새하얗다.

1월 13일(을해)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이웃에 사는 생원(生員) 강시범(姜時汎)의 아들 강위흥(姜渭興)이 와서 공부하였다.

1월 14일(병자)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고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벗 박범석(朴範錫) 조카 정명열(丁命說)이 당영(棠營)에 가려 하였고, 나는 진주(晋州)의 노비에 관한 일로 팔진(八鎭)으로 가야 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다. 당령영(堂令驛) 앞에 이르러 헤어졌다. 나는 정동(鼎洞)⁷⁶에 들어가 조카 박창주(朴昌周)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1월 15일(정축) 북풍이 불고 구름이 그늘을 드리웠다. 계속 정동에 머물렀다.

1월 16일(무인) 약간 흐렸다. 박창주(朴昌周)와 함께 걸어서 발치(鉢峙)를 넘어 반성동산(班城東山)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금산(琴山)을 지났다. 바지를 걷고 강천탄(江淺灘)을 건너 저물녘에 동물곡(冬勿谷) 이백지(李白只)의 집에 들어갔다. 진주 목사 안극효(安克孝)가 세전에 심리하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1월 17일(기묘) 약간 흐렸다. 진주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탄교(大灘橋)를 건너 소촌(召村)을 지났다. 박창주(朴昌周)는 진해(鎭海)로 가고, 나는 갈곡(葛谷)에 숙박하였다. 어제 진주향교 노비가 자살한 일로 교임(校任)이 모두 감옥에 갇혔다.

1월 18일(경진) 날씨가 위와 같다. 가치(加峙)의 정 서방에게 이르니, 조카 성대(聖大)와 덕비(德婢)가 소곡(所谷)에서 말을 끌고 와서 만났다. 점심을 먹을 뒤에 출발하였다. 바람이 급하게 불고 눈이 휘몰아쳤다. 집에 돌아오자 날은 이미 캄캄하고 눈꽃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1월 19일(신사) 눈이 한 치 남짓 쌓이고 밤이 되자 구름이 흩어졌다.

1월 20일(임오) 하늘이 맑고 동풍이 불었다. 해가 드는 곳은 쌓였던 눈이 거의 다 녹았다.

1월 21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갈곡(葛谷) 사돈부인 최씨(崔氏)의 상이 어제 나왔

76) 정동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한 마을. 정동(鼎洞)이란 마을이름이 지어진 유래는 마을 뒷산인 고소산(高蘇山) 정상(頂上)이 가마솥 모양(形)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동(鼎洞)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고소산 동쪽 마을이 솔골이며, 서쪽은 다시 도덕골과 장좌골로 나뉘어 불린다. 통영(統營) 가는 길목의 고개를 말티(馬峙)라 부르며 그 안쪽 마을이 도덕골이다. 도덕이라는 지명은 옛날 이곳에 도덕사(道德寺)라는 절이 있어서 그 절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장좌골은 현 오광대연수원 소재지 마을을 일컫는다.

다. 오늘 부고가 이르렀는데 전염병에 걸려 죽은 듯하여 며느리가 상가에 급히 가지 못했다.^고

1월 22일(갑신) 잠깐 비가 내리다가 잠깐 눈이 내리고 구름이 흩어졌다. 관아(觀兒)가 사천(泗川)에서 왔다

1월 23일(을유) 맑았다.

1월 24일(병술) 날씨가 위와 같다. 조카 정명열(丁命說)이 대구에서 왔다.

1월 25일(정해)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26일(무자) 시가[市直]가 조(租) 7말이다.

1월 27일(기축)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이었다. 내가 북통과 구역질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침을 맞고 뜸을 떴다.

1월 28일(경인)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1월 29일(신묘)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려 땅을 축축하게 적시니, 작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샘물이 비로소 흘렀다. 저녁에 해가 구름을 뚫고 낙숫물이 아직도 떨어졌다.

1월 30일(임진) 푸른 하늘이 서늘하고 북풍이 불어 지면이 갑자기 얼었다. 집집마다 지금에서 울타리를 막았다. 묵은 보리 가운데 1년을 묵어 땅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이번 비가 내린 뒤에 비로소 이따금 나왔다. 이달 초하루에 집에서 쓰는 물품을 사는데 조(租) 5섬이 들었다. 지금 각색조(各色租) 14섬 남짓 가운데 있는 것이 쌀 여섯 향아리, 적두(赤豆)와 콩 각 1섬, 당서(唐黍) 12말이다.

2월 소월(小月).

2월 1일(계사) 서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더니 저물녘에 빗방울이 잠깐 떨어졌다.

2월 2일(갑오) 잠깐 비가 내렸다.

2월 3일(을미) 밤에 일어나 은하수가 다투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이날은 바로 죽은 아내 김씨(金氏)의 기일이다. 옛날 생각에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겠기에 아이를 시켜 채소와 과일을 차리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절구 2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꿈을 꾸다 깬 처음에 밤이 나누어지려 하는데
북두성을 가리키며 아이들을 부르네
정령이 나에게 안부를 묻는다면
마디마디 정성으로 향을 함께 피우리라

殘夢初回夜欲分
點看星斗喚兒群
精靈若問吾安否
寸寸心肝香共焚

또 운을 바꾸어 지었다.

걱정스런 꿈에 자주 놀라니 밤은 이미 아득해서	愁夢頻驚夜已遙
매번 아이들을 불러 작은 등불을 밝히네	每呼兒輩小燈挑
정령이 나에게 안부를 묻는다면	精靈若問吾安否
마음으로 함께 피운 향 연기 반쯤 사라지리	心共香烟殆半消

2월 4일(병신) 서풍이 불었다.

2월 5일(정유) 환조(還租) 1섬의 값이 전 1냥 4전 남짓이니 흉년이라고 할 만하다.

2월 6일(무술) 북풍이 불었다.

2월 7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8일(경자) 맑았다. 신임 사또로 무반출신인 해주(海州) 사람 김기(金紀)가 부임하였다.

2월 9일(신축) 집 앞의 논두렁을 고쳐 쌓고 개척해 넓혔다.

2월 10일(임인) 동풍이 불고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다가 밤에는 달이 밝았다.

2월 11일(계묘) 시가[市直]가 조(租) 7말, 차조(次租) 8말인데 말이 매우 작았다. 청어(靑魚) 1묶음의 값이 4, 8푼이다.

2월 12일(갑진) 비가 내렸다. 정래서(丁來瑞)가 사위를 맞았다.

2월 13일(을사)

2월 14일(병오)

2월 15일(정미) 북풍이 불어 추웠다.

2월 16일(무신) 맑고 온화하였다. 지난 계해년(癸亥年)에 괴수가 사람의 시신을 먹는 일이 있었다. 지금 진해(鎭海)에 빈소를 열고 시신을 먹는 변고가 있는데 들여다보니 큰 호랑이였다고 한다. 괴이하다. 이 무슨 조짐이란 말인가? 몇해전 12월 모일에 호랑이 몇 마리가 도성에 들어가 가축을 해쳤는데 부아치(父兒峙)에서 잡았다. 또 박쥐[飛鼠]가 중국 땅에서 무수히 강을 넘어와 의주(義州) 경계에 들어와서는 오곡을 손상시키고 또 사람과 짐승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별감(別監) 어수홍(魚受泓)이 서울로 올라갈 때 직접 보고 듣고는 와서 전한 것이다. 괴이하고 괴이하다. 내가 음식이 소화가 안돼 뭉쳐 생긴 병으로 인해 평위산(平胃散) 7첩을 지었는데 값이 전 50이었다.

2월 17일(기유) 비가 내렸다.

2월 18일(경술) 하늘이 맑았다. 사또가 창원(昌原)에 사는 정옥(鄭鑿)의 청으로 문안단자를 보냈다. 답장만 보내고 찾아가서 인사하지는 않았다.

2월 19일(신해) 구름이 끼어 흐렸다. 어떤 읍의 남자가 호랑이로 변하여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2월 20일(임자) 구름이 끼어 흐렸다. 비로소 약을 복용하였다.

2월 21일(계축) 맑았다.

2월 22일(갑인) 날씨가 위와 같다.

2월 23일(을묘) 비가 내렸다.

2월 24일(병진)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2월 25일(정사) 비가 내리고 우레가 쳤다.

2월 26일(무오) 가랑비가 내렸다. 김광옥(金光玉)의 청으로 인해 김세금(金世今)의 효행을 드러내는 민장(民狀)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동읍(東邑) 아차포리(阿次浦里)에 사는 김세금은 포구와 바다에서 태어나 견문이 없습니다. 옷무게를 이길 만한 나이가 되고부터 더욱 부모를 사랑하는 정성을 돈독하게 하여 늘상 때때옷을 입고 놀며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웃에서 생선과 과일을 얻기라고 하면 반드시 자신이 먹지 않고 가지고 가서 부모에게 드렸습니다. 나이 고작 7세에 모친이 병으로 죽자 밥을 먹지 않으면서 애통해하여 거의 멸성(滅性)⁷⁷⁾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깥 빈소에 엎드려 곡을 하는데 어미를 부르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아 바람이 불어도 곡을 하고 비가 와도 곡을 하였으며 추위도 통곡하고 더위도 통곡하였습니다. 제철 음식을 보면 슬픔을 더욱 견디지 못하였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삼년을 보내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매번 기일을 만나면 30일 동안 고기반찬 없이 먹고 새벽과 저물녘에 자리를 만들어 쓰러져 슬프게 울기 때문에 고을의 노인과 젊은이들이 모두 들 감탄하였습니다. 이미 몇해 전에 그 아버가 70세를 넘겨 우연히 괴질에 걸려 토하고 목이 막혀 물도 넘기지 못한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치료해도 끝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1월 18일에 갑자기 사망하니 김세금이 손가락을 잘라 입에 흘려 보내자 잠시 뒤에 소생하고 이어 미음을 바치자 점차 나아갔습니다.

대개 김세금은 본래 물고기에 벗하는 사람으로 평소 해시(亥豕)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황향(黃香)⁷⁸⁾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육적(陸績)의 굴⁷⁹⁾을 품었으며, 우레를 만나 토란을 심는 감회는 이미 옛사람이 초상을 그려 추후에 휘한 정성에 양보하지 않을 정도이니 또한 옛 현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어찌 타고한 성품으로 일부러 꾸미지 않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석진(石珍)⁸⁰⁾처럼 손가락을 자르고 왕천(王薦)⁸¹⁾처럼 부모;

77) 멸성(滅性) : 멸성은 부모의 상을 당해 너무 슬퍼한 나머지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하는데, 《예기(禮記)》 상복사제(喪服四制)와 《효경(孝經)》 상친장(喪親章) 등에서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음식을 들어 멸성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있다.

78) 황향(黃香) : 후한(後漢) 때 인물로 자가 문강(文強)으로 강하(江夏) 안륙(安陸) 사람이다.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지극히 효성스러워 여름에는 베갯머리에서 부채를 부치고 겨울에는 몸으로써 이불을 따뜻하게 하였다.

《後漢書 卷80 文苑列傳》

79) 육적(陸績)의 굴 : 삼국 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육적이 다섯 살 때 구강(九江)에서 원술(袁術)을 만났는데, 상에 있던 굴 세 개를 품속에 넣었다가 절할 때에 한 개를 떨어 뜨렸다. 원술이 손님으로서 굴을 감춰다고 말하자, 육적이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려는 것이라고 대답한 고사(故事)가 있다. 《삼국지(三國志)》 오지(吳志) 육적전(陸績傳).

80) 석진(石珍) : 고려 때의 효자인 유석진(兪石珍)을 말한다. 아버지 천을(天乙)이 악질에 걸렸는데, 발작만 되면 숨이 끊어지니, 석진이 밤낮으로 옆에서 모시고 울부짖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 사람의 뼈를 피에 타서 마시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석진은 곧 왼손 무명지를 잘라 말대로 해서 먹었는데, 아버지 병이 곧 나았다.

81) 왕천(王薦) : 왕천이 병든 부모를 위해 꽃병에 나뭇가지를 꺾어 꽃이놓고 하늘에 빌었는데 왕천의 효행에 감동해 그

의 수명을 늘렸으니 또한 어찌 하늘이 이 사람의 순수한 효행과 지극한 정성을 인간세상에 드러내어 먼 바닷가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효성스럽습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극진해야 할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군자가 효성을 이야기 할 때 선을 높이고 금지를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살갓이 잘려지는 것도 잊은 채 이미 죽은 목숨을 잠시라도 연장시킨 것을 고금의 역사에서 찾아도 많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김세금은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으로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하늘에서 타고난 성품은 남들이 잘하기 어려운 바인데 그 사람만이 홀로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이러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있으면 효성을 다 없어지게 두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은 목소리로 서로 이끌고 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효도로써 다스리는 사또께서는 더욱 잘 살피시어 영문에 보고하여 특별히 포상하시고 진흙속의 연꽃같이 이 사람의 효성을 밝혀주시어 탁류를 맑게 하는 아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기미) 낮에는 흐리고 밤에는 맑았다

2월 28일(경신) 시가[市直]가 조(租) 6말인데 말이 너무 작았다.

2월 29일(신유) 찬비가 내리고 동풍이 불었다. 겨울을 나는 동안 싹트지 않던 보리가 봄이 되자 비로소 가끔 싹을 내기는 하는데 크게 자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3월 대월.

3월 1일(임술) 인간(寅艮, 북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습한 구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시가[市直]가 조(租) 7말, 차조(次租) 8말, 콩 3말이다.

3월 2일(계해) 흐렸다. 읍에 가서 돈 10냥으로 대동미(大同米) 2섬을 대납했다. 이때 좌수(座首)는 허후(許壘), 별감(別監)은 이우징(李祐徵)·배운복(裴潤復)이었다.

3월 3일(갑자) 질게 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렸다. 거제 사람이 어제 석전치(石田峙)에서 도적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변고를 만나 옷에 피를 가득 묻히고 문앞을 지나갔다. 고읍(古邑)의 며느리가 또 후박탕(厚朴湯)을 복용하였는데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3월 4일(을축) 구름이 끼어 흐렸다.

3월 5일(병인)

3월 6일(정묘) 비가 내렸다.

3월 7일(무진) 따듯하였다. 올벼와 중벼를 파종했다.

3월 8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9일(경오) 가끔 구름이 끼었다.

아버지의 병이 완치되고 열두 해를 더 살았으며 그 어미도 병이 즉시 나았다고 한다.

3월 10일(신미) 날씨가 위와 같다. 왕세손이 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부고⁸²⁾가 내려왔다.

3월 11일(임신) 구름이 많았다. 이날 별집 앞을 지나는데 별이 우연히 소매속으로 들어와 쏘았다. 잠시 뒤에 온몸이 가렵고 부풀어 오르더니 전신이 아파왔다. 이불을 끌어다가 덮고 땀을 내는 도리밖에 없었다.

3월 12일(계유) 서풍이 불었다.

3월 13일(갑술) 찌는 듯이 더웠다. 집 앞 밭둑을 넓히는 일을 이제서야 끝냈다. 이날 호미질을 하던 중에 깨진 옛 철조각 하나를 주었는데, 금덩어리 물리치는 관유안(管幼安)⁸³⁾의 맑은 모습을 회상하니 나도 모르게 균색한 탄식이 나왔다. 이날 밤에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고 흐렸다가 개었다.

3월 14일(을해) 비가 내렸다.

3월 15일(병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마을 사람 침지(僉知) 김석방(金碩芳)이 88세의 나이로 오늘 사망하였다.

3월 16일(정축) 구름이 사라지고 날이 더웠다. 남촌진(南村鎭)에 가서 (還租) 1섬을 받아서 팔아 돈 1냥 5전 5푼으로 바꾸어 왔다. 지난 2월에 진주 향교(晉州鄕校)에서 형차(刑差)가 문제를 일으킨 변고가 있었다. 진주 유생들이 소청을 설치하여 통문(通文)을 여러 고을에 보냈는데 관찰사 조재호(趙載浩)가 크게 노하여 통문에 들어있는 170여 명의 유생들을 모두 잡아들여 형추(刑推)하고 또 여러 고을에 통문을 발송한 생도(生徒)를 붙잡아 가두었다. 우리 지역도 그 화를 입었다.

3월 17일(무인) 구름이 끼어 흐렸다. 우리 지역에서 통문을 보낸 유생 16명에게 칼을 썩우고 잡아들이니, 지금의 이런 상황은 너무도 위태롭고 두렵다.

3월 18일(기묘) 잠깐 비가 내리기도 했다. 밤이 되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환조(還租) 1섬 당 돈은 6전(錢)이다.

3월 19일(경진) 습한 구름이 비를 몰고 왔다.

3월 20일(신사) 추웠다. 말에게 꼴을 먹였다.

3월 21일(임오) 날씨가 위와 같다. 석노(石奴)의 처가 발광병에 걸리니 그 모습이 흉

82) 왕세손이 …… 부고 :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맏아들 의소세손(懿昭世孫)의 부고이다. 의소세손은 1750년(영조26) 8월 27일에 태어나 1752년(영조28) 3월 4일에 3세의 나이로 통명전(通明殿)에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그해 4월 12일 손자에게 의소라는 시호를 친히 내려주었다. 그 뒤 아버지 사도세자가 1809년 장종(莊宗)으로 처음 추존되었을 때, 의소세자(懿昭世子)로 격상되었고 장종이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로 다시 추존되자, 의소태자(懿昭太子)로 역시 격상되었다. 능원은 의령원(懿寧園)이다.

83) 관유안(管幼安) : 유안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주허(朱虛) 사람인 관녕(管寧)의 자이다. 그는 황건적(黃巾賊)의 난에 요동(遼東)으로 피난 갔는데 그곳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아 한 고을을 이룰 정도였고 이들에게 시서를 강론하여 교화를 이루었다. 그는 여러 차례 천거를 받았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문제(文帝)가 즉위, 조서로 부르자 그제야 가족을 거느리고 바다에 배를 띄워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누차 소명(召命)을 받았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늘 검은 관(冠)을 썼다고 한다. 《三國志 卷11 魏書 管寧傳》

하고 괴이하였다.

3월 22일(계미)

3월 23일(갑신) 맑고 온화하였다.

3월 24일(을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25일(병술) 구름이 끼었다가 맑았다가 하였다.

3월 26일(정해) 본현의 유생들이 순영(巡營)에 이르러 지난 22일에 각각 한 차례 형장을 맞은 뒤에 좌도와 우도의 먼 고을로 나누어 보내 엄격하게 가두었다고 하였다. 통문을 보낸 세 재임(齎任)인 이호징(李虎徵)·최경함(崔慶咸)·최종백(崔宗伯)과 통문에 참여한 최지대(崔至大)는 의성(義城)에 수감되고, 최운회(崔運會)·허선(許塏)·(이정룡(李挺龍)·이난징(李鸞徵)은 하양(河陽)에 수감되었다. 이정봉(李挺鳳)·노운(盧芸)은 선산(善山)에 수감되고, 이한우(李翰宇)·이한진(李翰振)·곽상후(郭相厚)는 성주(星州)에 수감되었다. 다만 최경복(崔慶復)·최경진(崔慶晉)은 노약자라는 이유로 장 30대를 맞고 풀려났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영남에 난리가 난 것과 같으니, 슬프고 가련하다고 하겠다.

3월 27일(무자) 비가 내렸다.

3월 28일(기축) 흐렸다.

3월 29일(경인) 잠깐 비가 내렸다.

3월 30일(신묘) 흐렸다.

4월 소월.

4월 1일(임진)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곧바로 흩어졌으며 따뜻하였다. 시가[市直]가 쌀 3말 2, 3되, 조(租) 7말이다.

4월 2일(계사) 따뜻하였다.

4월 3일(갑오) 날씨가 위와 같다. 이때 진주 향교의 통문 사건으로 여러 고을의 유생 중에 파산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고, 진주 선비 가운데 벌써 죽은 자도 있고 죽을 지경인 자도 많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4월 4일(을미) 맑고 더웠다.

4월 5일(병신) 날씨가 위와 같다. 김광옥(金光玉) 모친의 대상(大祥)에 갔다가 돌아왔다.

4월 6일(정유) 동풍이 불고 비가 잠깐 내렸다.

4월 7일(무술) 가랑비가 내렸다.

4월 8일(기해) 이슬비가 내렸다. 술 한 동이를 상인(喪人) 김준망(金俊望)의 산역(山役)에 부조하였다. 저녁이 되자 햇별이 나고 화창하였다.

4월 9일(경자) 닭 한 마리를 상인 윤상징(尹商徵)에게 부조하고 돌아왔다.

4월 10일(신축) 서풍이 불었다.

4월 11일(임인) 온화하였다.

4월 12일(계묘) 구름이 끼고 더웠다. 따뜻하였다. 가치(加峙)의 질녀 신행에 둘째 아이가 호송하였다.

4월 13일(갑진) 바람이 불고 맑았다.

4월 14일(을사)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15일(병오) 동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렸다.

4월 16일(정미) 비가 내렸다. 도유사(都有司) 최경복(崔慶復)이 순영에서 곤장을 맞고 돌아온 뒤에 다른 병까지 더해져 어제 저녁에 사망하였다. 노모의 나이가 80세인데 딱하고 딱하다.

4월 17일(무신) 오후에 소낙비가 내리고 우레가 크게 쳤다.

4월 18일(기유)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지나갔다. 어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릴 때 북면에서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조카 류상순(柳尙純)이 이장하는 곳에서 금송(禁松)을 어긴 일로 통영 감옥에 한 달 갇혔다가 그제 곤장 13대를 맞고 풀려나왔다. 그래서 아관(阿觀)을 보내어 위로하였다.

4월 19일(경술) 서풍이 불었다.

4월 20일(신해) 이때 샘물이 끓어지려 하니 농가에서 비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4월 21일(임자) 더웠다.

4월 22일(계축) 서풍이 불었다.

4월 23일(갑인)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고 뜨거운 해가 뜨기도 하였다. 이 매형과 함께 용동(龍洞)에 갔다.

4월 24일(을묘) 용동 자형의 두 번째 기일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5일(병진) 가랑비가 내렸다.

4월 26일(정사) 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4월 27일(무오) 동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렸다.

4월 28일(기미)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29일(경신) 비가 내렸다. 이날 송정리(松亭里)에 사는 아이가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

5월.

5월 1일(신유) 서풍이 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2일(임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5월 3일(계해)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다.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올해 보리는 일찍 싹이 난 것은 전에 없이 크게 풍년이 들었지만 봄이 되어 나온 것들은 애당초 가망이 없었으니 보리가 제대로 수확이 된다면 다행이다. 봄에 시가[市直]가 조(租)는 7, 8말에 불과했고, 쌀은 3말 혹은 3말 2, 3되에 불과했다. 보리농사가 조금 희망이 보인 뒤로 점차 가격이 올라 그제 시가가 조 9말 혹은 10말, 쌀 4말 혹은 4말 2, 3되가 되었다.

5월 4일(갑자) 구름이 많았다. 본현의 김 사또가 호랑이 사냥을 보러 나갔다.

5월 5일(을축) 가랑비가 내렸다.

5월 6일(병인) 더러 가랑비가 내렸다.

5월 7일(정묘) 또 잠깐 비가 내렸다.

5월 8일(무진)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9일(기사) 구름이 얇게 끼었다.

5월 10일(경오) 굵은비가 내렸다.

5월 11일(신미)

5월 12일(임신)

5월 13일(계유) 이상 비가 내려 개울이 시끄럽게 흘렀다.

5월 14일(갑술) 비가 개지 않았다.

5월 15일(을해) 남풍이 불고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16일(병자) 이슬비가 내렸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0말, 쌀 4말인데 1말 보리는 전 4, 5푼에 불과했다. 해산물이 너무 귀해 말린 청어[乾靑魚] 1묵음의 값이 6푼씩이나 되었다.

5월 17일(정축) 저물녘에 날이 개었다.

5월 18일(무인) 조금 구름이 끼었다.

5월 19일(기묘)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20일(경진)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5월 21일(신사) 비가 그치지 않았다. 진주향교의 통문 사건으로 여러 곳에 수감되었던 유생들이 관에서 장 17대를 맞고 풀려났다. 올해 영남 사람들의 액운은 또한 시변(時變)에 관계된 것이다.

5월 22일(임오)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5월 23일(계미)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5월 24일(갑신)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5월 25일(을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5월 26일(병술) 따가운 햇빛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가리(佳里)에 가서 이 도유사(李都有司)를 문안하고 돌아왔다.

5월 27일(정해) 더웠다.

5월 28일(무자)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29일(기축) 잠깐 비가 내리고 동풍이 불었다.

6월 소월.

6월 1일(경인) 동풍이 불고 가끔 가랑비가 지나갔다.

6월 2일(신묘) 찌는 듯이 덥다가 가랑비가 내리다가 하였다. 큰 아이를 보내 형장을 받은 사람들을 위문하게 하였다.

6월 3일(임진) 비가 내리기도 하고 더러 뜨거운 해가 나오기도 했다.

6월 4일(계사) 가랑비가 내렸다.

6월 5일(갑오)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6일(을미) 비가 주룩주룩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6월 7일(병신) 가랑비가 내렸다. 갈산(葛山) 류 매형과 족장(族丈) 류천정(柳天禎)이 장암(壯庵)의 임시거처에서 방문하여 그대로 머물렀다. 비가 쏟아졌다.

6월 8일(정유) 비가 내려 냇물이 불고 저물녘에 개었는데 매우 더웠다.

6월 9일(무술)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10일(기해)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11일(경자)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12일(신축) 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6월 13일(임인) 비가 쏟아지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6월 14일(계묘) 비가 개지 않았다.

6월 15일(갑진) 남풍이 불고 축축하게 비가 내렸다.

6월 16일(을사)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6월 17일(병오)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18일(정미) 날씨가 위와 같다. 본현의 사또가 거상(居上)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잔폐한 고을이 어수선하지 않고 바닷가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는다.[弊邑不撓, 海民不怨]”는 것이었다. 지난친 칭찬이라고 하겠다. 올벼에서 이삭이 나왔다.

6월 19일(무신)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20일(기유) 안개가 사라지고 햇볕이 따가웠지만 바람이 훈훈하였다.

6월 21일(경술)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22일(신해) 매우 더웠다.

6월 23일(임자)

6월 24일(계축) 구름이 끼었다.

6월 25일(갑인) 산에 비가 내려 연기를 피운 듯하였다.

6월 26일(을묘) 햇빛이 매우 더웠다.

6월 27일(병진) 날씨가 위와 같다. 별장(別將)⁸⁴ 이성원(李聖元)이 아침 식전에 방문하였기에 14냥을 주고 말을 매입하였다.

6월 28일(정사) 더웠다. 임아(臨阿)를 보내어 용전(龍田)의 허 상인(許喪人)을 조문하였다.

6월 29일(무오) 비가 시원스레 내렸다. 임아가 허 상주(許喪主)를 만나고 장산(獐山)⁸⁵의 임시거처에 나무를 심고 돌아왔다.

7월 대월.

7월 1일(기미) 비가 와서 길에 빗물이 흘렀다. 시가[市直]가 조(租) 10말, 밀 14말, 보리 4말, 백미 4말 2, 3되이다.

7월 2일(경신) 덥고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3일(신유) 소낙비가 내렸다.

7월 4일(임술) 소낙비가 내렸다.

7월 5일(계해) 비가 내렸다.

7월 6일(갑자) 장마비가 가끔 내렸다.

7월 7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8일(병인)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9일(정묘) 저녁에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7월 10일(무진) 사람이 마치 시루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더웠다.

7월 11일(기사) 덥고 비가 잠시 뿌렸다.

7월 12일(경오) 저녁에 비가 내렸다.

7월 13일(신미) 비가 내려 물을 불어나게 했다.

7월 14일(임신) 찌는 듯이 덥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다. 김양장(金良長)이 방문하여 유

84) 별장 : 조선시대 지방 산성·나루터·포구·보루·소도(小島) 등의 수비를 맡은 종9품 무관으로,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에 있었던 남촌진의 진장(鎭將).

85) 장산: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章山)마을. 원래 장산(獐山)이라 불러 왔는데, 이는 마을 뒤쪽 산의 형상이 노루가 누워있는 형태와 같다고 하여 이름 하였다고하며 조선조 중엽 때에 천산재(天山齋) 허선생(許先生)의 문장(文章)이 나라 안에 널리 알려지면서 지명도 글 ‘장(章)’자의 장산으로 자구(字句)가 바뀌었다. 장산마을은 김해 허씨(許氏) 문중의 집성촌으로, 고려 말 충신 정절공(貞節公) 호은(湖隱) 허기(許麒) 선생이 신돈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곳 고성의 대섬(竹島:현 수남동)으로 유배(流配) 당하였는데 그 후에 왕이 신돈을 처벌하고 선생을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지금의 장산마을에 터를 잡고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장산마을은 북쪽은 장산(獐山), 남쪽은 금정산(金井山), 서쪽은 오방산(五芳山)에 둘러 싸여 마을 앞은 넓은 “황새미들”이 펼쳐 있고 들 가운데로 마암천이 흐르고 마을 앞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863호로 지정된 장산 숲이 우거져 있어 이름난 낙지(樂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숙했다.

7월 15일(계유) 동남풍이 불었다.

7월 16일(갑술) 저녁에 비가 내려 나뭇잎에 소리가 났다.

7월 17일(을해) 잠깐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태질(泰侄)이 어제 광양(光陽)에서 왔는데 경유한 여러 고을의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 것 같다고 하였다.

7월 18일(병자) 바람이 불고 구름이 어지럽게 날렸다. 내가 일이 있어 읍에 갔다가 마침 윤 진사(尹進士)를 만났는데, 사또의 요청으로 백일장을 준비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와 함께 만화당(萬和堂)에서 숙박하였다. 김석조(金錫祚)도 함께 숙박하였다.

7월 19일(정축) 구름이 끼고 찌는 듯이 더웠다. 관에서 백일장을 열고 선비를 모아 자리를 마련하니, 지역 선비들이 윤 진사가 시험관이 된 것을 싫어하여 말들을 하였다. 사또가 화를 내며 파장(罷場)하고 관찰사에게 보고하려고 하였다. 많은 선비들이 다시 요청하여 백일장을 열었다. 사또와 도훈장(都訓長) 이정인(李挺寅), 윤식일(尹植一)로 개명한 진사 윤상갑이 시험관으로 참여하였다. 시부(詩賦)의 제목을 똑같이 ‘주(周) 나라를 낚다[釣周]⁸⁶⁾로 했다. 배상빈(裴尙彬)이 아우인 배상표(裴尙彪)의 손을 빌려 부에서 1등을 차지했다. 임아(臨阿)와 조카 이승룡(李升龍)이 합격했다. 연회가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7월 20일(무인) 저녁에 비가 내렸다.

7월 21일(기묘)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맑아졌다.

7월 22일(경진)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했다.

7월 23일(신사) 비가 쏟아졌다.

7월 24일(임오) 구름이 끼고 더웠다.

7월 25일(계미)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7월 26일(갑신) 구름이 끼고 햇별이 났다.

7월 27일(을유) 가끔 흐렸다.

7월 28일(병술) 서쪽 산에 뿌영계 비 올 기미가 보였다.

7월 29일(정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밤에 쏟아져 냇물이 흘렀다.

7월 30일(무자) 남풍이 구름을 걷었는데 저물녘에 또 흐렸다. 류 족장(柳族丈) 쌀 2말을 보내왔다.

8월 소월.

86) 주(周) 나라를 낚다[釣周] : 강태공(姜太公)이 주(周) 나라에 가서 위수(渭水)에서 낚시질을 할 때 낚은 낚시[直釣]를 썼다 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것은 고기를 잡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문왕(周文王)을 낚은 것이다.” 하였다. 강태공은 위천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다가 문왕(文王)을 만나서 세상에 나왔고, 또 무왕(武王)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였다.

8월 1일(기축) 서남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찌는 듯이 더웠다. 오후에 비가 퍼붓듯이 내리더니 저녁에도 비가 많이 내려 냇물과 도랑에 물이 어지럽게 흘렀다. 읍에 갔다가 돌아왔다.

8월 2일(경인) 가끔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8월 3일(신묘)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4일(임진) 찌는 듯이 더웠다. 한 께미 미전(米錢)을 주고 돼지를 사서 왔다. 줄을 풀어 우리에 넣으려고 하는데 울타리를 치고 달아났다. 날이 너무 캄캄해서 찾지 못하였다.

8월 5일(계사) 새벽에 안개가 산에 뽁뽁하게 끼었다. 밭에서 도망간 돼지를 찾았는데 산기슭으로 도망쳤다. 아승(阿升)이 쫓아가 붙잡고 밧줄에 묶어 돌아왔다. 오후에 비가 쏟아지다가 가끔 해가 나서 찌는 듯이 더웠다.

8월 6일(갑오) 더웠다.

8월 7일(을미)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8일(병신) 맑았다.

8월 9일(정유) 구름이 날렸다.

8월 10일(무술)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11일(기해) 온화하였다.

8월 12일(경자) 새벽에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오늘은 수조(水操: 수군을 조련하는 일)하는 날이다. 두 번째 기일의 입재(入齋)이다. 방문객은 다른 책에 기록하였다. 부의 내용이다. 류천정(柳天禎) 쌀 1말, 한득량(韓得良) 쌀 1말, 강시범(姜時汎) 수박[西果] 1개, 명태(明太) 7마리, 안수생(安秀生) 닭 1마리, 호두(胡桃) 1되, 이시만(李時萬) 쌀 1말, 류매형(柳妹兄) 백미 2말, 찹쌀 1말, 박범석(朴範錫) 쌀 1말, 백봉래(白鳳來) 쌀 1말, 수박(西瓜) 1개, 정평금(鄭平金), 쌀 1말, 강섬(姜暹), 쌀 5되, 김광옥(金光玉) 쌀 1말, 외사촌 이만정(李萬禎) 쌀 1말, 최석경(崔錫慶) 생닭 1마리, 이국삼(李國森) 닭 1마리, 백준건(白俊健) 닭 1마리, 김진추(金進秋) 닭 1마리, 박중경(朴重卿) 닭 1마리, 황순태(黃順太) 닭 1마리, 이오좌미(李五左味) 명태 5마리, 전복(全卜) 1개, 생복(生卜) 3개, 정태항(鄭泰桓) 닭 1마리, 최서귀(崔瑞龜) 전 1전(錢), 조득(趙得) 수박 1개, 김하석(金夏石) 감 50개. 잔을 올린 사람은 계동(契洞) 큰 매형과 둘째 매형, 두포(頭浦) 이매형(李妹兄)·정명열(丁命說)·김상연(金尙演)·김준망(金俊望)·최성원(崔成遠)·김하추(金夏秋)·김하석(金夏石)·박유장(朴有章)·강세평(姜世平)·이진태(李進太)·이진성(李進成)이다.

8월 13일(신축) 온화하였다. 빈소를 철거하였다.

8월 14일(임인)

8월 15일(계묘) 동남풍이 불고 잠깐 빗방울이 떨어졌다. 산소에 제사를 지냈다.

8월 16일(갑진)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8월 17일(을사) 맑고 따뜻하였다. 문덕순(文德純) 등이 방문했다.

8월 20일(병오) 맑았다. 사형(查兄) 박태중(朴泰中)이 지사(地師) 김유(金瑜)와 함께 통영에서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8월 19일(정미) 박 사형은 돌아가고 김 지사는 머물렀다.

8월 20일(무신) 가끔 비가 내렸다. 형제와 아임(阿臨)이 김 지사와 함께 당동산(堂洞山) 유좌(酉坐)를 살펴보고 안정동(安井洞)을 경유하여 사기막치(沙器幕峙)를 넘어 은적암(隱寂庵)에서 점심을 먹었다. 도선(道善)에 이르러 오합동(五合洞) 강신터[講信基] 자좌산(子坐山)에 올라갔다가 밤에 돌아왔다.

8월 21일(기유) 따뜻하였다. 또 월복산(月卜山)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8월 22일(경술) 더웠다.

8월 23일(신해) 잠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잠깐 개이기도 하였다.

8월 24일(임자) 구름이 끼어 흐렸다가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8월 25일(계축)

8월 26일(갑인)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8월 27일(을묘) 온화하였다.

8월 28일(병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9일(정사)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지고 서풍이 잠깐 불었다. 관찰사 윤동도(尹東道)가 진주에서부터 순찰하여 저물녘에 본현에 왔다. 이때 성묘(聖廟) 중수에 쓸 향축을 객사에 봉안하였기 때문에 성안에서 벽제(辟除)⁸⁷⁾하거나 화포를 쏘거나 나팔을 불지 못한다고 하였다.

9월 대월.

9월 1일(무오) 서북풍이 불었다. 관찰사가 통영에 돌아갔다.

9월 2일(기미)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9월 3일(경신) 어제 오늘 비가 계속 내리더니 저물녘에 그쳤다. 관찰사가 통영에서 본읍으로 왔다.

9월 4일(신유) 온화하였다. 관찰사가 진해(鎭海)로 향했다.

9월 5일(임술) 맑았다.

9월 6일(계해)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7일(갑자)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8일(을축) 구름이 끼어 흐리더니 비가 내렸다. 안정(安井) 남산의 끝자락 유좌(酉坐)에 표식을 해두었다.

87) 벽제(辟除) : 지위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중 별배(驅從別陪)가 잡인의 통행을 통제하던 일을 말한다.

9월 9일(병인) 동풍이 불고 찬비가 내렸다.
9월 10일(정묘) 약간 흐렸다. 성묘 이안제(移安祭)를 지냈다.
9월 11일(무진) 성묘를 헐었다.
9월 12일(기사) 가을걷이가 점차 바빠졌다.
9월 13일(경오) 따뜻하였다.
9월 14일(신미) 구름과 해가 반반이었다.
9월 15일(임신) 서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9월 16일(계유) 夜半잠깐 비가 내렸다.
9월 17일(갑술) 춥고 구름이 끼어 흐려지려 하였다.
9월 18일(을해) 청량하였다.
9월 19일(병자)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20일(정축)
9월 21일(무인) 이상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22일(기묘)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23일(경진) 잠깐 비가 내렸다.
9월 24일(신사)
9월 25일(임오) 따뜻하였다. 아관(阿觀)이 집을 치기 위해 김해(金海)로 갔다.
9월 26일(계미) 잠깐 비가 내렸다.
9월 27일(갑신) 종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9월 28일(을유) 맑고 따뜻하였다.
9월 29일(병술)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30일(정해) 동풍이 불어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10월 대월.

10월 1일(무자) 서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 가끔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했다.

10월 2일(기축) 햇별이 났다. 아관(阿觀)이 창원(昌原)의 동종(同宗)들을 방문하고 오늘 돌아왔다.

10월 3일(경인) 따뜻하였다.

10월 4일(신묘)

10월 5일(임진)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0월 6일(계사) 북풍이 불고 몹시 추웠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1말, 차조(次租) 12말, 쌀 4말 8되이다. 생선과 과일이 가장 귀했다.

10월 7일(갑오)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8일(을미) 온화하였다.

10월 9일(병신) 구름이 끼었다.

10월 10일(정유) 이슬비가 내렸다.

10월 11일(무술)

10월 12일(기해) 이상 날씨가 추웠다.

10월 13일(경자) 추웠다. 이날 밤 감회에 젖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저녁 숲 단풍잎에 가늘게 바람이 부니
꿈결에 깨어 발자국 소리인가 착각하네
우스워라 매화의 넋이 외롭지 않게 하려
의연히 달의 모습으로 빈창에 떠오르네

暮林霜葉細隨風
殘夢初回錯認聲
笑煞梅魂欺獨宿
依然帶月上虛窓

10월 14일(신축) 해가 나고 온화하였다.

10월 15일(임인) 햇별이 나고 따뜻하였다. 북풍이 불었다. 밤에 또 절구 한 수를 읊었다.

벗은 오지 않고 온갖 병만 찾아드니
저녁상 물리고 그새 잠자리에 드네
어찌하여 윤달은 지금도 떠올라
이웃 다듬이 소리로 내 마음을 두드리나

一友不來百病尋
夕飡方退已披衾
如何閏月今猶在
照得鄰砧搗我心

10월 16일(계묘)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17일(갑진) 짙게 구름이 끼었다.

10월 18일(을사) 햇별이 나고 따뜻하였다.

10월 19일(병오) 춥고 바람이 불다가 저물녘에 따뜻해졌다.

10월 20일(정미) 굵은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10월 21일(무신) 온화하였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10월 22일(기유) 구름이 흩어졌다.

10월 23일(경술) 추웠다. 이날 밤에 편안하게 자다가 깨니 차가운 달이 높이 떠올라 있었다. 입으로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산 남쪽에 구름 걷히고 비 개이니
하늘은 맑고 달은 허공에 떠있네

雲捲山南雨霽初
洞天寥廓月懸虛

티끌 한 점 내 마음에 이르지 않으니
많은 집들이 화서⁸⁸⁾에 닿아있네

点塵不到靈臺境
萬戶千門接華胥

10월 24일(신해) 아침에는 춥고 저물녘에는 따뜻하였다.

10월 25일(임자) 바람이 불어 추웠다.

10월 26일(계축)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10월 27일(갑인) 맑았다.

10월 28일(을묘) 춥지 않았다. 관에서 향교에 보관된 책을 점검하여 잃어버린 책에 대해서는 당시의 재임(齎任) 3명과 유사 2명에게 권당 돈 5전씩을 걷으니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10월 29일(병진) 온화하였다.

10월 30일(정사) 온화하였다.

11월 소월.

11월 1일(무오) 동풍이 불기도 하고 북풍이 잠깐 불기도 했지만 날씨는 몹시 따뜻하였다.

11월 2일(기미)

11월 3일(경신) 이상 날씨가 햇볕이 나고 따뜻하였다.

11월 4일(신유) 날씨가 위와 같다. 임아(臨阿)가 그의 장모 장례를 보기 위해 어제 갔다가 오늘 돌아왔다.

11월 5일(임술) 바람이 불어 추웠다. 요즘 생선이 너무 귀해 민가에서 채소만 먹으며 지낸지 열흘이나 달포를 넘기고 있다. 9월에 왕세손이 또 탄생하였다.⁸⁹⁾

11월 6일(계해) 그다지 춥지 않았다.

11월 7일(갑자) 따뜻하였다.

11월 8일(을축) 날씨가 위와 같다.

11월 9일(병인) 이슬비가 내렸다.

88) 화서(華胥) : 황제(黃帝)가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이상 국가(理想國家)의 이름이다. 황제가 이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되는 꿈을 꾸고는, 여기에서 계발되어 천하에 크게 덕화(德化)를 펼쳤다는 전설이 전한다. 《列子 黃帝》

89) 9월에 …… 탄생하였다 : 왕세손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正祖, 1752~1800)를 말한다. 이름은 산(禛).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로. 영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장헌세자(莊獻世子 : 思悼世子)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비는 좌참찬 김시묵(金時默)의 딸 효의왕후(孝懿王后)이다. 1759년(영조35) 세손(世孫)에 책봉되고, 1762년 세자인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뒤 동궁으로 불렸으며, 1764년 2월 어려서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 뒤의 眞宗)의 후사가 되었다. 1776년 25세에 왕위에 즉위하였으며 1800년 4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1월 10일(정묘)

11월 11일(무진) 구름이 끼었다.

11월 12일(기사) 날씨가 위와 같다.

11월 13일(경오) 따뜻하였다.

11월 14일(신미) 청명하였다.

11월 15일(임신) 서북풍이 불고 더러 동풍이 불기도 했다. 날씨가 햇볕이 나고 따뜻하였다.

11월 16일(계유) 눈꽃이 어지럽게 날렸다. 15냥의 돈과 대조(代租) 6섬으로 김상연(金尙演)의 집자(執字) 밭 18두락지와 콩밭 3두락지를 매입하였는데 매년 12짐의 수확량이 생산되는 땅이다.

11월 17일(갑술) 때때로 눈이 조금 내렸다.

11월 18일(을해) 그다지 춥지 않았다.

11월 19일(병자) 날씨가 위와 같다.

11월 20일(정축)

11월 21일(무인) 날씨가 위와 같다. 시가[市直]가 쌀 5말이다.

11월 22일(기묘) 바람이 불고 맑았다.

11월 23일(경진) 춥고 구름이 끼었다.

11월 24일(신사) 날씨가 위와 같다.

11월 25일(임오) 바람이 불고 매우 추웠다. 이날 사문(赦文)이 내려왔는데 동궁[靑邸]이 홍역을 잘 이겨냈기 때문이다. 지금 홍역이 치성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세자가 홍역을 순조롭게 이겨냈으니, 국가의 크나큰 경사이다.

11월 26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11월 27일(갑신) 짙게 구름이 끼었다.

11월 28일(을유) 흠비가 내렸다.

11월 29일(병술) 북풍이 불고 약간 흐렸으며 날씨가 몹시 추웠다.

12월 대월.

12월 1일(정해) 북풍이 갑자기 소리내며 불고 조각구름이 날렸으나 추위는 매섭지 않았다.

12월 2일(무자) 짙게 구름이 끼고 매우 추웠다. 금노(今)가 지난달 20일 이후로 홍역을 앓았는데 이제야 흉터가 생겼다.

12월 3일(기축) 북풍이 불어 추웠다. 오늘 큰 호랑이가 성안에 들어와 대낮부터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대여섯 명의 사람을 물어 죽였으며 상처를 입힌 경우도 많았다. 추

영재(秋永才)가 읍의 남쪽 산에서 총을 쏘아 붙잡았다.

12월 4일(경인)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5일(신축) 조금 구름이 끼었다. 아관(阿觀)이 그제 고읍(古邑)에 갔다가 오늘 돌아왔다.

12월 6일(임인) 바람이 불어 추웠다.

12월 7일(계사) 북풍이 칼날처럼 매서웠다.

12월 8일(갑오) 새벽에 보니 눈이 어지럽게 날리고 북풍이 잠깐 소리 내며 불었다. 저녁이 되자 눈이 1치 가까이 쌓이다가 그쳤다. 둘째 아이와 막내 아이가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밑의 두 아이도 또 오늘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다.

12월 9일(을미) 북풍이 불고 길게 구름이 끼었으며 날씨가 몹시 추웠다. 임아(臨阿)가 지난 6일에 통영에 들어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는데 그 아이도 7일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였다.

12월 10일(병신) 눈이 온 후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풀리지 않았으며 쌓인 눈이 녹지 않았다. 의사 박범석(朴範錫)이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12월 11일(정유) 먹구름이 어지럽게 떠다니고 눈이 조각조각 날렸다. 오늘 여러 아이들이 홍역에 걸려 흉터가 생겨서 증제(飮祭)를 지냈는데 둘째 며느리도 어제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다.

12월 12일(무술) 북풍이 심하게 불고 밤에 산에 눈이 왔다.

12월 13일(기해) 몹시 추웠다.

12월 14일(경자) 몹시 추웠다. 갈곡(葛谷) 며느리가 한밤중부터 태동(胎動)이 있더니 이른 아침에 해산을 해서 딸을 낳았다. 아임(阿臨)이 행랑방으로 나갔다. 오후에 고읍(古邑)의 며느리에게 다른 병이 갑자기 생겨 죽음의 문턱에 들락날락했다. 둘째 딸아이도 또 홍역에 걸렸다.

12월 15일(신축) 하늘이 맑고 날씨는 조금 풀렸다. 고읍 며느리의 다른 병이 수시로 일어나 살기 어려울 듯하였다. 그래서 종을 보내 고읍에 기별을 하였다.

12월 16일(임인)乍따뜻하였다. 임아(臨阿)가 설사를 하였다.

12월 17일(계묘) 약간 흐렸다. 고읍 며느리가 어제 저녁부터 가미갈근탕(加味葛根湯)을 복용하여 병이 우선 더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 임아의 설사 병도 조금도 줄지 않았다.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백주(白酒)에 흑설탕과 백불자(百沸湯)를 넣고 끓이다가 식으면 복용하게 하였다. 밤에 눈이 내리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했다.

12월 18일(갑진) 몹시 추웠다. 며느리의 병에 약간 차도가 있었다. 본현 사또인 김후기(金侯紀)가 거하(居下)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재앙을 어찌하여 받은 것인가? 아무래 시간이 오래되어도 용서하기 어렵다.[前災何受, 雖久難恕]”는 것이었다.

12월 19일(을사) 추위가 더욱 심해졌다. 고읍(古邑)의 박 사형(朴査兄)이 그제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임아(臨阿)의 설사병이 조금 차도가 있는 듯하였다. 또 지룡탕(池龍湯)과 황계적(黃鷄炙)을 복용하였다.

12월 20일(병오) 바람 불고 추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1일(정미) 찬 구름이 저물녘에 흩어지고 추위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12월 22일(무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다가 저물녘에 걷혔다. 나는 읍에 갔다가 서울 사람인 만호(萬戶) 이정욱(李挺郁)이 머무는 집에 숙박하였다. 한밤중에 통영에 초등청어(初等靑魚)를 진상하기 위해 나갔다.

12월 23일(기유) 얇게 구름이 끼었다가 잠깐 햇볕이 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4일(경술) 몹시 추웠다. 어제 봉진(封進)한 청어는 좌도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12월 25일(신해)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매우 추웠다. 임아(臨阿)가 경면주사익원산(鏡面朱砂益元散)을 복용하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재산을 탕진하는 방탕한 사람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열두 봉우리 꼭대기에 한 점 조각구름	十二峯頭一片雲
왔다가 갔다가 하며 모였다가 도로 나뉘네	乍來乍去合還分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정 끌리는 꿈꾸지만	世人謾作牽情夢
단전을 들불이 태우는 줄 모른다네	不識丹田野火焚

우산이 도끼질에 민둥산 되는 걸 모른다네	不識牛山濯斧斤
------------------------	---------

분(焚)과 근(斤) 두 개의 운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였기에 지금 우선 두 개를 다 남겨놓아 안목을 갖춘 사람을 기다린다.

12월 26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7일(계축) 서울의 둔감(屯監)⁹⁰인 만호(萬戶) 이정욱(李挺郁)의 요청으로 고을에 들어가 의소묘둔감치산어람성책(懿昭墓屯甘峙山御覽成冊)을 베끼고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8일(갑인) 북풍이 불고 구름이 얇게 끼었으며 날씨가 몹시 추웠다. 조카 정명열(丁命說)과 함께 창명산(昌明山)에 가서 두포(頭浦) 도유사(都有司) 이기석(李棋錫)의 장례를 조문하고 돌아왔다. 이때 하늘은 맑고 북풍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포구에 얼음이 얼어붙어 땅처럼 보일 정도였다. 읍앞 장항포(獐項浦)⁹¹에 얼음이 언 것은 근래 보지 못

90) 둔감(屯監) : 고려와 조선 시대에 둔토(屯土)를 감독하던 관직이다.

했던 것이다. 이는 필시 내년엔 일이 있을 조짐이다. 도유사 이기석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신선이 푸른 바닷가로 부르니	仙侶招招碧海濱
향산의 옛 자리엔 땅에 반쯤 묻혔네	香山舊席半埋塵
지극히 즐거운 곳이 남쪽이라 하지 마오	休言至樂稱南面
우리 고을은 덕 있는 이웃을 잃었다오	其奈吾鄉德失鄰

올해 우리 지역에서 부로(父老)의 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올해는 흉역으로 사망자의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사망의 민가에서 곡소리가 서로 들렸다. 이날 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 편안하게 잘 수 없었다.

12월 29일(을묘)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시장에서 청어 1마리 값이 1전 3푼이라고 하는데 그 마저도 얻기 어렵다고 하였다.

12월 30일(병진)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었으며 추위가 뼈에 파고들었다. 저녁에 종을 보내 돈과 쌀을 가지고 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말고 생선을 구해오게 했다. 다행히 청어가 많이 나오는 때라 2전(錢)으로 4마리를 살 수 있었으니 전에 비해 매우 값이 싸다. 올해 농사는 처음에는 크게 풍년이 들것 같더니 장마비에 손상을 입어 열매가 맺힌 것이 없다. 그러나 간신히 흉년은 면했다. 밭곡식은 전에 비해 조금 풍년이 들었지만 과일은 매우 귀해서 견시 1점 값이 6, 7전이고 석류 1개가 1전 혹은 7, 8푼인데 서울은 7, 8전이라고 하였다. 대개 흉역이 치성했기 때문이었다. 목화는 초가을에는 1냥 값으로는 겨우 1필의 베나 만들 정도였고 거친 것은 1냥 값으로 19자 정도였다. 시가[市直]가 조(租) 11말, 정조(正租) 10말, 쌀 5말, 콩 10말이다. 남초(南草)와 소금만은 매우 싸서 남초는 최상품 1다발이 8, 9푼에 불과했고, 소금 1섬은 5, 6전에 불과했다. 연말에 술을 절거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값이 조금 귀해졌다. 대구가 많이 잡힐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1냥으로 더러 12, 13마리를 사기도 했다. 뒤에는 8, 9마리에서 7마리까지 내려가더니 지금은 말린 대구 1마리의 값이 2전 3, 4, 5푼이 되었다. 청어는 원래 드러나게 잡히지 않아 통영에 바칠 청어는 좌도에서 구입했는데 지금 시장에 간혹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1마리 값이 1전 혹은 1전 2, 3푼이었다. 아이 손바닥만한 잡고기는 값이 7, 8푼이었다. 해삼은 1개 값이 2푼인데도 오히려 희귀하여 돈이 있어도 사기가

91) 장항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항(簞項)마을은 장항본마을(노루목)과 고개 넘어(1km 남짓) 큰 구학포 일부(큰 구학포 일부와 작은 구학포 및 외밤이를 합하여 별도 구학포가 있음)를 포함한 두 자연마을이 합쳐져(행정명칭) 장항마을이 되었다. 장항 본마을(노루목)에 맨 먼저 입촌한 성씨는 평산신씨(平山申氏), 다음 재령이씨(載寧李氏), 김해허씨(金海許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고, 그리고 확실한 연대는 미상이나 함흥추씨(咸興秋氏), 경주이씨(慶州李氏), 담양전씨(潭陽田氏), 남원양씨(南原梁氏), 김해김씨(金海金氏), 달성배씨(達成裴氏), 영일정씨(迎日鄭氏), 영양천씨(潁陽千氏), 곡 넘어 구학포는 함안이씨(含安李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선산임씨(善山林氏) 그중 양씨(梁氏), 전씨(田氏)는 노루목에서 이곳으로 이사왔다.

어려웠다. 올 겨울의 추위는 근래에 없던 일이고, 올해의 홍역도 전에 없던 일이다. 다른 고을 사람들의 사망자는 그 수를 알기 어려웠는데 유독 바닷가 마을에는 산 자는 많고 죽은 자는 적다고 한다. 대개 땀감이 충분해서 방을 따뜻하게 하여 땀을 냈기 때문이었다. 올해는 비록 흉년은 아니지만 겨우 홍역을 겪은 뒤라 집집마다 두려움이 남아 있고 생선도 매우 귀해 제수를 장만하기 어렵다. 그래서 떡을 하는 집은 열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집의 창고에는 조(租) 10섬 8, 9말이 있고, 곳간[地困倉]에는 찰조[粘租] 1섬 10여 말, 콩 2섬 10여 말, 붉은 콩 1섬 안쪽, 메밀[木麥] 1섬 남짓, 쌀 3항아리가 있다. 은(銀), 갈(葛), 송(松) 세 고을은 올가을부터 시작해서 힘을 합쳐 소나무밭은 금호(禁護)했다. 호노(戶奴) 정산(正山)이 경작한 것은 4결(結) 7속(束)이다. 봄에 영창(營倉)에서 환곡으로 꾸운 쌀은 12섬 3말인데, 갯을 환곡은 13섬 6말 3도(刀)이다. 조(租) 11섬 1말 5도, 보경창(補傾倉) 조 23섬, 양로창(養老倉) 조 6섬, 작미(作米) 5말, 선미(船米) 1섬 11말, 제조(祭租) 1섬 5말, 사창(司倉)에 나누어 줄 콩 3말, 나무 7말, 추종무리조(秋種無利租) 1섬 2말 6도, 연소(烟所)에 보낼 조(租) 8말 2도 5홉, 쌀 1말 1도 2홉, 왜공무리(倭供無利) 2도 6홉, 콩 3도 8합 4작(勺)이다.

계유년(1753년 영조29)

1월 대월(大月). 1일 정사. 입춘절. 16일 우수 월중.
 2월 대월. 1일 정해. 경칩절. 16일 춘분 월중.
 3월 소월(小月). 1일 정사. 청명절. 17일 곡우 월중.
 4월 대월. 1일 병술. 3일 입하절. 19일 소만 월중.
 5월 소월. 1일 병진. 5일 망종절. 20일 하지절.
 6월 소월. 1일 을유. 7일 소서절. 16일 초복. 23일 대서 월중.
 7월 소월. 1일 갑인. 9일 입추절. 25일 처서 월중.
 8월 대월. 1일 계미. 11일 백로절. 27일 추분 월중.
 9월 소월. 1일 계축. 12일 한로절. 27일 상강 월중.
 10월 대월. 1일 임오. 13일 입동절. 28일 소설 월중.
 11월 소월. 1일 임자. 13일 대설절. 27일 동지 월중.
 12월 대월. 1일 신사. 13일 소한절. 28일 대한 월중.

1월 대월(大月).

1월 1일(정사) 새벽에 북풍이 불고 저물녘에 얇게 구름이 끼어 흐려질 듯하더니 남풍

이 잠깐 불었다. 세전의 얼어붙을 듯 추위는 근래 없던 일이다. 지금 새해를 맞는 시점에 한기가 조금 풀렸으니 길조인 듯하다. 이번 홍역으로 죽은 사람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골짜마다 마을마다 곡소리가 들리는데 서울은 유독 심해 아이를 잃거나 남편을 잃어 도시에서 미친 듯 소리 지르고 슬프게 우는 자들을 거의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 올해 새해 아침에는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마련한 집이 없기 때문에 대문에는 취객이 없고, 생선은 몹시 귀해 가게가 재계한 듯하므로 칼등을 두드리며[彈鋏]⁹²⁾ 길게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1월 2일(무오) 따뜻하다가 밤이 깊어진 후에 동풍이 불고 눈이 내렸다.

1월 3일(기미) 눈이 내렸다.

1월 4일(경신) 이슬비가 내리다가 밤에 눈이 내렸다. 한밤중에 화로를 지펴 불을 피우고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잠에서 깨어 낮에 피운 재를 살리니	一眠才罷起書灰
온갖 생각이 사라져 떠오르지 않네	百念無從自去來
옆에서 귀아만이 박수를 치니	傍有鬼兒應拍手
내일 아침에 벌을 풀고 잔을 기울이리	明朝解罰可啣盃

1월 5일(신유) 따뜻하고 구름이 흩어지면서 산에는 눈이 내려 꽃이 핀 듯했다.

1월 6일(임술) 북풍이 불고 춥고 구름이 끼었다.

1월 7일(계해) 인일(人日)⁹³⁾ 이다. 때때로 눈이 조금 내렸다.

1월 8일(갑자) 북풍이 불고 춥고 구름이 끼었다.

1월 9일(을축) 날씨가 춥고 땅이 얼었다.

1월 10일 (병인) 추웠다.

1월 11일 (정묘) 한기가 잠깐 풀렸다.

1월 12일 (무진)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13일 (기사) 밤에 비가 내렸다.

1월 14일 (경오) 구름이 날렸다.

1월 15일 (신미) 동풍이 잠깐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잔 구름이 뭉치려다가 곧바로 풀

92) 칼등을 두드리며[彈鋏]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사람 풍환(馮驩)이 맹상군(孟嘗君)의 식객(食客)으로 있을 때 좌우로부터 천시를 받아 제공받는 음식이 초라하자 그가 칼등을 두드리며 “장협아, 돌아가야겠다. 밥에 고기가 없구나. [長鋏歸來乎食無魚]”라고 하며 불편한 심정을 노래했던 고사가 있다. 《戰國策 齊策 4》

93) 인일(人日) : 음력 1월 7일의 별칭이다. 동방삭(東方朔)의 점서(占書)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6일까지 각각 차례로 닭·개·돼지·양·소·말을 점치고 나서 7일에 사람을 점치고 8일에 곡식을 점치는데, 기후가 청명하고 온화하면 번식과 안태(安泰)를 미리 알 수 있고, 기후가 음한(陰寒)하고 참렬(慘烈)하면 질병과 쇠모(衰耗)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였다. 《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어졌다. 아관(阿觀)이 고읍(古邑)에 갔다. 달이 조금 남쪽에서 떠올랐다.

1월 16일 (임신) 비가 내렸다.

1월 17일 (계유) 옅게 구름이 끼고 날씨가 따듯했다. 이날 낮에 흰 무지개가 해를 뚫는 기상상태를 보니 연경(燕京)의 재앙이 기야(箕野: 우리나라를 말함)의 분야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1월 18일 (갑술) 잠깐 눈이 내렸다. 아관(阿觀)이 왔다.

1월 19일 (을해) 따듯하였다. 죽곡(竹谷) 조카딸이 시집가는데 아관(阿觀)이 호송했다.

1월 20일 (병자) 잠깐 눈이 내렸다.

1월 21일 (정축) 시가[市直]가 조(租) 12말이다

1월 22일 (무인) 지난 12월 5일 임금께서 남궁(南宮)에 행차하여 동궁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여 신민들이 울며 간언하자 환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월 23일 (기묘) 춥고 눈이 갑자기 날렸다.

1월 24일 (경진) 여전히 추웠다.

1월 25일 (신사)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26일 (임오)

1월 27일 (계미) 이상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28일 (갑신) 향교에 들어갔다. 춘향재회(春享齋會)에 참석하였다. 이때 도처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들 홍역에 대해 말하였다.

1월 29일 (을유) 동풍이 불었다. 어제 오후에 두포(頭浦) 매형집의 행랑에서 불이 났는데 동풍이 크게 불어 불꽃이 우리집까지 번지는데도 어떻게 구할 방도가 없었다. 다행이도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1월 30일 (병술) 동풍이 불다가 한밤중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 지금 남아있는 쌀이 4항아리, 조(租) 15섬 반, 찰조 1섬, 태(太) 1섬, 두(豆) 1섬, 목(木) 1섬, 수수(唐黍) 14말이다. 결복(結卜) 값 30말을 아직 주지 못했다.

2월 대월.

2월 1일(정해) 동풍이 불고 잠깐 비가 내리고 습한 구름이 끼었다. 곧바로 춘향재회(春享齋會)를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3일 전에 일어난 화재의 현장을 보니 놀라움이 적지 않았다. 그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날 미시(未時)와 신시(申時)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들판에서 불놀이를 하고 있다가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시 뒤에 집 모퉁이에서 불이 난 것이었다. 이는 분명 그 아이들이 다시 들판에서 놀던 불을 율타리 아래에 놓은 것이다. 근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뒤끝이이라 마른 땔나무에 불이 무섭게 타오르는데다가 바람마저 더해져 용마루와 서까래까지 옮겨지고 연기와 불

꽃이 땅을 덮어 온 마을을 다 태울 기세였다. 다행히 불을 끄느라 머리카락이 타고 이마를 그을리는 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은 하늘과 신이 도움이 있었던 것이니 말라버린 나무에 꽃이 피고 이미 죽은 몸에 다시 살이 오른 것이라고 하겠다.

2월 2일(무자) 춥고 구름이 끼었다.

2월 3일(기축) 날씨가 위와 같다. 오늘은 죽은 두 번째 아내 김씨(金氏)의 기일이지만 둘째 며느리의 병이 위독한 상태라 제사를 지내지 못했으니 슬픈 마음을 이기기 어렵다.

2월 4일(경인)

2월 5일(신묘) 이상 하늘이 맑았다.

2월 6일(임진) 날씨가 위와 같다. 사또가 문루(門樓)에 나와 앉아 시장의 꼭두각시 놀이를 구경하였다. 또 패(牌)를 보내 법천사(法泉寺)⁹⁴의 나대(灘隊)를 불러서 동헌에서 온갖 놀이를 하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니 우습다. 내가 봉점(鳳占)으로 갈 때 성 동쪽에서 숙박하였는데 베개머리에서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만년에 남의 집에 찾아가 얻어먹으니	晩年行色望門投
노파에게 장을 구걸해도 부끄럽지 않네	揖姥求漿亦不羞
옆사람에게 비웃지 말라고 말하노니	寄語傍人休唾笑
문원령의 소갈병 ⁹⁵ 이 거의 나을 것이네	文園病渴庶幾瘳

2월 7일(계사)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8일(갑오) 저녁에 비가 내렸다.

2월 9일(을미)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2월 10일(병신) 아침에 산꼭대기를 보니 눈이 나무를 뒤덮고 동풍이 잠깐 불다가 가랑비가 때때로 내렸다. 읍에 갔다가 성 동쪽에 숙박하였다. 비가 또 부슬부슬 내렸다.

2월 11일(정유) 쾌청하였다. 또 성 동쪽에 숙박하였다. 다음과 같이 시를 읊조렸다.

옛 손님 돌아가도 옛 정은 남아 있는데	舊客還歸舊尙宿
맑은 등불은 벽에 있고 저녁밥은 따듯하네	淸燈在壁夕炊溫

94) 법천사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에 있었던 사찰로 지금은 없어졌다. 양화리 산 631-78번지 일대에 있는 법천사지는 신라시대의 고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폐사되고 현재는 7기의 부도(浮屠)만 남아 있다. 마을 안의 산골 이름에 암자(庵子)이름이 붙은 것이 여럿이 있으며(예:나무암골, 맹언암골, 수근암골, 전성암골, 생언암골 등)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다.

95) 문원령(文園令)의 소갈병 : 문원령은 효문원 영(孝文園令)에 임명되었던 한(漢) 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를 가리키는데, 평생 소갈병(消渴病)으로 시달렸다. 《史記 司馬相如傳》

차를 마시며 굳이 목마름을 적실까
봄 술이 항아리에 가득하다고 알려주네

茶湯何必沾喉渴
報道春醪滿瓦罇

2월 12일(무술) 춥고 구름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3일(기해) 서풍이 불어 먼지를 일으키고 날씨가 쓸쓸하고 서늘하였다. 읍에 갔다가 성 동쪽에 묵었다. 이날 낮에 구화랑리(九火郎里)에서 불이 나 50여 집을 태우고 두 집만이 남았다.

2월 14일(경자) 바람 불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5일(신축)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서풍이 불었다. 읍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2월 16일(임인) 서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 그대로 성 동쪽에 머물렀다.

2월 17일(계묘) 쾌청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8일(갑진)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2월 19일(을사) 새벽에 보니 눈이 1치쯤 쌓이고 오후에 또 눈이 쌓였다. 2월에 이렇게 많은 눈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2월 20일(병오) 구름이 없었다.

2월 21일(정미) 바람이 불더니 저녁에 비가 내렸다.

2월 22일(무인) 비가 그치지 않았다.

2월 23일(기유) 식후에 비가 비로소 그쳤다. 근래 환곡을 받는 일로 여러차례 읍에 들어갔다. 나는 또 영창(營倉)의 환곡을 받기 위해 읍에 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2월 24일(경술)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2월 25일(신해) 날씨가 위와 같다.

2월 26일(임자) 조금 구름이 끼었다.

2월 27일(계축)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2월 28일(갑인) 하늘이 맑고 저물녘에는 구름이 끼었다. 또 읍에 갔다가 성동(城東)에 묵었다.

2월 29일(을묘) 아침에 비가 내렸다. 대동미(大同米)를 납부하고 돌아왔다.

2월 30일(병진) 동풍이 잠깐 불고 봄날의 구름이 흐려지려 하였으며 날씨가 온화하였다. 성 동쪽의 강춘(姜春)이 방문하였다.

3월 소월(小月).

3월 1일(정사) 동풍이 불고 하늘이 맑았다. 저물녘에 서풍이 불었다.

3월 2일(무오)

3월 3일(기미) 이상 날씨가 맑고 조금 추웠다.

3월 4일(경신) 성안에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좌수(座首) 배순일(裴舜一), 호적도색(戶籍都色) 안명곤(安命崑)에게 각자 형장을 1차례 가했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5일(신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6일(임술) 하늘이 맑았다. 읍에 들어가 죄를 입은 사람들을 보고 돌아왔다. 시가 [市直]가 조(租) 12말이다. 어사가 어제 오후에 비가 잠깐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진해(鎭海)로 떠났다.

3월 7일(계해) 북풍이 서늘하였다.

3월 8일(갑자)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저녁에 비가 쏟아져 냇물이 불어났다.

3월 9일(을축) 쾌청하였다. 향교에 머물렀다.

3월 10일(병인) 맑고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1일(정묘)

3월 12일(무진) 올벼와 중벼 씨를 뿌렸다.

3월 13일(기사)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14일(경오) 비가 내렸다.

3월 15일(신미) 동풍이 불고 맑고 온화하였다. 이날 갈산(葛山)의 소나무숲에 모여 술을 마셨다.

3월 16일(임신) 향교에 들어가 공무를 보았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17일(계유) 빗물이 불어나더니 저물녘에 개었다.

3월 18일(갑술)

3월 19일(을해) 濕。 집으로 돌아왔다.

3월 20일(병자) 흙비가 내렸다. 또 향교에 들어갔다.

3월 21일(정축) 날씨가 위와 같다. 고읍(古邑)의 박 사형(朴査兄)이 방문하였다.

3월 22일(무인) 집으로 돌아왔다.

3월 23일(기묘) 온화하였다. 어머니의 생신[初度日]이다. 이웃친척들이 즐겁게 모여 한바탕 즐기며 술을 마셨다.

3월 24일(경진) 향교에 들어갔다. 고읍의 사형이 돌아갔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25일(신사) 저물녘에 날이 개었다.

3월 26일(임오) 구름이 끼었다가 맑았다가 하였다.

3월 27일(계미) 온화하였다.

3월 28일(갑신) 비가 내렸다.

3월 29일(을유) 서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더니 밤에는 하늘이 맑았다.

4월 대월.

4월 1일(병술) 짙게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사라지고 서풍이 약하게 불었다. 심 사인(沈舍人)이 사당을 세우는 일을 상의하기 위해 향당 임원을 음법(陰法)의 황정(黃亭)⁹⁶⁾에 모았다.

4월 2일(정해) 가끔 구름이 끼었다.

4월 3일(무자) 구름이 사라지고 날이 따듯했다.

4월 4일(기축) 날씨가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동(霞洞) 아래에 모여 술을 마셨다.

4월 5일(경인) 따듯하였다.

4월 6일(신묘)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7일(임진)

4월 8일(계사)

4월 9일(갑오)

4월 10일(을미) 이상 날씨가 따듯하였다.

4월 11일(병신)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

4월 12일(정유) 이슬비가 내렸다.

4월 13일(무술)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맑게 개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4일(기해) 맑고 따듯하였다.

4월 15일(경자) 날씨가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16일(신축)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17일(임인) 날씨가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월치산(月峙山)에 모여 술을 마셨다.

4월 18일(계묘)

4월 19일(갑진)

4월 20일(을사) 이상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4월 21일(병오) 구름이 끼어 흐렸다. 별감(別監) 이난징(李鸞徵)의 선산이 파헤쳐지는 변고가 있었는데 정하중(丁夏中)이 의심을 받았다. 오늘 와서 성묘하고 흠을 가져다가 구덩이를 메우고는 정하중을 불러 묻고자 하였는데 정하중이 도망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 동생인 정하명(丁夏明)을 옥에 가두었다.

4월 22일(정미) 비가 내렸다. 이난징은 선산의 일이 중대하다고 여겨 정하명을 풀어주고 이유를 묻지 않았다.

96) 황정: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에 소재하는 황정자(黃亭子).

4월 23일(무신) 맑고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24일(기유)

4월 25일(경술)

4월 26일(신해) 따뜻하였다. 춘아(春兒)가 자기 부모를 뵈러 왔다. 밤에 구름이 끼었다.

4월 27일(임자)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28일(계축) 조금 추웠다.

4월 29일(갑인) 비가 내렸다. 전임 통제사 구선향(具善恒)과 신임 통제사 조동점(趙東漸)이 본현의 숙소에서 교체하였다.

4월 30일(을묘) 동북풍이 불고 잠깐 비가 내리고 저물녘에 하늘이 맑았다. 임금께서 2월에 백관을 거느리고 동쪽 도성문 밖에서 친경(親耕)하여 농민들을 권장하였다고 한다. 지극한 임금의 덕에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보리농사는 이미 풍년이 들었다.

5월 소월.

5월 1일(병진) 동북풍이 불고 잠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걷혔다.

5월 2일(정사) 잠깐 ■……■햇별이 났다.

5월 3일(무오) 갑자기 흐리더니 곧바로 해가 내리쬐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4일(기미) 구름이 끼고 찌는 듯이 더웠다. 우산(牛山)⁹⁷의 과부 형수와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병으로 누워있으니 걱정스럽다.

5월 5일(경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6일(신유) 새벽에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그쳤다. 일찍 물에 담근 것은 이양을 했지만 마른 것은 아직 생기가 없다. 유독 우리 골짜기 안에 이양한 것은 겨우 4분의 1밖에 안 되었다. 서풍이 불고 하늘이 맑았다.

5월 7일(임술) 서풍이 불었다.

5월 8일(계해)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수복(首僕)의 고목(告目)에 신임 사또의 수망(首望)으로 조세선(趙世選)이 올랐는데 그로 낙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민유문(閔有汶)과 김종휴(金宗休)인데 문관이었다고 알려왔다.

5월 9일(갑자) 서풍이 불어 구름을 감아올렸다.

5월 10일(을축) 갑자기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5월 11일(병인) 아침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개였다.

97) 우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牛山里). 고성군 서읍면의 지역으로써 마을 뒤의 산세가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생겼으므로 우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우산, 외우산, 특골을 병합하여 우산리라 하고 칠성면(고성읍)에 편입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마을로 내우산, 외우산, 상촌마을이 있다.

5월 12일(정묘)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내리쬐기도 하였다.

5월 13일(무진)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14일(기사) 서풍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가뭄이 위세를 떨치니 기우제를 지내라는 관문(關文)이 내려왔다.

5월 15일(경오)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16일(신미) 서풍이 불고 햇볕이 뜨거웠다.

5월 17일(임신) 날씨가 위와 같다. 이날 사직단(社稷壇)⁹⁸에서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데 관에서 지내지 않았다.

5월 18일(계유) 서남풍이 불고 뜨거운 해가 더욱 내리쬐었다.

5월 19일(갑술) 바람이 불고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또 검정산(檢井山) 용수암(龍水岩)⁹⁹에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다음과 같이 축문(祝文)을 지었다.

마을 북쪽 종악에	縣北宗嶽
용수암이 있다네	岩名龍水
물줄기 트지 않아도	不待疏鑿
절로 신령스런 물 있네	自在靈異
귀신이 감추고 아껴두어	鬼秘神慳
구름이 일더니 비 내리네	雲興雨作
일 있으면 기도하니	有事則禱
신령의 응함이 사특하지 않네	冥應不慝
성명의 시대를 만나니	時當聖明
백성들의 수역에 있거늘	民囿壽域
어찌하여 가뭄 귀신은	于何赤魃
감히 포학함을 부리는가	敢肆其虐
농작물은 시기가 늦으니	東作期愆
가을 수확 기대하기 어렵네	西成望缺
슬프고 슬픈 백성들은	哀哀群生
걱정하며 모여 눈물짓네	嗷嗷聚泣

98) 사직단 : 고성현에서 서쪽으로 5리에 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사동(社洞)마을로 불린다. 옛날에 이 마을에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에게 제사지내던 사직단(社稷壇)이 있어 사직동(社稷洞)이라 불렀는데 이를 줄여 사동(社洞)이라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마을은 약 130 여 년 전부터 형성되어 왔다고 하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교동과 합해져 교사리의 일부가 되었다가 1957년 다시 교동마을과 나뉘어 사동마을이 되었으며, 현재의 거주민은 김해김씨(金海金氏), 고성이씨(固城李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진양정씨(晉陽鄭氏) 등이다.

99) 용수암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용수암은 현의 북쪽 20리 지점에 있으며 샘이 있는데 바닥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깊다. 가뭄 때는 이곳에 와서 기우제를 올리면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지방관은 책임이 깊어	受牧責深
분신하려는 뜻 간절한데	焚軀志切
교외에서 기도한지 오래지만	郊禱已久
하늘의 뜻 더욱 아득하네	天意愈邈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蠶由誰崇
벌을 장차 감당하리라	罰將自當
용수암만이 남았으니	維岩斯存
거울처럼 밝게 비추리	厥鑑孔彰
재계 목욕하고 묵으면서	齋沐而宿
신에게 분주하게 아뢰니	奔走于神
삼가 존귀한 신령께서는	恭惟尊靈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憫茲下民
잠자는 교룡을 깨워	鞭蛟龍蟄
강해의 빗장을 풀고	祛江海鑰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	雨我公私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活我民物

이날 재직(齋直)을 보내 집안의 안부를 물으니 마을에 괴질이 멈추지 않아 어머님께 서 그저께 갈산(葛山) 매형집으로 가셨고 금노(金奴)가 오늘부터 또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였다.

5월 20일(을해) 바람 불고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날씨가 위와 같다. 무당이 흙무덤에 축원하고 법천사(法泉寺)의 괘불(掛佛)을 들고 내려왔다. 향교의 종을 보내 본택의 소식을 물었다. 오늘 새벽에 기우제에 쓸 희생과 폐백이 다 못쓰게 되어 좌수로 하여금 대신 거행하게 했다고 한다.

5월 21일(병자)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해가 내리쬐었다. 통영의 향교가 와서 말하기를 “거제(巨濟) 경계에 비가 내려 이양을 했고, 당포(唐浦)와 삼천(三千) 등지에도 비가 많이 내려 더러 이양을 했으며 벽방산(碧芳山)¹⁰⁰ 이남과 거류산(巨流) 이동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려 눈에 물대기에 충분했다고 하였다. 또 사천(泗川)에도 비가 내리고 감치(甘峙) 이서에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유독 우리 고을에는 전연 비가 내리지 않았다.

5월 22일(정축) 가뭄이 더욱 심했다. 오늘 밤에 또 벽방산에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다 음과 같이 축문을 지었다.

¹⁰⁰ 벽방산: 경남 통영시 광도면과 고성군 거류면, 고성읍 등에 걸쳐있는 650m.의 산. 벽산이라고도 하며 고성읍에 있는 남산으로부터 왔다.

삼가 이 산은
 고을 동쪽의 종산이네
 항해¹⁰¹를 마시고
 번방에 굳게하게 서있네
 기도하면 바로 응하여
 신령함이 예부터 드리났네
 그윽한 덕 오래전에 들었으니
 붉은 마음 펼 수 있으리
 보잘것없는 내가
 외람되게 성상의 근심을 나누어
 소위시찬으로 재앙을 부르니
 가뭄 귀신 위엄을 부리네
 서늘한 바람 가지를 흔들고
 태양은 뜨겁게 타올라
 사방 들은 거북등처럼 갈라지니
 온 백성 물고기처럼 입만 빼금거리네
 정성이 부족하여 몸을 태우고
 죄가 심하여 감추지 않네
 들판의 신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검정이 또 마르네
 백성들은 누굴 의지하나
 수령된 자의 근심이라네
 면목 없이 부양하니
 무슨 말로 보답하리
 희생과 폐백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신명에게 고하니
 어진 마음으로 비취
 이 백성들을 걱정하소서
 닫힌 문 열 수 있으니
 죽어가는 이들 살리려거든
 신통을 몰아
 단비를 시원하게 내려주소서

恭惟茲山
 縣東之宗
 吸呷沆瀣
 壯固藩邦
 有禱斯應
 靈著自古
 玄德久聞
 赤心可布
 顧惟不佞
 猥分聖憂
 素尸召殄
 赤魃肆威
 淒風振柯
 烈日燭烘
 四野龜坼
 萬姓魚喁
 誠乏自焚
 罪甚不饒
 郊神不恤
 檢井又渴
 生民奚辜
 尸土之蠶
 無面俯仰
 何辭報答
 載潔牲幣
 更瀆神明
 昭厥仁鑑
 悶茲生靈
 旣闔可關
 將殺而活
 馭駕神龍
 沛施甘澤

101) 항해(沆瀣) : 깊은 밤중에 내리는 이슬 기운인데, 도가(道家)에서는 이것을 수명(修命)의 약으로 들이마신다. 《열선전(列仙傳)》에 “봄철에는 조하(朝霞)를, 여름철에는 항해를 복식(服食)한다.” 하였다.

마른 고기 ¹⁰²⁾ 푹 젓어	涸鱗重沾
죽은 뼈에 다시 살이 붙게 하소서	枯骨再肉
오직 신만이 만물을 살려	惟神生物
하늘과 같은 덕을 내리리라	與天同德

5월 23일(무인) 서풍이 불고 햇별이 뜨거웠다. 어머님을 임시거처에 가서 뵙고 향교로 돌아왔다. 또 벽방산의 기우제가 검정산(檢井山)에서처럼 기우제를 지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5월 24일(기묘) 잠깐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공형(公兄)¹⁰³⁾과 근시(近侍)들이 사또에게 강요하여 검단도(檢丹島)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라는 하체(下帖)를 내려 내일 직접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또 나에게 축문을 지으라고 하기에 내가 억지로 지었다.

삼가 하찮은 이 사람이	伏以不佞
죄는 무겁고 벌은 가벼워	罪重罰輕
오히려 녹봉을 소비하고	尙費廩祿
신명을 많이 범하였네	多觸神明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不其未呪
동해가 또 말라	東海又枯
사방 들이 타는 듯하니	四野如焚
만백성 모여 호소하네	萬口聚呼
재앙이 온 것은 백성 탓이 아닌데	蠱由非人
화는 무고한 백성에게 미치니	禍及無辜
감히 예불을 바쳐	敢效禮佛
억지로 도마를 넘게 ¹⁰⁴⁾ 하였네	強使越俎
세 차례 신을 기만하고	三度慢神
한결같이 고을에 맡겨두었네	一任留鄉
정성이 부족하여 몸을 태우고	誠乏焚軀

102) 마른 고기[涸魚] : 《장자》에 “내가 어제 오는데 중도에서 부르는 자가 있어서 돌아보니 수레 가운데에 붕어가 있어 말하되, ‘말되[斗升]의 물로 나를 좀 살려 주시겠소.’하였다. 내가 대답하되, ‘그러게. 내가 이제 남으로 오월(吳越)의 왕을 찾아가 달려서 서강(西江)의 물을 땡겨다가 자네를 살려주리.’하였다. 붕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를 차라리 마른 고기 가게에서나 찾게 될 것이오.’ 하였다.”라 하였다.

103) 공형(公兄) : 삼공형(三公兄)의 준말로, 조선 시대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의 세 아전을 이른다.

104) 도마를 넘게[越俎] : 주체넘은 짓을 뜻한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포인(庖人)이 푸줏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동(尸童)이나 축관(祝官)이 도마를 넘어가서 그 일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였다.

예가 무너져 양을 아꼈네
 숲에 풀어놓은 것만 못하여
 엄아만에 유독 벌을 내려
 뜨거운 해가 오히려 내리쬐고
 서늘한 바람 더욱 심하게 부네
 기성에 지나가는 구름이
 옅은 구름 잠깐 만드니
 사상의 남은 물이
 가벼운 먼지 겨우 적시네
 길가에 달이 비추니
 하늘은 속이기 어렵네
 밤새 방황하여
 크게 자문하였네
 모두들 섬이
 남해 가운데 있는데
 기쁜 듯 노한 듯
 비를 내리고 바람을 일으킨다 하네
 과객이 경을 바치니
 백성들이 다투어 나아가네
 그윽한 덕 하늘을 본받으니
 신령의 호응은 북채보다 빠르네
 돌아갈 날 비록 닳았으나
 사람들의 소원 막기 어려워
 하룻밤 재계하고 달려가
 정성껏 고하네
 삼가 보잘 것 없는 음식으로
 감히 흠향하시기를 바라니
 인끈 풀어 누구에게 주나
 우물로 기어가는¹⁰⁵⁾ 백성이 걱정이라네
 성인은 분노를 옮기지 않고

禮壞愛羊
 不如林放
 偏罰嚴兒
 烈日猶曝
 淒風益吹
 岐城過雲
 微陰乍落
 泗上餘雨
 輕塵才浥
 路月胥暎
 天鑑難欺
 中夜彷徨
 大都詢諮
 咸曰有島
 南海之中
 若喜若怒
 以雨以風
 過客致敬
 居人爭趨
 玄德体天
 冥應捷桴
 歸期雖迫
 輿願難遏
 宿齋而趨
 處忱而告
 竊念微薄
 敢冀歆格
 解緩何與
 入井是憾
 聖不遷怒

105) 우물로 기어가는[入井]: 《맹자》 〈공손추 상〉에 “사람이라면 모두 사람에게 차마 못 하는 마음을 지녔다고 하는 까닭은 이런 것이다. 이제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모두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를 맺고자 해서가 아니며, 마을 벗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해서가 아니며,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하였다.

신령은 화를 돌릴 수 있다네	神可回嗔
성명을 불쌍하게 여기고	俯憐性命
우리러 북두성에 비니	仰乞帝宸
잠든 용을 채찍질해 일으켜	鞭起蟄鱗
아향 ¹⁰⁶ 을 호통쳐 불러	叱驅阿香
독한 가뭄 귀신 없애	殄殄毒魃
마른 벼에 촉촉하게 비를 내려주소서	潤洽焦秧
농부의 마음에 보답하여	功報三農
기쁨이 백성들에게 있게 한다면	歡騰萬戶
위대한 신령의 위덕이	繫神威德
사모하는 우리들 마음에 흡족하리라	愜我瞻慕

향소의 공형이 희생과 폐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또에게 말했더니, 사또가 “내가 돌아갈 날이 임박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희생과 폐백을 갖춘단 말인가?” 하였다. 이날 이날 저녁에 비가 흥건하게 내려 땅을 적셨다.

5월 25일(경진)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검단도의 기우제를 우선 정지한다고 하였다.

5월 26일(신사)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어머니의 설사병이 점차 낫는다는 말을 듣고 임시거처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줄지 않았다.

5월 27일(임오) 다시 흐려졌다. 임시거처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환후가 조금 차도를 보였다. 이날 저녁에 해가 내리쬐었다.

5월 28일(계미) 又 흐렸다. 임시거처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성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29일(갑신) 향교에 들어갔다. 성근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해가 내리쬐었다. 내원사(內院寺)의 괘불을 들고 왔다. 법천사(法泉寺)의 괘불과 함께 객사 문 밖에 걸어두었다.

6월 소월.

6월 1일(을유) 동북풍이 불고 날씨가 서늘하였다.

6월 2일(병술) 동북풍이 불고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다가 밤이 되자 비로소 시원하게 내렸다.

106) 아향(阿香) : 용모가 단정한 진(晉) 나라의 십대 소녀 아향(阿香)이 천둥 수레를 끌고 나갔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法苑珠林》 아향은 곧 우레의 대명사이기도 한다.

6월 3일(정해) 비가 내려 도랑에 물이 넘쳤다. 올 여름 가뭄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경기 지역은 1월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임금께서 여러 번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였다. 임시거처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앞의 못 아래에 중벼를 지금 이앙하기 시작했다.

6월 4일(무자) 가랑비가 내리다가 가끔 개었다.

6월 5일(기축)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임시거처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향교에 들어갔다. 우리집의 이앙을 오늘에서야 끝냈다.

6월 6일(경인) 구름이 조금씩 흩어졌다.

6월 7일(신묘) 산에 가랑비가 내렸다. 임시거처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다.

6월 8일(임진) 하늘이 맑고 서풍이 불었다. 가을에 수확할 소맥(小麥)을 심고 올벼를 김매기하였다.

6월 9일(계사) 구름이 자욱하고 빗방울이 잠깐 떨어졌다.

6월 10일(갑오) 가끔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빛이 뜨겁게 나오기도 했다. 임시거처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향교에 들어갔다.

6월 11일(을미) 덥고 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전임 사또가 떠났다.

6월 12일(병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지만 고작 먼지를 적실 뿐이었다.

6월 13일(정유) 가랑비가 내렸다. 신임 사또 조세선(趙世選)이 부임하였다.

6월 14일(무술) 남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으며, 밤에는 처마에 낙숫물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6월 15일(기해) 남풍이 불고 더웠다.

6월 16일(경자)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17일(신축)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阿觀)이 와서, 어머니께서 13일에 임시거처에서 나오시고 손녀가 천연두에 걸렸다고 알려왔다. 오늘 더위는 올여름 가운데 최고였다. 마암(馬岩)에는 아직도 이앙하는 자가 있었다.

6월 18일(임인) 날씨가 위와 같다. 가리 서재(佳里書齋)에서 숙박하였다.

6월 19일(계묘) 동풍이 불고 날이 더웠다. 계속 서재에 머물면서 백일장을 열었다.

6월 20일(갑진)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6월 21일(을사) 이앙을 하자마자 곧바로 해가 내리쬐니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였다.

6월 22일(병오)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6월 23일(정미) 구름이 끼었다. 내가 지비(知非)¹⁰⁷에 가까운 나이인데 향교 임원의

107) 지비(伯玉知非) : 춘추 시대 위(衛)나라의 현대부(賢大夫) 거백옥(蘧伯玉)이 나이 오십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고쳤다는 고사를 말한다.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에 “나이 오십에 사십구 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 [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라고 하였다.

자리에서 바빠 움직이는 것이 부끄러워 지난번 사임 단자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 “재주와 분수가 매우 부족하여 요량(料量)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타고난 자질도 약하여 향교의 예제를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덩고 습기 많은 계절에 가슴과 배에 통증이 재발하여 늘 신음하며 지내느라 일마다 간단하고 게으르게 처리합니다. 제 분수를 생각해보건대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존자께서는 너그럽게 살펴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단자를 돌려받았기에 다시 사임 단자를 올렸다. 가문이 매우 한미한데도 외람되게 예양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를 차지하여 재앙과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중에 공무를 손상시키고 제 몸도 손상시켜 부끄럽게도 다른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지난번 단자를 올려 거의 진심을 토로했건만 졸렬한 문장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사또께서는 밝게 보지 않으시니, 사체를 돌아보건대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근력이 다 소모할 정도로 문장을 다듬어 재가를 받겠습니다. 여러 존자께서는 특별히 너그럽게 헤아려주시어 부질없는 예양을 등한지하지 마시고 속히 감당할만한 사람으로 다시 교체시켜 주십시오.“ 당시 재임중에 체면을 잃은 자가 있기에 사임하는 글에서 언급한 것이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6월 24일(무신) 찌는 듯이 더웠다. 동임(洞任)의 강요로 부득이 향교에 들어갔다.

6월 25일(기유) 날씨가 위와 같다. 서울에 이달 8일 비로소 비가 내렸다고 하였다. 좌도 영덕현(盈德縣)에는 5월 13일에 서리가 내렸다. 임금이 농사일을 특히 근심하여 무신년(戊申年)에 당고(黨錮)하였던 사람¹⁰⁸과 기타 한양의 감옥에 수금된 사람 300여 명을 석방하고, 각 읍에 수금된 자를 석방해 주도록 명하였다고 하였다.

6월 26일(경술) 저녁에 비가 내렸다.

6월 27일(신해) 비가 내려 물을 불어나게 했다.

6월 28일(임자) 찌는 듯이 덥고 비가 내렸다.

6월 29일(계축)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7월 소월.

7월 1일(갑인) 남풍이 불고 날이 덥다가 오후에 천둥이 치더니 소낙비가 내렸다. 사또의 운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천리 밖 바닷가 동쪽에 있으니

一千里外海天東

108) 무신년 …… 사람 : 1728년(영조4)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인좌(李麟佐)를 중심으로 한 소론(小論) 일파를 가리킨다. 소론은 경종(景宗) 연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노론과의 대립에서 일단 승리하였으나 노론이 지지한 영조가 즉위하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이인좌, 정희량(鄭希亮), 박필현(朴弼顯) 등 소론의 과격파들이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며 경종의 죽음에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난을 일으켰다.

서산의 낙조가 붉은 것을 탄식하네
한밤중에 앞개울엔 밝은 달이 가득하니
조는 학으로 하여금 모래 위를 날게 하네

幾歎西山落照紅
半夜前川明月滿
會教眠鶴起沙中

7월 2일(을묘) 아침에 비가 쏟아졌다.

7월 3일(병진) 습한 구름이 음산한 비를 내렸다.

7월 4일(정사)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5일(무오) 비가 쏟아지다가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밤에 보니 새로 떠오른 달이 은갈구리에 걸린 것 같았다.

7월 6일(기미) 습한 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렸다.

7월 7일(경신) 잠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7월 8일(신유) 날이 찌는 듯이 덥고 소낙비가 지나갔다.

7월 9일(임술)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10일(계해) 찌는 듯이 덥고 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그제 조보(朝報)에 충청도 홍주(洪州)와 강원도 삼척(三陟) 두 고을에 6월 14일 서리가 내렸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한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소낙비가 내려 흠만 적시고는 곧바로 그쳤다. 이때 두 손녀가 천연두를 잘 이겨내어 어제 이미 나왔다.

7월 11일(갑자) 남풍이 불고 더웠다.

7월 12일(을축)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13일(병인) 매우 더웠다.

7월 14일(정묘) 더웠다. 고읍(古邑)의 며느리 병이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날로 간절하였다. 그래서 어제 저물녘에 밖에 나가서 자고 오늘 새벽에 출발하였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7월 15일(무진) 서남풍이 불고 구름이 솜을 뽑아 놓은 듯하였다. 서북쪽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때때로 쏟아졌다. 아관(阿觀)이 고읍에서 돌아왔다. 중도에 소낙비를 맞아 많이 젖었다.

7월 16일(기사) 우레가 치고 비가 갑자기 쏟아졌으며 밤에 달빛이 희미하였다.

7월 17일(경오)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7월 18일(신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이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19일(임신)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관에서 백일장을 열었다. 시제(詩題)가 ‘소하는 한 나라의 원래 공신이 아니다[蕭何不是漢元功]’는 것이었다. 임아(臨兒)와 태아(泰兒)가 연회에 참석하였다. 부제(賦題)는 ‘하늘이 직녀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네[天教織女助身貧]’였다. 오후에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더웠다.

7월 20일(계유) 날이 개었다.

7월 21일(갑술) 하늘이 맑고 날씨가 더웠다.

7월 22일(을해)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7월 23일(병자) 바람이 불더니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7월 24일(정축) 해가 내리쬐었다.

7월 25일(무인) 약간 구름이 끼었다.

7월 26일(기묘) 새벽에 날씨가 서늘하였다.

7월 27일(경진) 또 비가 내렸다.

7월 28일(신사) 서남풍이 불었다. 삼봉포(三峯浦)¹⁰⁹에 가서 유숙하였다.

7월 29일(임오) 아침에 하늘이 맑고 바람이 잔잔하였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와도(臥島)¹¹⁰에 머물렀다. 오후에 광풍이 불어 파도를 뒤집고 먼 산은 비를 띠고 있어 군색하여 배에서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침내 두모치(豆毛峙)¹¹¹를 지나 엄포(嚴浦)에 이르니 밤이 벌써 칠흠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대월.

8월 1일(계미) 서남풍이 불고 아침에 비가 퍼붓듯이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8월 2일(갑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비가 내렸다.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기 위해 모여 재계하였다.

8월 3일(을유) 비바람이 불다가 곧바로 그쳤다.

8월 4일(병술) 가끔 구름이 끼었다.

8월 5일(정해) 낮에는 맑더니 밤에는 잠깐 비가 내렸다. 대향(大享)을 순조롭게 거행하였다.

8월 6일(무자) 맑고 더웠다. 벗 박명유(朴命宥)가 군자운(君字韻)을 나에게 주고 포를 구하기에 내가 한 조각 포를 주고 그 시에 차운하였다.

그대와 내가 서로를 그리워하여

君思我似我思君

고기를 잘라 마음을 담아 그대에게 보내네

斫肉情同遺細君

109) 삼봉포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삼봉리는 본래 삼면에 산봉우리가 셋이 있다 하여(갈모봉, 천황산, 선황산) 삼봉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맏골·술안담·쌀골·옥대동·산제골·큰담·소토골·상촌·하촌을 병합하여 삼봉리라 했고 삼산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리로는 상촌·하촌의 2개 마을이 있다.

110) 와도 : 삼산면 두포리에 있는 섬. 일명 누운섬이라고도 한다. 와도(누운섬)마을은 1987년 12월 24일자 고성군 조례 제1002호로 두포리(豆布里) 포교마을에서 분동으로 독립된 행정마을로 전설에 의하면 지구가 생성될 때 암소 한마리가 누워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섬이 되었다고 하여 누운섬(臥島)으로 불려졌다고 하며 인접에 있는 대호도(大虎島),(윗대호도,아랫대호도)도 그때 한 쌍의 호랑이가 살았다하여 대호도로 불려지고 있다고 전한다.

111) 두모치 : 삼산면 두포리 마을 입구의 작은 고개를 "두모치(豆毛峙)"라 하고, 해변에 위치한 아랫담의 포구를 "콩갯마을(豆漣)"이라 부르고 있어 동명을 두모치 또는 두모라 하였다고 한다.

고기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니
재계하는 자리에 여러 사람이 서있는 듯하네

但恨斫之多不得
其如齋席列僉君

8월 7일(기축) 바람 불고 더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8일(경인)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개었다. 교임에서 교체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 암행어사를 사칭한 사람이 진해(鎭海) 당령역(常令驛)에서 본읍에 왔다가 발각되어 엄하게 수감되었다.

8월 9일(신묘) 가끔 구름이 끼었다. 사또가 전선을 타고 수조(水操)에 가려다가 가짜 어사의 위조문서로 인해 일단 정지하였다.

8월 10일(임진) 구름이 뽁뽁하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1일(계사) 날씨가 더웠다.

8월 12일(갑오) 날씨가 위와 같다. 두포(頭浦)의 매형집에 돌림병이 돌기 때문에 내일 선친의 기제사는 산소에서 지내려고 하였다. 저녁을 먹은 뒤에 산에 올라가 기물을 설치하였다. 계동(契洞)과 갈산(葛山)의 류 형(柳兄) 둘이 초를 가지고 뒤늦게 도착했다. 이날 밤에 구름이 뽁뽁하여 비올 기미가 다분하더니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왔다.

8월 13일(을미) 제사를 지내려 할 때 구름 사이로 별빛이 출몰하더니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점차 없어졌다. 아울러 선친의 묘소에 세사(歲事)를 거행하였다.

8월 14일(병신) 날이 건조하였다.

8월 15일(정유) 동풍이 불고 날이 건조하였다. 밤에 동운(同雲)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6일(무술) 저물녘에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아관(阿觀)이 말을 빌려 타고 고읍(古邑)에 갔다.

8월 17일(기해) 습하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8월 18일(경자) 저물녘에 흐렸다.

8월 19일(신축) 저물녘에 비바람이 동시에 일어나더니 한밤중에 점차 그쳤다.

8월 20일(임인) 남은 바람이 저물녘에 그쳤다. 벼가 바람으로 인해 손실을 많이 입었다.

8월 21일(계묘) 동풍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8월 22일(갑진) 온화하였다. 올가을 참새가 곡식을 쪼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 고을에서 다 그렇다고 하니 괴이하다.

8월 23일(을사) 구름이 많았다.

8월 24일(병오) 서남풍이 불었다.

8월 25일(정미) 구름이 끼고 날씨가 찌는 듯이 덥더니 곧바로 또 추워졌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었다.

8월 26일(무신) 날씨가 추웠다.

8월 27일(기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8월 28일(경술)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다.

8월 29일(신해) 찬 구름이 비를 몰고 왔다.

8월 30일(임자) 동풍이 불고 가끔 구름이 끼더니 날씨가 조금 더웠다.

9월.

9월 1일(계축) 하늘이 맑고 동북풍이 불고 더웠다. 고읍(古邑)의 며느리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지난 달 27일부터 병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9월 2일(갑인) 더웠다. 아관(阿觀)이 금노(金奴)를 데리고 고읍에 갔다. 오후에 비가 내려 가벼운 먼지를 적셨다.

9월 3일(을묘)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관아(觀阿)가 계속 고읍에 머물렀다. 금노(金奴)가 돌아와 병세가 점점 위중해진다고 보고하였다.

9월 4일(병진) 약간 흐렸다.

9월 5일(정사)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6일(무오) 날씨가 위와 같다. 고읍의 며느리가 오늘 자시(子時 :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에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오니 통곡하고 통곡한다.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온갖 약도 효과가 없자 본가를 돌아가기를 청하더니 갑자기 요절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참혹하고 통곡스럽다. 올해 나이 22세로 임자생(壬子生, 1732년 出生)이다.

9월 7일(기미) 해질 무렵에 비가 내렸다.

9월 8일(경신) 아침에 비가 내리고 종일 구름이 끼었다. 진사 윤식일(尹植一) 함장(函丈)이 지난달 3일에 남원(南原)에 갔다가 이달 7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부고가 이르니 통곡하고 통곡한다.

9월 9일(신유) 구름이 끼고 습하였다.

9월 10일(임술) 온화하였다. 고읍에 가기 위해 삼거리에 이르러 함께 오는 아관(阿觀)과 박계림(朴桂林)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돌아왔다. 나는 계동(契洞)에 묵었다.

9월 11일(계해) 날씨가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2일(갑자) 구름이 많았다.

9월 13일(을축) 날씨가 위와 같다. 3냥 5전을 고읍에 보내 관(棺) 값에 보냈다.

9월 14일(병인) 구름이 많고 따뜻하였다.

9월 15일(정묘) 동풍이 불었다. 조카(丁命說)이 성주(星州)에 가서 짐을 치고 오늘 돌아왔다.

9월 16일(무진) 햇벌이 나고 따뜻하였다. 아관(阿觀)이 금노(金奴)를 데리고 고읍에 갔

다. 밤에 월식(月食)이 있었다.

9월 17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이 돌아왔다.

9월 18일(경오)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19일(신미)

9월 20일(임신) 잠깐 비가 내렸다.

9월 21일(계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화경숙빈(和敬淑嬪)¹¹²을 추존(追尊)하는 교문(敎文)이 본현에 들어왔다.

9월 22일(갑술) 따뜻하였다. 고읍(古邑)의 며느리를 24일에 본가 묘지 옆에 임시로 매장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관(阿觀)이 지금 또 갔다.

9월 23일(을해) 날씨가 위와 같다. 내가 제물을 갖추어 임아(臨兒), 승아(升兒) 두 아이와 함께 노비를 거느리고 고읍에 갔다. 이서방이 그제 왔다가 오늘 돌아왔다.

9월 24일(병자) 매우 따뜻하였다.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7시까지)에 니구산(尼丘山) 아래에 하관(下棺)하였다. 벽산동(碧山洞)의 두 아이와 노비들이 먼저 돌아갔다. 나는 고읍에 머물렀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9월 25일(정축) 식후에 비가 겹다. 아관(阿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6일(무인)

9월 27일(기묘) 따뜻하였다.

9월 28일(경진) 가끔 구름이 끼었다.

9월 29일(신사) 조금 추웠다. 계동(契洞)에 가서 묵었다.

10월.

10월 1일(임오) 새벽에 보니 서리가 비로소 하얗게 내리고 서풍이 불어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일(계미) 사또가 8조목의 약속을 하고 또 민가에 선자죽(扇子竹)을 내리고 연호역(烟戶役)을 방비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비(木碑)을 세웠다. 내가 그에 대한 글을 지었다.

남강군¹¹³의 조약이 정해지니

南康條定

발해가 법도에 맞게 다스려지네

渤海繩理

112) 화경숙빈(和敬淑嬪) : 조선의 19대 왕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21대 왕 영조(英祖)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 崔氏, 1670년~1718년)를 말한다.

113) 남강군(南康軍) : 1179년(고려 명종9) 주자(朱子)가 남강군 태수(南康軍太守)로 부임하여 여산(廬山)의 허물어진 백록동 서원을 중건하고 서원의 벽에 다섯 개 항목의 규약을 게시하였는데 오교지목(五敎之目),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이다. 《朱子大全 卷74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부채로 은혜로운 바람 일으키니
기이한 상서를 맥가로 부르네

扇揚恩風
麥歌異瑞

10월 3일(갑신)

10월 4일(을유)

10월 5일(병술) 이상 날씨가 동풍이 불었다.

10월 6일(정해) 비가 내렸다.

10월 7일(무자) 저물녘에 날이 개었다.

10월 8일(기축) 햇벌이 나고 따뜻하였다. 계동(契洞)에서 시험 접수를 보고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숙박하였다.

10월 9일(경인)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0일(신묘)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10월 11일(임진) 맑고 온화하였다.

10월 12일(계사) 저녁에 비가 내렸다.

10월 13일(갑오) 비가 그치지 않아 벼가 물에 잠겼다.

10월 14일(을미) 조금 눈이 내리고 몹시 추웠다.

10월 15일(병신) 서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

10월 16일(정유)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17일(무술) 포도산(葡萄山)에 가서 사슴 사냥을 구경하고 당동(堂洞)에 돌아가 숙박하였다.

10월 18일(기해)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9일(경자) 따뜻하였다.

10월 20일(신축)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21일(임인) 구름이 끼었다.

10월 22일(계묘)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10월 23일(갑진) 구름이 끼었다.

10월 24일(을사) 날씨가 위와 같다.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갈산(葛山)에 가서 족장(族丈) 류천정(柳天禎)의 생일을 위로하였다.

10월 25일(병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6일(정미) 따뜻하였다.

10월 27일(무신)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10월 28일(기유) 매우 추웠다. 관아(觀阿)가 고읍(古邑)에 갔다.

10월 29일(경술) 추웠다. 남촌진(南村鎭)¹¹⁴에 갔다가 돌아왔다.

114) 남촌진: 1592년5월8일 이순신의 고성 첫 전투지인 적진포로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를 말한다. 이 마을 입구에는 서낭당과

10월 30일(신해) 북풍이 불었다.

11월.

11월 1일(임자) 온화하였다. 오늘은 증조비의 기일인데 이웃에 돌림병이 돌아 의식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11월 2일(계축) 이슬비가 내렸다.

11월 3일(갑인) 구름이 끼었다.

11월 4일(을묘) 날씨가 위와 같다. 반기계(盤器契)를 만들었다.

11월 5일(병진) 북풍이 불었다.

11월 6일(정사) 시가[市直]가 조(租) 10말 혹은 11말, 쌀 4말 2되, 목(木) 17자인데 길이가 전에 비해 1치가 늘었고 전필(全疋) 값은 2냥 1, 2전이다.

11월 7일(무오)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8일(기미) 비가 내렸다.

11월 9일(경신)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추웠다.

11월 10일(신유) 온화하였다.

11월 11일(임술)

11월 12일(계해) 추웠다.

11월 13일(갑자) 햇볕이 나고 따뜻하였다.

11월 14일(을축) 갑자기 추워졌다.

11월 15일(병인) 북풍이 잠깐 불었지만 날씨가 상당히 맑고 온화하였다.

11월 16일(정묘) 따뜻하였다.

11월 17일(무진) 잠깐 비가 내리더니 밤에는 맑아졌다.

11월 18일(기사) 서늘하였다.

11월 19일(경오) 저물녘에 눈이 내리더니 밤에 맑아졌다.

11월 20일(신미) 구름이 끼고 추웠다. 향로(鄉老)인 훈장(訓長) 이정연(李挺寅)이 명경(明經)으로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하였지만 끝내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지난봄에 세상을 떠났다. 내일이 대귀(大歸)하는 날이기에 내가 전송하며 만사를 지었다.

서당나무가 있고 나무 아래에는 이곳이 적진포였음을 알려주는 비석 3기가 서있다. 돌에 새긴 비문은 <행별장김공진국선정비(行別將金公鎭國善政碑)> · <선략장군행별장황공응식(宣略洛將軍行別將黃公應植)> · <절충장군행별장(折衝將軍行別將)> 등으로 적진포였던 이곳 남촌진에서 근무를 했던 별장들의 선정을 새겨놓았다. 화당리를 이곳 사람들은 예전에 남촌이라 불렀다. 남촌은 곧 남촌진(南村鎭)을 말함인데 별장이 근무했던 진터가 지금도 화당리에 남아있다. 화당리를 남촌이라고 했고 남촌을 또한 적진포라고 하는 까닭은 옛 문헌이 이를 고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점 규문성이 바다 뒤로 오르니	一点奎文海上騰
장풍은 구름과 봉새를 빌리지 않네	長風惜不借雲鵬
동쪽 이랑에서 꽃 보며 울던 것이 몇 번이던가	幾回東陌看花泣
오늘 문득 경루 ¹¹⁵ 에서 종이가 떨어지네	今忽瓊樓降紙微
만 축의 시서를 문설주에 묶으려니	萬軸詩書將束閣
백년의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	百年衣鉢孰傳燈
오호라 내 어찌 곡만 하리오	嗚呼我哭奚徒耳
천황(天荒)을 깨려 하나 ¹¹⁶ 할 수가 없네	欲破天荒且莫能

11월 21일(임신)

11월 22일(계유) 추웠다.

11월 23일(갑술) 향교에 들어가서 보학소(補學所)의 타작을 감독하였다.

11월 24일(을해) 따뜻하였다. 진주의 정완서(鄭完瑞)가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5일(병자) 구름이 끼었다. 정완서가 돌아갔다.

11월 26일(정축) 따뜻하였다.

11월 27일(무인) 구름이 끼고 따뜻하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오후에 구름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 배진필(裴進必)의 홍용동(紅龍洞) 산소에 갔다가 돌아왔다.

11월 28일(기묘) 비가 내렸다. 아관(阿觀)고읍(古邑)에 갔다.

11월 29일(경진) 서북풍이 불고 하늘이 맑고 따뜻하였다.

12월 대월.

12월 1일(신사)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12월 2일(임오) 흠비가 내렸다. 아관(阿觀)이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3일(계미) 비가 내렸다.

12월 4일(갑신)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밤새 내렸다.

12월 5일(을유) 구름이 얇게 끼고 따뜻하였다.

12월 6일(병술) 맑았다.

12월 7일(정해) 날씨가 위와 같다. 성 동쪽에서 숙박하였다.

115) (瓊樓) : 경루옥우(瓊樓玉宇)의 준말로, 신화 속에 나오는 월궁(月宮) 속의 누각을 말한다.

116) 천황을 깨려 하나 : 형주(荊州)에서 해마다 향시(鄉試)에 합격한 공생(貢生)을 서울로 보냈어도 대과(大科)에 급제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천황(天荒)이라고 불렀는데, 유예(劉蛻) 사인(舍人)이 급제를 하자 천황을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파천황(破天荒)이라고 일컬었다 한다. 《唐摭言 海述解送》

12월 8일(무자) 따뜻하고 햇볕이 났다. 봉전(鳳田)의 연길(涓吉)¹¹⁷이 어제 도착했다. 강희(康熙) 병술년(丙戌年, 1706년 肅宗32) 오늘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날이다. 술자리를 열어 모여 술을 마셨다.

12월 9일(기축)

12월 10일(경인)

12월 11일(신묘) 모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2일(임진) 날씨가 위와 같다.

12월 13일(계사) 구름이 날리며 비를 몰고 왔다.

12월 14일(갑오) 바람이 불고 맑았다. 남촌(南村)에 가서 진장(鎭將) 정두삼(鄭斗三)을 만나고 모자와 띠를 빌려서 돌아왔다.

12월 15일(을미)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었다.

12월 16일(병신) 따뜻하였다. 2냥의 돈으로 걸비단 19자를 구입했다. 시가[市直]가 쌀 5말이다.

12월 17일(정유)

12월 18일(무술) 따뜻하였다. 이정사(釐正使) 민백상(閔百祥)¹¹⁸이 순찰하러 본현에 도착했다.

12월 19일(기해) 혼수로 쓸 폐백을 가지고 왔다. 온화하였다. 이정사가 거제로 갔다.

12월 20일(경자) 온화하였다. 혼수로 쓸 폐백을 보냈다. 서춘재(徐春載)가 사위를 맞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12월 21일(신축) 북풍이 불고 하늘이 맑았으며 날씨가 조금 추웠다. 아승(阿升)의 신행에 큰 아이가 호송하였다.

12월 22일(임인) 조금 따뜻하였다. 봉전(鳳田)에 갔던 일행 중에 밤에 온 자가 돌아와 어제 행차는 온화하고 길했다고 알려왔다.

12월 23일(계묘) 따뜻하였다.

12월 24일(갑진) 종일 맑은 눈이 내려 몇 치 가량 쌓였다. 구례(求禮)의 조카 이종간(李宗幹)이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12월 25일(을사) 추웠다. 이종간이 돌아갔다. 남원(南原) 윤 진사의 호장소(護葬所)에 조문편지와 만장을 보냈다.

서로 만났던 사람 다 이별하니

相逢人盡哭公亡

117) 연길 : 좋은 날을 정함.

118) 민백상(閔百祥) : 1711~1761.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이지(履之).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좌의정 진원(鎭遠)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형수(亨洙)이며, 어머니는 이세항(李世恒)의 딸이다. 1735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40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 검열, 부제학과 대사헌, 평안도 관찰사,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헌(正獻)이다.

공을 곡하지 않으면 우리 고을사람이네	我哭非公哭我鄉
문앞에 눈 쌓여도 누구라서 찾아오나	雪積門前誰立脚
빈 창고 곡식 짙어 전 드려고 향 올리네	春空庫上奠退香
문단은 적적하여 부질없이 곡식을 버리고	騷壇寂寂虛拋穀
학교의 나무는 쓸쓸하여 담만이 서있네	講樹蕭蕭却立墻
한 조각 붉은 깃발 원통함을 증명하니	一片丹旌冤可證
성균 진사로 명왕에게 글을 올리네	成均字是牒冥王

12월 26일(병오) 온화하였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1말, 차조(次租) 12말, 쌀 5말, 청어(靑魚) 네 마리 값이 1전이고 나머지 잡고기들도 모두 희귀하였다. 적두(赤豆) 10말, 태(太) 12말이니 콩의 풍년은 근래 최고이다. 이정사가 어제 돌아왔는데 오늘 진주로 떠났다.

12월 27일(정미) 날씨가 위와 같다. 형님께서 소장(所藏)을 올리는 일로 진주에 갔다.

12월 28일(무신) 해가 많고 바람이 맹렬하였다. 소금과 조(租)의 값이 서로 같았다.

12월 29일(기유) 햇별이 나고 따뜻하였다. 형님께서 돌아오셨다.

12월 30일(경술) 하늘은 맑고 북풍이 서늘하였다. 가끔 잔 구름이 갑자기 뭉쳤다. 집의 창고에 있는 곡물이다. 조(租) 19섬 2, 3말, 찰조 2섬, 적두 2섬, 태 5섬, 누룩 8, 9말, 쌀 5항아리 남짓, 소금 전1섬 2말, 메밀[木麥] 8말, 수수[唐黍] 2, 3말, 삶은 콩[熏造] 20말이다. 올해 보리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 때 비가 고루 내리지 않아 이앙에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5월에 흑한이 들었다가 6월 2일 비로 소단비가 쏟아져 싹이 너무 늦게 나왔다. 게으른 농부는 6월 보름이 되어서야 농사를 끝냈다. 들판의 논은 크게 풍년이 들었지만 산간지방은 이롭지 못했다. 콩이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세모에 굶주리는 탄식이 없게 되었다. 6월 이후로 많은 비가 그치지 않았다. 산간과 바닷가 근처 여러 고을은 그 피해를 혹독하게 입어 빠져죽은 사람과 가축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 또한 하나의 변고이다. 목화가 굶은 비해 손실을 받았고, 또 8월 19일 대풍을 만나 처음에는 1냥 값에 10근이더니 마지막에는 8근이었다. 콩은 조금 풍년이 들었지만 녹두(綠豆)와 동배(東背), 수수[唐黍] 등은 제대로 익지 않았다. 참깨[眞荏]는 골고루 익고 들깨[水荏]는 조금 풍년이 들었다. 대구는 11월 보름 이후에 처음 나왔는데 8, 9마리 잡히던 것이 더러는 7마리 정도일 뿐이었다. 지금 시장에는 더러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팔리고 1마리 값은 2전 5푼이었다. 청어도 귀해 진상이 너무 늦어졌다. 각 고을의 향소감관(鄕所監官)이 차관(差官)에게 형장을 맞고 죽거나 병이나기도 하는 등 피해가 한둘이 아니었다. 소금과 조(租)는 서로 같았다.

갑술년(1754년 영조30)

1월 대월(大月). 1일 신해. 13일 입춘절. 18일 우수 월중.
 2월 대월. 1일 신사. 12일 경칩절. 28일 춘분 월중.
 3월 소월(小月). 1일 신해. 13일 청명절. 28일 곡우 월중.
 4월 대월. 1일 경진. 15일 입하절. 30일 소만 월중.
 윤4월 소월. 1일 경술. 16일 망종 5월절.
 5월 대월. 1일 기묘. 2일 하지 월중. 18일 소서 6월절. 22일 초복.
 6월 소월. 1일 기유. 4일 대서 월중. 20일 입추 7월절.
 7월 대월. 1일 무인. 6일 처서 월중. 22일 백로 8월절.
 8월 소월. 1일 무신. 7일 추분 월중. 22일 한로 9월절.
 9월 소월. 1일 정축. 8일 상강 월중. 13일 입동 10월절.
 10월 대월. 1일 병오. 9일 소설 월중. 24일 대설 11월절.
 11월 소월. 1일 병자. 9일 동지 월중. 23일 소한 12월절.
 12월 대월. 1일 을사. 9일 대한 월중. 24일 입춘 정월절.

1월 대월(大月).

1월 1일(신해) 새벽에 바람이 없고 온화하다가 사방에서 구름이 날아와 약간 흐려졌다. 나는 오랫동안 체증을 앓았는데 술 먹은 뒤에는 특히 심했다. 어제 저녁부터 뱃속이 편안하지 않아 앉았다 누웠다 하며 아침을 기다리는데 생각하니 올해는 임금의 회갑으로, 즉위한지 30년 동안 덕화가 백성들에게 고루 미쳤다. 그러나 신주(神州)¹¹⁹가 모두 침몰된 지 벌써 1백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우리 동방예의지국이 청나라에게 폐백을 바치는 조롱을 받게 하였으니,¹²⁰ 어찌하여 하늘의 도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내 나이가 또 50세가 되었는데 이미 가난하고 병으로 누워 있어 축원하는 반열에서 떨어져 있으니 새봄을 맞아 한갓 슬픈 감회만 더할 뿐이었다. 마침내 읊시 한 수를 지었다.

송정 후 127년¹²¹ 아침에

崇禎百廿七年朝

119) 신주(神州) : 중국을 말한다. 전국 시대 학자인 추연(鄒衍)이 중국을 신주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는 중국의 별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120) 신주 …… 하였으니 : 명나라(明朝, 1368년 ~ 1644년)는 277년간 존속하다가 농민의 반란으로 1644년 멸망하였다. 그 뒤 청 나라가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을 제압하고 중국을 지배하게 된 것을 말한다.

121) 송정(崇禎) 후 127년 : 송정은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의종(毅宗)의 연호로, 1628년부터 1644년까지 사용되었다. 1754년이 송정의 연호를 쓴 지 127년 되던 해이다.

무슨 일로 등불 밝혀 앉아서 밤을 지새나	何事挑燈坐度宵
태세의 천추에 아름다운 시절 이르니	太歲千秋佳節屆
중국의 늙은 종이 교만하구나	中州一種老奴驕
하늘의 해와 달이 자주 돌아오건만	周天日月頻回轉
우공의 산하는 어찌 쓸쓸한가	禹貢山河豈寂寥
바라건대 의관을 입고 봄에 짝이 되어	但願衣冠春作伴
함께 오래 살며 요임금에게 인사하리	共躋壽域拜唐堯

이날 흐렸지만 바람이 없어 따뜻하였다. 지붕위에 쌓인 눈이 녹아 낙숫물이 되었다. 나는 오늘 아침부터 내 오줌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북풍이 갑자기 불어와 옅은 구름이 조금씩 사라졌다.

1월 2일(임자) 추웠다.

1월 3일(계축)

1월 4일(갑인) 따뜻하였다.

1월 5일(을묘)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6일(병진) 눈이 몇 치 쌓였다.

1월 7일(정사) 양지의 눈이 녹았다. 본현의 사또 시에 차운하였다.

금마를 꿈속에서 다닌 지 몇 번이던가 ¹²²⁾	幾回金馬夢中行
새 봄을 맞으니 슬픔이 더해지네	迎得新春倍愴情
수국에는 명승지가 여진히 많으니	水國猶多形勝地
이때 문단을 열어 근심을 누르리라	時開墨壘壓愁城

1월 8일(무오) 따뜻하였다.

1월 9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0일(경신) 햇별이 나고 따뜻하였다.

1월 11일(신유) 약간 구름이 끼었다. 이서방이 왔다.

1월 12일(임술) 온화하였다. 새벽에 늙은 매화나무에서 가지가 하나 나오자 맑은 물이 솟아나와 냇물을 이루며 흐르기에 마침내 바지 걷고 물을 떠서 마시고 씻는 꿈을 꾸었다. 저녁에 흠비가 내리고 흐렸다.

122) 금마(金馬)를 …… 몇번이던가 : 조정에 들어가 출세하려는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금마는 한나라 궁궐 문인 금마문(金馬門)의 준말로, 동방삭(東方朔)·주보언(主父偃)·엄안(嚴安) 등 문인들이 황제의 조서(詔書)를 기다리던 곳인데, 뒤에는 조정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1월 13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 유민산(流民山 거류산)에서 우리 고을의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글을 다음과 같이 썼다.

삼가 이 산은	伏以維山
고을 동쪽의 종주산이네	縣東宗岳
덕이 백성에게 흐르니	德流及民
이름을 헛되이 얻은게 아니네	名不虛得
마침내 좋은 날을 가리니	聿來卜擇
실로 복이 있기를 사모하네	實慕光休
우리 희생과 곡식을 정결하게 하여	潔我牲粢
봄가을로 폐하지 않네	不廢春秋
이번 새해를 맞아	茲值新元
삼가 시사를 갖추고	恭備時事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니	衆心既齊
신께서는 크게 살피시리라	神鑑孔邇
삼가 존귀한 영령은	伏惟尊靈
영원히 도와주시어	永垂冥佑
재앙을 다 없애	災沴消除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作業成就

1월 14일(갑자) 맑고 추웠다. 이서방이 돌아왔다.

1월 15일(을축) 춥고 구름이 뻑뻑하게 끼었으며 아침에 북풍이 불다가 동풍이 불고 저녁에 비가 내렸다.봉전(鳳田)에서 종과 말이 왔다.

1월 16일(병인) 동풍이 불어 춥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들판의 샘이 소리 내며 흘렀다.

1월 17일(정묘) 다시 흐리고 비가 내렸다.

1월 18일(무진) 봄별이 구름 사이로 새어 나왔다. 아승(阿升)의 재행(再行)이다. 우리 마을에서 서재를 중수하자는 의견이 다시 일었다. 그래서 내가 분담을 권유하는 글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선행을 보면 반드시 권장하는 것은 성인께서 칭찬하는 바이고, 의(義)로 서로 돕는 것은 군자가 숭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산(道山) 마을은 거류산(巨流山) 깊은 곳에 치우쳐 있으니 만약 가르침의 방법을 더하지 않는다면 끝내 지리멸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0여년 전에 몇 칸의 정사(精舍)을 지어 2, 3명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덕에 해시(亥豕)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말과 소처럼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회록(回祿: 화재)이 발생하여

옛 터만이 부질없이 남아 있고, 생도들이 방황하고 과객들이 지적한 지도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중도에 멈추었다는 탄식이 항상 가슴에 간절하였고 중수에 대한 논의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기가 태산을 짊어진 듯¹²³⁾ 새가 바다를 메우는 것¹²⁴⁾ 같은 데에는 어찌하겠습니까? 믿을 것은 오직 반드시 선행을 권하고 서로 돕는 의리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 군자께서는 한 삼태기가 아홉 길의 공을 이룰 수 있다는 점¹²⁵⁾을 특별히 헤아려 주소서.”

1월 19일(기사) 맑고 따뜻하였다.

1월 20일(경오) 바람이 불어 추웠다. 점질(漸佳)의 신행일(新行日)이다.

1월 21일(신미) 날씨가 위와 같다.

1월 22일(임신) 몹시 추웠다.

1월 23일(계유) 여전히 추웠다. 숙묘(肅廟)와 대행대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을 경축하는 사문(赦文)이 내려왔다.

1월 24일(갑술) 추웠다.

1월 25일(을해) 추위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재중(齋中)에서 15관(貫)으로 한득량(韓得良)의 집을 매입하였다.

1월 26일(병자) 맑았다.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서 돌아왔다. 서재의 권분단자(勸分單刺)를 교당에서 지었다. “저희들은 이미 궁벽한 마을에 살고 또 강론하여 밝히는 도움도 없다 보니 물고기와 새우 속에 섞여 살아 부끄럽게도 말과 소에 옷 입혀 놓은 꼴¹²⁶⁾입니다. 평소 바라는 점은 후생인 어린아이들이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을 들어 해시(亥豕)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다행히 관에서 일조해주는 은택을 입어 몇 칸의 정사(精舍)를 지어 2, 3명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 문옹(文翁)의 교화¹²⁷⁾가 이미 깊고 종인(賓人)의 풍속¹²⁸⁾이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

123) 모기가 …… 짊어진 듯 : 힘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장자》 〈응제왕(應帝王)〉에, 한계가 있는 인간의 법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모기에게 태산을 짊어지게 하는 일이다. [使蚊負山]”라고 비평한 말이 나온다.

124) 새가 …… 메우는 것 :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음을 뜻한다. 옛날 염제 신농씨(炎帝神農氏)의 딸이 동해에 빠져 죽어 정위(精衛)라는 새로 변화해서는 자기가 빠져 죽은 것을 원망하는 뜻에서 항상 서산(西山)의 목석(木石)을 가져다가 동해를 메웠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125) 한 삼태기가 ……점 : 《서경(書經)》 여오(旅獒)에 “아홉 길의 산을 만드는 데 있어 흙 한 삼태기에 공(功)이 이지러진다.”한 데서 온 말이다.

126) 말과 소에 …… 꼴 : 한유(韓愈)의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 시에, “사람이 고금의 의리 알지 못하면 마소에다 사람 옷 입힌 격이라.[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라고 한 데서 인용한 것으로, 무식하여 사리를 모르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昌黎先生集 卷6》

127) 문옹(文翁)의 교화 : 문옹은 서한(西漢) 경제(景帝) 때의 인물로, 촉(蜀)의 군수가 되어 교화를 펼치고 학교를 일으켜 문풍(文風)을 크게 떨쳤다. 이를 계기로 무제(武帝) 때에 와서 온 천하에 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漢書 卷89 循吏傳 文翁》

128) 종인(賓人)의 풍속 : 종인은 파촉(巴蜀)에 있는 종족(種族) 이름으로 학문의 영향을 못 받은 것을 말한다. 한 무제(漢武帝) 때에 사마 상여(司馬相如)가 파촉사람에 격문을 지어 타이르며 파촉이 복종하였다고 한다.

행하게도 화재가 발생하여 옛 터만이 부질없이 남아 있고, 생도들이 방황하고 과객들이 지적한 지도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중도에 멈추었다는 탄식이 항상 가슴에 간절하였고 중수에 대한 논의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거북이 털처럼 없는 것을 쥐어짜고 재목을 잠깐 모았지만 공사는 크고 경비[調度]는 막대하였습니다. 서산은 이미 민둥산이 되었고 동해는 여전히 깊기만 한데 누가 먼저 허락하여 쓸쓸한 대책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생각하건대 여러 존자께서는 학문을 숭상하는 정성과 선을 즐기고 의를 좋아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들이 분주하게 다니며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 존자께서는 선을 보면 반드시 권면하고 의로써 서로 도와 띠풀이 자라 막힌 길을 새가 나는 듯한 곳으로 바꾸어 마을에서 거문고 타며 노래하는 중에¹²⁹⁾ 고아한 풍취와 후의를 아침저녁으로 외우게 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1월 27일(정축) 따뜻하였다.

1월 28일(무인)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1월 29일(기묘) 맑았다.

1월 30일(경진) 서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집의 창고에는 조(租) 27섬, 쌀 6항아리 4섬 2, 3말이 있다.

2월 대월.

2월 1일(신사) 하늘은 맑고 북풍이 불었다.

2월 2일(임오) 날씨가 위와 같다.

2월 3일(계미) 구름이 떠다녔다.

2월 4일(갑신) 북풍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추웠다. 정하중(丁夏中) 집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다 불태웠다.

2월 5일(을유) 바람이 불었다.

2월 6일(병술)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2월 7일(정해) 갑자기 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8일(무자) 춥고 구름이 끼었다. 저물녘에 산머리에 비가 내렸다.

2월 9일(기축) 바람이 부는 것이 어제와 같았다. 한낮에 큰 호랑이가 동문 밖에서 성을 넘어 들어오니 성 안에 나타났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처럼 서있는데 한 사람이 좁은 길을 막고 서 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호랑이가 민가의 측간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내 총포를 쏘아 죽이니, 괴변이라고 하겠다.

129) 거문고 …… 중에 : 공자께서 자유(子游)가 다스리는 무성(武城)에 가서 현악(弦樂)에 맞추어 노래부르는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시며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라고 농담을 하자, 자유가 대답하기를, “제가 전에 선생님께 들으니,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論語 陽貨》

2월 10일(경인) 날씨가 위와 같다.

2월 11일(신묘) 갑자기 따뜻해졌다. 아관(阿觀)과 조카 이정규(李挺奎)가 감시(監試)를 보기 위해 의령(宜寧)에 갔다.

2월 12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오늘 서재를 짓기 위해 터를 닦는데 다음과 같이 제문을 지었다.

신령스런 이 땅은	靈區勝地
귀신이 비밀로 숨겨놓았네	鬼秘神藏
모두 버려진 땅이라	等是糞壤
몇 번의 창상을 거쳤던가	閱幾滄桑
규성의 운이 열리려 하니	奎運將闡
지기가 잠겼다가 펴지네	地紀潛伸
성쇠는 시대에 관계되고	盛衰關時
취사는 사람으로 말미암네	取舍由人
이에 서로 와서	律來胥于
날을 잡아 서재를 지으니	卜日建塾
처음 터를 닦아	經始肇基
아름다움 덕이 이어지길 바라네	延慕休德

2월 13일(계사) 재실(齋室)에 기둥을 세웠다.

2월 14일(갑오) 따뜻하였다.

2월 15일(을미) 서풍이 불고 온화하였다. 읍에 갔다가 돌아왔다.

2월 16일(병신) 날씨가 위와 같다. 사시(巳時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서재의 상량문을 지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稽古通今
서사로서 근본을 삼았네	以書史而爲本
아침저녁으로 글을 읽는 곳	朝吟暮誦
오직 서재로다	惟堂室焉
이에 좋은 곳에 터를 잡아	爰居茲卜名區
정사를 새로 세웠네	新建精舍
바람 도끼 ¹³⁰ 달 도끼 ¹³¹ 를 휘둘러 깎아내자	風斤月斧之揮斲

130) 바람 도끼[風斤] : 옛날 초(楚) 나라 영(郢) 땅 사람이 자기 코 끝에다 흰 흙을 마치 파리 날개만큼 얇게 발라 놓고, 장석(匠石)을 불러 그 흙을 닦아 내게 했더니, 장석이 바람이 휘휘 나도록 도끼를 휘둘러 그 흙을 완전히 닦아 냈으니,

평이 날고 새가 날개를 편 듯 아름다우니 ¹³²⁾	鳥革翬飛之輪扁
서까래와 동쪽 들보 기이한 나무는	榱桶東梁之奇材
모두들 딱 맞는 목재라 칭찬하고	咸稱適器
느티 버들 난과 은행으로 아름답게 꾸미니	槐柳蘭杏之美景
모두 서재와 어울리는 것이네	並是隨資
한 줄기 문하는	一脉文河
호탕한 거류산을 통과하고	通巨流之浩蕩
세 마리 전어 ¹³³⁾ 는 특이한 상서라	三鱸異瑞
나는 듯한 청룡을 마주하였네	對青龍之飛騰
방울 쳐서 장막에 내리니	振鐸下帷
아름다운 구슬은 서로를 비추고	明珠寶唾之相映
뜰 가득 채우고 거리까지 넘쳐	盈庭溢巷
붉은 연꽃과 계수나무 서로 비추네	紅蓮丹桂之交輝
앞에서 방에 걸리는 아름다운 징조를 바치고	前獻掛榜之休徵
오른쪽에는 끝없는 장수를 누리네	右擁無量之遐筭
하늘이 이미 개벽할 때 특이 징조 내리니	天既錫異兆於開闢
사람들은 함께 송축하며 찬양해야 하리라	人宜與善頌而贊揚
감히 보잘것없는 글을 지어	敢發蕝蕞之辭
서재를 짓는 일을 돕네	以助修學之唱
들보를 동쪽으로 놀리니	拋梁東
연꽃은 몇 송이나 피었나	蓮花發幾叢
고개 끝에 천고의 달 걸려	嶺頭千古月
계수나무를 붉게 물들이네	留得桂枝紅
들보를 서쪽으로 놀리니	拋梁西
춤추는 학은 새 등지 정하였네	舞鶴定新栖

그 사람의 코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莊子 徐無鬼》

131) 달 도끼[月斧] : 달을 다듬어서 만들었다는 신비한 도끼이다.

132) 평이 …… 아름다우니[鳥革翬飛] :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시경》 〈사간(斯干)〉에 “새가 놀라 낮빛을 변함과 같으며, 평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如鳥斯革 如翬斯飛]” 하였고, 주희(朱熹)의 《시경집전(詩經集傳)》에 “그 동우가 높게 일어남은 새가 놀라 낮빛을 변함과 같고, 처마가 화려하고 높으며 날아갈 듯함은 평이 날아 날개를 펴는 것과 같다. 대개 그 당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다. [其棟宇峻起 如鳥之驚而革也 其簷阿華采而軒翔 如翬之飛而矯其翼也 蓋其堂之美如此]”라는 말이 나온다.

133) 세 마리 전어[三鱸] : 공경(公卿)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한(漢) 나라 양진(楊震)이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서도 여러 차례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새가 전어(鱸魚) 세 마리를 물고 날아와 강당(講堂)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형상을 하였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전어는 대부들이 입는 옷의 무늬이고, 세 마리는 삼태(三台)의 조짐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양진이 과연 태위(太尉)에 올랐다. 《後漢書 卷54 楊震列傳》

오래도록 살기를 축원하니	望美祝遐筭
끝없는 산과 함께 영원하리	無量山共齊
들보를 남쪽으로 놀리니	拋梁南
삼천의 물 흐르네	三千水泳涵
큰 고기는 얼마나 노니는가	巨魚游幾箇
모두들 큰 포부를 머금었네	箇箇壯圖含
들보를 북쪽으로 놀리니	拋梁北
구만천은 넓고 넓네	九萬天恢廓
큰 새가 배풍 ¹³⁴ 을 일으키니	大鳥培風舉
초료 ¹³⁵ 가 어찌 따르리	鷓鴣仰何及
들보를 위쪽으로 놀리니	拋梁上
규성의 빛이 처음 비추네	奎壁光初放
지기가 천문에 응하니	地紀應天文
관복 입고 휘장을 꿰매네	冠衿繞絳帳
들보를 아래쪽으로 놀리니	拋梁下
전답에 봄날 비로소 파종하네	菑畝春始播
호미끝은 벼로 향하니	鋤頭百本禾
가져다가 종사에 바치리라	留取薦宗社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伏願上梁之後
장애를 멀리 물리쳐서	魔障遠辟
길상이 다투어 이르고	吉祥爭來
날로 달로 성장하여	日就月長
염락과 관민 ¹³⁶ 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泝濂洛關閩之脉
재주와 덕을 겸비하여	才高德備
용과 봉황을 의지하는 영화 ¹³⁷ 를 누리게 하소서	致攀龍附鳳之榮

저녁에 읊에 들어갔다.

2월 17일(정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34) 배풍(培風) : 겹겹으로 두껍게 쌓인 바람을 말하며, 바람을 탄다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면 하늘로 9만 리를 올라가 이 배풍을 타야 갈 수 있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35) 초료(鷓鴣) : 뱀새 종류의 작은 새 이름이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초료가 깊은 숲 속에 등지를 틀어도 그저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다.[鷓鴣巢於深林 不過一枝]”라는 말이 있다.

136) 염락(濂洛)과 관민(關閩) :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를 말하는데, 송(宋)의 5자(子)라고도 한다.

137) 용과 …… 영화 : 영주(英主)를 섬겨功名(功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 <연건(淵騫)>의 “용의 비늘을 부여잡고 봉의 날개에 붙는다. [攀龍鱗 附鳳翼]”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2월 18일(무술) 저녁에 비가 내렸다.

2월 19일(기해) 따뜻하고 비가 오다가 저물녘에 건졌다.

2월 20일(경자) 청명하였다. 두포(頭浦)의 조카 며느리가 신행을 갔다.

2월 21일(신축) 맑고 온화하였다.

2월 22일(임인) 따뜻하였다.

2월 23일(계묘) 이슬비가 내렸다. 아관(阿觀)이 의령 시험장에서 돌아왔다. 시제(詩題)는 ‘그때 다시 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일세[應緣當日再還山]¹³⁸⁾’이다.

2월 24일(갑진) 바람이 불고 갑자기 추워졌다. 백만섬(白萬暹)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2월 25일(을사)

2월 26일(병오) 추웠다.

2월 27일(정미) 저녁에 비가 내렸다.

2월 28일(무신) 새벽에 비가 잠깐 개었다.

2월 29일(기유) 바람이 불어 추웠다.

2월 30일(경술) 서남풍이 불었다. 흙비가 내리고 흐렸다. 사또가 초계(草溪)의 무과(武科)에 문시관(文試官)으로 갔다.

3월 소월(小月).

3월 1일(신해) 서풍이 불고 갑자기 흙비가 내렸다. 최성국(崔城國)이 와서 공부하였다. 이날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2일(임자) 비가 내렸다.

3월 3일(계축)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개기도 했다.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 갔다.

3월 4일(갑인) 약간 흐렸다.

3월 5일(을묘)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햇별이 나왔다.

3월 6일(병진) 저녁에 비가 내렸다. 시가[市直]가 쌀 5말, 조(租) 13말이다. 올벼와 중벼가 물에 잠겼다.

3월 7일(정사)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3월 8일(병오) 온화하였다. 남관(南關)에 들어가 박사문(朴思文)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3월 9일(기미)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선달(先達) 정사열(鄭師說)과 만나 혼담을 나누었다.

3월 10일(경신)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1일(신유) 찬비가 내렸다.

138) 그때 …… 때문일세 : 퇴계선생문집에 나오는 ‘상산사호(商山四皓)’의 한 구절이다.

3월 12일(임술) 짙게 구름이 끼었다.

3월 13일(계해) 동풍이 불고 오후에 비가 내렸다. 서재에 들어갔다.

3월 14일(갑자)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15일(을축) 동풍이 불었다. 아관(阿觀)이 고읍(古邑)에 갔다.

3월 16일(병인) 햇벌이 나왔다. 이용재(李龍才)가 와서 공부하였다.

3월 17일(정묘)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3월 18일(무진) 맑고 온화하였다.

3월 19일(기사) 약간 흐렸다.

3월 20일(경오)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이었다.

3월 21일(신미)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전임 사또가 파직되어 돌아갔기 때문에 지난 세말에 전최(殿最)¹³⁹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시행하였다. 사도 조세선(趙世選)이 거하(居下)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옛날의 영광은 점차 쇠해지고 불법을 저질러 용서하기 어렵다.[昔譽寢衰, 犯禁難赦]”는 것이었다.

3월 22일(임신) 비는 갠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서재의 서쪽 담장을 본전(本田)의 옆에 세웠다.

3월 23일(계유) 동풍이 크게 불었다. 빗발이 퍼붓는 듯하였다. 띠풀로 만든 지붕이 곳 곳에서 다 날렸다. 이번 대풍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오늘은 어머님의 생신인데 비바람이 이와 같아서 먼 곳의 손님들은 오지 못했다. 다만 마들 사람들과 한바탕 모여 잔치를 열고 술을 마셨다. 족장(族丈) 류천정(柳天禎)이 자기의 늙을 처를 보내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비를 맞으며 왔다. 감사하고 감사하였다.

3월 24일(갑술)

3월 25일(을해) 이상 날씨가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3월 26일(병자) 흐렸다가 갠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3월 27일(정축) 따뜻하였다. 김상록(金尙祿)이 와서 공부하였다.

3월 28일(무인) 맑고 온화하였다.

3월 29일(기묘) 햇벌이 나와 따뜻하였다.

4월.

4월 1일(경진) 약간 흐렸지만 바람은 없었다.

4월 2일(신사) 동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

4월 3일(임오)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관찰사 이이장(李彝章)의 행부(行部)¹⁴⁰가

139) 전최(殿最) : 지방관(地方官)의 성적을 고사(考査)하는 데, 최하를 전(殿)이라 하고 최상을 최(最)라 한다.

140) 행부(行部) : 관찰사가 관할 지방을 순시(巡視)하는 일을 말한다.

본현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4월 4일(계미) 비가 내렸다. 관찰사가 통영에 들어갔다.

4월 5일(갑신) 비가 내렸다.

4월 6일(을유)

4월 7일(병술) 약간 흐렸다.

4월 8일(정해) 동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서재 낙성에 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4월 9일(무자) 맑고 따듯하였다.

4월 10일(기축)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맑아졌다.

4월 11일(경인) 청량하였다. 이계손(李繼孫)이 와서 공부하였다.

4월 11일(경인) 청명하였다.

4월 12일(신묘)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13일(임진) 갈산(葛山) 백명수(白命秀)의 수친연(壽親筵)에 갔다가 비 때문에 발이 묶였다.

4월 14일(계사) 비가 잦다가 밤에 또 내렸다. 구음곡(九音谷)에 가서 한득량(韓得良)의 조모 장례를 보고 돌아왔다.

4월 15일(갑오) 서북풍이 불고 청량하였다.

4월 16일(을미) 청량하였다. 2냥 2전의 돈으로 명주 비단 17자를 구입하였다.

4월 17일(병신) 청명하였다. 남호(南湖)에 폐물을 보냈다.

4월 18일(정유) 서풍이 불고 맑고 온화하였다. 아관(阿觀)이 재취(再娶) 신행을 갔다.

4월 19일(무술) 비바람이 심하게 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비바람이 모두 그쳤다. 신행을 따라갔던 종들이 돌아왔다.

4월 20일(기해) 서풍이 불고 맑고 온화하였다.

4월 21일(경자) 저물녘에 빗방울이 잠깐 떨어졌다. 아관(阿觀)이 돌아왔다.

4월 22일(신축) 맑고 온화하였다.

4월 23일(임인) 날씨가 위와 같다. 군포(君浦)의 사형(查兄)이 왔다.

4월 24일(계묘) 약간 흐렸다. 사형이 돌아갔다.

4월 25일(갑진) 약간 흐렸다.

4월 26일(을사)

4월 27일(병오)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28일(정미) 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4월 29일(무신)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4월 30일(기유) 서남풍이 불었다.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하더니 저물녘에 맑아졌다.

윤4월.

윤4월 1일(경술) 남풍이 불고 맑고 온화하였다. 이서방이 왔다.

윤4월 2일(신해) 날씨가 위와 같다. 이어섭(李汝涉), 정내서(丁來瑞), 이서방과 함께 출발하여 고연리(古延里)¹⁴¹⁾ 이 내종(李內從)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물녘에 이서방의 집에 도착했다.

윤4월 3일(임자) 날씨가 위와 같다. 계속 머물렀다.

윤4월 4일(계축) 구름이 끼었다. 오후에 출발해서 고연리에 숙박하였다.

윤4월 5일(갑인) 날씨가 위와 같다. 학동(鶴洞)¹⁴²⁾의 고인이 된 도유사(都有司) 최경(崔璟)을 조문하고 돌아왔다. 아관(阿觀)이 3일에 두 번째 신행을 갔다.

윤4월 6일(을묘)

윤4월 7일(병진) 우박과 비가 내렸으나 땅을 적시고는 그쳤다. 마을의 노부인들이 재중(齋中)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모여서 마셨다.

윤4월 8일(정사)

윤4월 9일(무오)

윤4월 10일(기미) 이상 날씨가 서풍이 구름에 불어왔다.

윤4월 11일(경신)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윤4월 12일(신유)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윤4월 13일(임술)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다가 비가 내렸다.

윤4월 14일(계해) 비가 내려 냇물이 소리내며 흘렀다.

윤4월 15일(갑자) 서풍이 갑자기 불었고 저녁이 되자 구름이 흩어졌다.

윤4월 16일(을축) 서풍이 불고 맑고 더웠다. 이때 시가[市直]가 쌀 4말 남짓, 정조(正租) 10말이다. 가장 귀한 것은 남초(南草)인데 작은 두 개 잎의 값이 1푼이었다. 관에서 시장 판매를 금지하니 몰래 파는 자들이 가격을 더욱 높여서 받았다.

윤4월 17일(병인)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윤4월 18일(정묘) 가끔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했다.

윤4월 19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4월 20일(기사)

윤4월 21일(경오)

141) 고연리: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동에 있던 마을.

142) 학동(鶴洞)마을은 구전(口傳)에 의하면 전주 최씨(全州崔氏) 선조의 꿈에 하늘에서 학(鶴)이 내려와 이곳에 앉아 알아 품고 있는 현몽을 한 후 날이 밝아 그 곳을 찾아 가보니 과연 산수수려(山水秀麗)하고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곡(形谷)이 필연적으로 세장지지(世莊之地)로 판단이 들어서 천년대계(千年大計)할 명지라 믿고 이곳을 학동이라 지명을 지었다고 전하고 있다. 마을의 형성은 서기 1670년경에 전주 최씨의 선조가 맨 먼저 입촌하여 지금까지 약 350 여 년 간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全州崔氏)외 16여 성씨가 살고 있다.

윤4월 22일(신미)

윤4월 23일(임신) 이상 날씨가 서남풍이 불고 뜬구름이 어지럽게 날렸다.

윤4월 24일(계유)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밤에 사람들이 편하게 자지 못했다.

윤4월 25일(갑술) 바람이 조금 약해졌지만 비는 여전히 퍼붓듯이 내려 냇물과 도랑이 넘쳐 흘렀다. 신임 통제사 김연(金演)이 본현에 도착하여 전임 통제사 조동점(趙東漸)과 어제 나명(拿命)을 받들어 상리참(上里站)에 이르러 임무를 교대하였다.

윤4월 26일(을해)

윤4월 27일(병자) 낮에는 흐리고 밤에는 맑았다.

윤4월 28일(정축) 가랑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윤4월 29일(무인) 서남풍이 불고 종일 구름이 끼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5월 1일(기묘) 동풍이 불고 큰비가 내려 물이 불어났다.

5월 2일(경진)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했다.

5월 3일(신사)

5월 4일(임오) 맑았다.

5월 5일(계미) 저물녘에 서쪽 산에 비올 기색이 보였다.

5월 6일(갑신) 가끔 구름이 끼었다.

5월 7일(을유) 비가 주룩주룩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5월 8일(병술)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5월 9일(정해)

5월 10일(무자) 이상 날씨가 질게 구름이 끼었다. 조금 추웠다.

5월 11일(기축) 날씨가 위와 같다. 파직된 관원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여 읍의 일에 두서가 없었다.

5월 12일(경인) 질게 구름이 끼더니 가랑비가 내렸다. 밤에 바람이 불었다.

5월 13일(신묘) 아침에 비바람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다가 식후에 쾌청해졌다.

5월 14일(임진) 북쪽 하늘에 구름이 검게 끼었다.

5월 15일(계사) 동풍이 불고 구름이 걷혔다.

5월 16일(갑오)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17일(을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18일(병신) 질게 구름이 끼었다.

5월 19일(정유)

5월 20일(무술)

5월 21일(기해) 비가 내렸다.

5월 22일(경자)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더니 저녁에는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3일(신축)

5월 24일(임인) 이상 날씨가 질게 낀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5월 25일(계묘) 밤에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5월 26일(갑진)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27일(을사)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

5월 28일(병오) 몹시 더웠다.

5월 29일(정미)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30일(무신)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6월 1일(기유) 서남풍이 불었다.

6월 2일(경술)

6월 3일(신해) 비가 내려 땅을 적셨다.

{6월 4일(임자)}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6월 5일(계축) 소낙비가 내렸다.

6월 6일(갑인) 가끔 구름이 끼었다.

6월 7일(을묘)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阿觀)이 돌아왔다. 신임 사또 조태상(趙台相)이 역마를 달려 와서 부임하였다. 이서방이 왔다.

6월 8일(병진) 날씨가 위와 같다. 이서방이 돌아갔다.

6월 9일(정사) 소낙비가 내렸다.

6월 10일(무오) 매우 더웠다.

6월 11일(기미) 동풍이 불었다.

6월 12일(경신) 저물녘에 비가 내리더니 밤에는 쏟아졌다.

6월 13일(신유) 비로 인해 시냇물에 돌이 구르다가 식후 늦게서야 비가 그쳤다.

6월 14일(임술) 남풍이 불고 덥다가 서쪽 하늘에 비 올 기색이 다분하였다.

6월 15일(계해) 날씨가 위와 같다. 신임 사또 조태상(趙台相)을 또 파직하고 이인원(李仁源)을 대신하니, 바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선생의 후손이다. 역마를 달려 내려왔다고 하였다.

6월 16일(갑자) 산에 비가 와서 연기처럼 흐릿하였다.

6월 17일(을축) 산이 비 올 기색을 머금고 있었으나 잠시 뒤에 더워졌다.

6월 18일(병인) 매우 더웠다.

6월 19일(정묘)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20일(무진) 날씨가 덥고 북쪽 하늘에 천둥번개가 쳤다.

6월 21일(기사)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22일(경오) 날씨가 위와 같다. 벧 김태욱(金兌郁)이 술을 가지고 와서 한바탕 좋은 만남을 가졌다.

6월 23일(신미) 더러 가랑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태울 듯이 더웠다.

6월 24일(임신) 비가 주룩주룩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6월 25일(계유) 비가 수시로 내렸다.

6월 26일(갑술) 구름이 봉우리를 이루었다.

6월 27일(을해) 몹시 더웠다.

6월 28일(병자)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29일(정축) 동풍이 불기도 하고 서북풍이 불기도 하였는데 날이 뜨거웠다. 이때 해충이 기승을 부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기색을 띠었다.

7월.

7월 1일(무인) 인간(寅艮, 북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매우 더웠으며 구름이 이리저리 날렸다.

7월 2일(기묘) 매우 덥고 동풍이 불었다. 이날 어른과 아이 40여 명이 미룡포(彌龍浦)¹⁴³에 모여 고기를 잡았다. 아관(阿觀)이 바다에서 목욕하다가 벌레에게 쏘여 병든 몸을 말에 실고서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괴로워했다.

7월 3일(경진) 맑고 더웠다.

7월 4일(신사)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5일(임오)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6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7일(갑신) 날씨가 위와 같다. 이때 메뚜기가 치성하여 늦게 심은 중벼는 검은 이삭이 패니 사람들이 걱정하였다.

7월 8일(을유) 찌는 듯이 더웠다. 해충이 더욱 기승을 부려 들판의 곡식들이 제 색을 잃어버렸다.

7월 9일(병술) 동풍이 구름에 불어오고 날씨가 건조하고 더웠다. 저녁이 되자 가랑비가 잠깐 지나갔다. 들판색이 황폐해져 좋지 못하니 이는 해충이 더욱 치성할 조짐인 듯

143) 미룡포: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914년 행정구역 동 폐합시 삼산면으로 개칭 되면서 미동과 용호동 일부를 병합하여 미동과 용호동의 이름을 따서 미룡리(법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대포(大浦)·용호(龍湖)·미동(米洞)의 3개 마을이 있다.

하다. 지금 동문 밖과 이교(泥橋)의 들판은 거의 황폐화되었고 사방 교외에서 놀라운 소식이 날마다 이르렀다.

7월 10일(정해) 날이 건조하였다. 이때 농부들이 밭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숨 쉬며 걱정을 하였다. 콩밭의 경우에도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이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7월 11일(무자)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으며 가랑비가 잠깐 지나갔다. 읍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2일(기축) 서풍이 불고 날이 건조하였다. 사람들이 해충은 물이 없으면 조금 준다고 하기에 사람들이 다 물길을 터서 물을 빼니 날이 또 오랜 가뭄으로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졌다. 이쪽저쪽이 다 실패했다고 하겠다.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 갔다.

7월 13일(경인) 날씨가 위와 같다. 올벼를 수확했다.

7월 14일(신묘)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阿觀)이 서면에 갔다.

7월 15일(임진) 동풍이 불고 날이 더워 벼가 말랐다.

7월 16일(계사)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7월 17일(갑오) 비가 내려 도랑에 물이 넘쳤다.

7월 18일(을미) 서풍이 불어 구름이 걷혔다.

7월 19일(병신) 매우 더웠다. 아승(阿升)이 돌아왔다.

7월 20일(정유) 매우 더웠다. 아관(阿觀)이 돌아왔다.

7월 21일(무술)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22일(기해) 날씨가 위와 같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두포(頭浦)의 유사(有司) 이국하(李國廈)가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송정(松亭)의 유사 이재침(李再瞻)이 아들과 부인의 상을 당했다. 나이가 70세가 넘었으니 세상에 살면서 산수 풍경을 감상하려고 하면서 심정을 토로하고 화답을 구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청산은 말이 없고 물은 정이 없어	靑山無語水無情
도처에서 부질없어 감회의 눈물 흘리네	到處空教感淚零
마른 버드나무에 절로 사다리가 생기면	枯楊自有生梯日
뜰앞에 그늘이 저 정자가 생기기를 기다려야 하리	須待庭前蔭作亭

7월 23일(경자)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24일(신축) 비가 내렸다.

7월 25일(임인) 해가 나고 더웠다.

7월 26일(계묘) 더러 가랑비가 내렸다. 시가[市直]가 쌀 3말 반,, 조(租) 10말이다.

7월 27일(갑진) 햇벌이 났다. 별감(別監) 허숙(許淑)이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7월 28일(을사) 햇벌이 났다. 허숙이 돌아갔다.

7월 29일(병오) 날씨가 위와 같다. 백봉래(白鳳來)가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7월 30일(정미)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다. 재회(齋會)에서 술을 마셨다.

8월.

8월 1일(무신)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려 가벼운 먼지를 적셨다.

8월 2일(기유) 더러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조금 햇벌이 나기도 했다. 김시성(金始聲)이 와서 공부하였다.

8월 3일(경술) 비가 수시로 쏟아졌다.

8월 4일(신해) 동풍이 불고 찬비가 내렸다.

8월 5일(임자)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6일(계축) 해가 많이 났다.

8월 7일(갑인) 동풍이 불고 찬비가 내렸다.

8월 8일(을묘) 구름이 흩어졌다.

8월 9일(병진)

8월 10일(정사) 이상 날씨가 바람이 불어 구름이 이리저리 떠다녔다.

8월 11일(무오)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12일(기미)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8월 13일(경신)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이 맑더니 저녁이 되자 비가 내려 밤새도록 내렸다.

8월 14일(신유) 비가 그치지 않았다.

8월 15일(임술) 동북풍이 불고 비가 그치지 않아 냇물과 도랑이 넘쳐흐르니 아이들이 건너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구름이 걷혔다. 월식이 있었다.

8월 16일(계해) 하늘이 맑고 날씨가 더웠다.

8월 17일(갑자)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18일(을축) 서늘하였다. 내일은 대규모 수군 훈련[水操]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둘째와 막내 아이가 조질(朝侄)과 함께 구경하기 위해 떠났다. 이때 포악한 호랑이가 경내를 돌아다니며 사람과 가축을 물어 죽였는데, 거의 10명에 이르렀다. 그제는 광이(光二)의 박태만(朴太萬)의 13살 먹은 아들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박태만의 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죽으니 괴이하고 괴이하다.

8월 19일(병인) 더웠다.

8월 20일(정묘) 날씨가 위와 같다.

8월 21일(무진)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22일(기사) 수시로 비가 내렸다. 아승(阿升)이 남관(南關)에서 돌아왔다. 이서방이 왔다.

8월 23일(경오)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사라졌다. 북풍이 불고 청량하였다. 이서방이 돌아갔다. 천일징(千一徵)이 와서 공부하였다.

8월 24일(신미) 맑았다. 면임(面任)이 관령(官令)에 따라 재해를 입은 논을 조사하였다. 아관(阿觀)이 돌아왔다.

8월 25일(임신) 동풍이 불었다.

8월 26일(계유) 날씨가 위와 같다. 읍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7일(갑술) 동풍이 불고 찬비가 내렸다.

8월 28일(을해) 약간 흐렸다.

8월 29일(병자) 서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아관(阿觀)이 고읍(古邑)에 갔다.

9월.

9월 1일(정축) 서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9월 2일(무인)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阿觀)이 돌아왔다.

9월 3일(기묘) 온화하였다.

9월 4일(경진) 밤에 비가 몇 점 떨어졌다.

9월 5일(신사)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내일은 바로 고읍(古邑)의 죽은 며느리의 첫 번째 기일이라서 사형이 왔다.

9월 6일(임오)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7일(계미) 짙게 구름이 끼었다. 고읍(古邑)의 사형이 돌아갔다.

9월 8일(갑신)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박태엽(朴大燁)이 와서 공부하였다.

9월 9일(을유) 구름이 끼어 흐렸다.

9월 10일(병술) 구름과 해가 반반이었다.

9월 11일(정해) 햇볕이 났다.

9월 12일(무자) 날씨가 위와 같다. 사또 이인원(李仁源)이 10여 일 전에 말미를 받아 본댁에 돌아갔다. 그 때문에 거제의 사또가 겸관(兼官)이 되었다.

9월 13일(기축) 날씨가 위와 같다.

9월 14일(경인) 따뜻하였다.

9월 15일(신묘) 서남풍이 불고 온화하였다.

9월 16일(임진)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저물녘에 구름이 사라지고 날이 따뜻했다.

9월 17일(계사) 해가 나고 따뜻하였다.

9월 18일(갑오)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19일(을미) 날씨가 위와 같다. 관아(觀阿)가 서면에 갔다.
 9월 20일(병신) 흠비가 내렸다.
 9월 21일(정유) 해가 나고 따뜻하였다.
 9월 22일(무술) 흠비가 내렸다. 밤에 우레가 치고 소낙비가 내려 집에 침상마다 물이
 섰다.
 9월 23일(기해) 서풍이 불고 날씨는 따뜻했다.
 9월 24일(경자)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9월 25일(신축) 서풍이 불고 맑았다.
 9월 26일(임인) 서늘하였다.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 갔다.
 9월 27일(계묘) 날씨가 위와 같다. 어제 저녁에 향교의 종이 불을 질러 향교 교리청
 (校吏廳)과 부엌 두 칸을 태웠다고 하였다.
 9월 28일(갑진) 맑고 따뜻하였다.
 9월 29일(을사) 북풍이 잠깐 불었지만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관아(觀阿)가 서면에
 서 돌아왔다.

10월.

10월 1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쌀 4말 반, 정조(正租) 11말, 차조
 (次租) 12말, 목화 7, 8근, 필목(疋木) 값이 2냥 남짓이다.
 10월 2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3일(무신)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4일(기유) 동풍이 불고 짙게 구름이 끼었다. 진주의 생원 최후기(崔厚基)기가 방
 문하여 유숙하였다. 지난 9월 13일은 바로 성상의 천추절(千秋節)¹⁴⁴이다. 약인들이 잔
 지를 열어 축하하고 율시를 지었다. 최 생원이 운을 던지고 내가 차운했다.

삼십년 동안 태평성세 누리니	三十年今太平世
성상의 회갑이라 상서로운 빛이 빛나네	星回聖甲爛祥光
보잘것없는 물품을 정성껏 바치니	葵芹薄味微誠薦
숭산과 화산 일제히 소리 내네	嵩華齊呼萬口張
훈전의 현가에 곡조 타며 춤을 추니	薰殿絃歌調蹈舞
강구 ¹⁴⁵ 와 격양으로 술잔을 올리네	康衢耕鑿給樽觴

144) 천추절(千秋節) : 임금의 탄신일을 말한다.
 145) 강구(康衢) : 사방으로 통하는 넓은 길이다. 《열자(列子)》 〈중니(仲尼)〉에 “요 임금이 15년 동안 정치를 한 뒤에

바라건대 이 해를 가지고 가득 술을 따라
맑은 물에 부어 북방을 씻어주오

願將此日盈盈酒
注入清河洗北方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서 돌아왔다.

10월 5일(경술) 날씨가 위와 같다.

10월 6일(신해)

10월 7일(임자) 온화하였다. 6마지기를 타작하여 고작 9섬의 벼를 수확했다. 조카 류
흥대(柳興大)가 와서 공부하였다. 밤에 구름이 끼었다.

10월 8일(계축) 북풍이 불었다.

10월 9일(갑인) 북풍이 불어 먼지를 일으켰다.

10월 10일(을묘)

10월 11일(병진)

10월 12일(정사) 온화하였다.

10월 13일(무오) 약간 흐렸다.

10월 14일(기미) 해가 나고 따뜻하였다. 떨어지는 해가 붉은 치마 같았다.

10월 15일(경신) 동풍이 잠깐 불었다. 날씨가 몹시 따뜻하였다. 박이엽(朴以燁)이 와서
공부하였다. 감동(甘洞)에 가서 침지 황계창(黃繼昌)의 상에 조문하고 생원 노계(盧季)를
서재로 방문하였다. 매형 이여섭(李汝涉)과 함께 돌아왔다.

10월 16일(신유) 서풍이 불어 매우 따뜻하였다. 아관(阿觀)이 서면에 갔다. 이서방이
왔다.

10월 17일(임술) 약간 흐렸지만 따뜻하였다.

10월 18일(계해)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이서방이 돌아왔다. 여러 읍에 있는 통영
창(統營倉)의 곡식을 일찍이 본영에서 감색(監色)을 정하여 거두어들이게 하였는데 오늘
조정의 명령이 있어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감색을 정해 거두게 한 것이다.

10월 19일(갑자) 북풍이 불어 구름이 엉겼다.

10월 20일(을축) 북풍이 불고 찬 구름이 끼었으며 몇 점 눈이 날리다가 곧바로 그쳤
다.

10월 21일(병인) 북풍이 먼지를 일으켰다.

10월 22일(정묘)

10월 23일(무진) 이상 날씨가 조금 추웠다.

10월 24일(기사) 갑자기 추워졌다.

10월 25일(경오) 햇볕이 났다. 유사 이국하(李國廈)가 와서 묵었다.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졌는지, 민심의 향배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미복(微服) 차림으로 강구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아이가 성세(盛世)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였다.

10월 26일(신미) 날씨가 위와 같다. 이국하가 돌아갔다.

10월 27일(임신) 조금 추웠다. 함양(咸陽)의 지사(地師) 이징효(李徵孝)가 와서 유숙하였다.

10월 28일(계유)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이징효(李徵孝)와 함께 대동(垓洞)에 가서 성묘하고 돌아왔다. 지사는 감동(甘洞) 황치중(黃致中)의 집으로 떠났다.

10월 29일(갑술)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어 추웠다.

10월 30일(을해) 아포(阿浦) 김우정(金禹鼎)이 와서 공부하였다.

11월 소월.

11월 1일(병자) 동풍이 불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11월 2일(정축) 북풍이 불고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11월 3일(무인)

11월 4일(기미)

11월 5일(경진) 이상 날씨가 햇볕이 났다.

11월 6일(신사) 햇볕이 났다. 재중(齋中)에서 새로 술을 빚으므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우스워라, 돈을 낭비하는 아이들이

我笑群兒浪費錢

어지럽게 행춘가를 지나가네

紛紛經過杏村邊

규전에 갑자기 세 성이 모였다 알려오니

奎躔忽報三星聚

좋을시고 시선이 또 술에 취했구나

好是詩仙又醉仙

11월 7일(임오)

11월 8일(계미) 이상 날씨가 북풍이 불었으나 춥지 않았다.

11월 9일(갑신) 구름이 끼어 흐렸으며 춥지 않았다. 지사의 말로 대동(垓洞) 산소에 고사를 지내고 사기 항아리를 묻어 수재에 대비하였다. 식후에 북풍이 불고 비가 부슬 부슬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산에 눈이 내려 하얗게 덮였다. 시를 읊조렸다.

우리들은 지금 시간을 아끼는데

吾徒方是惜分陰

한밤에 세월이 깊었음을 탄식하네

夜裡方嘆歲月深

벽면에 새 햇빛이 한 줄기 비추니

磚面新陽添一線

높고 높은 하늘은 이 마음을 비추리

高高天鑑照斯心

11월 10일(을유) 해가 나고 따뜻하였다.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 갔다.
 11월 11일(병술) 북풍이 불고 햇별이 났다.
 11월 12일(정해) 추웠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3일(무자) 온화하였다. 지사 박훈(朴煥)이 와서 머물렀다.
 11월 14일(기축) 온화하였다. 형제가 조카 정명열(丁命說), 지사 박훈과 함께 진치(晋峙)의 진손(辰巽) 방향의 유좌(酉坐) 산을 보고 돌아왔다.
 11월 15일(경인) 동풍이 불고 저녁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11월 16일(신묘) 동풍이 불었다. 아침 비가 잠깐 내리고 따뜻하더니 저물녘에 개었다.
 11월 17일(임진) 온화하였다. 김창록이 13살의 나이에 문재(文才)가 상당히 있으나 경박한 마음이 있으므로 경계시키는 뜻으로 시를 지어 주었다.

때로 등각에 와서 거듭 이루려 하니 ¹⁴⁶⁾	時來滕閣欲重成
달 도끼 바람 자귀 손안에서 우는구나	月斧風斤手裡鳴
혹여 두렵게도 천리 길을 바삐 가서	或恐駸駸千里氣
수레를 따르지 않고 저 혼자 종횡무질하려나	不隨駕馭自縱橫

11월 18일(계묘) 날씨가 위와 같다.
 11월 19일(갑오) 빗방울이 떨어지고 질게 구름이 끼었다.
 11월 20일(을유) 저녁에 비가 내렸다
 11월 21일(병신) 아침에 눈이 부슬부슬 내려 산머리가 하얗게 덮였고 저물녘에는 해가 나서 매우 따뜻하였다. 학도들에게 운을 부르게 하고 새에 대한 시를 읊었다.

아름다운 곡식 먹고 가시밭에 죄를 받으니	食我佳苗罪竄荊
담장 안 작은 북을 법대로 울리리라	門牆小鼓法當鳴
오직 살길을 삼면으로 열어놓으니	然惟活路開三面
명을 따르는 자 멀리 가서 살 것이니	用命者能遠往生

11월 22일(정유) 흐리고 춥지 않았다. 아포(阿浦) 김응정(金應鼎)이 와서 공부하였다.
 11월 23일(무술) 따뜻하였다. 관아(觀阿)가 진주에 가서 노비를 붙잡아 왔다.
 11월 24일(기해) 약간 흐렸다. 이삼열(李參悅)이 와서 공부하였다.
 11월 25일(경자) 눈이 날렸으나 쌓이지는 않았다.
 11월 26일(신축) 맑고 추웠다. 장의(掌議) 최종백(崔宗伯)이 와서 묵었다.

146) 등각(滕閣) : 중국 강서성(江西省)에 있는 등왕각(滕王閣)을 말한다. 등왕(滕王) 이원영(李元嬰)이 세우고 왕발(王勃)이 서(序)를 썼다.

11월 27일(임인) 매우 추웠다. 관아가 돌아왔다. 최중백이 떠났다.

11월 28일(계묘)

11월 29일(갑진) 이상 날씨가 추웠다.

12월.

12월 1일(을사) 해가 나고 따뜻하였다. 아관(阿觀)이 서면에 갔다. 통영의 김상협(金尙俠)이 방문하여 원산(園山)의 논 3마지기를 매매한 명문(明文)을 작성하고 본문기를 찾아갔다. 지난번에 조 전5점을 10관(貫)에 사서 사면의 집을 사고 아관에게 우선 머물게 하였다.

12월 2일(병오) 정노(正奴) 부부가 방문하였다.

12월 3일(정미)

12월 4일(무신)

12월 5일(기유) 이상 날씨가 따뜻했다.

12월 6일(경술)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서재를 도배하였다.

12월 7일(신해) 잠깐 개이더니 밤에 또 이슬비가 내렸다. 도액(度厄)을 했다. 아관(阿觀)이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8일(임자)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12월 9일(계축) 구름이 끼고 추웠다.

12월 10일(갑인) 매우 추웠다.

12월 11일(을묘) 구름이 끼고 추웠다. 아관(阿觀)이 서면에 갔다.

12월 12일(병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내가 다리에 통증이 있어 땀을 냈다.

12월 13일(정사)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이 돌아왔다.

12월 14일(무오) 뻑뻑한 구름이 끼고 추웠으며 바람이 불었다.

12월 15일(기미) 구름이 끼어 흐렸다.

12월 16일(경신) 짙게 낀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저물녘에 상인(喪人) 이선(李善) 집의 상사(祥事)에 갔다가 돌아왔다.

12월 17일(신유) 춥고 구름이 끼어 비가 몇 점 떨어졌다. 김태욱(金兌郁)이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비파를 가져오면서 장기태(張基泰)와 함께 왔다. 이천림(李天林)도 술과 음식을 마련에 뒤늦게 도착했다. 즐겁게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사또가 거상(居上)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호가 절도에 마땅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다.[더러운 먼지를 씻어내어 바닷가 백성들이 눈을 비비고 볼 정도이다.]”는 것이었다.

12월 18일(임술) 손님이 떠났다. 산머리에 눈이 하얗게 쌓였다. 들판에는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저물녘에 눈이 내려 땅에 흔적을 남겼다.

12월 19일(계해) 북풍이 불고 몹시 추웠다. 아이들로 하여금 운을 부르게 해서 주머니에 대해 시를 읊었다.

탈영 ¹⁴⁷ 이 모래에 가득하여 반쯤 열리니	脫穎盛沙始半開
동남쪽 일곱 나라 모두 둘러치고 오는구나	東南七國盡籠來
화공이 반딧불 창 ¹⁴⁸ 의 손님에게 남겨주니	化工留與螢窓客
월로풍운 ¹⁴⁹ 이 모두다 스러지네	月露風雲滿底頽

12월 20일(갑자) 구름이 끼고 추웠다. 마을의 상놈 박돌암(朴疇岩)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나무에 찢려 즉사하니 딱하다.

12월 21일(을축) 날씨가 위와 같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2일(병인) 날씨가 위와 같다. 이진성(李進成)이 사위를 맞이하는데 가서 보고 돌아왔다. 기러기를 띄웠다.

12월 23일(정묘) 따듯하였다. 생원 강창언(姜昌彦)이 이진성 집의 신행에 후객(後客)이 되어 술을 가지고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2월 24일(무진) 저물녘에 이슬비가 내렸다.

12월 25일(기사)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쳤다.

12월 26일(경오) 맑고 온화하였다.

12월 27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8일(임신) 북풍이 불고 몹시 추웠다.

12월 29일(계유) 북풍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매우 추웠다. 그동안 가장 추운 날씨였다.

12월 30일(갑술) 북풍이 갑자기 불고 질게 낀 구름이 엉기고 추웠다. 이날 저물녘에 눈이 땅을 덮었다. 집에 있는 작물이다. 조 25섬 2, 3말, 쌀 6항아리 남짓, 삶은 콩[熏造] 전1섬, 소금 30말, 밭의 잡곡은 1섬 가득 모아둔 것이 없었다. 올해 바닷가 여러 고을은 충해로 인해 손상을 입어 제대로 익지 않았고, 상도의 여러 고을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다. 밭곡식의 소출이 모두 잘못 되었고 목화는 특히 심하게 손실을 입었다고 하

147) 탈영(脫穎) : 송곳의 끝이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재능을 다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사기(史記)》 제76권 평원군우경열전(平原君虞卿列傳)에, “평원군이 말하기를, ‘무릇 현사(賢士)가 이 세상에 처함에 있어서는 비유하자면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끝이 드러나지 않으면……’이라 하자, 모수(毛遂)가 말하기를, ‘신을 오늘 주머니 속에 처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일찌감치 주머니 속에 처하게 하였더라면 송곳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穎脫而出] 끝이 보이는 정도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였다.

148) 반딧불 창 : 동진(東晉) 때 차운(車胤)이 집이 가난하여 기름이 없었으므로, 주머니 속에 개똥벌레를 많이 잡아 넣어서 그 반딧불로 책을 비추어 공부했던 데서 온 말로, 고향(苦學)을 의미한다.

149) 월로풍운 : 시문(詩文)을 짓는 것이 달·이슬·바람·구름을 형용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전하여 쓸데없는 문자를 비유한 말이다.

였다. 본읍의 충재는 너무 심한데 그 사이에 풍년을 만난 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회지는 흉년이 들었다. 본현의 사또 이인원(李仁源)은 큰 문벌가문의 문관으로 작은 고을에 수령으로 왔는데 은연중에 호랑이가 깊은 산속에 있는 듯한 위엄이 있었다. 삼영(三營)이 감히 탄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곡을 받들 절차에 있어서는 영창(營倉)의 감색(監色)들이 조는 양처럼 조용했다. 마을에서는 적막하게 세금을 독촉하는 소리가 없어 집집마다 무사하고 사람들은 저절로 편안하여 원래 뿔뿔이 흩어지는 자가 없었다. 아직 받지 못한 수량도 전년보다 더하지 않았으니 근래 처음 보는 일이다. 영창의 곡식은 처음에는 해당 고을로 하여금 감색을 정해 바치게 하여 영중에서 다방면으로 비변하게 보고하게 하니, 결국 예전처럼 하여 영감색은 추후에 나와 거들 뿐이었다. 지금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0말, 차조(次租) 12말, 쌀 14말 반이다. 대구는 시장에서 보기 어려웠다. 청어는 1뿔음 값이 1전 6푼이고 세목(細木)은 값이 3냥에 이르렀으며 중목(中木)은 값이 2냥 5, 6전하고, 농포(農布)는 2냥 2, 3전이다. 세전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는 날이 없었다.

을해년(1755년 영조31)

1월 대월(大月). 1일 을해. 9일 우수 월중. 24일 경칩 2월절.
 2월 소월(小月). 1일 기사. 9일 춘분 월중. 24일 청명 3월절.
 3월 대월. 1일 갑술. 10일 곡우 월중. 26일 입하 4월절.
 4월 대월. 1일 갑진. 11일 소만 월중. 27일 망종 5월절.
 5월 소월. 1일 갑술. 13일 하지 월중. 28일 소서 6월절.
 6월 대월. 1일 계묘. 15일 대서 월중.
 7월 소월. 1일 계유. 입추절. 16일 처서 월중.
 8월 대월. 1일 임인. 3일 백로절. 18일 추분 월중.
 9월 소월. 1일 임신. 4일 한로절. 19일 상강 월중.
 10월 소월. 1일 신축. 5일 입동절. 19일 소설 월중.
 11월 대월. 1일 경오. 5일 대설절. 20일 동지 월중.
 12월 소월. 1일 경자. 5일 소한절. 19일 대한 월중.

1월 대월(大月).

1월 1일(을해) 새벽에 눈이 개고 달빛이 흐릿하며 북두칠성이 언뜻 보이고 동남풍이 불 기색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눈이 편편이 날다가 곧바로 그치고, 저물어 가면서 구름

이 흩어지고 하늘이 맑고 따뜻하다가 북풍이 갑자기 불어왔다.

1월 2일(병자) 인간(寅艮, 북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잔 구름이 잠깐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춥지는 않았다. 아승(阿升)이 천일징(千一徵)의 말 4필을 빌려 봉전(鳳田)의 조카 이정호(李挺虎)와 류형대(柳亨大)의 신행에 갔다.

1월 3일(정축) 북풍이 불었다.

1월 4일(무인) 온화하였다. 아승(阿升)이 집으로 돌아왔다.

1월 5일(기묘) 북풍이 불어 추웠다.

1월 6일(경진) 북풍이 불고 몹시 추웠다. 아관(阿觀)이 서면에 가서 집단장을 했다.

1월 7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8일(임오) 북풍이 불어 먼지를 일으키고 날씨가 몹시 추웠다. 세후에 3일부터 바람이 불고 해가 나는데도 매우 추웠다. 박유장(朴有章)의 장례에 갔다가 돌아왔다.

1월 9일(계미)

1월 10일(갑신) 이상 날씨가 모두 위와 같다.

1월 11일(을유) 날씨가 조금 풀렸다.

1월 12일(병술)

1월 13일(정해)

1월 14일(무자)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월 15일(기축) 북풍이 불어 추웠다. 아관이 돌아왔다.

1월 16일(경인) 온화하였다. 봉전(鳳田)의 며느리가 신행을 갔다. 동풍이 불었다.

1월 17일(신묘) 약간 흐렸다. 차덕로(車德輅)와 박대암(朴大岩) 등이 와서 공부하였다.

1월 18일(임진) 구름이 끼었다. 아관이 서교(西橋)에 들어갔다. 군포(君浦)의 딸이 와서 문안했다.

1월 19일(계사)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1월 20일(갑오) 서풍이 불었다. 아임(阿臨)이 갈곡(葛谷)에 갔다.

1월 21일(을미)

1월 22일(병신) 저물녘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 샘이 갑자기 흘렀다. 임아(臨阿)가 돌아왔다. 갈곡(葛谷)의 며느리가 그제부터 신음하더니 오늘밤에 반쯤 해산하려 하다가 쌍둥이 딸을 잃었다. 임신한지 여덟달 밖에 안 되었다.

1월 23일(정유) 맑고 온화하였다.

1월 24일(무술) 약간 흐렸지만 따뜻하였다.

1월 25일(기해) 비가 내렸다. 군포(君浦)의 딸이 어제 왔다.

1월 26일(경자) 비가 그쳤다. 군포(君浦)의 노비가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8말, 쌀 3말 6되이다.

1월 27일(신축) 동풍이 불고 눈이 종일 내리고 밤까지 내렸다. 산과 들이 모두 하얗

다.

1월 28일(임인) 구름이 끼었다. 갈곡(葛谷)의 며느리가 가슴에 열이 나므로 종과 말을 보내 박 의사를 불러 간귀탕(荳歸湯)을 복용케 하였다.

1월 29일(계묘) 구름이 끼어 흐렸다. 군포(君浦)의 이 서방이 돌아왔다.

1월 30일(갑진) 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중탕(理中湯)을 복용시켰다.

2월.

2월 1일(을사) 구름이 끼어 흐리다가 오후에 잠깐 비가 내렸다.

2월 2일(병오) 날씨가 위와 같다.

2월 3일(정미) 추웠다. 가미이중탕(加味理中湯)을 복용시켰다.

2월 4일(무신) 날씨가 위와 같다. 갈곡(葛谷) 며느리의 병에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 술시 초에 세상을 떠나니 당시 나이 33세로 계묘생(癸卯生)이다. 통곡하고 통곡한다.

2월 5일(기유) 저물녘에 눈이 잠깐 날렸다. 사람을 서면에 보내 아관에게 곡하러 오지 못하게 하였다.

2월 6일(경술) 추웠다.

2월 7일(신해) 눈이 어지럽게 내렸다.

2월 8일(임자)

2월 9일(계축)

2월 10일(갑인) 구름이 끼어 흐렸다.

2월 11일(을묘)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2월 12일(병진) 온화하였다. 이날 저녁에 개구리 소리를 듣고 운을 부르게 하여 시를 읊었다.

동정¹⁵⁰의 한 덩이를 봉한다 말하니

自談東井一丸封

부릅뜬 눈 뱃속 가득한 죄 용납하지 않네

弩眼撐腸罪不容

무슨 일로 진흙에서 종일 곡을 하나

何事泥中終日哭

맑은 물을 만나 진룡을 떨쳐 일어나게 하리

應逢白水怒眞龍

2월 13일(정사) 점질(漸涸)이 며칠 전부터 병으로 누웠으니 필시 유행병인 듯하다. 걱정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50 동정(東井) : 정수(井宿)를 말하는데 이십팔수 중에 남방주작(南方朱雀)에 있는 별자리이다. 《사기》 89권 진여전(陳餘篇)에 “한왕(漢王)이 관(關)에 들어오매, 오성(五星)이 동정에 모였다.” 하였다.

2월 14일(무오) 약간 흐리고 동풍이 불었다. 이서방이 왔다. 박훈(朴煥)과 이국하(李國廈)가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2월 15일(기미) 군포(君浦)의 딸이 자기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님께서 태질(泰侄)의 집에 임시로 거처하셨다.

2월 16일(경신) 따뜻하였다.

2월 17일(신유) 약간 흐렸다. 나도 재실에 머물며 밥을 먹었다.

2월 18일(임술)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2월 19일(계해) 저녁에 비가 내렸다.

2월 20일(갑자) 비가 그치지 않았다.

2월 21일(을축)

2월 22일(병인) 비가 내렸다.

2월 23일(정묘) 짙게 구름이 끼더니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4일(무진) 짙게 구름이 끼었다.

2월 25일(기사)

2월 26일(경오) 이상 날씨가 동풍이 불어 서늘하였다.

2월 27일(신미)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28일(임신) 종일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2월 29일(계유)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대월.

3월 1일(갑술) 동풍이 불고 잠깐 비가 내렸다.

3월 2일(을해) 맑았다.

3월 3일(병자) 온화하였다.

3월 4일(정축) 조금 구름이 끼었다. 아승(阿升)이 봉진(鳳田)에 갔다. 저녁을 먹은 뒤에 내가 비로소 집안을 출입했다.

3월 5일(무인) 따뜻하였다.

3월 6일(을묘) 따뜻하였다.

3월 7일(경진) 따뜻하였다. 아승(阿升)이 돌아왔다. 아임(阿臨)이 갈곡(葛谷)에 갔다.

3월 8일(신사) 동풍이 불고 얇게 구름이 끼었다. 불이 나서 북산(北山)의 송림을 태웠다.

3월 9일(임오) 온화하였다.

3월 10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어머님께서 임시거처를 철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관(阿觀)이 딸을 낳았다고 하였다.

3월 11일(갑신) 약간 흐렸다.

3월 12일(을유) 온화하였다.

3월 13일(병술) 날씨가 위와 같다. 나장(羅將)이 김일경(金一鏡)의 열자인 본읍의 정속노(定屬奴) 김운웅(金允雄)을 잡아갔다.

3월 14일(정해) 따뜻하였다. 근래 송전(松田)에 화재가 없는 날이 없으니 괴이하다.

3월 15일(무자) 온화하였다. 호남(湖南)의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하징(李夏徵)이 무신년(戊申年)의 역적 윤지(尹志)와 모반을 피하다가 발각되어 잡히고 공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3월 16일(기축)

3월 17일(경인)

3월 18일(신묘)

3월 19일(임진)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3월 20일(계사) 날씨가 위와 같다. 통제사 김연(金沆)이 역적의 공초에 들어 붙잡아 들이라는 명이 어제 본현에 들어와 오늘 통영에 갔다.

3월 21일(갑오) 날씨가 위와 같다. 읍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신임 통제사 이장오(李章吾)가 단기필마로 바삐 와 본현을 지나 금부 도사와 선전관을 구허(丘墟)에 모으고 통영에 갔다. 함거(檻車)가 전임 통제사 김연을 보내기 위해 곧장 나와 어제 저물 녘에 사천(沙川)으로 떠났다.

3월 22일(을미) 약간 흐렸다.

3월 23일(병신) 온화하였다.

3월 24일(정유)

3월 25일(무술)

3월 26일(을해) 이상 날씨가 위와 같다.

3월 27일(경자) 조카 정시열 집에 저녁밥을 짓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이웃마을에서 달려와 도와준 덕에 불을 꺾으니 놀라움이 적지 않다. 밤에 비바람이 불어 샘물이 겨우 흘렀다. 교서를 내려 역적 이하징(李夏徵)과 윤지(尹志)를 처형하고, 추가로 조태구(趙泰耆)와 류봉휘(柳鳳輝)에 대해 반역죄로 노적(拏籍)의 벌을 내리라고 하였다.

3월 28일(신축) 아침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맑아졌다.

3월 29일(임인) 아관(阿觀)이 왔다.

3월 30일(계묘)

4월.

4월 1일(갑진) 따뜻하였다. 읍에 갔다가 돌아왔다. 관아(觀阿)가 서면에서 돌아왔다.

4월 2일(을사) 따뜻하였다.
 4월 3일(병오) 잠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4일(정미)
 4월 5일(무신)
 4월 6일(기유)
 4월 7일(경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4월 8일(신해) 가랑비가 내렸다.
 4월 9일(임자) 가랑비가 내렸다. 밤에 우레가 쳤다.
 4월 10일(계축) 또 비가 내렸다.
 4월 11일(갑인) 햇별이 났다. 읍에 갔다가 돌아왔다.
 4월 12일(을묘) 날씨가 위와 같다.
 4월 13일(병진) 비가 내렸다.
 4월 14일(정사) 가랑비가 가끔 떨어졌다. 도선(道善) 진치산(晋峙山)에 가서 박상수(朴尙粹)를 조문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그대가 과연 이 세상을 버리니
 나의 회포 누구와 나누나
 원일의 나눈 말 믿고
 늦봄에 마주앉아 술마셨지
 일찍 꽃 피길 얼마나 기다렸나
 둥근 달 더딘걸 자주 미워했네
 좋은 소리 아직 귀에 남아 있는데
 슬픔의 눈물 불현 듯 떨어지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꿈인가 의심하네
 빈 들보는 뒤에 남아 있고
 옛 집은 빈 장막만 닫혀 있네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날까
 인간세상 홀로 슬프구나
 잔을 드니 끝내 삭막하고
 바람 부니 달은 도리어 처량하네
 옛 검은 먼지 쌓인 상자에 담겨 있고
 외로운 거문고는 망사에 미쳤네
 남교의 천년 한을

君果捐斯世
 論懷我與誰
 攬裾元日語
 對酌暮春期
 幾待花開早
 頻嫌月滿遲
 好音猶在耳
 哀淚忽沾眉
 若是傳非信
 祇今夢亦疑
 空梁留後面
 舊宅閉虛帷
 何處重相見
 人間獨自悲
 盃尊終索莫
 風月轉淒其
 古劔埋塵匣
 孤琴遍網絲
 南校千載恨

한 줄 애사에 담아 보내네

付與一聯詞

4월 15일(무오)

4월 16일(기미)

4월 17일(경신)

4월 18일(신유) 이상 날씨가 바람이 불고 맑았으며 구름이 떠다녔다.

4월 19일(임술) 바람이 서늘하였다.

4월 20일(계해)

4월 21일(갑자) 날씨가 위와 같다. 아관(阿觀)이 돌아왔다. 올벼와 중벼를 이앙했다.

4월 22일(을축)

4월 23일(병인) 이상 하늘이 맑았다.

4월 24일(정묘)

4월 25일(무진)

4월 26일(기사) 날씨가 모두 위와 같다.

4월 27일(경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8일(신미) 하늘이 맑고 날씨는 더웠다. 읍에 갔다가 돌아왔다. 김윤웅(金允雄)이 제주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하였다. 올해 반역죄로 죽은 자도 매우 많고 노비로 몰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4월 29일(임신) 저녁에 비가 잠깐 내려 개울물이 불어났다.

4월 30일(계유) 하늘이 맑았다. 오늘 물을 끌어대는 곳에 겨우 이앙을 알 수 있었지만 큰 들판은 전연 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5월.

5월 1일(갑술) 하늘이 맑고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관(阿觀)이 서면에서 돌아왔다.

5월 2일(을해)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3일(병자)

5월 4일(정축)

5월 5일(무인) 이상 날씨가 서풍이 불고 가물어 농부들이 비를 간절히 바랬다. 관가에서 무당집의 붉은 비단을 다 거두어 시장에서 불태웠는데, 이는 조령(朝令)에 따름 것이다.

5월 6일(기묘)

5월 7일(경진)

5월 8일(신사)

5월 9일(임오) 이상 날씨가 바람이 서늘하고 날이 건조하였다. 이양할 기약이 없었다.

5월 10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5월 11일(갑신) 흐리고 해가 나는데 일정함이 없었다. 저물녘에 비가 내렸으나 먼지를 적시지도 못했다.

5월 12일(을유) 전연 비 올 기색이 없었다. 겨우 이양한 것이 유독 거북등처럼 갈라져 도리어 이양하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였다.

5월 13일(병술) 날이 건조하였다.

5월 14일(정해)

5월 15일(무자) 몇 점 비가 내렸다.

5월 16일(기축) 매우 더웠다. 읍에 갔다가 박상록(朴尙祿) 집에 머물렀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이팽수(李彭壽)가 와서 공부하였다.

5월 17일(경인) 남쪽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고 비도 보슬보슬 내렸다. 식후에 박상록과 함께 재실로 돌아오기 위해 동문 밖에 이르자 빗줄기가 비껴 날고 물이 땅 위로 흘렀다. 옷을 다 적시고 오니 잠깐 사이에 구름이 흩어졌다.

5월 18일(신묘)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19일(임진) 저물녘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박상록이 추관(推官)의 소동(小童) 역을 맡게 되었다. 비를 맞으며 들어갔다.

5월 20일(계사) 비가 주룩주룩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5월 21일(갑오) 냇물이 불어났다.

5월 22일(을미) 비가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병신) 비가 그치지 않았다. 사람을 보내어 박상록을 위로하고 시를 지어 주었다.

나에게 협객의 이름을 우레처럼 기대하니
어찌 한갓 바람에게 한 번 우레치게 할까
알아야 하리니 지네 등에 채찍질을 더하려면
맑은 하늘을 쳐서 우레를 불러야하네

奚我俠名若灌雷
豈徒風教一封雷
應知蛆背加鞭手
要激晴天繞處雷

5월 24일(정유) 비가 그치지 않았다.

5월 25일(무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5월 26일(기해) 저물녘에 날이 개었다가 저녁에 비가 내렸다.

5월 27일(경자) 잠깐 햇별이 났다.

5월 28일(신축) 짙게 낀 구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5월 29일(임인) 비가 또 퍼붓듯이 내렸다. 박상록이 와서 문안하고 저녁이 되자 비를 맞으면 돌아갔다.

6월.

6월 1일(계묘)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시가[市直]가 쌀 2말 6되이다.

6월 2일(갑진) 구름이 개고 도로에 사람이 다녔다. 읍에 가서 박상록 집에서 숙박하였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6월 3일(을사) 비가 그치지 않았다. 계속 박상록의 집에 머물렀다.

6월 4일(병오) 구름이 흩어졌다. 나막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서 진흙땀을 걸어 돌아왔다.

6월 5일(정미)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6일(무신)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7일(기유) 구름이 사라졌다. 백봉래(白鳳來)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6월 8일(경술) 동풍이 구름이 불어왔다.

6월 9일(신해)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6월 10일(임자)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1일(계축)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관(阿觀)이 서면으로 돌아갔다.

6월 12일(갑인) 밤에 또 비가 내렸다. 이번 여름 장마비로 인해 강 연안 여러 고을에 집이 잠겼는데 좌도는 특히 심해 시체가 강을 메우고 떠내려 가서 해구에 가득찼다. 지금 어부의 낚시에 건진 시체와 기물이 그 수를 알지 못할 정도 였다. 강변의 전야는 아주 형체가 없고, 남너노소가 사망으로 흩어졌으니 이는 시절의 변고이다.

6월 13일(을묘) 비가 쏟아졌다.

6월 14일(병진) 비가 그치지 않았다.

6월 15일(정사) 비가 내렸다.

6월 16일(무오) 비가 오다가 가끔 갠다. 시가[市直]가 쌀 2말 4되라고 한다.

6월 17일(기미) 동풍이 불고 질게 구름이 끼었다. 비가 날리고 날씨가 추웠다. 지난달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개지 않으니 이 또한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다.6월 18일(경신) 비가 쏟아졌다.

6월 19일(신유) 질게 낀 구름이 갑자기 걷히고 맑기운이 조금 서늘해졌다.

6월 20일(임술) 다시 비가 내렸다. 밤에 냇물에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우레소리 같았다. 벗 최선여(崔善餘)가 와서 숙박하였다.

6월 21일(계해) 비가 쏟아지다가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6월 22일(갑자)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비가 내렸다.

6월 23일(을축) 날씨가 위와 같다.

6월 24일(병인)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6월 25일(정묘)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였다.

6월 26일(무진) 날씨가 위와 같다. 김일국(金日國)이 와서 공부하였다.

6월 27일(기사) 구름이 끼어 흐리더니 비가 쏟아졌다. 장마비가 지루하게 내리는 것은 근래 드문 일이다. 날씨가 덥지 않아 벼가 자랄 방도가 없으니 농사일이 염려된다.

6월 28일(경오) 낮에는 개고 밤에는 구름이 끼었다. 계동(契洞) 류 매형(柳妹兄)이 임시거처에서 와서 묵었다.

6월 29일(신미) 우레가 치고 비가 크게 내렸다.

6월 30일(임신) 서북쪽 하늘에서 종일 천둥우레가 쳤다. 밤이 되자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류 매형이 장의암(壯義庵)에 올라갔다.

7월.

7월 1일(계유) 우레 소리가 어제부터 밤을 지나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비가 때로는 퍼붓듯이 내렸다. 오후가 되자 북풍이 몰아치고 우레가 치고 비가 크게 내려 냇물과 도랑이 넘쳐흘렀다. 이틀 동안 계속 우레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괴이하다. 류 매형이 돌아와서 유숙하였다. 시가[市直]가 쌀 2말 1되이나 되가 조금 작아 평년의 7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7월 2일(갑술)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더웠다. 류 매형이 임시거처에서 철수하고 돌아갔다.

7월 3일(을해)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4일(병자) 날씨가 위와 같다. 저녁에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7월 5일(정축) 밤에 또 비가 내렸다. 진주(晋州)의 생원 이호 사순(李灝士淳)이 와서 재중(齋中)에 머물렀다. 조카 류문경(柳文經)과 함께 공부하였다.

7월 6일(무인) 새벽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7월 7일(기묘) 새벽에 또 갑자기 비가 내렸다.

7월 7일(경진) 더웠다. 김상의(金尙義)가 와서 공부했다.

7월 9일(신사)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다.

7월 10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불었다.

7월 11일(계미)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12일(갑신)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13일(을유) 가랑비가 갑자기 내렸다. 현재 병충해가 매우 심해 만종(晩種) 늦게 여무는 벼)한 곡식이 대부분 가을걷이할 가망을 잃게 되어 인심이 불안했다.

7월 14일(병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낀 날이 연일 계속되었다. 밤에 비가 흩먼지를 적

섰고 벼 곡식에 피해를 입혔다.

7월 15일(정해) 동풍이 더욱 세차게 불고 구름이 내달리고 비가 뿌렸으며 해가 나왔다가 흐렸다가 했다. 이날 밤에 생원 이사순(李士淳)의 시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일없이 그저 보낸 오십년 세월에	無事消磨五十春
글도 검도 성취 못한 쓸쓸한 사람일세	非書非劔寂寥人
평생 더할 나위 없는 광경 오늘밤	平生奇絕惟今夜
자리에 좋은 손님에 둥근 달 비추구나	座有佳賓月滿輪

또

문단에 명성이 천둥처럼 드날리더니	藝垣聲價灌雷鳴
한 움큼 시편 ¹⁵¹⁾ 을 보면서 놀랐지요	滿掬瓊瑠觸目驚
다시 가슴속에 비루한 마음 싹트지 않으리 ¹⁵²⁾	不復胸中萌鄙吝
바람 불고 달빛 비춘 이와 같은 맑은 경지 ¹⁵³⁾	風來月到一般清

7월 16일(무자) 날씨가 위와 같다.

7월 17일(기축)

7월 18일(경인) 이상 날씨가 청명했다.

7월 19일(신묘) 더웠다. 갈산의 상인(喪人) 백명흡(白命翁)을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다.

7월 20일(임진) 극히 더웠다.

7월 21일(계사) 날씨가 위와 같다. 전곡(田穀)이 또 메말라 가을걷이 가망이 없다.

7월 22일(갑오) 날씨가 위와 같다. 들으니, 조정에서 또 추국(推局)을 설치했는데, 김윤흥(金允興)의 아들 태수(太水)¹⁵⁴⁾가 고성현에 갇혀있으면서 형신(刑訊)을 받았고 또 경옥(京獄)으로 붙잡혀 가서 국문(鞫問) 아래에서 죽고 구덩이에 버려졌다고 한다.

7월 23일(을미) 밤비가 흠먼지를 적셨다.

7월 24일(병신) 구름이 짙게 끼고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25일(정유) 아침비가 흠을 흠족하게 적셨다.

7월 26일(무술)

7월 27일(기해) 가랑비가 내렸다. 전임 통제사 이징(李徵) 공이 총융사가 되었으므로 신임

151) 경거(瓊瑠) : 보배로운 구슬로 훌륭한 시문을 뜻한다. 《시경》 〈위풍(衛風) 목과(木瓜)〉에 “나에게 목과를 주거늘 경거로써 갚는다.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52) 다시 가슴속에 비루한 마음 싹트지 않으리 : 후한(後漢) 때 황헌(黃憲)의 자품(資稟)이 매우 청수하고 총명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안자(顔子)에 비유되기까지 했다. 같은 군(郡)에 사는 진번(陳蕃), 주거(周舉) 등은 항상 서로 말하기를 “잠시라도 황생(黃生 황헌)을 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린(鄙吝)한 생각이 싹튼다.”고 했다.

153) 바람 불고 달빛 비춘 이와 같은 맑은 경지 : 송나라의 철인 소옹(邵雍)이 〈청야음(淸夜吟)〉이라는 오언절구에서 밝힌 도의 경지를 말한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달은 하늘 한복판에 이르고, 바람은 물 위에 불어오누나. 이와 같은 맑은 경지를, 아는 사람 아마도 많지 않으리.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

154) 《승충명록》 원문에는 ‘김윤웅(金允雄)의 아들 태수(太壽)’라고 표기되어 있어 정정 번역하였다. 김윤웅(金允雄)은 김윤흥(金允興)의 오자이고, 태수(太壽) 역시 태수(太水)의 오자이다. 김윤흥은 김일경(金一鏡)의 아들로, 1725년(영조1)에 10세의 나이였기에 교형(絞刑)에 처해지지 않고 경상도 고성현(固城縣)에 유배되었다. 1755년(영조31) 3월 1일에 제주목(濟州牧)으로 이배(移配)되었다. 그 아들 김태수는 같은 해 장형(杖刑)에 죽고 말았다. 《영조실록》 31년(1755) 3월1일, 《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1월 10일.

통제사 이경철(李慶喆) 공이 오늘 통영에 왔다. 남촌진장(南村鎭將) 정두삼(鄭斗三)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과하였다.

7월 28일(경자) 비가 내렸다.

7월 29일(신축) 비가 내렸다.

8월 대월.

8월 1일(임인) 동풍이 불고 또 비가 내렸다.

8월 2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다. 생원 이사순과 조카 류문경(柳文經)이 합천의 감시(監試)에 응시하기 위해 오늘 작별하고 떠났다. 이사순이 이별시를 남겼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했다.

재주 없고 병 많아 초가집에 누워더니	不才多病臥茅廬
십여 년 동안 손님 왕래 딱 끊겼구나	門斷往還十載餘
입 있어 개구리 미꾸라지 맛보지만 ¹⁵⁵⁾	有口可嘗蛙鱉味
공부 없어 마소가 옷 입는 꼴이라오 ¹⁵⁶⁾	無功能化馬牛裾

빈산에 홀연 인적 소리 들리니	空山忽報登音過
고상한 그대 돌아와 속태를 멀리했지	高躅方回俗態跡
오늘 이별하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今日相分何日會
승선교에 글 쓴 사마상여를 기다리네 ¹⁵⁷⁾	升仙題柱待相如

이사순의 시도 아울러 적어 아래에 보였다.

8월 3일(갑진) 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생이 비에 막혀 갈산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월 4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다.

8월 5일(병오) 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8월 6일(정미) 저물녘에 구름이 흩어졌다. 시가[市直]가 쌀 2말, 2, 3되이다.

8월 7일(무신)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8월 8일(기유) 얇게 구름이 끼었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밤에는 축축히 적셨다.

8월 9일(경술) 가랑비가 내렸다. 서면(西面)의 사형(查兇) 정선달(鄭先達)이 이질(痢疾)로 7일에 세상을 떠나니, 애통함을 견딜 수 없다.

8월 10일(신해) 찬비가 가끔 떨어지더니 저녁이 되자 부슬부슬 내렸다. 광이(光二)에 있는 산소 두 곳을 성묘했다.

155) 庖刀如新驚歲晚 亦無龜鱉薦松醪 和陳希舜濁醪二首又次爲謀深遠之作一首

156) 마소가 옷 입는 꼴이라오 : 한유(韓愈)의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 시에 “사람치고 고금의 일에 통하지 못하면 마소가 옷을 입는 것과 같다.[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 한 데서 온 말이다.

157) 승선교에 글 쓴 사마상여를 기다리네 : 벼슬길에 나아가 공명을 이루는 영광을 말한다. 사마상여는 한(漢)나라 때의 문장가이다. 한나라 성도(成都)의 북쪽에 승선교(升仙橋)란 다리가 있었는데, 사마상여가 처음 장안(長安)에 들어가서 공명을 구할 적에 이 다리를 지나면서 다리 기둥에 쓰기를 “말 네 마리가 끄는 높은 수레를 타지 않고서는 이 다리를 다시 건너오지 않겠다.” 하였는데, 뒤에 사마상여는 높은 자리에 올라 사마를 타고 이 다리를 다시 건넜다. 《太平御覽 卷73》

8월 11일(임자)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시가[市直]가 이전과 같았다.

8월 12일(계축) 화청했다. 아관이 왔다.

8월 13일(갑인) 제사를 지낼 적에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더니 아침에 비가 와서 개울과 도랑에 다시 물이 통해 흘렀다. 저물녘에 구름이 흩어졌다.

8월 14일(을묘) 하늘이 맑았다.

8월 15일(병진) 화청했다. 형님이 죽림(竹林)에 가서 성묘하고 비문(碑文)을 베껴서 왔다. 바로 통정대부(通政大夫) 구응탁(仇應卓) 공의 묘소로, 곤좌간향(坤坐艮向)¹⁵⁸의 언덕에 있다. 이 분은 우리 방친(傍親)이다. 본 묘소 위부분에 한 무덤이 있으니, 선조의 묘소가 아니겠는가. 금년 추석(秋夕)에 묘소에 온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서풍이 불고 월식이 있었다.

8월 16일(정사) 동풍이 불었다. 아승이 봉전에 갔다.

8월 17일(무오) 비가 내려 하천이 가득하고 밤에 하늘이 맑았다.

8월 18일(기미) 구름이 얇게 끼었다.

8월 19일(경신)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8월 29일(신유) 구름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승(阿升)이 봉전에서 자신의 장인[岳父] 생원 황윤집(黃允執)을 모시고 돌아왔다.

8월 21일(임술) 화청했다. 시가[市直]가 백미(白米) 2말, 증미(蒸米) 2말 2되, 생중도(生中稻/중조는 올벼도 늦벼도 아닌 중올벼) 1말 가격이 전(錢) 1전(錢) 1푼(分)이다. 아관이 서면에서 돌아와 아림(阿臨)과 함께 가서 정선달을 주문했다.

8월 22일(계해) 동풍이 불었다.

8월 23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고 밤에 비가 내렸다. 아림(阿臨)이 돌아왔다.

8월 24일(을축) 동풍이 불고 비가 퍼붓듯이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밤에 동북풍이 세차게 불어 형세가 나무를 꺾고 집을 뺏을 지경이며, 벼 곡식이 다 쓰러졌고 과실이 다 떨어졌으니, 흉작이 한결같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가.

8월 25일(병인) 구름이 흩어졌다.

8월 26일(정묘) 화청했다. 봉전의 사형(査兄)이 작별하고 돌아갔는데, 아승이 진송해서 계동(契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8월 27일(무진) 화청했다. 본관사또가 휴가를 받아[受由] 서울로 올라갔다.

8월 28일(기사) 흠비가 짙게 내렸다.

8월 29일(경오) 동풍이 불고 갑자기 흠비가 내렸는데 날씨가 온화해졌다. 의원 박범석(朴範錫)과 김상의(金尙義)와 함께 소월암의 대사승(大師僧) 선옥(禪玉)의 종증(腫症) 병 때문에 다리가 통통 부은 병증(病證)을 가서 문병했는데, 박범석은 머무르고, 나와 김상의는 돌아왔다. 저물녘 북쪽 하늘에 성화(星火)¹⁵⁹가 나타났다.

8월 30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소월

9월 1일(임신) 서북풍이 불고 화청했다. 시가[市直]가 백미(白米) 2말, 증미(蒸米) 2말 3,4되이다.

158) 곤좌간향(坤坐艮向) : 뒀자리가 곤방(坤方)을 등지고 간방(艮方)을 향해 앉은 좌향(坐向)으로, 남서쪽에서 북동쪽을 향한 위치를 말한다.

159) 성화(星火) : 28수(宿) 중의 심수(心宿)로, 대화(大火)라고도 하는데 하짓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9월 2일(계유)
 9월 3일(갑술) 날씨가 위와 같았다.
 9월 4일(을해) 갑자기 비가 내렸다.
 9월 5일(병자) 동갈곡(東葛谷)의 죽은 며느리를 11일에 대동(垔洞) 국내(局內) 청룡(靑龍)의 사격(砂格)¹⁶⁰ 유좌(酉坐)¹⁶¹의 언덕에 장사를 지내는데 오늘 개토(開土)한다.
 9월 6일(정축) 구름이 끼었다.
 9월 7일(무인) 맑았다.
 9월 8일(기묘)
 9월 9일(경진)
 9월 10일(신사) 따뜻했다. 밧자리 구덩이를 팠다.
 9월 11일(임오) 온화했다.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9시까지)에 하관(下棺)했다. 아관(阿觀)이 며칠 전 나갔다가 왔는데 오늘 또 다시 나갔다. 시가[市直]가 백미(白米) 2말반이다.
 9월 12일(계미)
 9월 13일(갑신)
 9월 14일(을유) 이상 날씨가 화청했다.
 9월 15일(병술) 동풍이 불고 저녁에 비가 내렸다. 이서방이 왔다.
 9월 16일(정해)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백미 3말, 조(租) 8,9말이다.
 9월 17일(무자) 약간 흐렸다. 이서방이 떠났다.
 9월 18일(기축) 저녁에 비가 흠뻑을 적셨다.
 9월 19일(경인) 따뜻했다.
 9월 20일(신묘) 화청했다. 아관이 처남(妻娚) 상인(喪人) 정만송(鄭萬松)과 함께 왔다.
 9월 21일(임진) 따뜻했다. □□이 눈병으로 우선 본가로 돌아가서 치료했다.
 9월 22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상인 정만송이 떠났다. 나는 구만(九萬)에 사는 충의위(忠義衛) 이덕배(李德培)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칠순 나이 짧은 수명 아니건만	七旬非短壽
나는 유독 공을 위해 슬퍼하네	吾獨爲公悲
시해 ¹⁶² 한 맑고 야윈 골격	尸解淸癯骨
텅 빈 꿈에 홀룡한 모습일세	夢空綽約姿
연못 말라 구름 그림자 깨지고	塘枯雲破影
마을 저물자 살구 가지 꺾였네	村暮杏摧枝
두 나무에 큰 과실 남아있어	碩果留雙樹
복을 심은 기반을 바라보네	惟看種福基

9월 23일(갑오) 해가 나오고 따뜻했다.
 9월 24일(을미) 아승(阿升)의 종남(從娚)인 봉전에 사는 황생(黃生)이 방문하고 유숙했는데,

160) 사격(砂格) : 혈의 전후좌우에 있는 모든 산과 바위를 말한다.
 161) 유좌(酉坐) : 유방(西方)을 등진 자리. 곧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한 자리이다.
 162) 시해(尸解) : 도가(道家)에서 쓰는 말로, 도통한 사람이 시신(屍身)은 남겨 두고 혼백(魂魄)은 올라가 신선이 되는 것을 말한다.

어두워 술에 취해 부축을 받고 왔다.

9월 25일(병신) 온화했다. 차덕로(車德輅)의 부친이 방문하고 유숙했다. 황생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26일(정유) 온화했다. 차덕로가 돌아갔다. 나는 남을 대신하여 와룡동(臥龍洞) 이성(李姓)의 향원(鄉員)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죽은 이 곡하는 건 통상적 이치건만	哭死惟常理
공을 위해 유독 통곡하는구려	爲公獨痛之
닭과 개소리 들리는 옆 마을에 살았건만	迹雖鷄狗托
정분이야 나르는 척령 ¹⁶³ 이었지요	情則鶴鶴飛
꿈속에 와룡동 언덕 저물녘에	夢裡龍岡暮
인간 세상에 학창의 ¹⁶⁴ 아니었지	人間鶴斃非
차마 눈바람 부는 저 너머	忍看風雪外
적막하게 닫힌 사립문을 보겠는가	寂莫掩柴扉

9월 27일(무술) 북풍이 불었다.

9월 28일(기해)

9월 29일(경자) 저녁에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려 축축했다. 간평색(看坪色)¹⁶⁵ 이중흥(李重興)이 우리 마을에 와서 집재(執災)¹⁶⁶하고 갔는데, 본관 사또가 상경(上京)할 적에 분부했기 때문이다.

10월

10월 1일(신축)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10월 2일(임인) 약간 흐렸다.

10월 3일(계묘) 따뜻했다. 상인(喪人) 박종수(朴宗秀)를 가서 조문하러 계동(契洞)에 이르러 돌아왔다. 아관이 또 처남 정만송과 함께 와서 장사지낼 날짜를 택일하였다. 조카 윤만첨이 문안인사 왔다.

10월 4일(갑진) 조카 윤만첨과 상인(喪人) 정만송이 돌아갔다.

10월 5일(을사) 따뜻했다.

10월 6일(병오) 따뜻했다. 백봉익(白鳳翼)의 장례식에 가서 조문했다. 만사는 다음과 같이 지었다.

163) 척령(鶴鶴) : 척령은 《시경》 〈소아(小雅) 상채(常棣)〉의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 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랴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랴오.[鶴鶴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시는 형제간의 우애(友愛)를 읊은 노래이다.

164) 학창의(鶴斃衣) : 흰옷에 단을 검은 형겂으로 넓게 꾸민 평상복을 말한다. 소매가 넓고 뒤가 트였다. 《진서(晉書)》 왕공전(王恭傳)에 “왕공이 언젠가 학창의를 입고 눈발을 거닐었는데 맹창(孟昶)이 이를 엿보고는 ‘참으로 신선 세계 속의 사람이다.[此眞神仙中人也]’고 찬탄했다.”라고 하였다.

165) 간평색(看坪色) : 간평색은 간평(看坪)하는 담당자이다. 간평이란 도조(賭租)를 매기기 위하여 추수하기 전에 실지로 가서 농작물의 풍흉을 살펴보는 일이다.

166) 집재(執災) : 재결(災結) 즉 재해를 입은 논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당당한 팔척 키의 흰칠한 모습	堂堂八尺好身容
좌중을 놀랜 바람소리 큰 종을 울리듯	驚座風聲扣鉦鐘
홀연 산 아래로 가는 명정을 전송하니	忽送丹旌山下去
마을사람들이 사방에서 울면서 만나네	鄉人到處泣相逢

그길로 유사 백준건(白俊建)의 장례식을 가서 보았다. 아관을 보냈다.

10월 7일(정미) 온화했다.

10월 8일(무신) 따듯하고 구름이 끼었다. 형제들이 매형 이어섭과 함께 박응준(朴鷹俊)의 계모(繼母) 장례식을 들렀다가 선달 윤빙삼(尹聘三) 부자와 함께 남관(南關)에 들어갔다. 성 아래에 도착할 즈음 빗방울 떨어지고 밤사이 흥건하게 내렸다. 서교(西橋)에 묵고 정선달을 조문했다.

10월 9일(기유) 쾌청했다. 개토(開土)한 후 해도(蟹島)에 가서 보니, 선택한 곳이 평범한 안목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파토(破土)하였다. 오후에 서풍이 세차게 불고 떠다니는 구름이 비를 내렸다. 오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배가 무척 위태로웠다. 바야흐로 ‘길이 있거든 배 타지 말라[有路莫乘船]¹⁶⁷⁾는 심정을 생각하며, 간신히 건너갔다. 국치(國峙)의 자좌(子坐)¹⁶⁸⁾ 산소를 조카 윤만첨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서교(西橋)에 묵었다.

10월 10일(경술) 형님과 매형 이어섭이 먼저 돌아갔다. 나는 서교에서 머물렀다. 온화했다.

10월 11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선달과 함께 나왔다. 본관사또 이인원(李仁源)이 본가에서 관아로 돌아왔다.

10월 12일(임자)

10월 13일(계축)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10월 14일(갑인) 청량했다. 마을 사람 이진성(李進成)이 내일 모친을 장사 치르려고 오늘 오후 발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메고 운구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보고 왔다.

10월 15일(을묘) 서북풍이 불고 추웠다.

10월 16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쌀 2말 6,7,8되, 조(租) 6말이다. 이성로(李聖輅)가 와서 공부했다.

10월 17일(정사) 구름이 끼고 추웠다.

10월 18일(무오) 청명했다.

10월 19일(기미) 온화했다. 길가의 논 8두락지를 타작해서 겨우 5섬 15말을 수확하였다. 작황이 이와 같으니, 그 근심 걱정이 잡힐 듯 주체할 수 없다.

10월 20일(경신) 새벽에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구름이 모였다.

10월 21일(신유) 약간 흐리고 밤에 북풍이 세차게 불었다. 시가[市直]는 쌀 2말 2·3되, 조(租) 6말이고, 정조(精租)는 혹 이보다 내려간다고 한다.

지난 정묘년(1747, 영조23) 겨울에 열읍(列邑)에서 두환세(斗還稅)와 호환세(戶還稅)가 있었는데 거의 시행될 지경에 이르렀었다. 본 고을의 향원(鄉員) 가운데 또 이 말을 하는 자가

167) 길이 있거든 배 타지 말라 : 이 시는 원래 당나라 이학(李膺)이 멀리 가는 아들을 전송하면서 지은 오언절구이다. 다음은 전체 시구이다. “다리에 임하거든 말에서 내리고 길이 있거든 배 타지 말라 저물지 않아서 숙소에 들고 닭소리 들려도 하늘을 다시 보라[臨橋須下馬 有路莫乘船 未暮先投宿 聞鷄更看天]”

168) 자좌(子坐) : 뒷자리가 남쪽을 바라보는 좌향(坐向)으로, 정남향을 말한다.

있어서 통문을 보내 제기하여 상하(上下) 여러 사람들이 객사 동쪽 뜰에 모두들 모였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모두 향원이나 관리, 그리고 중인 가운데 환곡을 많이 타 먹은 자들이었고, 그 일을 원치 않는 자들은 하민(下民)들이었다. 향원과 관리들, 중서인(中庶人) 중에도 원치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정세를 관망할 뿐이었다. 당시의 사또 심격(沈激)이 그 논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고 열읍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겨울에 또 이 논의가 일어나 통문을 보내 회의를 하였는데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문(營門)에 소장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사또 이후(李侯)가 분부하기를 ‘토호(土豪)와 활리배(猾吏輩)들이 먹은 곡식을 세력 없는 곤궁한 백성에게 억지로 분배하려고 하니 이 무슨 법레인가’라고 하면서 전부 물리치고 쫓아내자, 당초 논의를 일으켰던 자들이 두려워하며 물러갔다. 대개 두환세와 호환세 이야기는 원래 법에도 없는 일이니, 당치도 않은 이런 논의를 일으킨 자들은 망녕된 사람이라고 할만하다.

10월 22일(임술)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쌀, 닭, 과일 등의 물품을 서교(西橋)의 장례식에 부의로 보냈다.

10월 23일(계해) 약간 흐렸다.

10월 24일(갑자) 해가 나고 따뜻했다.

10월 25일(을축) 영이곡(永耳谷)의 삼종제(三從弟 팔촌 동생) 구세항(仇世恒)이 방문하고 유숙했다. 어제 계동(契洞)의 류손여(柳孫與)와 류손춘(柳孫春)이 돌아가기 때문에 봉전의 자식 부부가 술과 음식을 마련해 가서 보고 지금 돌아갔다.

10월 26일(병인) 북풍이 불고 청량했다. 삼종제 구세항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금년 농사는 큰 흉년이 들었다. 월치(月峙) 소재 전답 8두락지 내에 하변(下邊) 3두락지는 1섬 2말, 상변(上邊) 5두락지는 1섬 11말뿐이다. 사랑(蛇梁)에 머물러 거주하고 있는 한양 출신 변홍점(邊鴻漸)이 방문해서 시구(詩句)를 지었는데, 내가 화운(和韻)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추기(追記)하였다.

높은 명성 천둥처럼 귀에 가득 들었더니	飽聞聲價若雷灌
그대 이 날 오시리라 생각이나 했으리오	豈意文輅此日臨
명주가 바다에서 막 나온 것인가	疑是明珠初出海
학이 홀연 숲을 뚫고 나는 것이 아닌가	得非孤鶴乍穿林
여룡의 구슬 ¹⁶⁹ 천금 아끼지 않고	千金不惜驪龍寶
한 곡조 애오라지 백설곡 ¹⁷⁰ 에 화답하네	一曲聊和白雪吟
창해에 자취 의탁하니 뜻있음 아노니	托迹滄溟知有意
장대한 마음 큰 자라 낚시하는 임공 ¹⁷¹ 일세	壯心應是釣鰲任

169) 여룡(驪龍)의 구슬 : 여룡 즉 흑룡(黑龍)의 턱 밑에 있다는 진귀한 구슬을 말하는데, 그 용이 잠들어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구슬을 훔쳐 온 사람의 일화가 《장자》에 나온다. 《장자》 〈열어구(列禦寇)〉에 “천금의 가치가 나가는 구슬은 반드시 깊은 못 속에 숨어 사는 검은 용의 턱 밑에 있는 법이다.[夫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驪龍頷下]”라는 말이 나온다.

170) 백설곡 :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고아(高雅)한 가곡(歌曲) 이름으로,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자가 극히 드물었다는 내용이 송옥(宋玉)의 〈대초왕문(對楚王問)〉에 나온다.

171) 임공(任公) : 임공은 전설상의 인물인 임공자(任公子)의 준말이다. 임공자가 큰 낚시와 굵은 낚시줄을 만들어 50마리의 소를 미끼로 삼아 회계산(會稽山)에 걸터앉아서 동해(東海)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날마다 낚시질을 했는데, 1년이 되도록

또 절구시로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쓸쓸한 초가집 무릎 용납할 정도 ¹⁷²⁾	茅屋蕭條審容膝
숲 연무 사라지니 담장 앞에 마주하네	林烟更鎖面牆前
그 가운데에도 하늘 바라보는 곳 있으니	箇中猶有觀天處
눈과 구름 걷히니 달이 시냇가에 가득하네	雪霽雲消月滿川

10월 27일(정묘) 약간 흐렸는데 따듯했다.
10월 28일(무진) 맑고 따듯했다. 아관이 돌아왔다.
10월 29일(기사) 북풍이 불었다. 재회(齋會)이다.

11월

시가[市直]가 쌀 2말 3,4되 혹 5되이고, 조(租) 5말 혹 5말 반이고, 황(荒/租)의 경우 6말이다.

11월 1일(경오) 북풍이 불고 맑으면서 추웠다.
11월 2일(신미) 약간 흐렸다. 벗 김성열(金聲悅)이 술을 가지고 방문했다.
11월 3일(임신) 비가 내려 하천이 통해 흘렀다.
11월 4일(계유) 따듯하고 해가 나왔다. 아관이 돌아갔다.
11월 5일(갑술) 저물녘에 흐리다가 밤에 비가 내렸다.
11월 6일(을해) 새벽에 비바람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고, 하천 소리가 집에까지 들렸다. 아침이 되자 잠깐 해가 나왔다가 다시 흐려졌다.
11월 7일(병자) 북풍이 불고 극히 추웠다.
11월 8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이 왔다.
11월 9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이 떠나갔다.
11월 10일(기묘) 북풍이 불어 조금 추워지고 먹구름이 어지럽게 날렸다. 지난날 성상께서 술잔을 깨고 금주하며 태묘(太廟)에 고유(告由)하였다고 한다. 지금 금주령이 온 나라에 실행되고 있는데 진주(晉州)와 의령(宜寧) 등의 읍에서는 특히 심히 엄금했기 때문에 금법을 범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매우 많다고 한다. 유독 이 읍만은 아직 엄금하는 일이 없다. 노비 등을 보내 서면에 가게 했다.
11월 11일(경진) 조금 따듯해졌다. 아관이 가족을 데리고 문안 인사 왔다. 도유사 이후식(李堉植)이 방문했다가 곧 돌아갔다.
11월 12일(신사) 아침에 구름이 떠다니다가 갑자기 빗방울을 떨어졌는데 금방 사라지고 북풍이 소리 내며 불었다.
11월 13일(임오) 따웠다.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했다가, 이윽고 산더미같이 큰 고기를 낚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임공의 낚시질은 흔히 세속을 초월한 선비 또는 남아의 큰 기개와 원대한 포부를 비유하기도 한다.

172) 무릎 용납할 정도 :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남쪽 창가에 기대어 교오한 마음을 부치니, 무릎만 겨우 들여놓을 작은 집도 편안한 줄을 알겠네.[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라는 말에서 나왔다.

11월 14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이 왔다.
 11월 15일(갑신) 맑고 따뜻했다. 군포(君浦)의 이서방이 왔다.
 11월 16일(을유) 시가[市直]가 조(租) 5말이다.
 11월 17일(병술)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향교에 들어가 향교의 하기(下記; 출납내역 장부)를 조사 검토하면서 계속 읍저(邑底)에 머물렀다.
 11월 18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속 머물면서 향교의 하기를 점점 조사했다.
 11월 19일(무자) 추웠다. 저물녘 집으로 돌아왔다. 아관이 왔다.
 11월 20일(기축) 동지(冬至). 한 밤중에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어 춥더니 낮에도 매섭게 춥고 조각구름이 가끔 떠다녔다.
 11월 21일(경인) 추웠으나 바람은 불지 않았다. 아관이 돌아갔다. 시가[市直]가 쌀 2말 2,3되 혹은 반에 이르고, 조(租) 정미(正米)의 경우 5말보다 아랫니고, 추미(麴米)의 경우 혹은 5말을 넘었다.
 11월 22일(신묘) 따뜻했다.
 11월 23일(임진) 춥지 않았다.
 11월 24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임아(臨阿)가 지난 19일부터 향교에 들어가 향교의 하기(下記)를 조사 점검하면서 며칠을 계속 머물다가 오늘 저녁에 나왔다.
 11월 25일(갑오) 온화했다. 서면의 며느리가 돌아갔는데 아승이 가는 길을 보호했다. 임아가 또 향교에 들어가서 조사 검토했다. 이 때 성묘(聖廟) 중수를 위한 향축(香祝)이 내려와 객사에 봉안하고, 28일 이안(移安)하려고 한다.
 11월 26일(을미) 온화했다. 이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노비들이 가득하고 도둑질과 겁박 행위가 간간히 발생하여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아승(阿升)이 돌아왔다. 강익년(姜益年)이 와서 공부했다. 시가[市直]가 쌀 2말 혹은 1,2말이고, 조(租) 4말 반이다.
 11월 27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8일(정유) 추웠다. 근래 재중(齋中)에 먹고 자는 과객(過客)이 매우 많았다.
 11월 29일(무술) 날씨가 위와 같았다.
 11월 30일(기해) 동풍이 갑자기 불고 저물녘에 구름이 얇게 끼고 밤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12월

12월 1일(경자) 북풍이 구름을 감아 말았다. 시가[市直]가 이전과 같았다. 대구어(大口魚)를 혹은 한 마리, 한 속(束)을 발매(發賣)하는 자가 있었는데 1미(尾)의 가격이 전(錢) 1전(錢) 6,7푼(分), 혹은 2전(錢)이다. 청어(靑魚)는 원래 없었다.
 12월 2일(신축) 추위가 심했다.
 12월 3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4일(계묘) 매우 추웠다. 향교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면서 향교의 하기를 조사했다.
 12월 5일(갑진) 혹독하게 추웠다.
 12월 6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7일(병오) 바라보니 얼음이 포구를 막아 육지가 되었다. 향교의 하기(下記) 조사를 끝내고 저물녘 집으로 돌아갔다. 밤에 눈이 내렸다. (628p)
 12월 8일(정미) 눈이 어지럽게 날려 1치 남짓 정도 쌓였다. 저녁에 개었다.
 12월 9일(무신) 하늘이 맑았는데 북풍이 극히 추웠다.

12월 10일(기유)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나 여전히 몹시 추운 기운이 있었다.

12월 11일(경술) 추위가 심했다.

12월 12일(신해) 갑자기 따뜻했다. 임아(臨阿)가 전문(箋文)에 관한 일로 통영에 들어갔다. 저녁에 사친 사람 진후성(陳後成)이 매를 잃어버리고 와서 서재에서 묵었다. 내가 시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팔 위의 매를 구름 사이에서 잠깐 보았더니	俄看臂上忽雲間
어느 곳으로 날아갔는지 돌아오지 않구나	何處飄揚去不還
저물녘 차가운 교외에 부질없이 서있으니	日晚寒郊空佇立
남산에 있는 여우와 토끼 몹시 알미워라	偏憎狐兔在南山

또

순식간에 만 리를 날아가 버리고	萬里飛騰一瞬間
절뚝발이 토끼 쫓아 숲을 맴돌지 않네	不隨蹇兔繞林還
멀리 쓸쓸하게 아득한 구름 저 너머에	遙恰縹緲雲霄外
셋별 같은 눈동자 돌려 옛 산을 보리라	能轉星眸視故山

12월 13일(임자) 약간 흐리고 저녁이 되자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밤이 되자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12월 14일(계축) 아침에 보니 동풍이 갑자기 불더니 조각 눈이 오히려 내려 2치 정도 쌓였다.

12월 15일(갑인) 북풍이 불다가 그치고 저녁에 동풍이 불었다.

12월 16일(을묘) 추웠다. 임아(臨阿)가 어제 남관(南關)에서 돌아왔다.

12월 17일(병진) 추웠다. 영창감색(營倉監色)이 어제 봉고(封庫)하고 돌아왔다. 금년 받아냈던 환곡이 3분의 1에도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한다.

12월 18일(정사) 극히 춥고 밤에 잔설이 날아 떨어졌다.

12월 19일(무오) 하늘이 맑고 북풍이 불었으며 날씨는 극히 추웠다. 다음은 ‘눈[雪]을 먹는 아이에게 주다’라는 시이다.

눈 먹으니 달기가 사탕수수 같고	啖雪甘如啖蔗香
남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건 아니네	人言狂也自非狂
반드시 눈을 가져다 책상 아래 비추어 ¹⁷³⁾	必須取映書窓下
일찍 금문 ¹⁷⁴⁾ 에 장원 급제자 되어라	早作金門第一郎

산중 저물녘 내린 눈[山中暮雪]

새 없고 인적 드물어 긴 낮잠을 자니	鳥絕人稀午睡長
한 구역이 모두 와룡장에서 나왔구료 ¹⁷⁵⁾	一區盡出臥龍庄

173) 눈을 가져다 책상 아래 비추어 : 진(晉)나라 때 손강(孫康)이 젊었을 때 집이 몹시 가난하여 기름을 마련할 수가 없었으므로, 겨울밤에 눈[雪]의 빛으로 책을 비추어서 열심히 글을 읽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고향(苦學)하는 것을 비유한다.
 174) 금문(金門) : 한나라 궁문인 금마문(金馬門)의 약칭으로 보통 대궐이나 조정을 가리킨다.

산속 아이는 세월 저무는 줄 모르고
시내남쪽 버들개지가 마구 날린다고 하네

山童不識年光暮
報道溪南柳絮狂

거지 아이를 아파하며 지은 시[傷乞兒詩]

몸 가린 옷이 작아 맨살이 많이 보는데
어디로 비틀비틀 눈 속을 지나가느냐
멀리 생각하니 경루 차가운 밤 꿈에¹⁷⁶⁾
몇 번이나 일만 칸 집을 짓기를 생각하네

掩身尙少赤身多
何處扶携雪裡過
遙想瓊樓寒夜夢
幾回經始萬間家

이관이 문안 인사 왔다.

12월 20일(기미) 추웠다.

12월 21일(경신) 추웠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4말, 전(錢) 1관(貫) 5푼(分)이다.

12월 22일(신유) 조금 추웠다. 관아가 돌아갔다.

12월 23일(임술) 갑자기 따뜻해졌다.

12월 24일(계해) 온화했다. 감동(甘洞)에 가서 상인(喪人) 황치중(黃致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장의(掌議) 이하종(李夏宗)이 방문하고 유숙했다.

12월 25일(갑자) 춥지 않았다. 장의 이하종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2월 26일(을축) 약간 흐렸다. 모친이 이 때 나이가 91세로, 옛 사람들도 또한 월마다 날마다 준비하는 방도가 있었다. 친척들 모두 장례용품을 마련하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에 오늘 장인(匠人)을 불러 목재를 다듬고 손질하게 했다.

12월 27일(병인) 온화했다.

12월 28일(정묘)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관(棺)을 완성했다.

12월 29일(무진) 그믐. 북풍이 불고 추웠다. 2냥 5전(錢)의 돈으로 관재(棺材)를 샀는데 천지판(天地板) 관의 뚜껑과 밑바닥에 대는 널 2구(具)와 협판(挾板) 1구이다. 아관(阿觀)이 와서 문안하였다. 금년 농사는 대부분 흉작이다. 지금 시가는 정조(正租) 4말 값이 전(錢) 1관(貫) 5푼, 혹은 1전이며, 쌀 2말 값이 전 1냥 2전이다. 큰 소도 값이 7냥을 넘지 못한다. 목세(木細) 1필(匹) 값이 3냥 몇 전이고, 농포(農布) 굵은 삼베는 2냥 7·8전이다. 청어(靑魚) 1속(束)이 전(錢) 8푼이고, 대구어(大口魚) 1미(尾) 값은 2전인데 혹 2·3푼 내려가기도 한다. 온갖 곡식이 모두 여물지 않았는데 오직 메밀[木麥]만 조금 여물었다. 창고에 현재 있는 수량은 조(租)가 18섬, 태(太) 2섬, 메밀 1섬, 쌀 7항아리이고 두(豆)는 1섬이 채 되지 않는다.

금년 환자[還上]는 가을에 거두기 매우 어렵다. 영(營)의 보경창(補傾倉)에서 받은 환자가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였다. 본창(本倉)은 본관 수령이 다 받아내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받아 내지 못한 수량이 있다. 금번 수령은 별열(闕闕) 집안의 문관 출신으로 삼영(三營) 사이에 예의로 대했기 때문에 통영(統營)과 병영(兵營) 등에서 감히 상급 관청이라는 위세를 빌리지 못하여 백성들은 그 덕분에 편안하였다. 그러나 정치는 별다르게 특별히 거론할만한 점

175) 와룡장(臥龍庄) : 와룡(臥龍)은 촉한(蜀漢)의 재상인 제갈량(諸葛亮)의 호이다.

176) 경루 차가운 밤 꿈에 : 경루(瓊樓)는 경루옥우(瓊樓玉宇)의 준말로, 신화 속에 나오는 월궁(月宮) 속의 누각을 말한다. 소식(蘇軾)이 황주(黃州)로 귀양 가서 지은 〈병진중추작겸懷子由〉 가사(歌詞)에 “내가 바람 타고 돌아가고 싶나니, 경루옥우 높은 곳이 추위를 이기지 못할까 또 걱정일세.[我欲乘風歸去 又恐瓊樓玉宇 高處不勝寒]”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는 임금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이 없는데, 혹시 떠난 후에야 생각이 내려는지 알 수 없다.

금년 봄에 이하징(李夏徵), 윤지(尹志) 등의 모반 사건¹⁷⁷이 발각되어 연이어 목이 베이고 유배를 당했는데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농사까지 또 큰 흉년을 당하고 열질(染疾)이 크게 퍼져 사망자가 매우 많다. 5, 6월 사이에는 큰 홍수가 저서 강에 연해있는 열읍에서 떠내려가고 매몰된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시체와 집, 그리고 소나 말, 닭, 개가 강에 가득 떠내려 와 바다 어귀에 흩어져 있으며 어부의 그물에 걸린 수도 셀 수가 없다. 떠도는 거지가 마을 사람에게 구걸하니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다. 마을 거주민 중에 조금 넉넉한 자는 근근이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 그 다음 부류는 아침저녁으로 죽을 먹고, 그 다음은 간혹 굶주려서 툭 두드리는 소리가 집집마다 이어진다. 날씨조차 매우 추워서 도(道)에 굶주려 얼어 죽은 사람이 있으니 지금 세상의 액운이 참혹하다고 할만하다. 창고에 저장된 것은 소금이 3곡(斛), 매주[熏造] 22말, 팥[赤豆]이 1섬이 안 되고, 점조(粘租)가 1섬이다.

이호(李顥)의 자(字)는 사순(士淳)인데, 떠나면서 이별시와 아울러 서문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어진 주인(主人)인 구공(仇公 구상덕)은 풍류 있는 석사(碩士)이다. 일찍부터 시필(詩筆)을 익혔으나 운명이 기구하여 과거에 합격 못하고, 만년에 연하(烟霞 산수 자연)에 흥취가 있어 오래된 소나무와 시내 사이에 몇 칸 집을 짓고서 새가 날개 짓을 배우듯, 개미가 개미독을 쌓듯이¹⁷⁸ 쉽 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노년의 사업을 삼았다. 그의 맑은 지조와 뛰어난 행실은 도회지에서 줄줄 따라다니는 개나 앵앵거리는 파리같이 물욕(物慾)에 끌려 다니는 비굴한 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 없다. 나는 호해(湖海)를 전전하는 나그네로서 마침 이곳을 지나는데 특별한 배려를 입어 한 달여를 쉬면서 아침에는 꽃구경하고 저녁에는 달구경하며 마음을 터놓고 담소를 나누고 웃고 즐겨 이 나그네 생활에 위로가 되었다. 시를 짓고 술자리를 마련해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가슴 속 회포를 나누는데 일찍이 새로 맺은 교제가 이처럼 두텁고 특별할 줄 몰랐다. 맑은 가을날 산골 집에 별이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데 며칠 만에 다시 만나 두서없는 몇 줄 시를 지어 ‘훗날 오주(吳州)에서 달을 보거든’¹⁷⁹이라는 이백(李白)과 같은 심정을 대신한다.”

거류산 아래 흰 락풀 집

巨流山下白茅廬

177) 금년 봄에 이하징(李夏徵), 윤지(尹志) 등의 모반 사건 : 1755년(영조31) 3월에 윤지(尹志)와 이하징(李夏徵)이 주벌을 당하였다. 윤지는 윤취상(尹就商)의 아들이다. 을사년(1725, 영조1) 국옥(鞠獄) 때 윤취상은 고문을 받다가 죽고, 윤지는 나주(羅州)로 유배를 갔다. 윤지는 밤낮으로 나라를 원망하며 그 아들 윤광철(尹光哲)로 하여금 나주의 이임(吏任)·향임(鄉任)과 관계를 맺어 계(稷)를 만들도록 하고,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하여 객관(客館)에 글을 내걸어 인심을 흔들었다. 이에 감사 조운규(趙雲逵)가 조사하여 보고하자, 영조가 윤지 등을 국문하고 연류된 역적들을 차등있게 주벌하거나 유배 보냈다. 윤지의 상자 안에 이하징이 나주 목사로 있을 때 주고 받은 편지가 많았다. 마침내 이하징을 국문하였는데, 이하징은 신임(辛壬) 역적 이명익(李明諶)과 이명언(李明彦)의 조카로서 김일경(金一鏡) 등의 상소를 들어 ‘신하로서 절개가 있었다.’고 하였다. 조정에서 일체히 토벌하기를 청하여 처자식까지 주륙하도록 하였다.

178) 개미가 개미독을 쌓듯이 : 개미는 하찮은 벌레이지만 끊임없이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계속하여 마침내 큰 독을 만든다. 학문도 그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닦아야 성취가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예기》 〈학기(學記)〉에 “개미는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배워 익힌다.[蟻子時術之]”라고 하였다.

179) 훗날 오주(吳州)에서 달을 보거든 : 이백(李白)의 〈강동으로 가는 장사인을 전송하다[送張舍人之江東]〉에 “오주에서 만일 달 보거든 천리에 부디 이 몸 생각하오.[吳州如見月 千里幸相思]”라고 하였다. 《古文眞寶前集》

주인은 여유로이 한가롭네
자는 곳은 바위와 연무가 침석을 두르고
 읊조릴 때 술과 달이 옷깃에 가득하네
 시서 속으로 여러 가솔을 데리고 가고
 명리 좇는 마당은 생각이 멀어졌네
 이백이 형주자사¹⁸⁰를 일찍 뵈지 못했더니
 술동이 끌고 이별한 때 한이 어떠한가

蕭洒主人閑有餘
眠處岩烟籠枕席
詠時松月滿襟裾
詩書卷裡群家挈
名利場中一念疎
白也識荆猶未早
携樽臨別恨何如

180) 형주(荊州) : 장자(長者)의 덕을 갖추어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말이다. 형주의 장사(長史)로 있던 한조종(韓朝宗)에게 보낸 이백(李白)의 편지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 가운데에 “살아서 만호후(萬戶侯)에 봉해지는 것보다도, 한 형주를 한 번 만나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이 있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승총명록 5권>

월봉 처사공 강희 병술 12월 초8일 생
5권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구석찬(具碩贊) 보관

병자년(1756 영조32)

1월 대월(大月). 1일 기사. 5일 입춘 정월절(正月節). 20일 우수 월중(月中).
2월 대월(大月). 1일 기해. 5일 경칩 2월절. 20일 춘분 월중.
3월 소월. 1일 기사. 5일 청명 3월절. 21일 곡우 월중.
4월 대월. 1일 무술. 7일 입하 4월절. 23일 소만 월중.
5월 소월. 1일 무진. 8일 망종 5월절. 24일 하지 월중.
6월 대월. 1일 정유. 11일 소서 6월절. 26일 대서 월중.
7월 대월. 1일 정묘. 12일 입추 7월절. 28일 처서 월중.
8월 소월. 1일 정유. 13일 백로절. 29일 추분 월중.
9월 대월. 1일 병인. 15일 한로절.
윤9월 소월. 1일 병신. 15일 입동 10월절.
10월 소월. 1일 을축. 소설 월중. 15일 대설 11월절.
11월 대월. 1일 갑오. 동지 월중. 16일 소한 12월절.
12월 소월. 1일 갑자. 대한 월중. 15일 입춘 정월절.

정월 대월(大月)

1월 1일(기사) 어제부터 북풍이 불어 소리를 내어 날씨가 추웠다. 닭 울음이 혹 12, 3차례 들렸다고 한다. 술 제조를 엄하게 금지하여 새해 첫날 아침 취한 손님을 볼 수 없었다. 저녁에는 갑자기 날씨가 고르다가 밤기운이 또 온화하였다.

1월 2일(경오) 서풍이 구름을 몰고 왔는데 저녁에는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1월 3일(신미) 서풍이 불었다. 읍에 들어가서 향교(鄕校)에 대한 일을 묻고 돌아왔다. 이날 밤에 서북풍 소리가 우레와 같아 사람이 편안히 잘 수가 없었다.

1월 4일(임신) 하늘이 맑았는데 북풍이 차가웠다. 근래에 바람 부는 날씨가 심히 험악하니 상서롭지 못한 징조인 듯싶다. 작년 농사는 흉작이 특히 심하여 모든 곡식이 여물지 않아 민간에 굶주림과 고생이 그 끝이 없을 정도이다. 현재 시장에서 전(錢) 1전(錢)의 시가[市直]는 쌀 1되 6홉인데 쌀 색깔이 너무 거칠고, 정조(精租) 4말의 가격은 전(錢) 1냥 1전(錢)이다. 길에 이따금 도적들이 백주대낮에 겁박하고 도둑질하니 사람들이 감히 혼자서 다닐 수가 없다.

1월 5일(계유) 아침에 동풍이 불고 종일토록 흐렸다. 식후부터 북풍이 불고 저녁이 되자 동풍이 불었다. 이날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5시까지)가 입춘(立春)으로, 동풍이 좋게 불었다. 군포(君浦)에 사는 이서방이 와서 문안하였다.

1월 6일(갑술)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이 때 굶주려 죽는 사람이 서로 이어졌는데 시가[市直]가 쌀 1말 5되인데, 빛깔이 매우 거칠었다. 현 상황이 이와 같아 사람들이 모두 허둥지둥 하였다. 오늘 저저거리 사람들을 보니, 우선 채색(菜色)¹⁸¹⁾이 없으니 계축년 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구걸하고 떠돌아다니며 염치없는 것은 한결같이 계축년 봄과 같다. 밤에

181) 채색(菜色) : 굶주린 사람의 얼굴에 누르스름한 빛깔을 띤 것을 말한다.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승아(升阿)가 봉전(鳳田)에 갔다.

1월 7일(을해) 북풍이 불고 눈이 조금 내렸으나 밤에는 하늘이 맑았다. 이서방이 군포로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8일(병자) 동풍이 불고 하늘이 맑았다. 오늘날 전염병이 곳마다 창궐하여 사망자가 무수히 속출하였다.

1월 9일(정축) 온화하였다. 아관이 과세(過歲)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또 와서 문안하였는데 창의(擎衣)를 지어 왔다. 밤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1월 10일(무인) 해가 나고 온화했다. 갈산(葛山)의 류매형 댁에서 며느리를 맞이했다. 아승(阿升)이 봉전에서 돌아왔다.

1월 11일(기묘) 비가 내려 축축했다. 시가[市直]가 조(租) 3말 반, 쌀 1말 반이다. 그러나 시골 마을 사이에서는 더러 조(租) 4말에 이르렀다.

1월 12일(경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봉전에 사는 황생원(黃生員)이 방문했다.

1월 13일(신사) 손님이 떠났다. 아관(阿觀)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14일(임오) 의상암(義湘庵)¹⁸²에 올랐다.

1월 15일(계미) 새벽하늘이 맑았더니 아침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개었다. 산에 기도하고 내려왔다. 식후에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지고 동풍이 약하게 불었다가 저녁이 되자 비가 차츰 가늘어졌다. 밤에는 처마에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1월 16일(갑신) 아침에 들판 시내가 갑자기 소리 내어 흐르고 종일토록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시가[市直]는 예전과 같았다.

1월 17일(을유) 춥고 얼음이 얼었다.

1월 18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9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동(契洞)의 큰 매형이 13일에 방문했는데 오늘 돌아갔다.

1월 20일(무자) 약간 흐렸다. 근래 날씨가 매우 추워 좋지 못했으니 어찌 보리농사에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1월 21일(기축) 매우 추웠다.

1월 22일(경인) 북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어 날씨가 무척 추웠다. 염병에 걸렸는데 움막을 나온 자와 떠돌며 구걸하는 자들의 사망이 속출한다고 한다. 또 흉악한 호랑이가 횡행하여 사람과 가축을 살상했는데, 지난 19일에는 광이(光二)에서 칩 캐던 사람을 물었고, 어제는 또 생수동(生水洞)에서 칩 캐던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 한다. 또 함치(檻峙)에서 칩을 캐던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 또한 시대의 변고이다.

1월 23일(신묘) 눈이 어지럽게 날리다가 땅에 떨어지는 대로 녹았는데 밤까지 계속 내렸다.

1월 24일(임진) 약간 흐리고 추웠다. 밤에는 하늘이 맑았다.

1월 25일(계사)

1월 26일(갑오)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시가[市直]는 정조(正租) 3말이다.

1월 27일(을미) 흐리고 바람이 불었는데 찬비가 갑자기 뿌리면서 지나갔다.

1월 28일(병신)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1월 29일(정유)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1월 30일(무술) 북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문도(門徒) 김창제(金昌

182) 의상암 : 통영시 광도면 소재 벽방산 안정사의 암자.

濟)에게 지인(知印 통인(通引))의 역(役)이 부과되어 작별하고 돌아갔다.

2월 대월(大月). 현재 곳간에 조(租) 13섬, 쌀 7 응(瓮), 콩 1섬 10여 말¹⁸³이 있다.

2월 1일(기해) 북풍이 불며 청명하고 온화했다. 천일징(千一徵)도 지인(知印)의 역(役)을 지게 되어 작별 인사하고 돌아갔다. 온 군(郡)에 지금 굶주린 사람이 잇따라 이웃집의 밥 불이 꺼질 지경이고, 역병이 창궐하여 천지가 모조리 죽게 될 상황이니 이것이 무슨 시대의 상황인가. 오후에 서남풍이 불었다. 시가[市直]가 쌀 1말, 벼[租] 2말 몇 되 정도이다.

2월 2일(경자)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오늘은 계실(繼室 재취부인) 김씨의 기사일(忌祀日)이기에 입재(入齋)¹⁸³했는데 제사 의식을 갖출 수 없었다.

2월 3일(신축) 오후에 바람이 불어 눈이 어지럽게 날리다가 저녁이 되자 눈이 걷히고 바람이 차가웠다.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2월 4일(임인) 갑자기 추워졌다. 사또 이인원(李仁源)이 교리(校理)로 천직(遷職)되어 조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준비를 챙기고 있었다.

2월 5일(계묘) 햇벌이 나왔다. 손녀 아이가 작년 제 어미를 여윈 이후 지금까지 수척해지더니 오늘 요절하고 말았다. 불쌍하다.

2월 6일(갑진) 따뜻했다. 아관(阿觀)이 들어갔다. 시가[市直]가 정미(精米) 1말 1,2되, 콩 2말 2되이다.

2월 7일(을사) 동풍이 불고 찬비가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아 개울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2월 8일(병오) 축간(丑艮 북동쪽) 방향에서 찬바람이 불고 구름 사이로 햇벌이 나왔다. 저녁에 북풍이 세차게 불어 닥쳐 지붕의 띠풀을 말아버릴 듯한 기세로 밤새 멈추지 않았다. 얼음이 한겨울보다 두껍게 얼었다.

2월 9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들판 움막의 병자와 구덩이 속 걸식하는 아이들이 필시 많이들 얼어 죽었을 것이니 가슴이 무척 아프다.

2월 10일(무신) 갑자기 따뜻해졌다.

2월 11일(기유) 새벽에 처마에 빗물이 똑똑 떨어지다가 그쳤는데 얇은 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2월 12일(경술)

2월 13일(신해)

2월 14일(임자) 이상 날씨가 약간 추웠다.

2월 15일(계축) 북풍이 불고 구름이 떠다니다가 갑자기 서풍이 불고 몇 점 눈이 떨어졌다. 갈곡(葛谷)에 사는 아들이 서교(西橋)에 갔다.

2월 16일(갑인) 갑자기 추워졌다. 시가[市直]는 이전과 같았다.

2월 17일(을묘) 북풍이 불고 추위가 심해 길에 살짝 고인 물이 얼었다. 승아(升阿)가 전(錢) 20냥으로 배재도(裴在度)의 마근포(馬斤浦) 원(員)¹⁸⁴ 걸보리[皮牟] 밭 10두락지 및 논 3되[升] 땅을 매입하고, 또 3냥으로 정창백(丁昌百)의 은정(銀亭) 원(員) 걸보리 5말 밭을 매입하였다. 갈곡에 사는 아들이 돌아왔다.

2월 18일(병진) 무변(武弁) 출신 신임 사또 민원(閔源)을 맞이하기 위해 전임 사또 이인원이 관아를 나와 전제소(田制所)¹⁸⁵로 행차하였다.

183) 입재(入齋) : 제사 전날에 재계하는 것을 말한다.

184) 원(員) : 흔히 전답(田畓)이 소재하는 들판을 가리킨다.

2월 19일(정사) 따뜻했다.

2월 20일(무오) 온화했다. 읍에 들어가서 관아에 청원서를 올리고 돌아왔다. 청원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멀고 외진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위엄이 겁나고 두려워 익주(益州)의 수레¹⁸⁶를 거론하기 어렵지만 위수(渭水)의 노인처럼 부처님께 묵묵히 기도합니다. 구천(九天 임금님)이 요원하여 소리가 미치지 못하니,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치며 한숨 쉬고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님을 부르는 것은 성정(性情)에서 나온 것이고, 백성이 혹여 다치지나 앓을까 생각하는 것 또한 측은하고 애뜻하게 여기는 심정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금이나마 살피주십시오.

대저 우리들이 이런 큰 흉년을 만났는데도 오늘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어진 사또께서 젓먹이 어린아이를 보살펴주시는 듯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코앞에 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오직 구제할 손길만을 기다리는데, 사또께서는 가지밭 숲에 깃든 날개를 만회하지 못했건만 이미 바람을 뒤쫓는 준마의 말발굽을 펼치셨습니다.

아, 우리 고을의 백성은 휘몰아치는 바람과 세찬 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차일과 휘장이 홀연 견혀 양후(陽侯 수신(水神))의 과도에 배가 출렁이고 사공이 홀연 떠나니 살아낼 기운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런 하루살이 같은 종적이 까마귀나 솔개의 부리가 두렵지 않지만 막중한 국가의 조세를 앞으로 미납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관가(官家)에서 전후로 들인 노고와 수많은 조치 역시 모두 우리 백성을 위해 방비하는 대책인데 온갖 방도로 여기저기 시행했다가 하루아침에 버리니, 새 사또가 부임한 초기에 어느 거를에 사정(事情)을 살피고 기무(機務)를 처리하여 백성이 편안히 안정된 노래¹⁸⁷를 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들으니, 선(善)을 하는데 끝마치지 못하면 선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관가에서 이미 실시한 일을 어찌하여 사또를 맞이하고 보내는 즈음에 방기하여 세 번 생각할 줄 모르는 근심¹⁸⁸이 있게 하십니까. 다시 삼가 바라건대, 지금 조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목조목 구획하고 마디마디 분배하여 삼세(三稅)¹⁸⁹를 갖추어 납부할 수 있는 방도로 삼으시고, 나머지 형편에 따라 편히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새 사또와 인수인계하는 날에 하나하나 열어보이시어, 불모지에 사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임금님의 교화에 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분해주소서.

185) 전제소(田制所) : 전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건물인 듯하다.

186) 익주의 수레 : 북송(北宋) 초의 명신(名臣)인 장영(張詠)은 강직함을 자처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엄하고 사나움을 숭상하여 괴팍하고 모가 났다는 뜻의 '괴애'로 자신의 호를 삼았다고 한다. 그는 태종(太宗) 때 익주 지사(益州知事)로 나가 은위(恩威)를 병용하여 선정을 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다고 한다. 그 뒤 진종(眞宗)은 이러한 남다른 치적을 알고 그를 거듭 익주 지사로 임명했다. 《宋史 卷293 張詠傳》

187) 백성이 편안히 안정된 노래 : 원문의 '영일지가(寧壹之歌)'는 한(漢)나라 소하(蕭何)와 조참(曹參)과 관련된 고사이다. 상국(相國)인 소하가 죽자 조참이 그 직책을 계승하여 소하의 법도를 그대로 준행하다가 3년 뒤에 죽었는데, 백성들이 이를 찬양하여 "소하의 법도는 분명하기가 선을 그은 것 같았네. 조참이 그 뒤를 이어 이를 지켜서 잃지 않도록 하였네. 청정한 정사를 행한 그 덕분에,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네.[蕭何爲法 顛若畫一 曹參代之 守而勿失 載其清淨 民以寧一]"라고 노래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54 曹相國世家》

188) 세 번……근심 : 한 가지 일을 계획할 때 시작과 중간과 끝을 생각하여 시행해야 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간과하는 것을 말한다.

189) 삼세(三稅) : 조선시대 토지·호(戶)·인정(人丁)에 대한 세금을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전세(田稅)·대동법(大同法)·호포(戶布)를 가리킨다.

이날 더러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했으며 비도 몇 방울 떨어졌다.
 2월 21일(기미) 북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져 땅이 갑자기 진흙탕이 되었다.
 2월 22일(경신) 서풍이 불었다. 또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2월 23일(신유) 아침에 조카 구봉조(仇鳳朝)가 송아지를 잃어버려 구만(九萬) 장치(牆峙)¹⁹⁰까지 찾으러 갔다.
 2월 24일(임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사또 이인원이 교리로 부임되어 조정으로 올라갔다.
 2월 25일(계해)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이날 장차 어두워지려고 할 적에 동방에 마치 별이 떨어지는 형상이 있었는데 불빛이 화살과 같고 땅에 비추는 모양이 큰 동이와 같았는데 이어서 지진이 발생했다. 아관(阿觀)이 왔다.
 2월 26일(갑자) 온화했다. 아관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신임 사또 민원(閔源)이 부임하였다.
 2월 27일(을축)
 2월 28일(병인) 사내중 금쇠[今金]가 최상진(崔尙眞)을 아내로 삼았다.
 2월 29일(정묘) 비가 내려 축축했다.
 2월 30일(무진) 북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렸다. 강창언(姜昌彦)이 지나다가 유숙하였다.

3월

3월 1일(기사) 북풍이 불고 청량했다. 손님 강창언이 떠났다.
 3월 2일(경오) 북풍이 불어 추웠다.
 3월 3일(신미) 올벼와 중벼의 종자를 물에 담갔다.
 3월 4일(임신) 동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렸다. 나는 여제(厲祭 전염병이 들 때에 여귀에게 지내던 제사)에 아헌관으로 제단에 올랐다. 이날 밤에 흐렸다가 갠다가 일정하지 않고 더러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5일(계유) 구름이 모였다가 퍼졌다가 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산머리에 눈꽃이 날렸다.
 3월 6일(갑술) 높은 산봉우리에 눈이 하얗게 쌓였다.
 3월 7일(을해) 눈이 때때로 내리고 빗방울도 가끔씩 떨어졌다.
 3월 8일(병자) 흔들린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
 3월 9일(정축) 바람이 불고 화창하지 못했다.
 3월 10일(무인) 서풍이 나뭇가지를 울렸고 서쪽 하늘 멀리서 우레 소리가 들렸다.
 3월 11일(기묘) 군포(君浦)에 사는 이사형(李査兄)의 초상이 지난밤에 났다는 부고가 왔다.
 3월 12일(경진) 바람이 차가웠다.
 3월 13일(신사) 생원 문우일(文遇一)이 방문하고 유숙했다.
 3월 14일(임오) 읍에 갔다가 성남(城南)의 김창록(金昌祿) 집에서 유숙하였다.
 3월 15일(계미)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6일(갑신)
 3월 17일(을유) 날씨가 위와 같다.
 3월 18일(병술) 날씨가 위와 같다.
 3월 19일(정해) 오후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니 밤에도 빗방울이 떨어졌다.

190) 구만(九萬) 장치(牆峙) : 고성군 구만면과 개천면 사이에 있는 고개로 담티재, 담티고개라 한다. 임진왜란 때 구만출신인 최균, 최강 두 형제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의 진주 진출을 저지한 곳이 담티재다.

3월 20일(무자) 구름이 걷혔다. 호랑이가 남촌진(南村鎭)에서 죽은 시체를 먹었다.

3월 21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고 이슬비가 내렸다.

3월 22일(경인) 쾌청했다.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여 사망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성남(城南)에 가서 김태욱(金兌郁) 군을 문병하였다.

3월 23일(신묘) 김창록 부친의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아관(阿觀)이 어제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3월 24일(임진) 바람이 불고 화창하지 않았다. 또 성남에 가서 김태욱을 문병했는데 얼마 뒤에 사망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이날 저녁에 순상(巡相) 이익보(李益輔) 공이 사천에서 본현으로 순찰하려고 와서 유숙하였다. 나는 읍에서 묵었다.

3월 25일(계사) 어제와 같이 바람이 불고 화창하지 않았다. 순상 이익보가 통영으로 들어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재종 정창백(丁昌百)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3월 26일(갑오) 근래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벌씨가 바람에 의해 말려 둥굴다가 쌓이니 이앙이 고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3월 27일(을미) 순상 이익보가 통영에서 본현에 나와 유숙하였다.

3월 28일(병신) 동북풍의 기세가 지붕의 띠 풀을 말아버릴 듯하였다. 군포(君浦)에 사는 이서방의 병이 현재 위급하다고 하기에 승아(升阿)가 병의 경중을 살피기 위해 오늘 집을 떠났다.

올봄에 산불이 곳마다 잦았다. 통영의 원문(轅門 군문(軍門)) 내외의 송진(松田)에 거의 남은 푸르른 소나무가 없다고 한다. 이 때 통제사 이경철(李慶喆) 공이 군민(軍民)을 진휼하자 모두들 덕을 받았다고 여겼는데 소나무 숲 화재를 금지하기 어려우니, 이 역시 하늘이 내린 재앙인가?

3월 29일(정유) 어제부터 불던 바람이 밤새도록 불고 낮에도 그치지 않았다. 짙은 구름이 내달리듯 떠다니고 날씨가 매우 추우니, 길한 징조가 아닌 듯하다. 관찰사가 열읍(列邑)을 순찰할 적에 성 밑의 굶주린 백성을 불러 모아 등급을 구분해 진휼하였는데 각 면(面)의 굶주린 백성들 역시 일체 진휼을 뒤쫓았기 때문에 오늘 본관(本官)이 분급(分給)하였다. 승아가 이서방의 병에 차도가 있다고 돌아와서 알려 주었다.

4월

4월 1일(무술)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는데 밤에 비가 더욱 많이 내렸다.

4월 2일(기해)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새 내려 샘물이 조금 졸졸 흘렀다.

4월 3일(경자) 서풍이 불고 맑고 화창하였다.

4월 4일(신축)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4월 5일(임인) 맑고 따듯했다. 큰 매형이 별세하셨다.

4월 6일(계묘) 맑고 온화했다.

4월 7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올봄 전염병으로 본동(本洞)의 사망자가 이미 20명이 넘어 내가 10일에 산과 은정(銀亭)에 기도할 예정이다. 오늘 도산(道山)¹⁹¹의 동쪽에 우물을

191) 도산: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도산촌(道山村)으로, 마을의 유래(由來)는 임진왜란 시 창원구씨(昌原具氏) 사충(四忠:구응진(具應辰), 구응삼(具應參), 구응성(具應星), 구동(具棟))의 후손이 본향(本鄉) 송정(松亭)에 거주하다가 이곳에 정주하였다. 동명을 도산촌(道山村)이라 부르게 된 까닭은, 마을 북쪽은 명산 거류산이 병풍처럼 감싸 안고 남쪽은 벽방산(碧芳山)이 높이 솟아 해풍을 막아주고, 서쪽으로는 광활한 고성평야 들판이

왔다.

4월 8일(을사) 화창했다.

4월 9일(병오)

4월 10일(정미) 정창구(丁昌九)와 새벽에 불당동(佛堂洞)에 가서 산신령에게 기도하였다. 이때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다가 걷혔다.

4월 11일(무신) 새벽에 처마에 빗물이 똑똑 떨어지다가 저물녘에 비가 개었다.

4월 12일(기유)

4월 13일(경술)

4월 14일(신해)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4월 15일(임자) 어제와 같았다.

4월 16일(계축)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시가[市直]는 정미(精米) 1말 3되로 더 늘리고자 했다.

4월 17일(갑인)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재종 정창윤(丁昌允)이 상처(喪妻)하였다.

4월 18일(을묘) 비가 점점 약해지더니 오후에 맑게 개었다. 죽은 벗 김태욱(金兌郁) 군이 그의 아들 김창록(金昌祿)을 내게 부탁했는데 그 뜻이 간절하였다. 현재 전염병이 사방에 창궐하여 천지간을 일망타진하고 있는데 오직 안정사의 소월암(笑月庵)만은 조금 깨끗하고 정결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양식 등을 마련해 주고 일과(日課)를 약정하고 함께 갔다가 선옥대사(禪玉大師)에게 안부 인사를 남겨두고, 나도 소월암에 그대로 유숙하였다.

4월 19일(병진) 온화했다. 김창록에게 절구시 한수를 지어 남겨 주었다.

마음이짐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立心山不動
힘씀이 흐르는 물처럼 그치지 않네	着力水如斯
이별할 때 하고픈 말 그지 없건만	臨別無窮語
머물며 팔목상대 기약하리라	留期刮目時

4월 20일(정사) 화창하고 온화했다.

4월 21일(무오) 화창하고 온화했다. 호랑이가 들판 너머 빈소에서 갈산(葛山) 사람의 시신을 물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산중에서 찾았는데 머리 부분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근래 이러한 환란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진해(鎭海)가 더욱 심하였다. 포도도(葡萄島) 가운데 시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죽으면 즉시 매장한다고 한다. 이는 모두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4월 22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3일(경신)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4월 24일(신유) 온화하였다.

4월 25일(임술) 화창했다. 보리[大麥] 농사는 큰 피해가 없었다. 소월암에 올라가 보니, 전염병이 또 본 암자까지 발병하여 김창록을 가섭암으로 피접시켰다. 오후에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사내종의 처 최상진(崔尙眞)이 도망갔다.

4월 26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봉전(鳳田)의 황계익(黃繼翼)이 방문했다.

활짝 열려 일조시간이 길고 물이 마르지 않고 인심이 좋아 장수촌으로 불린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촌이라 부르다가 1997년에 다시 도산촌으로 개명하여 부르고 있다. 도산촌에는 창원정씨(昌原丁氏), 창원구씨(昌原具氏), 분성배씨(盆城裴氏) 3성(姓)이 도산촌에 입주하여 살았으며 《승충명록》을 쓴 구상덕의 본향이기도 하다.

4월 27일(갑자) 손님이 떠났다. 아관(阿觀)이 문안 왔다. 호적 초단(戶籍草單)을 면임(面任)에게 거두어 관에 올리도록 하였다. 봉림(鳳臨)의 이름을 봉정(鳳鼎)으로 개명하였다.

4월 28일(을축) 온화했다.

4월 29일(병인) 갑자기 안개가 끼었다가 아침이 되자 걷혔다. 아관이 돌아갔다.

4월 30일(정묘) 이슬비가 종일 보슬보슬 내렸다.

5월

5월 1일(무진) 서풍이 불었다. 시가[市直]가 차츰 올라 쌀[米] 1말 6,7되에 이르렀다.

5월 2일(기사) 서풍이 불고 청량했다. 밀과 보리가 애당초 잘 자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였다. 그런데 이삭이 꽤는 날에 이르러 차츰 자라나는 기쁨이 있고, 또 병충해의 재앙이 없어 굶주리고 가난한 농가에서 낫을 들고 도랑에 올라갔다. 어제 시장 시가는 백미(白米) 1말 6되, 추미(麴米)는 1말 7,8되, 콩 3말이기에 사람들이 모두 소생활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만일 혹독한 여질(癘疾)이 없다면 굶주려 죽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5월 3일(경오) 비로소 쌀보리를 수확하고 올벼와 중벼를 심었다.

5월 4일(신미) 동풍이 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5일(임신) 서풍이 불고 화창했다.

5월 6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정미(精米) 1말 4, 5되, 콩 3말 반이다.

5월 7일(갑술)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8일(을해)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새 내려서 들판의 물이 넉넉하게 찼다. 저물면서 구름이 걷히고 보리 바람¹⁹²⁾이 맑았다.

5월 9일(병자) 화창하였다. 김창록(金昌祿)을 만나러 보려고 가섭암(迦葉庵)에 올라가니, 초3일에 몸에 병이 있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놀란 마음을 견디지 못해 즉시 내려가 그 길로 성남에 도착해보니, 김창록이 한질(寒疾 감기)에 병이 악화됨을 알았다. 그대로 그 집에서 유숙하였다.

5월 10일(정축)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1일(무인)

5월 12일(기묘)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5월 13일(경진) 종대(從大)에게 경풍질(驚風疾 경련 발작하는 병)이 있다.

5월 14일(신사) 이슬비가 내렸다.

5월 15일(임오) 이슬비가 내렸는데 밤에는 달빛이 깜박거렸다.

5월 16일(계미)

5월 17일(갑신)

5월 18일(을유) 이슬비가 내렸다.

5월 19일(병술) 어둑한데 비가 그쳤다가 내리곤 하였다.

5월 20일(정해) 이슬비가 내리는데 때때로 비가 뿌리고 지나갔다. 아이 정창덕(丁昌德)이 요절하니 가련하고 가련하다.

5월 21일(무자)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이앙을 마쳤는데, 올 여름 이종(移種)에 빗물이 딱 알맞게 내리니 길조(吉兆)인 듯하다.

5월 22일(기축)

192) 보리 바람 : 맥풍(麥風)으로, 보리 익는 계절 즉 맥추(麥秋)에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맥신(麥信)이라고도 한다. 음력 5월의 바람 기운을 말한다.

5월 23일(경인) 이상 날이 더러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나왔다가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5월 24일(신묘) 종일 바람 불고 비가 내렸다.

5월 25일(임진) 짙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날 저녁 군포(君浦)에서 심부름꾼이 와서 딸아이가 죽었다는 부고를 알려왔다. 딸아이가 병을 앓은 지 8일만인 오늘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때 나이가 28세로, 기유년 생이다. 딸 둘을 낳았는데 큰애는 나이가 4살이고 작은 애는 올해 1월에 태어났다. 병이 들었을 때에는 병문안을 못했고 죽어서는 시신을 부여잡고 곡하지도 못했다. 아아! 인간사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통곡을 하고자 해도 어미의 마음을 놀라게 할까 걱정되어 단지 눈물을 머금고 애간장만 끊을 뿐이다.

5월 26일(계사) 새벽에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어제 회유(回諭)하신 임금님의 하교를 보았더니 굶주리고 병든 민생의 실정을 특별히 걱정하고 애뜻해하여, 수령에게 진휼하여 구제하는 방도를 간곡히 다하라 하였으니, 받들어 두세 번 읽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시골에 묻혀 사는 못난 나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군주의 녹을 먹는 자가 감격하여 받들어 시행할 생각이 없겠는가. 임금님의 덕(德)이 이에 이르렀는데도 천심(天心)이 감응하지 않아 벌써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고 또 전염병을 추가하니 죽은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 재앙은 무엇 때문인가. 아니면 인심이 착하지 않아 참람(僭濫)과 사치를 숭상하고 곡식과 포백을 하찮게 여긴 소치인가? 신하가 탐학을 일삼고 백성의 재물을 침해한 소치인가? 아, 슬프구나. 지금 사나운 호랑이가 도처에서 초빈(草殞)해 둔 시신을 뜯어먹고 혹은 대낮에 돌아다니니 괴이하다.

5월 27일(갑오) 하늘이 맑았다. 종대(從大)의 외할아버지 강노인(姜老人)이 유행병[時疫]으로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는 부고가 도착했다. 정아(鼎阿)가 서면(西面)에 갔다.

5월 28일(을미) 저녁에 이슬비가 내렸다. 정아(鼎阿)와 아관(阿觀)이 함께 왔다.

5월 29일(병신) 습한 구름이 걷히지 않고 오전에 이슬비가 그치다가 내리곤 하였다.

6월

6월 1일(정유) 서남풍이 불고 아침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으며 때때로 동풍이 불었다. 저녁이 되자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6월 2일(무술) 저물녘에 날씨가 개었다. 매형 이여섭, 김창록과 함께 가섭암에 올라가 유숙하였다.

6월 3일(기해) 맑고 더웠다. 김창록을 소월암(笑月庵)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6월 4일(경자) 향교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6월 5일(신축) 구름이 떠다녔다.

6월 6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阿觀)이 서면으로 돌아갔다.

6월 7일(계묘) 별장 이성원(李聖源)이 방문하였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6월 8일(갑진) 더웠다.

6월 9일(을사) 가끔 햇벌이 나오고 찌는 듯하였다.

6월 10일(병오)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서늘하다가 밤이 깊어 비가 내렸다.

6월 11일(정미)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6월 12일(무신) 이슬비가 내렸다.

6월 13일(기유) 맑고 온화했다. 송정(松亭)¹⁹³에 사는 생질 며느리 강씨가 유행병으로 세상

193) 송정: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정(松亭)마을. 송정마을은 도산촌, 구현마을과 더불어 송산리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을 떠났다.

6월 14일(경술) 맑고 더웠다.

6월 15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 때 여질(癘疾)이 더욱 창궐하였다.

6월 16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웃집 노인장 정확(丁確)이 이때 나이 79세인데, 유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6월 17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본관 사또는 상(上) 근무평가로 “잘 다스림을 받든 이후에 일에 잘못이 없다.[承善治後, 事無闕失]”라고 하였다.

6월 18일(갑인) 흐렸다가 개었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6월 19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0일(병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여 보슬비를 내리더니 곧바로 사라졌다.

6월 21일(정사) 농가에서 비가 내리길 간절히 기다렸다.

6월 22일(무오) 어제와 날씨가 같았다.

6월 23일(기미) 북쪽 하늘에 우레가 쳤다. 들으니 상도(上道 경북 북부 지방)에 가뭄이 심하여 이양하지 못한 자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지금 순영(巡營)에서 관문(關文)을 보냈기 때문에 용수암(龍水岩)에서 기우제를 설행하였다.

6월 24일(경신) 김창록이 소암(蕭庵)에서 왔다가 읍으로 들어갔다.

6월 25일(신유) 더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벽방산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관(官)에서 직접 행하지 않고 별감(別監) 정장(鄭璋)에게 대신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6월 26일(임술) 뜰구름에서 몇몇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6월 27일(계해) 가뭄이 더욱 혹독해져 사방 들판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6월 28일(갑자) 아관(阿觀)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이날 우리 마을의 기우제를 거류산에서 지냈다. 내가 축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삼가 산신령이시여	伏以惟山
고성현 동쪽 신령 대산으로	縣東神岳
일 생겨 기도하면	有事則禱
감응 어긋나지 않았네	冥應不忒
어찌 하나같이 근년에	一何年來
영험한 은혜 받지 못했네	未蒙靈惠
큰 기근 거듭 이어졌고	既荐大飢
더구나 독한 전염병까지 발생해	仍兼毒癘
남은 종자 다할 지경이고	遺隸將盡
한밭이 또 혹독하여	旱魃又虐
모든 곡식이 말라 죽고	百穀焦枯
민심이 참혹하네	輿情慘酷
노인 모시고 아이 데리고	提挈老幼
농토에서 울부짖으며 우는구나	呼泣田畝
오직 산을 멀리서 바라보며	惟山瞻望
산신령께 분주히 가시네	于神奔走

있으며 지금부터 약 300여년 전에 경주이씨(慶州李氏), 탐진최씨(耽津崔氏)가 맨 먼저 입촌하여 살았고 그후 양천허씨(陽川許氏)가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산신령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神若不矜
백성이 어디에서 먹고 살리오	民何從祿
헤아리지 못함이 죄가 되니	不量爲罪
복 받기를 기원합니다	只祈獲福
우물로 들어감 ¹⁹⁴ 을 어찌 알며	入井何知
웅덩이에서 죽을 상황이로다 ¹⁹⁵	處澗可滅
닫혔지만 열어주시고	既闔而攄
죽을 지경이니 살려주소서	將殺而活
울부짖는 아우성 굽어 들으시어	俯聽嗷嗷
하늘에 우리리 하소연하네	仰達高高
침거하는 물고기를 채찍질하여	鞭策螫鱗
영령한 방략을 운용하소서	轉運靈韜

6월 29일(을축) 어제와 같이 폭염이었다. 관가(官家)에서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냈다.
 6월 30일(병인) 서남풍이 불고 뜬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했는데 날씨는 매우 더웠다.
 본리(本里)에서 읍에 이르기까지 10리 사이에 물이 있는 논은 겨우 한 두 구역일 뿐이기에
 민심이 흉흉하였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이날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7월 1일(정묘) 인간방(寅良方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짙은 구름이 피워 올라왔다가 줄어
 들다가 했는데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졌다. 오늘은 바로 조고(祖考)의 제삿날인데 조카 봉조
 (鳳朝)가 어제부터 병이 나서 누워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못해 슬픈 마음을 견딜 수 없
 었다.

7월 2일(무진) 거류산(巨流山)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별감(別監)이 대행하였다고 한다. 식후
 에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걷히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다.

7월 3일(기사) 어제부터 객사(客舍) 문밖에 불화(佛畫)를 걸어놓았다.

7월 4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이 가물었다.

7월 5일(신미) 동풍이 불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7월 6일(임신)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새 내려 들판에 물이 어지럽게 흘렀다.

7월 7일(계유) 쾌청했다. 산 암자에 올라가 김창록(金昌祿)을 만나고 왔다.

7월 8일(갑술) 더웠다.

7월 9일(을해) 어제와 날씨가 같았다.

7월 10일(병자) 비가 주룩주룩 내려 물이 불어났다.

7월 11일(정축)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가끔 햇벌이 나기도 하였다. 시가[市直]가 쌀 2말,
 보리[牟] 6말 반이다. 오늘날 술 제조를 매우 엄금(嚴禁)했는데 백성들은 고량(高粱)을 많이
 심었다.¹⁹⁶ 또 시장에서 보리떡, 메밀국수를 금지하여 오늘날 시장에는 보리를 가지고 돈을

194) 우물로 들어감: 어린 아기가 장차 양금양금 기어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은 아기의 죄가 아니다.[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
 罪也]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불쌍히 여기고 애석하게 여기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다. 《孟子 公孫丑上》

195) 웅덩이에서 죽을 상황이로다: 장자(莊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생긴 조그만 웅덩이의 물속에
 서 물고기가 살려 달라고 하자, 장자가 지금은 바쁘니 오월(吳越)의 왕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강(西江)의 물을 끌어다
 대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때에는 이미 나는 건어물 상점의 진열대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莊子 外物》

바꾼 자가 있으면 관차(官差)가 그 보리를 적발한다고 한다. 민가에서 누룩을 보유한 사람이 있으면 면임(面任)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7월 12일(무인) 가끔 비가 뿌렸다.

7월 13일(기묘) 비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내렸다. 별장(別將) 이성원(李聖源)이 와서 유숙하였다.

7월 14일(경진) 찌는 듯이 더웠다. 손님이 떠났다. 여제(癘祭)의 헌관(獻官) 차정첩(差定帖)이 어제 도착했는데 병으로 가지 못했기에 정아(鼎阿)에게 대신 가게 하였다.

7월 15일(신사) 서풍이 불고 맑고 더웠다.

7월 16일(임오) 정아(鼎阿)가 서면(西面)에 갔다.

7월 17일(계미) 비가 흠을 적셨다.

7월 18일(갑신)

7월 19일(을유)

7월 20일(병술) 이상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 정도 나뉘었다.

7월 21일(정해) 시가[市直]가 쌀 2말 2되, 햅쌀 1말 6되이다.

7월 22일(무자) 밤에 비가 갑작스레 소리를 내고 내렸다.

7월 23일(기축) 때때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24일(경인)

7월 25일(신묘) 가끔 햇별이 나오고 더러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6일(임진) 더웠다.

7월 27일(계사) 비로소 올벼를 수확했다.

7월 28일(갑오) 동풍이 불고 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7월 29일(을미) 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7월 30일(병신) 북풍이 불더니 저물녘에 개었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편찮기 때문에 나는 석전제에 참석하지 못했다.

8월

8월 1일(정유) 맑고 더웠다. 이 날 석채례(釋菜禮)¹⁹⁷를 지내고서 동춘당 송준길과 문정공(文正公) 증시(贈諡)를 받는 우암 송시열을 문묘에 함께 배향하였다.

8월 2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3일(기해) 아관(阿觀)이 문안하려고 왔다.

8월 4일(경자) 어머니 환후가 차츰 차도가 있더니 밤에는 다시 편찮으셨다. 이날 비바람이 불고 밤에 또 비가 내렸다.

8월 5일(신축) 아침에 개었다. 저물녘에 흐리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

8월 6일(임인) 아관이 돌아갔다.

8월 7일(계묘) 더웠다.

8월 8일(갑진) 극히 더웠다. 아관(阿觀)이 문안하려고 왔다. 이 날 밤에 어머니께서 한열(寒熱 오한과 발열) 증세가 있었다.

196) 고량(高粱)을 많이 심었다: 원문의 '종출(種秫)'은 고량(高粱) 씨를 뿌려 가꾼다는 말로, 술을 담가 먹는 것을 뜻한다.
197) 석채례(釋菜禮):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서울은 성균관, 지방은 향교(鄕校)에서 선성(先聖)·선사(先師)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옛날에 학자(學者)가 학교에 들어가서 마름풀 등을 가지고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8월 9일(을사) 새벽에 또 어머님이 또 한열(寒熱) 증세가 일어나 큰아이를 의원에게 보내어 가미시호탕(加味柴胡湯) 5첩을 조제해서 왔다.

8월 10일(병오) 어머님이 아침에 1첩을 복용하고 오후에 또 1첩을 복용하여 환후가 어제 비해서 병세에 조금 차도가 있었다. 오후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8월 11일(정미)

8월 12일(무신)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8월 13일(기유) 찌는 듯이 더웠다. 어머니의 환후가 매우 위중하였다.

8월 14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머님은 올 여름 사이에 체력이 예전에 비해 차츰 쇠약해졌는데 지난달 27일 위독한 상태까지 겪고서 날로 더욱 병환이 지속되니 약을 복용해도 효험이 없다. 지금은 미음(米飮)마저도 전혀 드시지 않아 자녀와 여러 손자들이 감히 걸을 떠나지 않았다.

8월 15일(신해) 밤에 비가 내렸다. 어머님의 환후에 차도가 없었다.

8월 16일(임자) 아침에 비가 오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8월 17일(계축) 보슬비가 내렸다.

8월 18일(갑인) 어머님 환후가 매우 위중했다.

8월 19일(을묘) 어머님 환후가 극히 위태로웠다.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20일(병진) 아침에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8월 21일(정사)

8월 22일(무오)

8월 23일(기미) 밤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이날 밤중에 어머님의 환후가 극히 위중하다가 해시(亥時) 밤 9시부터 11시까지) 말(末)에 세상을 떠나셨다.

8월 24일(경신) 아침에 비가 오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빈소를 차리고 염을 하였다. 조카 유상순과 조카 윤만첨(尹萬瞻)과 한득량(韓得良) 집에서 죽으로 치전(致奠)하였다.

8월 25일(신유) 온화했다. 오후에 입관(入棺)하였다. 관의 길이는 《상례비요》에서 규정한 포백척(布帛尺)으로 헤아리면 量 3자 6치 3푼이고, 칠성판 길이 3자 2치이고 넓이는 7치 5푼이다. 널[柩]을 받들고 빈소(殯所)를 차린 초당(草堂)에서 나왔다. 이날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6일(임술) 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식후에 성복(成服)하였다. 아관(阿觀)이 윤조카와 함께 들어갔다. 도유사 이호징(李虎徵)이 와서 위문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김창록이 와서 위문하였다. 밤에 비가 그치지 않았다.

8월 27일(계해) 새벽에 비바람이 크게 불다가 아침이 되자 그쳤다.

8월 28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저녁이 되자 걷혔다.

8월 29일(을축) 햇볕이 나오고 따듯했다.

9월

9월 1일(병인) 동풍이 불고 찬비가 내렸다. 술 제조 금지가 엄격하여 태묘에서도 역시 예주(醴酒)를 사용하였는데 신민(臣民)의 경우 은밀하게 술을 사용한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가 되기 때문에 성복(成服)을 하고 제전을 올릴 때 예주를 올리고 이번 초하루 제전(祭奠)에는 그대로 현주(玄酒)¹⁹⁸⁾를 사용하였다.

9월 2일(정묘) 찬 빗물이 흥건하게 내렸다.

198) 현주(玄酒) : 보통 제사 때 올리는 청수(淸水)를 가리킨다.

9월 3일(무진) 밤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나무가 꺾이고 집이 뿔뿔 지경이었다. 올 가을에 사나운 바람과 굵은비가 어찌하여 한결같이 이처럼 많은가.

9월 4일(기사) 송정(松亭)의 선영에 성묘를 갔다.

9월 5일(경오) 황리(黃里)¹⁹⁹의 황신영(黃信永) 집에 가서 황해도의 지사승(地師僧 지관 노릇을 하는 중) 현하(懸河)를 만나고 돌아왔다. 아관이 처남 정상인(鄭喪人)과 함께 왔다.

9월 6일(신미) 갈산(葛山)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서 방문하려고 오는 상주(喪主) 허유(許柔)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파하였다. 저녁에 이르러 집에 돌아오니 출타 중에 최상주(崔喪主)가 조문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떠나갔다. 시가[市直]가 쌀 3말 반, 조(租) 9말 혹은 10말이다.

9월 7일(임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 갔다. 최상주(崔喪主)가 안정사에서 돌아가는 길에 또 조문하러 왔다가 오후에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8일(계유)

9월 9일(갑술) 비가 내렸다.

9월 10일(을해) 구름이 끼었다.

9월 11일(병자)

9월 12일(정축)

9월 13일(무인) 성남(城南)에서 지사승 현하를 만나고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9월 14일(기묘) 온화했다. 현하(懸河)와 함께 구음곡(九音谷)에 갔다가 점심 뒤에 형제와 지사(地師)와 함께 송정(松亭) 선영에 가서 건좌손향(乾坐巽向)²⁰⁰ 갑득정파(甲得丁破)²⁰¹의 언덕을 정하고서 저녁에 돌아왔다.

9월 15일(경진) 동북풍이 불고 따듯하고 햇볕이 나왔다. 지사승 현하를 전송하였는데 송정에 이르러 돌아왔다. 정아(鼎阿)가 갈곡에 갔다.

9월 16일(신사) 구름이 끼었다.

9월 17일(임오) 장대(長大)의 강생원(姜生員) 장지(葬地)에 다녀왔다.

9월 18일(계미) 내일은 바로 큰 자형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가서 곡하고 돌아왔다. 차인로(車仁輅)가 와서 문후하였다.

9월 19일(갑신) 차인로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20일(을유) 군포(君浦)에 사는 이서방이 방문했다.

9월 21일(병술) 탄치(炭峙)의 산에 가서 손좌(巽坐)의 언덕을 정하고 성동(城東)에서 묵었다. 이서방이 통영을 향해 갔다.

9월 22일(정해) 또 판운(板云)²⁰²의 산을 보고 성동(城東)에서 숙박하였다.

9월 23일(무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4일(기축) 빗방울이 떨어졌다.

199) 황리: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마을. 당시에는 고성이었다. 지금은 안정공단과 성동조선이 들어섰다.

200) 건좌손향(乾坐巽向) : 북서쪽을 등지고 남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201) 갑득정파(甲得丁破) : 물의 흐름이 갑방(甲方) 즉 동북방에서 흘러와서 정방(丁方)은 정남에서 서쪽으로 15도 정도 되는 방향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202) 판운: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로 판곡리(板谷里)는 상서면(上西面) 지역으로써 1914년 3월 1일자로 상남면과 상서면이 병합되어 삼산면으로 개칭되었고 판곡리란 동명도 판운지의 판(板)자와 운곡의 곡(谷)자를 따서 판곡리로 되었다. 지세가 하늘에 구름이 넓게 펼쳐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너른지"라 지금도 부르고 있다. 판곡마을은 "윗땀", "아래땀", "갈망개(渴馬浦)", "마리개(馬里浦)", "노리목(鹿項)"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진 법정리로 지금은 순흥안씨(順興安氏), 청주한씨(淸州韓氏), 김해김씨(金海金氏)등 10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9월 25일(경인) 따뜻했다.

9월 26일(신묘) 아침에 빗물이 흙먼지를 적셨다. 시가[市直]가 백미 5말, 조(租) 11,2말, 보리 8,9말이다.

9월 27일(임진)

9월 28일(계사)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9월 29일(갑오) 빗물이 흥건하게 내렸다. 배어 놓은 벼가 물에 잠겨 장차 싹이 나오려고 하니 그 손해가 매우 심하였다. 나는 근래 복통이 더욱 심해져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니 근심스러움이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9월 30일(을미) 비가 갑자기 갠으나 구름은 흩어지지 않았다. 이날 마을 사람 배악(裴岳)의 할머니와 부친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팡이를 짚고 가서 조문하고 아울러 이진태(李進泰)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날 밤에 비바람이 또 불었다.

윤9월

윤9월 1일(병신) 동북풍이 불고 찬비가 그치지 않았다. 새벽에 배악(裴岳)이 비를 맞으며 발인하는 소리가 들리니 가련하고 가련하다. 온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재종 정창윤(丁昌允)이 내일 아내의 장지(葬地)를 만들려고 하는데 빗줄기가 이와 같기 때문에 빈소를 걷어내지 못했다.

윤9월 2일(정유) 비가 계속 그치지 않았다. 재종 정창윤이 아내의 빈소를 걷어내고 비를 맞으며 상례를 행하는데 상여(喪輿)를 갖추지 못하고 떠나니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병으로 호상(護喪)하지 못하여 자식들과 사내종을 다 보내어 가서 산역(山役)을 돕게 하였다.

윤9월 3일(무술) 온화하였다.

윤9월 4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9월 5일(경자)

윤9월 6일(신축) 따뜻했다.

윤9월 7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마암(馬岩) 모지산(茅旨山)에 있는 강수룡(姜守龍)의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윤9월 8일(계묘) 짙은 구름이 산을 가리니 태양이 빛을 잃었다.

윤9월 9일(갑진) 온화했다.

윤9월 10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9월 11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오시(午時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 송정 산소 건좌(乾坐)²⁰³의 언덕에 무덤을 파고[開土], 아울러 선조의 무덤에 다음과 같이 고유(告由)하였다.

저승과 이승 사이가 없어	幽明無間
정의를 서로 감응하네	情義相感
삼가 존귀하신 영령이여	伏惟尊靈
부디 더욱 도와주시어	更加冥佑
훗날 어려움이 없게 하여	俾無後艱

203) 건좌(乾坐) : 서북쪽을 등지고 동남쪽으로 향한 자리이다.

온갖 길함 길이 드리워 주소서 永垂萬吉
 봉정이 술을 따르고 鳳鼎獻酌
 봉태가 축문을 읽습니다 鳳泰讀祝

윤9월 12일(정미) 따듯했다.

윤9월 13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윤9월 14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9월 15일(경술) 북풍이 차갑고 비가 가벼운 흙먼지를 적셨다. 읍에 갔다가 성남(城南)에서 묵었다.

윤9월 16일(신해)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윤9월 17일(임자) 바람이 차가웠다. 자해석(自解石)²⁰⁴ 60여 섬을 가져다가 산소 아래에 쌓아두었다.

윤9월 18일(계축)

윤9월 19일(갑인) 이상 온화하였다.

윤9월 20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동네 사람들 중 등에 흙을 지고 산역(山役)하는 일꾼의 식사에 사용된 쌀 6말을 형님 댁에서 부담하였다. 밤에 비가 흙먼지를 적셨다.

윤9월 21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阿觀) 부부가 어제 함께 왔다.

윤9월 22일(정사) 사형(査兄) 황생원이 조문 왔다.

윤9월 23일(무오)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고 햇벌이 나오기도 했으나 날씨는 매우 따듯했다. 밤에 구름이 갑자기 하늘을 가렸다가 열렸다가 하며 비 내릴 기색이 다분하더니 밤이 깊어진 후에야 하늘이 맑아졌다.

윤9월 24일(기미) 새벽하늘이 청명하고 날씨가 온화했다. 닭이 세 차례 울자 발인하여 산에 도착해 시각을 기다려 하관하였다.

갑묘방(甲卯方)에서 뺏어온 산줄기[行龍]²⁰⁵가 임감방(壬坎方)에서 일절(一節)하고, 건방(乾方)에서 입수(入首)²⁰⁶한다. 혈(穴)의 좌향(坐向)은 건좌손향(乾坐巽向) 해(亥) 삼분(三分)[정운(正運)²⁰⁷ 홍운(洪運)²⁰⁸] 기축화(己丑火)이니 운(運)이 녹궁(祿宮)²⁰⁹에 닿았다. 병자(丙子) 기해(己亥) 기미(己未) 정미(丁卯)이다.²¹⁰ 오후에 산역(山役)이 다 끝나고, 두 분의 조상 무덤에 고유(告由)하였다. 고유문은 다음과 같다.

204) 자해석(自解石) : 산 속에 있던 돌이 산이 무너지면서 드러나 햇벌에 쏘이고 비에 젖으면 흰가루처럼 풀리는 것이다.

석회 대신에 무덤에 사용했다.

205) 산줄기 : 원문의 '행룡(行龍)'은 풍수지리에서 높고 낮은 산이 멀리 뺏어 나간 산줄기를 말한다.

206) 입수(入首) : 혈(穴) 뒤 4, 5십 척 되는 지점에서 혈까지 이르는 용맥, 즉 혈 바로 뒤의 용맥이 입수이다. 과일에 비유하면 꼭지 부분에 해당한다.

207) 정운(正運) : 월건법(月建法)으로 장사 지내는 해의 천간에 따라 달을 일으켜 지지(地支)가 처음 진(辰)에 이르는 달의 운을 따져 보고, 이것을 운박영정국(運泊永定局)에서 장사 지내는 달과 맞추어 얻은 운이다.

208) 홍운(洪運) : 홍범오행(洪範五行)으로 따져 본 장사 연운(葬事年運)이다. 홍범 오행으로 따진 좌(坐)의 오행과 장사 지내는 해의 천간(天干)을 맞추어 산년운(山年運)을 따져 보면 홍운을 알 수 있는데, 홍운이 꺼리는 것을 보고 택일에 참고한다.

209) 녹궁(祿宮) : 벼슬이 높아지고 부귀해지는 운수이다.

210) 병자(丙子) 기해(己亥) 기미(己未) 정미(丁卯)이다. : 조명(造命)인 듯하다. 망인(亡人)이 타고난 사주(四柱)를 본명(本命)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장사 일시를 가림으로써 사람이 만든 명을 조명이라고 한다.

지금 조부와 어머니를	今爲祖妣
옛 선영에 하관하니	窆茲舊塋
위아래 언덕의 묘소	上下丘墓
차례가 분명하구나	次第分明
정리와 예법에 걸맞으니	稱合情禮
영령이 평안하리라	妥安靈魄
삼가 존귀하신 영령이여	伏惟尊靈
길이 음덕을 내려주소서	永垂陰鷲

자식과 조카들에게 헌작(獻酌)하게 하고, 저녁 전에 반혼(返魂)²¹¹하게 했다.

택일기(擇日記) 건좌손향(乾坐巽向)²¹² 곤화명(坤化命), 을사화(乙巳火), 안장(安葬) 윤9월 24일 기미(己未), 하관(下棺)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개토(開土)는 11일 오시(午時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과묘방(先破卯方)²¹³, 개금정(開金井)²¹⁴은 20일 수시(隨時), 하전석(下磚石 벽돌)은 일시(日時)에 따라서 행한다. 혈심(穴深)은 5(尺) 5촌(寸), 취토(取土)²¹⁵는 갑경방(甲庚方), 계빈(啓殯)은 하루전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7시까지)이고 선과유방(先破西方)²¹⁶인데 신미생(辛未生)과 무자생(戊子生)은 보지 않는다. 발인(發引)은 축시(丑時), 산소에 도착하여 관을 을방(乙方)에 멈추고 묘방(卯方)을 범하지 말라. 영악(靈幄)²¹⁷을 신사방(辛巳方)에 설치하는데 제주(祭主)는 사오미(巳午未 남쪽)와 신유술(申酉戌 서쪽) 방향으로 앞드려 절하지 않는다.²¹⁸ 주당(周堂)²¹⁹에 자식 기르는 부인은 발인할 때 잠시 피한다. 적호(的呼)²²⁰는 병술생이고 정충(正沖)²²¹은 기축으로 발인하여 하관할 때 잠시 피한다. 일포시(日晡時)²²²의 제사는 매형 유동춘(柳東春), 대제(大祭)는 형님, 발인할 때 제사는 계동(契洞)의 둘째 매형, 제주제(題主祭)²²³는 봉조(鳳朝)이다. 제전(祭奠)은 강수룡(姜守龍)·정재장(丁再長)·정명열(丁命說)·이진태(李進太)·이도성(李道成)·박순기(朴順起)·강세평(姜世平)

211) 반혼(返魂) : 장사 지낸 뒤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212) 건좌손향(乾坐巽向) : 뒷자리가 북서쪽을 등지고 남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213) 선과묘방(先破卯方) : 선과방(先破方)은 보통 직계 자손이 첫 삼을 봉분을 어느 방위(方位)로 시작하느냐를 말하는데, 묘방은 정동(正東)을 중심으로 한 15도 안의 방향이다.
 214) 개금정(開金井) : 금정들을 놓고 관을 들여놓을 구덩이를 파는 일.
 215) 취토(取土) : 하관이 끝나면 광중(壙中)을 메우기 전에 먼저 생방(生方)의 흙을 몇 삽 떠 넣고 광중에 흙을 채워 봉분하는 관습을 말한다. 생방은 길한 방위이고, 이와 반대로 사방(死方)은 불길한 방위이다.
 216) 유방(西方) : 정서(正西)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의 방위이다
 217) 영악(靈幄) : 영침(靈寢)이나 영좌(靈座)에 둘러치는 휘장이다
 218) 제주(祭主)가……방위 : 상주(喪主)가 앞드려 절하지 않는 방위를 말한다. 궤연(几筵)을 설치하거나 상여를 놓을 때에 이를 참고하여 피해야 한다.
 219) 주당(周堂) : 이사, 신행(新行), 결혼, 안장(安葬)할 때에 꺼리는 살(煞)로, 큰 달과 작은 달에 따라 구궁(九宮)을 둘러 짚는 방향이 다르다.
 220) 적호살(的呼煞) : 죽은 사람이 불러서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살이다. 적호살, 정충살, 동순충살은 오직 하관할 때 적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관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잠시 피하면 된다.
 221) 정충살(正沖煞) : 일진과 생년(生年)의 천간(天干)이 같고 지지(地支)가 서로 충(沖)하는 것을 말한다. 충은 서로 싸운다, 서로 대립한다, 서로 찌른다라고 적대 관계를 의미한다.
 222) 일포시(日晡時)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신시(申時)를 말한다. 일포시에 조전(祖奠)을 진설(陳設)한다. 조전은 발인 전일 저녁에 올리는 제사이다.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 전별주(餞別酒)를 마시는 것을 조(祖)라 한다. 이제 내일이면 장지(葬地)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전을 올려 사자(死者)가 전별하게 하는 것이다.
 223) 제주제(題主祭) : 장사 지낸 뒤에 산소에서 혼령을 신주(神主)에 옮길 때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다. 동네 사람들은 함께 제진(祭奠)한다.

초상 부의(初喪賻儀)

김창복(金昌復) 백지(白紙) 1속(束), 황촉(黃燭)²²⁴ 1쌍, 초석(草席) 1립(立).

박중환(朴重煥) 장지(壯紙) 5장(丈).

만화당(萬和堂) 백지(白紙) 1속(束), 초석(草席) 1립(立).

부근 비장청(裨將廳) 명태(明太) 1속(束) 5미(尾).

차진억(車鎭億) 홍합(紅蛤) 2승(升) 백문어(白文魚) 1미(尾) 해삼(海參) 3곶(串).

김사읍사(金沙邑沙) 호도(胡桃) 10개.

장시(葬時)

황신영(黃信永) 유자(柚子) 8개.

강수룡(姜守龍), 백문어(白文魚) 1미(尾).

김진원(金進元) 서과(西果 수박) 2개, 석류(石榴) 10개, 생률(生栗) 1승(升).

김응정(金應鼎) 백미(白米) 1말.

안정사(安靜寺) 청장(淸醬) 1식기(食器).

중 국찬(國贊), 청장 3기(器), 지청(至淸) 2기(器).

의숙(儀淑)·호철(浩哲)·능오(能悟)·찬준(贊俊)·전명(典明) 등 각1기(器).

봉진(鳳田) 이가(李家) 백미(白米) 1말, 대태(大台) 2되, 청말(靑末) 1섬.

차진억(車鎭億) 홍합 3승(升), 문어(文魚) 2미(尾), 유자(柚子) 10개, 해삼(海參) 4곶(串), 후추(胡椒) 1합(合), 해과(海果) 10개.

김창복(金昌復) 백미 1말, 유자(柚子) 10개, 생복(生卜) 3개, 백문어(白文魚) 1미(尾), 명태(明太) 1속(束).

박응준(朴應俊) 생계(生鷄) 1수(首), 생배[生梨] 5개.

천익성(千益成), 백문어(白文魚) 1미(尾), 명태(明太) 1속(束), 공어(孔魚 꾀치) 1속(束), 유자(柚子) 10개, 대소(大召 大棗) 1도(刀), 생률(生栗) 1도(刀), 공률(孔栗) 1도(刀), 생리(生梨) 5개, 석류(石榴) 5개, 은행(銀杏) 5합(合).

김진추(金震秋), 백문어(白文魚) 1미(尾), 명태 1속(束).

이방열(李房悅), 백미(白米) 1말.

향교(鄉校) 보학소(補學所) 백지(白紙) 1속(束), 초석(草席) 1립(立).

김세홍(金世弘) 생계(生鷄) 1수(首).

김세태(金世泰) 생계(生鷄) 1수(首).

한득량(韓得良) 백문어(白文魚) 1미(尾).

손귀산(孫貴山) 가을적(加乙赤) 3미(尾).

정만송(鄭萬松) 유자(柚子) 17개.

윤만첨(尹萬瞻) 조기[石首魚] 1속(束) 2미(尾).

이만정(李萬禎) 진(錢) 3전(錢).

김시성(金始聲) 백문어(白文魚) 2미(尾), 장지(壯紙) 6장(丈).

이용재(李龍才) 백미 1말.

이한영(李漢永) 백미 5도(刀).

224) 황촉(黃燭) : 밀랍으로 만든 초를 말한다.

안수(安秀) 생계(生鷄) 1수(首), 호도(胡桃) 10개.
 배성기(裴成起) 생계(生鷄) 1수(首), 홍시(紅柿) 4개, 식류 3개.
 김삼덕(金三德) 별조지(伐造只) 1좌(坐), 모지(母之) 1좌(坐), 백미 5도.
 이시재(李時才) 벌어(伐於) 1좌(坐), 호(壺) 1좌(坐), 전(錢) 1전(錢).
 선옥대사(禪玉大師) 유자(柚子) 6개, 백자(栢子) 4합(合).
 이진태(李進太) 백미 1두.
 백명후(白命厚) 백미 1두.
 이위재(李渭才) 서과(西果 수박) 1개.
 배태약(裴太岳) 조(租) 1말.
 박종수(朴宗秀) 생계(生鷄) 1수(首), 백문어 1미.
 유천정(柳天禎) 백미 1두.
 김익흥(金益興) 전(錢) 1전(錢).
 김광옥(金光玉) 전(錢) 1전(錢).
 박대엽(朴大燁) 조기[石首魚] 2속(束).
 김보경(金寶鏡) 유자(柚子) 3개.
 중 진명(典明) 백지(白紙) 1속(束).
 국찬(國贊) 설화지(雪花紙) 1장(丈), 송화지(松花紙) 1장(丈).

윤9월 25일(경신) 북풍이 불어 차가웠다. 황사형(黃查兄)이 돌아갔다.
 윤9월 26일(신유) 재우제(再虞祭)를 지냈다.
 윤9월 27일(임술) 추위가 갑자기 풀렸다. 삼우제(三虞祭)를 지냈다.
 윤9월 28일(계해) 따듯했다.
 윤9월 29일(갑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고, 북풍이 불어 차가웠다. 졸곡(卒哭)을 지냈다.

10월

통제사가 본현(本縣)에 소재한 보경창(補傾倉) 환곡 2천섬을 유방창(留防倉)에 이획(移劃) 옮겨 충당함(忠當)하라고 하여 본관(本官)이 광일(光一)·광이(光二)·도선(道善)·회현(會賢) 4면(面) 팔부(八夫)의 환곡을 운반하여 납부하라고 하니, 백성들이 모두 괴롭게 여겼다.

10월 1일(을축) 햇벌이 따듯했다. 아관이 군포(君浦)에 갔다.
 10월 2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3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박범석(朴範錫)이 양친(兩親)을 가리동(加里洞)에 장사를 치르는 데 가서 조문하고 왔다. 아관이 돌아왔다.
 10월 4일(무진) 아승(阿升)이 가족을 데리고 봉전(鳳田)에 갔다.
 10월 5일(기축) 저녁 쭈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며 우박이 내렸다. 새벽에 김수천(金守天)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 한 채를 태워버렸다.
 10월 6일(경오) 혹독하게 추웠다.
 이날 저물어 서재에 묵으면서 막 잠들었는데 화재가 새실 서북쪽 모퉁이에서 일어나 이웃에서 한번 소리쳐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나 물을 길어 오는 곳이 조금 멀어 진화할 수 없어 사람들마다 서서 혀를 차면서 탄식할 뿐이었다. 남김없이 다 타버렸다. 이 때 마

을 방아가 겨우 끝나자마자 초승달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이 불길의 부엌에서 발생한 것인가. 괴이하도다.

10월 7일(신미) 아관(阿觀)이 가족을 데리고 서면(西面)으로 갔다.

10월 8일(임신) 매우 추웠다.

10월 9일(계유) 매우 춥고 어두운 밤에 천둥이 쳤다고 한다.

10월 10일(갑술) 밤에 눈이 땅에 쌓였다. 아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10월 11일(을해) 아관이 돌아갔다.

10월 12일(병자)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10월 13일(정축)

10월 14일(무인)

10월 15일(기묘)

10월 16일(경진)

10월 17일(신사)

10월 18일(임오)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0월 19일(계미) 내일 군포(君浦) 자식의 제삿날이기 때문에 정아(鼎阿)를 보내 가서 곡하게 하였다.

10월 20일(갑신) 온화했다.

10월 21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탄치(炭峙)²²⁵의 산에 강노인의 장지(葬地)를 파는 것을 가서 보고 돌아왔다.

10월 22일(병술)

10월 23일(정해)

10월 24일(무자)

10월 25일(기축)

10월 26일(경인)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0월 27일(신묘) 어제와 같았다. 탄산(炭峙)의 뒤편에 무덤을 파는 것을 보러 갔다.

10월 28일(임진) 온화했다. 진물(奠物)을 갖추고 탄치 산소에 가서 산역이 다 끝난 후에 돌아왔다.

10월 29일(계사)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11월

11월 1일(갑오) 동풍이 갑자기 불고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 동문(東門) 밖 삼우제(三虞祭)를 가서 보고, 저녁에 이르러 춘아(春兒)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시가[市直]가 쌀 4말, 조(租) 9말이다.

11월 2일(을미) 비가 내려 축축했다.

11월 3일(병신)

11월 4일(정유)

11월 5일(무술) 이상 날씨가 추웠다.

11월 6일(기해)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7일(경자)

225) 탄치: 고성읍과 상리면 경계의 감티재로, 예전 이곳에 탄이 나왔다고 하여 탄치로 불렀다고 한다.

11월 8일(신축)

11월 9일(임인) 이상 날씨가 매우 추웠다. 봉전(鳳田)의 며느리가 월 초4일에 딸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편지로 보내왔다.

11월 10일(계묘) 구름이 끼고 추웠다. 아승(阿升)이 봉전에 갔다. 상인(喪人) 강일함(姜一咸)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밤에 눈이 쌓였다 .

11월 11일(갑진)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녹았다.

11월 12일(을사) 혹독하게 추웠다. 강상인(姜喪人)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1월 13일(병오) 아승(阿升)이 돌아왔다. 군포(君浦)의 이서방이 왔다.

11월 14일(정미)

11월 15일(무신)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11월 16일(기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읍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11월 17일(경술) 추웠다. 계속 읍저(邑底)에서 머물렀다.

11월 18일(신해) 서북풍이 불고 흙먼지가 연기처럼 뿌영게 일어났다.

11월 19일(임자) 극히 추웠다. 이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1월 20일(계축) 혹한이었다. 어두워지자 형제들이 집안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규방의 여러 아녀자들이 서쪽 협방(夾房)에서 모여 밝은 등잔불 아래에서 일을 하였고, 큰 애와 막내 두 아들 또한 창문 앞에 앉아있었다. 평온하게 말하고 있는 즈음 홀연 사립문에서 뿔감을 신는 소리가 들리는데 호랑이가 죽창(竹窓)을 치며 종이를 찢고 문지도리를 부수고 난입하려는 상황이었다. 두 아들이 물건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제히 소리 내어 쫓아냈다. 적지 않게 놀랐다.

11월 21일(갑인) 아승(阿升)이 전(錢) 18관(貫)으로 봉전(鳳田)에 사는 여종 춘단(春丹)을 사기 위해 지금 봉전으로 갔다.

11월 22일(을묘) 지금 족징(族徵)이 특히 심하여 민간이 떠들썩한데 청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였다.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삼가 아뢰입니다. 본읍(本邑)은 멀리에 위치한 고장으로 불행히 큰 군영의 방어처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를 안고 사는 호(戶)를 열었더라도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오솔길이 막힘을 어찌 하겠습니까.²²⁶⁾ 작년은 흉년이 들어 날마다 지고 메고 떠났는데²²⁷⁾ 다행히 전 사또가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여 예전과 같이 어루만지고 구휼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명부(明府 사또)께서 부임하신 뒤에도 인풍(仁風)이 흩어지지 않고 은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밤에는 산음(山陰)에 개 짖는 소리가 끊어지고²²⁸⁾ 낮에는 남양(南陽)의 노래를 불렀으니²²⁹⁾, 어찌 독한 전염병과 거둬진 기근으로 열집 중에 아홉 집이 텅 비게 될 줄 기약이나 했겠습니까

226) 雖開抱兒之戶，奈阻畏虎之蹊？

227) 지고 메고 떠났는데 : 흉년으로 백성들이 모두 가재도구 등을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서 길을 떠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228) 산음(山陰)에 개 짖는 소리가 끊어지고 : 어진 수령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는 말이다. 후한(後漢) 유충(劉寵)이 회계 태수(會稽太守)로 선정을 베풀고 떠날 즈음에, 산음현(山陰縣)의 노인들이 전송하며 “다른 태수 때에는 관리들이 백성을 갈취하는 일이 밤이 되도록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들이 밤새도록 짖어 대었고 백성들이 안정을 취할 수 없었는데, 명부께서 부임하신 뒤로는 개들도 밤에 짖지 않고 백성들도 관리를 볼 수 없었다.[他守時吏發求民間 至夜不絕 或狗吠竟夕 民不得安自明府下車以來 狗不夜吠 民不見吏]”라고 찬양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76 循吏列傳 劉寵》

229) 남양(南陽)의 노래를 불렀으니 : 전한(前漢) 때 소신신(召信臣)이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교회를 크게 펴서 백성 모두가 편안히 살 수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친애하여 ‘소부(召父)’라고 불렀는데, 그 뒤에 두시가 다시 남양 태수가 되어 선정(善政)을 펼치자 백성들이 모두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칭송하기를, “앞에는 소부가 있었고, 뒤에는 두모가 있네.”라고 노래하였다. 《漢書 卷89 循吏傳 召信臣》 《後漢書 卷31 杜詩列傳》

니까. 그런데 지금 영창(營倉)의 독축을 만나 지극히 엄한 명령이 이르니 온 경내가 매우 심한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들이 사는 지역적 사정이지 하늘을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일종의 간교한 무리들이 여우처럼 뒤덮인 잎사귀를 희롱하니 유력자에게 아첨하는 기술이고, 낭자하게 벗짚을 치니 썩은 가지 부러뜨리는 손쉬운 술수입니다.²³⁰⁾ 저희들은 고통으로 울부짖는 하소연을 참을 수 없어 머뭇머뭇 나오지 않는 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서각(犀角)을 태우는 밝은 빛²³¹⁾을 돌리시어 족제비[拱鼠]의 소굴을 부수어 주소서.

다만 삼가 생각건대, 인명이 비록 애석하나 나라의 곡식이 막중하니 받아먹은 환곡을 미남한 채 스스로 자신을 도모하여 관가에 근심을 끼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입고(入庫)한 곡식은 모두 우마차로 실어 납부한 것으로, 우리 어진 사또의 타들어가는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부하지 않은 수량은 모두 유망(流亡)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들과 간교하고 교활하여 밍는 구석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유망한 자들은 본래 가난하고 곤궁한 백성으로 그들이 받아먹은 것은 결환(結還)²³²⁾에 벗어나지 않았으니 많아도 4·5점을 넘지 않고 적게는 1·2점에 그칩니다. 이 정도로 사소한 곡물은 가까운 친족에게 징수해도 사람을 심하게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 정군배(正軍輩)를 합록(合錄)해서 숫자를 채워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에게 청탁을 하며 거기에 거짓 보고까지 하여 마침내 부득이한 정사를 행하여 먼 친족에게까지 족정합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자들은 본래 세력 있는 사람이라, 남자는 발 같지 않고 여자는 배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창(倉)의 상환된 곡식을 제 마음대로 꺼내어, 몸을 단장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련하고, 그리고 처자식의 노비, 가장(家庄), 기용(器用)의 수요로 흠 퍼다 쓰듯 합니다. 그러므로 적게는 40·50점을 밀돌지 않으며 많게는 100여 점을 웃돌기도 합니다.

환곡을 받아들이는 날이 되면 간교하고 비밀스런 계책을 써서 온갖 명목으로 분배하고 농간을 부려 유용하고 문서를 꾸미며 나가고 물러나며 상황을 관망합니다. 그러다가 친족에게 분배되는 길이 한번 열리면 혹은 세력으로, 혹은 안면이 있다는 정으로, 혹은 연비(連臂)로, 혹은 농담으로 떠넘기니, 제아무리 강직한 면임과 이임이라고 해도 감히 정색하고 원칙대로 집행하지 못합니다. 열 번의 도끼질 아래서 버틸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더구나 강한 자는 본래 적고 약한 자는 본래 많은데 있어서겠습니까.

밍는 구석이 있는 까닭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사례에 뒤섞여 저 험준한 산같은 환곡을 옮겨 물방울 같은 족파(族派)를 압박하여 자[尺]가 몇 자 짜리로 같은 지 다른 지를 따지지 않고 사돈의 8촌까지 마구 침해합니다. 혹 나나니벌[蝮蠃]이 우리와 닮았다고 끌어대고 혹은 약삭빠른 토끼가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핑계 댑니다. 옛적에는 소 닭 보듯 하다가 지금은 형제라고 하면서 관의 처결은 잊어버리고 창색(倉色)과 한통속이 되니, 창(倉)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정(官庭)이 아니니 절로 사랑해 기르는 마음이 없고, 색(色 담당자)은 붓을 적시는

230) 抑有一種奸巧之徒，狐弄翳葉，媚寵之術，狼藉打藁，拉朽之拳，

231) 서각(犀角)을 태우는 밝은 빛 : 서각은 무소의 뿔인데 이를 태우면 밝은 빛이 난다고 한다. 진(晉)나라의 온교(溫嶠)가 여행을 하다가 무창(武昌)의 저기(渚磯)에 당도하니, 물이 아주 깊었는데 사람들이 모두들 물속에 괴물이 산다고 하였다. 이에 온교가 서각에 불을 붙여서 물속을 비추니, 얼마 뒤에 물속에 있던 기이한 모습의 물고기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晉書 卷67 溫嶠列傳》

232) 결환(結還) : 환곡을 나누어줄 때 민호(民戶)나 전결(田結)에 따라 하는데, 민호로 나누어주는 것을 통환(統還)이라고 하고, 전결로 나누어주는 것을 결환(結還)이라고 한다.

역할인데 절로 쓰는 손만 있습니다. 목패(墨牌 협조를 강요하는 문서)가 낙엽처럼 날아다니고 적봉(赤棒 몽둥이)이 바람 따라 돌아오니, 면임과 관차(官差)는 무섭게 욱박지르고 동장(洞長)이나 촌보(村保)는 놀라 걱정하며, 아낙네들은 베틀과 북을 헛되이 기대어 놓고 고아들은 귀밑머리 헝클어져 있습니다. 이리하니 정협(鄭俠)의 유민도(流民圖)²³³가 서로 이어지고 농예(隴隸)의 금을 얻기 어려워 메추라기 같은 누더기 옷²³⁴을 아무리 당겨도 밥그릇과 바가지는 이미 텅 비어 가련한 부평초 같은 종적이 장차 까마귀와 솔개의 부리가 되게 생겼습니다.²³⁵

생각건대, 저 족장은 혹 교활하여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 머리에 장식하고 활보하기도 하고, 혹은 간악하여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 일어나 춤추고 눈을 흘기기도 하니, 귀신같은 괴상한 행적이 천태만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근원을 막아 도탄에 빠진 저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정을 캐서 집안의 재산을 끝까지 수색하여 그 훗날의 습속을 징계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면임을 시켜 족인(族人)과 함께 그 산판(算板)을 살피고 부수(卜數)를 헤아리게 해서 혹 부(夫) 내에 혼록(混錄)한 것이 있어서 결(結) 외에 지나치게 나누어주면 해당 정군(正軍)에게 징수하고, 혹은 별환곡(別還穀)을 사사로이 주는 자가 있어서 도록(都錄)을 번질(反作)²³⁶하거든 당시의 색리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웃과 마을에 징수한 이후 범진 내용에 따라 합당한 친족에게 족징하되, 동성(同姓) 6촌, 이성(異姓) 4촌 이외에는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웃 마을의 경우, 자기들끼리 부역을 함께 쓰고 신발을 전하며 등불을 나누어 서로 망보며 믿어서 환난을 서로 구제합니다. 그들은 파류(派流)와는 교류하지 않아 정의(情義)가 이미 끊어져 살면서 서로 안부를 묻지 않고 죽어서도 서로 조문하지 않으니 같이 놓고 말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집의 재산과 그 사람의 형적을 꿰뚫어 잘 알고 있어서 숨겨놓은 전장(田庄)을 찾을 수 있고 몰래 숨겨놓은 물품과 재물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여 연좌하는 것 역시 옛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한 가지 방도였습니다. 이 법을 행한다면 간악한 무리가 절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건대 신령스런 안목을 지닌 사또께서 더 살피고 헤아리시어 사람이 하찮다고 말까지 거부하지 마시고 빨리 명백하게 조사하라 명하시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집안을 서로 보전함으로써 배어진 풀을 읊조리거나[咏薙]²³⁷ 장초(叢楚)²³⁸를 노래하는 탄식이 없도록 명

233) 정협(鄭俠)의 유민도(流民圖): 정협은 송 나라 복청(福淸) 사람으로 자는 개부(介夫)인데, 그가 목격한 유랑민의 처절한 상황을 화공을 시켜 그림으로 그려 신종(神宗)에게 올리자, 신정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조서를 내리고 아울러 왕안석(王安石)에 의해 실시된 청묘법(靑苗法)을 모두 폐지하였는데, 그 그림을 세상에서는 유민도라고 했다.

234) 메추라기 같은 누더기 옷 : 메추라기는 꼬리 부분에 털이 없어 마치 옷이 해진 것 같으므로, 매우 낡은 누더기 옷을 매달아 놓은 메추라기에 비간다. 《순자(荀子)》 〈대략(大略)〉에 “자하는 가난해 옷이 메추라기 매달아 놓은 것 같다.[子夏貧衣若懸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35) 장차 까마귀와 솔개의 부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 굶주림이 극에 달해 시체라도 먹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다. 장자(莊子)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제자(弟子)들이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려 하자, 장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므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체를 파먹을까 염려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니, 장자가 말하기를, “위에 있으면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되고 땅속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쪽에서 빼앗아다가 이쪽에다 주려고 하니, 어찌 그리 편벽한가.”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莊子 列禦寇》

236) 번질(反作) : 환곡을 상환 받을 때 기한인 연말까지 상환 받지 못한 분량을 다 상환 받은 것처럼 곡부(穀簿)를 꾸며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그 다음해 봄에는 다시 그 수량만큼을 환곡으로 나누어 준 것처럼 꾸며 감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37) 배어진 풀을 읊조리거나 :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송정상서서(送鄭尚書序)〉에 나오는 초치금선(草薙禽獮)로, 풀이

하여 주소서.

11월 23일(병진)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서 돌아왔다.

11월 14일(정사) 아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11월 15일(무오) 호랑이가 마구 돌아다니면서 인명을 많이 해쳤다.

11월 26일(기미) 아관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1월 27일(경신)

11월 28일(신유) 매우 추웠다.

11월 29일(임술) 조금 따뜻했다.

11월 30일(계해) 북풍이 불어 차가웠다.

12월

12월 1일(갑자) 북풍이 칼날처럼 매서웠다. 시가[市直]가 쌀 4말, 전(錢) 1냥(兩) 5푼(分)이다. 지난날 왜선 10여 척이 동래(東萊)에 정박했고, 지금 또 큰 선박 몇 척이 와서 배 위에 과녁을 세우고 활쏘기 연습을 하니, 변경 사람들이 놀라 동요하고 길가가 들썩들썩 소란스러웠다.

12월 2일(을축)

12월 3일(병인) 북풍이 매우 차가웠다.

12월 4일(정묘)

12월 5일(무진) 계동(契洞)에 사는 유매형(柳妹兄)이 왔다.

12월 6일(기사) 온화했다. 유매형이 돌아갔다.

12월 7일(경오)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그치고 날씨가 따뜻했다. 봉전(鳳田)에 사는 며느리가 여중 춘단(春丹)과 함께 왔다.

12월 8일(신미) 봉전에서 며느리와 함께 온 일행과 사내중, 말이 돌아갔다. 밤에 바람 소리가 우레와 같아 편안히 잠을 자지 못했다.

12월 9일(임신) 바람이 차가웠다. 최익구(崔益九)의 요청으로 조아기(趙阿其)의 청원서를 초(草)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녀자인 저는 젊은 나이에 지아비를 잃고 어렵게 살던 중 밤에 끌려갔는데 죽지 않았으니, 생각건대 오늘날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은 선조의 혼령이 미워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누군들 용납하겠으며 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한번 결단을 내리시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답하시는 것만 못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디게 지체한 것은 오직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에 세덕(世德)을 간략히 아뢰어 제 허물을 스스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저, 저는 대소현(大笑軒) 충의공(忠毅公)²³⁹ 선생의 5대손인 함안(咸安) 사대부의 서녀(庶

배어지듯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사냥에서 잡히듯 포로가 된다는 말이다. 부모나 처자가 풀처럼 베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 듯하다.

238) 장초(襄楚) : 장초는 보리수나무로, 《시경》 〈회풍(檜風) 습유장초(隰有襄楚)〉를 말한다. 그 시에 “진펄에 보리수가 있으니 아들이아들한 그 가지로다. 아리땀고도 윤택하니 너의 무지함을 부러워하노라.[隰有襄楚 猗籬其枝 天之沃沃 樂子之無知]” 하여, 행역(行役)을 나간 사람이 고통스러운 신세를 한탄하였다.

239) 대소현(大笑軒) 충의공(忠毅公) : 조종도(趙宗道 1537~1597)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안으로, 자는 백유(伯由), 호는 대소현(大笑軒),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는데 황석산성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女)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롭고 고달프게 세상을 살다가 적가(嫡家 적장자 집안)에 수양(收養)되어 이 고을의 평민에게 출가하였습니다. 시집은 지 1년이 채 안되어 남편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형제가 적고 또 친족도 드물었지만 절개를 더욱 단단히 하면서 삼년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 적가(嫡家)에 의지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창진(鄭昌晉) 등 형제가 장정들을 많이 데리고서 밤을 틈타 난입하여 형의 침소에 저를 묶어두고 무례하게 범하였으니, 아녀자의 약한 힘으로 힘센 여럿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4년여 세월을 염치없는 얼굴로 구차히 살았는데 금년 봄에 두 번째 남편이 염병에 걸려 또다시 잃었습니다. 입관(入棺)하고 성빈(成殯)한 후에 적처(嫡妻)가 또 염병에 걸려 죽었으니, 그 집의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상례 역시 절도 없이 치렀는데, 두 아우인 정창진 등이 형수의 상(喪)이 있자 거친 풀숲 가운데에 가빈(假殯)하였습니다.

이어서 죽은 형의 유택(遺宅)을 차지하고 저의 구업(舊業)을 마음대로 하면서 스스로 꺼리고 싫어하는 생각을 품고 원수 보듯 하다가, 마침내 풀숲에 혼백을 담은 상자[魂箱]를 만들어 이미 차린 빈소의 영궤(靈几)에 붙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입관과 성복(成服)을 먼저 한 연후에 속백(束帛)을 갖추어 올리자고 말하자, 갑자기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정창진 등이 고의로 괴상한 행동을 하면서 혼백을 담은 상자를 불사르더니, 제가 적처의 죽은 혼령을 시기한다고 죄안(罪案)을 꾸며서 관정(官庭)에 무함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실을 조사하는 즈음에 재혼한 죄를 먼저 꾸짖어 저를 종으로 삼으라는 이런 처결이 있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저는 비록 서파(庶派)이긴 하지만 본래 사족(士族)이니 차마 꽃의 눈물을 보이고 핑의 웃음을 자랑하겠습니까.²⁴⁰⁾ 물러나서 대소현 선생 부부가 포위되어 죽음에 임하여 쓴 시에, ‘공동산 밖에서는 사는 것이 오히려 수치이고, 성을 지키다 죽은 장순(張巡)과 허원(許遠)²⁴¹⁾은 죽음도 영광스러워라.[崆峒山外生猶恥 巡遠城中死亦榮]’라는 구절을 생각하자니, 유풍은 다 사라지고 여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조상에 이런 자손이 있으니 그 지조와 행실을 논하자면 종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변고에 대처하는 실정을 따진다면 음탕하게 사통한 법률에 적용될 일이 아닙니다. 비록 깨끗한 아녀자의 지조를 잃었을 지라도 스스로 닭이나 집오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몸을 여관에 의지하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 알고 계시는 선현의 영령이 구천에서 유감이 없겠습니까. 죄는 비록 기도하여 용서 받기 어려우나 실정은 애처롭습니다. 다시 삼가 바라건대 사또께서 십세(十世) 동안 죽을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따라서 영문(營門)에 논보하여 도류형(徒流刑)으로 처결하여 종으로 만드는 죄명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12월 10일(계유) 매우 추웠다. 정아(鼎阿)가 같은 동네 사람에게 새장가를 들었다. 밤에 눈비가 내려 1치 쯤 쌓였다.

12월 11일(갑술) 매우 추웠다. 청어(靑魚) 1급(級)의 가격이 전(錢) 7,8푼이고, 연말에 나온 대구어(大口魚), 내장을 제거하고 말린 것 한 마리, 큰 것은 6,7푼이고 작은 것은 3,4푼이다.

12월 12일(을해)

240) 차마 꽃의 눈물을 보이고 핑의 웃음을 자랑하겠습니까 : 원문이 다음과 같다. ‘忍看花之淚 調詔雉之笑’ 고사가 미상이다.

241)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 당(唐)나라 현종(玄宗) 천보(天寶) 연간에 안녹산(安祿山)이 어양(漁陽)에서 반란을 일으켜 장안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려올 때,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두 장수가 수양(睢陽)에서 이들을 맞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12월 13일(병자) 따뜻했다. 아관이 돌아갔다.
 12월 14일(정축) 추웠다.
 12월 15일(무인) 청명했다.
 12월 16일(기묘)
 12월 17일(경진)
 12월 18일(신사) 눈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12월 19일(임오) 추웠다.
 12월 20일(계미)
 12월 21일(갑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2월 22일(을유)
 12월 23일(병술)
 12월 24일(정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12월 25일(무자) 날씨가 개었다.
 12월 26일(기축)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6말 반, 차조(次租)/ 7,8말이다. 아관이 문안 인사 하려고 왔다.
 12월 27일(경인)
 12월 28일(신묘) 바람이 불었으나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봉전(鳳田)에 사는 새신랑 윤원용(尹元龍)을 맞이하였다. 아관이 통영에 가서 사위 윤원용을 맞이하였다.
 12월 29일(임진) 북풍이 불어 흙먼지를 일으켰다. 사돈어른 생원 윤세찬(尹世燦)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금년 봄에는 돌림병이 근래 없이 심하여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온 가족이 다 죽은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봄과 여름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 전쟁 없는 난리라고 이를 만하다. 7, 8월이 되어 돌림병 기운이 점차 가라앉긴 했으나 근래에도 아직 남아있으니, 이런 시절은 생각건대 천운(天運)과 관련 있는 것인가. 벼농사는 한재(旱災)에 상하긴 했지만 때맞춰 김매고 북돋운 곳은 거들 것이 있다. 그러나 초상과 질병을 치르느라 정신 없었던 자는 전부 때를 놓쳤기 때문에 절반이나 농사를 망쳐 흉년을 면치 못하였고, 온갖 밭곡식은 원래 여문 것이라곤 없었다. 그러나 민간의 살림살이는 작년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낫다.

현재 시가[市直]는 쌀은 3말 5되인데 매우 거칠고, 정조(正租)는 6말 반 혹은 7말이며 그 다음 조(租)는 7말 반이다. 목화는 4근(斤), 필목(匹木) 거친 것은 3냥 7·8전(錢)이고, 조금 가는 것은 4냥이며, 태(太)는 4말이다. 대구어(大口魚)는 잠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다. 담배는 매우 비싸서 전(錢) 1푼이고 품질이 좋으면 2엽(葉)이다. 닭 한 마리는 일찍이 5·6전이었던가 지금은 2·3전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봄과 여름 사이에 병든 자들이 원기를 보충하려고 구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선(倭船) 수십 척이 동래(東萊), 거제(巨濟) 등지에 와서 정박하여 인근 사람들이 모두 우려하는데 떠들썩한 이야기가 간간히 들렸다가 잠잠하다 한다.

사또 민원(閔源)의 정사에 흠잡을 것이 없으나 족징(族徵)의 폐단을 상세히 살피지 못하여 더러 백성을 동요시켰으니 이것이 흠잡을 만하다. 좌수(座首) 최침(崔琛)은 우물쭈물 결정하지 못할 따름이다.

순찰사 이성중(李成中)²⁴²⁾ 공은 일찍이 이조 판서를 지내다가 지난 11월 11일 외직에 보임

242) 《승충명록》에는 ‘이성중(李性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성중(李成中)’으로 정정 번역하였다.

되어 부임해 와서 백성들이 좋은 인망과 풍모를 기대하고 있다. 통제사 이경철(李景喆)²⁴³ 공이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한 정사가 해안 지역에 소문이 났는데, 이런저런 소식은 모두 인(仁)의 단서에서 나왔으니 오늘날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할만하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러한지 모르겠다. 나는 궁벽한 마을의 쇠잔한 몸으로 그 실제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지 못했으니 통탄스럽고 통탄스럽다.

통제영(統制營) 우후(虞候) 장지풍(張志豐) 공은 옛 대장 장봉익(張鵬翼)의 손자이고, 고(故) 통제사 장태소(張泰紹)의 아들이니 실로 동방의 장수 집안 자제이다. 그는 일찍이 동부승지를 역임하고 전에 형조에 있다가 외직에 보임되었는데 나이가 서른이 되지 않아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기습(氣習)이 있기 때문에 간혹 도에 지나친 형벌을 쓰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그 사나움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사를 들어보면 어진 마음의 본체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금주령이 매우 엄했는데 이를 범한 경우 사대부는 수군(水軍)으로 강등시켰고, 중서인(中庶人)은 먼 지방으로 정배(定配)하였으며, 상한(常漢)은 쇠잔한 고을에 종으로 만들고, 공사천(公私賤)은 제주도에 종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세시(歲時)에도 술자리의 즐거움이 없었다.

정축년(1757 영조33)

1월 대월. 초1일 계사. 우수(雨水) 월중(月中). 16일 경칩 2월절.

2월 소월. 초1일 계해. 춘분 월중. 16일 청명 3월절.

3월 대월. 초1일 임진. 3일 곡우 월중. 18일 입하 4월절.

4월 소월. 초1일 임술 4일 소만 월중. 19일 망종 5월절.

5월 대월. 초1일 신묘. 6일 하지 월중. 22일 소서 6월절.

6월 대월. 초1일 신유. 8월 대서 월중. 23일 입추 7월절.

7월 소월. 초1일 신묘. 9일 처서 월중. 24일 백로 8월절.

8월 대월. 초1일 경신. 11일 추분 월중. 26일 한로 9월절.

9월 대월. 초1일 경인. 11일 상강 월중. 26일 입동 10월절.

10월 소월. 초1일 경신. 11일 소설 월중. 26일 대설 11월절.

11월 대월. 초1일 기축. 11일 동지 월중. 26일 소한 12월절.

12월 소월. 초1일 기미. 11일 대한 월중. 26일 입춘 정월절.

1월

1월 1일(계사) 북풍이 어제 밤새부터 거센 소리를 내며 심하게 불어 날씨가 매우 추웠다. 형제와 자식, 조카들이 송정(松亭) 산소에 가서 성묘하고 돌아왔다. 저녁에 이르러 바람이 갑자기 그치더니 밤이 되자 또 바람소리가 들렸다. 새신랑 윤원용이 돌아갔다.

1월 2일(갑오) 바람과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조정에서 각 도(道)에 도망간 죄인 최일관(崔日觀)을 체포하라고 했다.²⁴⁴

1월 3일(을미) 북풍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243) 《승충명록》에는 ‘이경철(李慶喆)’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경철(李景喆)’로 정정 번역하였다.

244) 도망간 죄인 최일관(崔日觀)을 체포하라고 했다: 며칠 전인 《승정원기》 영조32년 12월 27일(경인) 기사에 포도청 소속 마포(麻浦) 군관 최해수(崔海秀)가 도망간 최일관을 붙잡았다는 내용이 있다.

1월 4일(병신) 온화했다.

1월 5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6일(무술) 햇볕이 나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6말 반이다.

1월 7일(기해) 날씨가 춥고 건조하며 북풍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1월 8일(경자) 해가 나고 온화하더니 식후에 바람이 다시 많이 불었다.

1월 9일(신축) 따뜻하였다.

1월 10일(임인)

1월 11일(계묘)

1월 12일(갑진)

1월 13일(을사)

1월 14일(병오) 이상 날씨가 춥지 않았다.

1월 15일(정미) 화청했다. 달의 위부분이 평평했지만 둥글고 가득차지 않았는데, 17일이 바로 상현(上弦)이다. 조동(槽洞)²⁴⁵의 여종 옥매(玉梅)의 남편 황구일(黃九日)이 와서 현신(現身)하였다.

1월 16일(무신) 따뜻했다. 정아(鼎阿)가 서면(西面)에 갔다.

1월 17일(기유) 정아가 서면에서 돌아왔다. 여종 옥매의 남편 황구일이 돌아왔다.

1월 18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9일(신해) 옛 터 해좌(亥坐 북북서쪽을 등지고 있는 방향) 땅에 서재를 중건했다. 사내 종과 말을 봉전으로 보냈다.

1월 20일(임자) 온화했다.

1월 21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서방이 그저께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사위 윤원용이 왔다.

1월 22일(갑인) 온화했다.

1월 23일(을묘) 몇 차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식후에 서북풍이 심하게 불어 흙먼지가 하늘에 가득했다. 오후에 무기정(舞妓亭)²⁴⁶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재방(藥材坊)²⁴⁷까지 모두 다 연이어 전소(全燒)시켰다. 송도역(松道驛)은 단지 발두령의 몇몇 농막(農幕)과 죽음(竹陰)한 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1월 24일(병진) 서북풍이 불었다. 막내딸이 16일부터 신음하는 병세가 있어 지금까지 더욱 심해졌는데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다. 이날 밤에 나는 홀로 의려(倚廬)²⁴⁸에서 묵었는데 잠

245) 조동: 경남 고성군 상리면 조동마을. 조동(槽洞)은 척변정리의 행정마을로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시 조동과 척정을 병합하여 조정리(槽亭里)로 하였다가 1938년 행정구역 재조정시 척변정리로 개칭하여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군의 리명칭 및 구역확정시 척변정리의 조동(행정리) 마을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동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척변정리 주변의 고인돌에서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칼 등이 발견된 바 있어 이곳에 아득한 옛날부터 조상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주이씨(李氏), 함안이씨(李氏), 김해김씨(金氏), 영일정씨(鄭氏), 전주최씨(崔氏)등 제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마을의 지세(地勢)는 면소재지 척정마을과 인접하여 마을 뒷산이 병풍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지형으로 마을 앞을 동산리에서 원류하는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 뒤의 천수답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가 된 비옥한 토질로 수원도 좋아 농사짓기 좋은 곳이다.

246) 무기정(舞妓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던 술집으로 무기정의 기생 ‘월이’는 임진왜란 때 1차 당항포해전 승리의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술집 뒤에는 무기산(舞妓山)이 있어 고려시대 고주자사가 기생을 데리고 이곳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247) 약재방: 경남 고성군 고성읍 무학리(지금은 송학리)에 있었던 약방.

248) 의려(倚廬): 부모의 상중에 상주가 거처하는 집으로, 빈소가 있는 문밖의 동쪽 담 밑에 짚으로 지붕만을 덮은 허름한

을 이루지 못했다. 밤에 눈꽃이 어지럽게 날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1월 25일(정사) 새벽하늘이 맑아 드넓었고 북풍이 거칠게 불었는데 달빛이 숲 안개를 환히 비추었다. 홀로 창문 사이에 앉아 병든 딸아이를 생각하는데 때때로 끄끙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드디어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새벽달이 동쪽 숲에 떠오름 앉아서 보니 坐看晨月上東林
제오륜²⁴⁹처럼 사정이 이 밤에 깊구나 第五私情此夜深
어디메오 금빛모래²⁵⁰ 청정한 세계에서 何處金沙清淨界
번뇌 없이 관음보살 외우리라 無煩無惱誦觀音

1월 26일(무오) 구름이 끼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으며 밤에 눈이 1치 정도 쌓였다. 이서방이 왔다.

1월 27일(기미) 극히 추웠다. 이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진해(鎭海) 조카 박창주(朴昌周)가 문후인사를 왔다.

1월 28일(경신) 추웠다. 사위 윤원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29일(신유) 막내딸의 병에 약간 차도가 있었다. 정아(鼎阿)를 보내 무기정과 약재방, 송도의 화재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을 두루 위문하고 돌아오게 했다. 나는 늘 신음하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구처(區處) 분별하여 처리함하는 글을 초(草)하였다.

1월 30일(임술) 저물녘에 비가 내려 땅이 약간 축축했다.

2월

2월 1일(계해) 아침에 땅을 보니 약간 축축했고 구름이 아직도 짙게 끼었다.

2월 2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3일(을축)

2월 4일(병인)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2월 5일(정묘)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남산²⁵¹ 아래에 불이 나서 가옥 8채를 태웠다.

2월 6일(무진) 온화했다. 시가[市直]가 조(租) 6말, 전(錢) 1냥 7푼이고, 쌀의 경우 3말이다.

2월 7일(기사) 구름이 짙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밤에 동풍이 심하게 불고 빗줄기가 빗겨 날렸다. 지난 겨울부터 흙먼지를 적실 정도의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 내린 비가 비로소 보리밭을 축축이 적셨다.

2월 8일(경오)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2월 9일(신미) 비가 그치지 않았다.

2월 10일(임신) 비가 그치지 않아 개울과 도랑에 비로소 물이 흘렀다.

2월 11일(계유) 비가 걷혔다.

집이다.

249) 제오륜(第五倫) :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사공(司空) 벼슬을 지냈으며 공정하기로 소문이 났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공 같은 사람도 사심(私心)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조카가 병들었을 때는 하룻밤에 열 번이나 가 보았지만 잠을 편히 잤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지만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고 고백한 일이 있다. 《小學 善行》

250) 금빛모래 : 금사(金沙)는 인도(印度)에 있는 아록달지(阿耨達池)를 가리키는데, 금빛 모래가 가득하다고 한다.

251) 남산: 고성읍에 있는 남산공원. 남산은 고성의 진산인 무량산으로부터 왔다고 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2월 12일(갑술)

2월 13일(을해) 서늘하였다.

2월 14일(병자)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15일(정축) 비가 그치지 않아 비를 맞으며 월촌(月村)²⁵²의 사돈택이 재기(再基)이기에 입재(入齋)하는데 가서 위문하였다.

2월 16일(무인) 아침에 보니 산이 눈에 하얗게 덮였다. 올벼의 범씨를 담갔다.

2월 17일(기묘) 맑고 온화하였다.

2월 18일(경진) 구름이 짙게 끼고 저물녘 비가 내렸다.

2월 19일(신사) 비가 내려 물바다가 되어 시내와 도랑이 넘쳐 흘렀다.

2월 20일(임오) 가랑비가 내렸다. 셋째 딸이 7, 8일부터 발병했는데 아직도 차도가 없어 걱정스럽다. 새 며느리가 신행(新行)을 왔다.

2월 21일(계미) 구름이 걷혔다. 읍에 들어갔다가 갈산에서 다시 묵었다.

2월 22일(갑신) 맑고 온화했다. 갈산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셋째 딸아이의 병이 끝내 차도가 조금도 없었는데 그저께부터 헛소리가 더욱 심해져 구음곡(九音谷)에 나가 묵었다.

2월 23일(을유) 구름이 얇게 끼었다. 나는 계속 구음곡에 머물렀다. 중궁전하께서 이번달 15일에 승하하셨다는 소식이 오늘 내려왔다.

2월 24일(병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셋째 딸아이의 병세를 보고 정아(鼎阿)를 보내 의원을 찾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2월 25일(정해) 햇별이 나왔다. 저녁에 읍에 들어갔다가 갈산에서 묵었다.

2월 26일(무자) 집으로 돌아왔다가 또 구음곡에서 묵었다. 지난밤에 좁도독이 창고의 곡식을 훔쳐갔다. 아관(阿觀)이 딸아이의 병세를 듣고 왔다.

2월 27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아관이 돌아갔다. 나는 안정사에 가서 독경하는 중을 만나고 왔다. 비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2월 28일(경인) 비가 그치지 않아 들판에 물이 넘쳐 흘렀다. 김동경(金同京) 집의 세살 아이가 놀다가 냇물에 빠져 그대로 죽고 말았다. 오후가 되자 비가 그쳤다. 이날 국휼(國恤 국상)에 성복(成服)했다.

2월 29일(신묘) 축시(丑時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셋째 딸이 요절하니 참혹하고 애통하다. 이 때 나이가 19세이다. 나는 갈산으로 가서 자리를 피하였다.

3월

3월 1일(임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김창록(金昌祿) 집에서 묵었다.

3월 2일(계사) 계속 읍저(邑底)에서 머물렀다.

3월 4일(갑오) 다시 갈산에서 묵었다.

3월 4일(을미) 읍에 갔다가 도로 갈산에서 묵었다.

3월 5일(병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사위 윤원용이 어제 왔다.

3월 6일(정유) 비가 내렸다.

252) 월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월촌(月村)마을. 마을의 형상이 반월과 같다 하여 마을 명을 월촌이라 했다. 1984년 고성군의 리동 명칭 및 행정구역 확정시 금산리 세동에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370 여 년 전에 김해김씨(金海金氏)가 입촌하여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김씨(金氏)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월촌은 금정산(琴井山:해발 349m)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을 경계로 마암면 두호마을과 접하고 있는 중산간(中山間)마을로 농경지는 산록에 위치하여 비옥하나 수원이 넉넉하지 못하다.

3월 7일(무술) 비가 내렸다.

3월 8일(기해) 가랑비가 내렸다. 윤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나는 저녁에 김봉휘(金鳳輝) 집에서 묵었다.

3월 9일(경자) 온화했다. 김봉휘 집에서 계속 머물렀다.

3월 10일(신축) 비가 내렸다.

3월 11일(임인) 식후에 비가 그쳤다. 지금 공제(公除)²⁵³를 시행하라고 했다.

3월 12일(계묘) 구름이 끼었다. 갈산에서 묵었다.

3월 13일(갑진) 바람이 불고 흐렸다. 월촌(月村) 사돈댁으로 옮겨 묵었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3월 14일(을사)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15일(병오) 쾌청했다. 조카 이정표(李挺豹)와 통영에 들어갔다.

3월 16일(정미) 서교(西橋)에서 계속 머물렀다.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17일(무신) 서교에서 계속 머물렀다. 저물녘에 개었다.

3월 18일(기유) 서교에서 돌아와 월촌(月村)에서 묵었다.

3월 19일(경술) 갈산에서 숙박했다.

3월 20일(신해)

3월 21일(임자)

3월 22일(계축) 비가 내렸다.

3월 23일(갑인) 바람이 불고 청명했다. 신리(新里)²⁵⁴에서 숙박했다.

3월 24일(을묘) 신리에 계속 머물렀다.

3월 25일(병진) 김창록 집에서 숙박했다.

3월 26일(정사) 이슬비가 내리다가 곧 그쳤다. 월촌(月村)에서 숙박했다.

3월 27일(무오) 가리동 서재에서 가서 묵었다.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28일(기미) 비가 그치지 않아 가리동 서재에 계속 머물렀다.

3월 29일(경신) 가리동 서재에 계속 머물렀다.

3월 30일(신유) 새벽안개가 아침에 흩어지고 날씨가 매우 더웠다. 갈산에서 묵었다.

4월

봄 사이 떨치가 많이 잡혔는데 근고(近古)에 없던 일이다. 1통(桶)의 가격이 전(錢) 3푼에 불과했고, 통영의 경우 2푼뿐이다. 지난 열흘 사이 극히 수확량이 많아 사람들이 모두 잘 먹었다.

4월 1일(임술) 더웠다. 임시거처에서 철수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일(계해) 맑고 온화했다. 지난달 26일에 대왕대비가 승하하셨다는 부고가 오늘 내려오니 애통하고 애통하다.

253) 공제(公除) : 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조의(弔意)를 표하던 일이다.

254) 신리: 경남 고성군 마암면 신리(新里)마을. 신리마을은 고성군 서마면의 지역으로 어은동(漁隱洞)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마암면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양촌과 음촌의 2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거주하는 문중의 입촌 년대를 살펴보면 함안 이씨, 여주이씨, 광산김씨가 1500년대에 입촌하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은 위 성씨 외에 성산이씨, 밀양박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4월 3일(갑자) 맑고 온화했다.

4월 4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5일(병인) 나는 병으로 큰 매형의 소상(小祥)에 갈 수 없었다.

4월 6일(정묘) 시가[市直]가 정조(精租) 5말, 백미(白米) 2말 4되이다.

4월 7일(무진) 대왕대비 국장에 성복(成服)을 하고 망곡(望哭)을 행했다. 조카 윤만흠(尹萬欽)이 소식을 전했는데 울산(蔚山)에서 곡말(穀末 곡식 가루)처럼 먹을 수 있는 흰 흙이 땅에서 솟아나왔다고 하니 괴이하도다.

4월 8일(기사)

4월 9일(경오) 더웠다. 재종 정창윤(丁昌允)과 함께 고연(古延) 표종형(表從兄 의사촌형) 집안에서 점심을 먹고, 저물녘 군포의 이서방 집으로 갔다.

4월 10일(신미)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진주(晋州) 인암(鈕岩)에 죽은 딸아이의 무덤을 가서 보았다. 인암에서 군포까지 거리는 겨우 5리 쯤이다.

4월 11일(임신) 군포에 계속 머물렀다.

4월 12일(계유) 재종 정창윤과 생원 전기룡(田起龍)이 일행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윤서방이 초9일에 왔다.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13일(갑술) 윤서방이 돌아갔다.

4월 14일(을해) 해가 나오고 더웠다.

4월 15일(병자) 쌀보리를 수확했다.

4월 16일(정축)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아관이 8일부터 신음하는 병세가 있었다고 한다.

4월 17일(무인) 저물녘에 비가 개었다.

4월 18일(기묘)

4월 19일(경진) 외가 친척인 하동(河東)에 사는 강명제(姜命齊)가 방문하고서 묵었다.

4월 20일(신사) 비가 그치지 않아 들판에 물이 시끄럽게 흐르니 단비라고 말할 수 있다. 강명제가 비로 인해 계속 머물렀다.

4월 21일(임오) 이슬비가 그치다가 내리곤 했다. 흐릿하게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 손님이 떠났다. 아관의 병에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4월 22일(계미) 비가 내렸다.

4월 23일(갑신) 비가 내려 들판에 물이 넘쳐 흘렀다.

4월 24일(을유) 맑고 온화했다. 이양을 끝마쳤다.

4월 25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6일(정해) 동풍이 불고 찬 비가 떨어졌다.

4월 27일(무자)

4월 28일(기축)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4월 29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지금 남초(南草) 가운데 좋은 품질은 1파(把)에 가격이 전(錢) 3,4전(錢)이다.

5월

5월 1일(신묘) 읍에 들어갔다. 오후에 우리가 북쪽에서 치고 비가 몰려와 퍼붓듯이 내리더니 잠시 후에 구름이 걷혔다. 저녁이 되자 맑게 개기를 기다려 길이 말라 나가 니교(泥橋)에 이르렀다. 또 북쪽 하늘에 검은 구름을 보니 비를 몰고 왔다. 집으로 막 돌아왔을 때 우리와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그쳤다. 시가[市直]가 백미 2말 5되인데 말과 되가 매우 적었다. 곁 보리[皮牟]가 더러 나왔는데 1말의 가격이 1전(錢) 혹은 8푼이라고 한다.

5월 2일(임진)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5월 3일(계사) 우레가 치고 비가 갑자기 지나갔다.

5월 4일(갑오) 산에 이슬비가 내렸다. 윤정득(尹丁得)이 방문했다.

5월 5일(을미) 동풍이 불고 맑고 더웠다. 윤생(尹生 윤정득)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5월 6일(병신) 어제와 같았다.

5월 7일(정유) 갑자기 구름이 끼었다가 곧바로 걷혔다.

5월 8일(무술) 어제와 같았다.

5월 9일(기해)

5월 10일(경자) 이상 날씨가 비가 내릴 듯하다가 오지 않았다.

5월 11일(신축) 구름이 날리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5월 12일(임인) 어제와 같았다.

5월 13일(계묘) 아관(阿觀)이 문안을 왔다.

5월 14일(갑진) 산에 비올 기색이 있었으나 곧바로 걷히고 해가 떠올랐다.

5월 15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거제(巨濟) 둔덕리(屯德里)에 사는 이상백(李翔白)이 방문했다.

5월 16일(병오) 이상백이 여종 춘단(春丹)의 남편이 되었다.

5월 17일(정미) 밤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

5월 18일(무신) 비가 내렸다.

5월 19일(기유) 가랑비가 이따금 지나갔다.

5월 20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1일(신해) 아관(阿觀)이 돌아갔다. 시가[市直]가 곁보리[皮牟] 7말이다.

5월 22일(임자) 매우 더웠다.

5월 23일(계축) 산에 낀 구름이 질게 드리우더니 가랑비가 갑자기 지나갔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김세백(金世白)의 부친 초기(初基)를 맞아 입재(入齋)하는 것을 가서 보았다. 이날 때로 비가 내렸는데 가늘게 내렸다.

5월 24일(갑인) 바람과 구름에 소낙비를 내릴 듯했기 때문에 군포(君浦) 셋째 딸아이의 초기(初基)를 맞아 오늘 입재(入齋)하는데 아이들이 출발하려고 하다가 도로 중지하였다. 이날 날씨는 종일 구름이 내달리고 가랑비가 때때로 내렸으며 이따금 구름 사이로 뜨거운 해가 내리쬐었다.

5월 25일(을묘)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또다시 아관이 문안 인사를 왔다.

5월 26일(병진) 밤에 이슬비가 흙먼지를 적셨다.

5월 27일(정사) 혹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했다.

5월 28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9일(기미) 밤에 비가 내려 땅속 물줄기가 통했다.

5월 30일(경신) 빗줄기가 많이 내려 넷물이 소리를 내며 흘렀다. 나의 목은 병이 근래 들어 특히 심해져 월전(月前)부터 지금까지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고 복통이 더욱 심해졌는데 이증(痢症)이 그치지 않아 한 끼에 먹는 것이라곤 겨우 한두 흡[合]에 불과한데도 오히려 목매이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단지 원미(元味)²⁵⁵와 묽은 죽[稀粥]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으

니, 이러한 고통스런 실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6월

6월 1일(신유) 서남풍이 불고 새벽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종일 보슬보슬 내렸다.

6월 2일(임술)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6월 3일(계해)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했는데 들판에 물이 어지럽게 흘렀다.

6월 4일(갑자) 비가 가끔 주룩주룩 내렸다.

6월 5일(을축)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6일(병인)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했다. 시가[市直]가 쌀 3말이다.

6월 7일(정묘) 더웠다.

6월 8일(무진) 아침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6월 9일(기사) 비가 보슬보슬 그치다가 내리곤 하였다.

6월 10일(경오) 구름이 걷히고 매우 더웠다.

6월 11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오래도록 견딜 수 없던 복통이 올여름에 특히 심해져 문 밖 출입 왕래를 전혀 하지 못했다. 4월 그믐 사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날마다 걸었던 걸음이 단지 문 안팎 뜰 사이뿐이었다. 남아(男兒)가 천지 사방(四方)을 경영할 포부²⁵⁶를 장차 어떻게 행하겠는가. 멍하니 앉아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6월 12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3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4일(갑술) 아관(阿觀)이 문안하려고 왔다. 이날 밤에 북쪽 하늘에 천둥번개가 쳤다.

6월 15일(을해) 저물녘에 잠시 비올 기색을 띠었다.

6월 16일(병자) 달티[月峙] 논 8두락지를 통영 사람에게 팔아 빚을 갚고, 받았던 전(錢) 40냥 중 8냥으로 정창윤(丁昌允)의 도산(道山) 상(想) 자(字)²⁵⁷ 논 2두락지를 매입했다. 15냥으로 정시열(丁時說) 동원(同員) 동(同) 자(字) 논 3두락지를 매입했다. 밤에 비가 내렸다.

6월 17일(정축) 아관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밤에 비가 흠뻑지를 적셨다. 본관 사또 민후(閔侯)는 근무평가가 좋지 못해 파직되었는데 근무평가에 “억측으로 보고하여 사체(事體)가 놀라우니 번번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臆報駭體 不宜輒恕]”라고 하였다.

6월 18일(무인) 들판에 쓰러진 손상된 벼가 있었다.

6월 19일(기묘) 갈산에 사는 벗 최석경(崔錫慶) 집에서 묵었다.

6월 20일(경진) 집으로 돌아왔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6월 21일(신사)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6월 22일(임오) 더러 비가 내리기도 해가 나기도 했다.

6월 23일(계미) 새벽에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그치고, 저물녘 하늘이 드넓고 맑았다.

6월 24일(갑신) 아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6월 25일(을유) 아관이 돌아갔다. 빗방울이 갑자기 내렸다.

255) 원미(元味) : 쌀죽으로 여름에 차게 하여 먹는 음식이다.

256) 남아(男兒)가 천지 사방(四方)을 경영할 포부 : 《예기(禮記)》에, “국군(國君)의 세자(世子)가 나면, 사인(射人)이 뿔나무 활에 쏘대 실[桑弧蓬矢] 여섯 개로써 천지 사방을 쏜다.” 하였고, 그 주에 “천지 사방은 남자가 일할 곳인 때문이다.” 하였다.

257) 상(想) 자(字) : 양전(量田 토지 측량)할 때 전답의 구분을 천자문의 글자 순번을 매겼다.

6월 26일(병술) 매우 더웠다. 신미(新米) 시가[市直]가 3말 몇 되정도이다.
6월 27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8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9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서방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6월 30일(경인) 근일 동풍이 연일 불었다. 윤서방이 사내종과 말을 돌려보냈다. 충청도 단양(丹陽)과 회인(懷仁)의 두 읍이 백성과 물력이 다 흩어지고 토지가 하나같이 텅 비게 되어 조정에서 안집사(安集使)를 특별하게 파견하여 각 도(道)에 행이(行移 공문을 보냄)하고, 도에서는 각 읍에 관문(關文)을 보내 두 읍의 유민들을 추환(推還)하게 했다.

7월

7월 1일(신묘) 동풍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7월 2일(임진)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금방 그쳤으나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7월 3일(계사)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다녔다.
7월 4일(갑오) 비가 주룩주룩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가끔 해가 나와서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5일(을미) 비바람이 일어났다.
7월 6일(병신) 종일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렸다.
7월 7일(정유) 윤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올벼 수확을 시작하였다.
7월 8일(무술)

7월 9일(기해) 동풍이 불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7월 10일(경자)

7월 11일(신축)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오늘은 맑았다.
7월 12일(임인) 새벽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7월 13일(계묘)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7월 14일(갑진)

7월 15일(을사)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6일(병오) 새벽에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습한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닭이 처음 울 때 아들 말대(末大)가 태어났다.
7월 17일(정미)

7월 18일(무신) 구름이 흩어졌다.
7월 19일(기유)

7월 20일(경술) 이상 날씨가 맑으면서 더웠다.
7월 21일(신해)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으로 갔다.
7월 22일(임자)

7월 23일(계축) 갑자기 비가 내렸다.
7월 24일(갑인) 종일 구름이 끼고 더러 비가 내렸다.
7월 25일(을묘) 아승이 돌아왔다.
7월 26일(병진) 비가 내렸다.
7월 27일(정사) 구름이 흩어졌다.
7월 28일(무오)

7월 29일(기미) 구름이 올라왔다. 아관이 문안 인사 왔다.

8월

8월 1일(경신) 서남풍이 불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아관이 돌아갔다. 시가[市直]가 쌀 3말 8되, 증미(蒸米) 4말 남짓이다.

8월 2일(신유) 아침비가 습하게 내리더니 식후에 개었다. 목화를 보기 위해 아승(阿升)이 정재장(丁再章)과 함께 군북(軍北) 시장에 갔다.

8월 3일(임술) 맑고 더웠다.

8월 4일(계해) 아승이 돌아와서 목화의 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하니, 비바람으로 인해 손실되었기 때문이다.

8월 5일(갑자) 해가 내리찍었다.

8월 6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백미 4말 반, 중도(中稻) 15,6말이다. 수조(水操 수군훈련) 기간이다.

8월 7일(병인) 북풍이 불고 청량했다.

8월 8일(정묘) 맑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왔다.

8월 9일(무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날 형제들이 정아(鼎阿)와 조카 조(朝) 및 매형 여섭(汝涉)과 정하중(丁夏中), 이진태(李進太) 형제와 함께 차[茶]를 가지고 벽방산(碧芳山) 상봉(上峰)에 올라 통영 수군훈련을 구경하고 저녁에 내려왔다.

8월 10일(기사) 새벽에 비가 내렸다. 아승이 통영에 들어갔다.

8월 11일(경오) 해가 나왔다.

8월 12일(신미)

8월 13일(임신)

8월 14일(계유) 가랑비가 내렸다.

8월 15일(갑술) 북풍이 불었다.

8월 16일(을해) 시가[市直]가 목화 5근 혹은 6근이다.

8월 17일(병자)

8월 18일(정축)

8월 19일(무인)

8월 20일(기묘) 서북풍이 옷깃을 펴려겨려 개들이 내달렸다.

8월 21일(경진) 온화했다.

8월 22일(신사) 구름이 얇게 끼었다. 죽은 딸아이의 관구(棺具)를 만들었다. 선비(先妣)의 초기(初基)를 맞아 입재(入齋)하였다. 다미(茶米) 5말, 조청미(造淸米) 6되, 소맥아(小麥芽) 2도(刀), 백당미(白糖米) 1말, 대맥아(大麥芽) 2도(刀), 병점미(餅粘米) 4말, 백미 4말.

제전(祭奠)은 두포(頭浦) 매형, 갈산(葛山) 매형, 이진태(李震泰) 형제, 강세평(姜世平), 배악(裴岳), 김세백(金世白), 김세태(金世泰), 김세홍(金世弘), 김흥삼(金興三), 정하명(丁夏明), 정재장(丁再長), 강수용(姜守用)이다.

부의(賻儀)

좌수 허염(許廉) 소수어(小水魚) 12미(尾)。

김수천(金守千) 백미(白米) 1말.

이용재(李用才) 백미 1말.

이방열(李房悅) 백미 1말.
 김창복(金昌復) 백미 1말, 건어(乾魚) 1숙(束).
 조카 유문경(柳文經) 백미 1말 반.
 큰 유매형 백미 1말.
 차진억(車鎭億) 홍합(紅蛤) 2도(刀) 피문어(皮文魚) 5미(尾), 건해삼(乾海參) 3곳(申), 생복(生卜) 8개, 유자(柚子) 5개.
 최최수(崔最守) 짐조(粘租) 1말.
 김유성(金有聲) 조(租) 1말.
 김여태(金汝太) 조(租) 1말.
 김성추(金成秋) 조(租) 1말.
 갈곡(葛谷) 생이(生梨) 4개.
 최희징(崔希徵) 전(錢) 1전(錢).
 생원 안수(安秀) 생계(生鷄) 1수(首).
 족장 유천정(柳天禎) 계(鷄) 1수(首).
 윤서방 생계(生鷄) 1수(首), 대소(大召) 2도(刀).
 황생원(黃生員) 계(鷄) 1수(首).
 정만송(鄭萬松) 생복(生卜) 9개.
 조카 윤만침(尹萬瞻) 생어(生魚) 8미(尾).
 구도옥(仇道郁) 건어(乾魚) 1숙(束), 명태(明太) 1숙(束).
 백내청(白乃淸) 명태(明太) 9미(尾).
 박이엽(朴以燁) 백문어(白文魚) 1미(尾), 명태(明太) 1숙(束).
 최성원(崔成元) 조(租) 1말, 생시(生柿) 19개.

8월 23일(임오) 제사를 지낼 때 새벽달이 서늘하더니 식후에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아관이 돌아갔다.

8월 24일(계미) 이서방이 돌아갔다.

8월 25일(갑신) 청량했다. 조카 이정규(李挺奎) 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벽병산의 동쪽에 가서 보고, 이어 안정사에 갔다가 돌아왔다.

8월 26일(을유) 시가가 쌀 5말이다.

8월 27일(병술) 형제들이 매형 이어섭과 함께 곡산(曲山)의 상주(喪主) 최운회(崔運會)에게 가서 조문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8월 28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29일(무자) 충청도 서천(舒川) 사람 구희태(仇喜泰)가 방문했다.

8월 30일(기축)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가 저물녘에 걷히고, 서남풍이 불어 왔다. 용정(龍亭)²⁵⁸에 사는 허 도유사(許都有司) 영전에 조문하고 돌아왔다. 손님이 떠났다.

9월

258) 용정: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용정리는 본래 고성군 포도면에 있었던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가룡포(駕龍浦)와 매정(梅亭)을 병합하여 용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리로 매정(梅亭)과 가룡(駕龍)의 2개 마을이 있다.

9월 1일(경인) 맑고 온화하며 동풍이 불었다. 윤서방이 왔다.
 9월 2일(신묘) 구름이 끼었다.
 9월 3일(임진) 윤서방이 돌아갔다.
 9월 4일(계사) 따뜻하였다.
 9월 5일(갑오) 서교(西橋)의 며느리가 문안인사 왔다.
 9월 6일(을미) 이상의 날씨는 따뜻했다.
 9월 7일(병신) 북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밤에 눈비가 소리를 내며 내렸다. 아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9월 8일(정유) 남촌진(南村鎭)에 가서 진장(鎭將)에게 가마를 빌려 왔다.
 9월 9일(무술)
 9월 10일(기해) 이상 맑고 온화하였다.
 9월 11일(경자) 신임 순찰사 조운규(趙雲逵)가 오늘 순영에 부임한다고 했다.
 9월 12일(신축)
 9월 13일(임인) 이상 날씨가 따뜻했다. 아관(阿觀)이 돌아갔다.
 9월 14일(계묘) 아관이 왔다.
 9월 15일(갑진)
 9월 16일(을사) 이상 날씨가 따뜻했다.
 9월 17일(병오) 동남풍이 불었다. 봉전(鳳田)의 딸아이가 친정에 오는 데 아관(阿觀)이 후행(後行)이 되었다.
 9월 18일(정미) 따뜻했다. 봉전의 딸아이가 무사히 돌아갔다.
 9월 19일(무신) 맑고 온화했다.
 9월 20일(기유)
 9월 21일(경술) 날씨는 어제와 같았다. 아관 부부가 돌아갔다.
 9월 22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3일(임자) 재해(災害) 조사를 맡은 도사(都事)가 진해에서 와서 본현에 도착했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9월 24일(계축) 도사(都事)가 사천으로 갔다. 밤에 멀리서 우리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9월 25일(갑인)
 9월 26일(을묘) 이상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 향교에 가서 유숙하였다.
 9월 27일(병진)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9월 28일(정사) 온화했다. 본 향교는 병오년에 이진(移建)한 후로 길조(吉兆)라곤 조금도 없었고, 바람이 들이치고 빗물이 새서 보수 공사가 잇따랐기 때문에, 온 고을의 사림(士林)들이 다시 옮기자고 의논한 지 오래 되었다. 나라에 금법(禁法)이 있어서 경솔히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수령이 다행스럽게도 완강히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조도감(成造都監)에 이한흥(李翰興), 이학중(李學宗)을 후보자로 추천해서 바야흐로 큰일을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구만(九萬)에 우거(寓居)하는 지사(地師) 이양진(李陽鎭)을 청하여 송수동(松樹洞)²⁵⁹ 수문(水門) 밖 사창(司倉) 뒤쪽을 두루 살피도록 하였더니, 지사가 수문 밖이 조금 낫다고 하였다.

259) 송수동: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었던 마을로 고려시대 문하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이 태어난 곳. 서문 밖 위쪽에 있는 마을을 웃땀(또는 섬땀),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아래땀(송수, 또는 송계동)이라 불렀는데 이곳에 송수정(松樹井)이라는 우물이 있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고 맛이 좋기도 유명했다.

9월 29일(무오) 또 두 도감(都監)과 재임(齎任), 지사(地師)와 함께 걸어서 옛 향교 터에 이르러 형세를 자세히 살피니, 읍저(邑底)에서 이른바 운운한 땅은 모두 감히 이와 비견할 곳이 아니었다.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9월 30일(기미) 온화했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영(統營)에 청원서를 올리려고 내가 초고를 작성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삼가 아뢰옵니다. 성문(聖門)²⁶⁰을 위호(衛護)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의 뉘뉘한 마음이고, 은혜로운 정사를 펴시는 수령께 달려가는 것은 위급함을 호소하는 의례적인 태도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일이 생겼기에 처벌과 책망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함하(閤下)께 원하오니 조금이나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본 향교 터는 바다 기운과 가까워 침범하고 물이 새는 근심이 있어서 비가 오면 보수하는 공사를 면키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공사가 일상이 되었으니 여러 차례 경비를 쏟은 나머지 이미 탕진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중건하는 큰 일이 또 이번 겨울에 있기에 향축(香祝)이 내려오는 것을 아침저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工人)과 장인(匠人)을 불러 모아 지금 막 시작하였는데, 당실(堂室)과 문, 담장을 한꺼번에 고치려면 온갖 경비가 천 꿩미[千緡]를 밑 돌지 않아 거의 연목구어(緣木求魚)²⁶¹나 바다를 메우려는 큰 물고기²⁶²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온 고을의 선비들이 모여 돌아다니면서 각각 공사(公私)의 문을 두드리며 작은 도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비와 목재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 이러한 사정이 얼마나 황송하고 두렵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저 병오년(1726, 영조2)에 이겼을 때, 당시 통제사로부터 전례를 따른 도움과 이자 없이 넉넉하게 빌려주는 은혜를 입어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는 다행을 볼 수 있었으니, 성인을 존중하고 선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런 거친 말을 감히 계극(檠戟)²⁶³의 아래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조정으로 돌아갈 기일이 임박해서 길을 막고 올리는 호소가 번거롭고 외람되며, 갓끈을 당겨 매고 옷깃을 정돈하는 공손한 모습으론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때에 행하기 어려운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엮드려 함하(閤下)께 원하오니 특별히 헤아리고 깊이 유념하시어 창전(倉錢)을 넉넉히 빌려주심으로써 아홉 길의 산을 만들다가 한 삼태기 흙을 보태어 완성하는 공²⁶⁴을 이루어 만백성의 구비(口碑)를 새긴다면 향교에 매우 다행이고 사림에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이후로 지금까지 날이 가물었는데 오늘 아침에 비

260) 성문(聖門) : 원래 성인(聖人)의 문하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향교를 가리킨다.

261)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엉뚱한 수단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孟子 梁惠王上》

262) 바다를 메우려는 큰 물고기 : 옛날 염제(炎帝)의 딸이 동해(東海)에 빠져 죽어 그 원혼이 정위(精衛)라는 새가 되었는데, 늘 서산(西山)의 목석(木石)을 물어다가 바다에 넣어 동해를 몽땅 메우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太平御覽 羽族部 精衛》

263) 계극(檠戟) : 검은 비단으로 싸거나 검은 칠을 한 목극(木戟)을 말한다. 옛날 중국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에는 목극을 든 자를 앞에 세웠다고 한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좋은 명망을 지닌 도독 염공은 계극을 앞세우고 멀리서 부임해 왔고, 훌륭한 의범을 갖춘 새로운 태수 우문은 휘장 친 수레를 잠시 멈추었다.[都督閔公之雅望 檠戟遙臨 宇文新州之懿範 輜帷暫駐]”라고 하였다.

264) 아홉 길의 산을 만들다가 한 삼태기 흙을 보태어 완성하는 공 : 《서경》 〈여오(旅獒)〉에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큰 덕에 끝내 누를 끼칠 것이니, 이는 마치 아홉 길 산을 만들 적에 한 삼태기의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다.[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一簣]”라는 말이 나온다.

가 몇 방울 떨어지다 그쳤다.

10월

10월 1일(경신) 북풍이 불었다.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쌀 6말, 조(租) 16말이다.

10월 2일(신유) 맑고 온화했다. 장차 초6일에 죽은 딸아이를 대동(垔洞)에 장사지내기 위해 오늘 오시(午時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 묘역을 봤다.

10월 3일(임술)

10월 4일(계해)

10월 5일(갑자) 이상 날씨가 온화했다. 유시(酉時 오후 5시부터 7 시까지)에 빈소를 철거했다.

10월 6일(을축) 날씨가 봄날처럼 온화했다. 축시(丑時 오전 1시부터 3시까지)에 발인하고 묘시(卯時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에 하관했는데 임좌병향(壬坐丙向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함)의 땅이었다.

10월 7일(병인) 송정(松亭)에 사는 상인(喪人) 허길(許估)의 개토제(開土祭)를 가서 보고 돌아왔다.

10월 8일(정묘) 춥지 않았다. 형제와 부자(父子)가 매형 이여섭 및 조카 정명열(丁命說), 생원 안수(安秀)와 함께 곡산(曲山)에서 최운회(崔運會)의 어머니 무덤을 파는 데 가서 보고 돌아왔다.

10월 9일(무진) 향교에 가서 향교를 옮겨 짓는 일에 대해 묻고 돌아왔다.

10월 10일(기사) 밤에 비가 흠뻑이지만 적시고는 곧바로 그쳤다.

10월 11일(경오) 아관이 문안 인사를 왔다.

10월 12일(신미) 근래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

10월 13일(임신) 구름이 떠다니고 날씨가 따뜻했다. 아관이 돌아갔다. 나는 송정(松亭)에 사는 허 상인(許喪人)의 우사(虞事)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다.

10월 14일(계유) 구름이 떠다니고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 민장(民狀) 초고를 작성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호소하는 것은 누구든 똑같은性情입니다. 저희들은 남모르는 원통함²⁶⁵을 참을 수 없어 감히 밝게 살피시는²⁶⁶ 사또께 감히 아웁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급이나마 살펴주소서.

대저 본현의 산수(山水)의 형세와 토질은 순행하여 살피실 때에 통촉하셨을 터이니, 저희들의 거친 말에서 굳이 취할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방 백 리(里) 내에 오직 성(城) 아래 한 구역에서 하늘의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곤 겨우 7·8리의 들판입니다. 그 나머지 지세는 좁은 골짜기 사이에는 금송(禁松)이 우거져 응달지고, 깊은 바다의 해안에는 성난 파도가 항상 넘실거리니 이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재해를 이곳만 당하니 당초 손에 침 뱉으며 일을 시작하려고 나왔던 자도 곧장 머리 저으며 가버립니다. 이 때문에 풍년이 든 해에도 으레 목어 버려둔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올해년

265) 남모르는 원통함 : 원문의 ‘대분(戴盆)’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항아리 속에 있다는 말로, 실상이 밝혀지지 않은 한스러움을 뜻하는 말이다.

266) 밝게 살피시는 : 원문의 ‘현경(懸鏡)’은 높은 곳에 거울을 걸어 놓으면 사물이 다 비춰지는 것처럼 사리(事理)를 밝게 살핌을 말한다.

(1755, 영조31)과 병자년(1756, 영조32)에 이미 많은 수가 이곳을 떠나 흩어졌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이로 미루어보건대 금년에 이양하지 못한 논이 응당 절반 이상을 채웠을 텐데, 다행히 넉넉히 구휼해주는 조정의 은전과 보태 구제해주는 수령의 은택을 입어 힘내서 경작하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파종하였는데, 큰 흉년을 당한 나머지 백성들의 곤궁함이 막심합니다. 더러는 처음 논을 갈다가 그만 두었고 혹은 중간에 그만 둔 곳이 연이어 농토의 경계가 맞닿아 있어 바둑판을 수놓은 것 같습니다. 관아에서는 먼저 범망을 의심하고 아전은 엄한 명령에 겁을 먹어서, 10부(負)의 땅에 혹 파속(把束)²⁶⁷의 종자라도 있으면 이양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 한꺼번에 환실(還實)²⁶⁸이 되었습니다. 오래 황폐하여 애당초 경작하지 않은 곳만 대충대충 초재(抄災)하여 근근이 책임을 둘러댔으니, 곳곳의 농민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모여 울고 있습니다.

또 듣자니 본현(本縣)에 이양하지 못하여 전부 재해를 입은 곳을 깎고 또 깎아서 마감(磨勘)한 숫자가 20여 결(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애처롭도다. 우리 한 지방의 백성이여, 천리 밖에 치우쳐 있으면서 참혹한 전염병과 거듭된 기근으로 열 집 중에 아홉 집이 텅 빈 나머지, 고을에는 지금 경작과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당연한 재결(災結)²⁶⁹을 강제로 징세(徵稅)하는 데야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모여 돌아다녀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부득이 만 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울며 호소하옵니다. 다시 삼가 인을 고루 펼치시고 재해를 상세히 살피시는 사또께 바라노니, 특별히 가련하게 여겨 주신 후에 이양하지 못한 재결을 실재대로 변통해주시어 먼 바닷가의 이 궁핍한 백성이 백징(白徵)²⁷⁰의 지극한 원통함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처분해 주소서.

이는 성주(星州) 도회소(都會所)²⁷¹의 도사(都事)에게 올리는 것이다.

이날 저녁에 구름이 짙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어두워지자 비가 퍼붓듯이 내리고 번개가 대낮처럼 밝았다. 밤이 깊어진 후에 비가 그쳤다.

10월 15일(갑술) 구름이 떠다니고 빗방울이 떨어졌으며 종일 서풍이 불었다.

10월 16일(을해) 시가[市直]가 쌀 6말, 조(租) 16말인데 말[斗]이 매우 크다고 한다.

10월 17일(병자) 관대(冠帶)를 갖추고 갈산에서 제회(祭會)하고 돌아왔다. 밤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10월 18일(정축) 구름이 끼고 찬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10월 19일(무인)

10월 20일(기묘) 따뜻했다.

10월 21일(경진) 청원서에 대한 도사(都事)의 처분[題辭]에 “하소연한 내용이 비록 이와 같으나 사목(事目)에 재결(災結) 명목이 없으니 상고하여 시행하라”고 했다.

10월 22일(신사) 따듯하다가 저물녘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김응정(金應鼎)이 다시 와서 공부하였다.

267) 파속(把束) : 전답의 결세(結稅) 단위인 줍[把]과 못[束].

268) 환실(還實) : 재해를 입지 않은 실수(實收)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269) 재결(災結) : 재해(災害)를 입은 전결(田結)이다.

270) 백징(白徵) : 조세를 면제한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이다.

271) 도회소(都會所) : 공도회(公都會)를 여는 곳을 말한다. 공도회는 각도(各道)의 감사(監司) 및 개성(開城)·강화(江華)의 유수(留守) 등이 관내의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과(小科) 초시(初試)를 말한다.

10월 23일(임오) 구름이 걷히고 따뜻했다.
10월 24일(계미) 아침 안개가 사방을 가득하니, 기후가 절기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다.
10월 25일(갑신) 비바람이 불고 저녁이 되자 남쪽 하늘에 천둥번개가 쳤다.
10월 26일(을유)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10월 27일(병술)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10월 28일(정해) 하늘은 맑았으나 북풍이 불고 땅에 얇은 얼음이 얼었다.
10월 29일(무자)

11월

11월 1일(기축) 북풍이 불고 이슬비가 갑자기 지나갔다. 아승(阿升)이 봉전에 갔다.
11월 2일(경인)
11월 3일(신묘) 찬 눈이 갑자기 날렸다.
11월 4일(임진)
11월 5일(계사) 이상 날씨가 추웠다.
11월 6일(갑오) 장암(莊庵)에서 두부를 먹었다. 아승이 윤서방과 함께 왔다.
11월 7일(을미) 빗물이 흥건하게 내리고 남쪽 하늘에 천둥번개가 쳤다.
11월 8일(병신)
11월 9일(정유) 이상 날씨가 조금 추웠다.
11월 10일(무술) 윤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1월 11일(기해) 군포(君浦)의 이서방이 왔다. 시가[市直]가 추미(麴米) 7말, 조(租) 17말인데, 평두(平斗)²⁷²로는 전석(全石)²⁷³ 아래라고 한다.
11월 12일(경자) 이서방이 돌아갔다. 신임 통제사 구혁(具玉+奕) 공이 본현에 도착했다.
11월 13일(신축) 온화했다. 전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들 말과 가마를 빙 둘러싸고 매달리면서 석별의 아쉬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통제사 이경철(李慶喆) 공은 덕이 있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도 읍에 들어가 풍모를 바라보고 돌아왔다.
11월 14일(임인) 저물녘에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11월 15일(계묘) 하늘이 맑았다.
11월 16일(갑진) 북풍이 불었다.
11월 17일(을사)
11월 18일(병오) 구름이 얇게 끼었다.
11월 19일(정미) 저물녘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11월 20일(무신) 성묘(聖廟)의 중건을 위한 향축(香祝)이 내려왔다.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11월 21일(기유) 북풍이 불었다. 아관이 돌아갔다.
11월 22일(경술) 향교에 들어가 향교를 이건(移建)하는 일을 의논했는데 닭이 운 이후에야 취침하였다.
11월 23일(신해) 어제와 같이 춥지 않았다.
향교를 옮겨 짓기 위해 내일 이안제(移安祭)를 하고 모래 건물을 부수며, 다음 달 3일에 초석(礎石)을 놓고 6일에는 기둥을 세우고 12일에 들보를 올리고 길일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272) 평두(平斗) : 곡식을 될 때에 평미레로 밀어서 된 말[斗]이다.

273) 전석(全石) : 스무 말(斗)을 전석(全石) 또는 대곡(大斛)이라 하였다.

내용으로 어제 밤에 이미 발매(發牌)하여 공인과 장인을 소집했다. 오늘 도감(都監)과 재임(齎任)이 관아에 들어갔는데 사또가 향인(鄕人) 중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도색(都色) 박시복(朴時復)이 고발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즉시 박시복을 불러다 물었더니 박시복은 호장(戶長) 박중환(朴重煥)에게 둘러댔고, 박중환은 백봉래(白鳳來)에게 둘러댔으며, 백봉래는 처음부터 숨졌기 때문에 관에서 기어이 실정을 캐내려고 하니 마침내 사실대로 말하면서 지난 향원(鄕員) 허후(許垆)를 운운하였다. 관에서 마침내 발매하여 허후를 붙잡아 들였고, 백봉래와 박시복 등은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다. 향교를 옮겨 짓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다.

11월 24일(임자) 약간 흐렸다. 배상련(裴尙練)이 와서 공부하였다.

11월 25일(계축) 비가 갑자기 흥건하게 내렸다. 들으니, 어제 허후(許垆)가 관아에 가서 말을 잘해서 수감되었던 사람이 다 풀려났다고 한다.

11월 26일(갑인) 눈이 산머리를 가득했다.

11월 27일(을묘) 눈과 비가 섞여 내렸다.

11월 28일(병진) 저물녘에 개었다. 전임 사또 민원(閔源)이 관아를 떠나서 저녁에 감치(甘峙)를 넘었다.

11월 29일(정사) 추웠다. 들으니, 어제 저녁 전임 사또 민원이 관아를 떠나 감치를 넘으면서 별감과 이방(吏房) 등을 결박하고 하인들을 마구 구타했다고 한다.

11월 30일(무오) 비가 흥건하게 내리고 밤새 그치지 않았다.

12월[臘月]

12월 1일(기미)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쳤다.

12월 2일(경신) 눈꽃이 어지럽게 날렸으나 땅에 떨어지는 대로 녹았다. 신임 사또 문관 임의중(任毅中)이 상관(上官)하였는데 이 때 나이가 63세였다.

12월 3일(신유) 북풍이 불어왔다.

12월 4일(임술)

12월 5일(계해)

12월 6일(갑자) 눈이 어지럽게 날려 몇 척이나 쌓여 행인(行人)의 정강이가 빠질 정도였다.

12월 7일(을축) 눈이 온누리에 가득하여 옥세계(玉世界)가 되었다.

12월 8일(병인)

12월 9일(정묘)

12월 10일(무진) 맑았지만 추웠다. 처마 낙숫물이 매달린 구슬과 같았다.

12월 11일(기사) 잠시 따듯했다. 시가[市直]가 쌀 5말 반, 조(租)13말, 추미(麤米 麤租) 14,5말 이라고 한다.

12월 12일(경오) 통제사의 정사는 백성들의 실정을 아랑곳하지 않아 번복했던 갑술년 환곡을 한결같이 을병(乙丙) 을과 병이 들어간 간지 해)의 사례로 전반으로 엄히 독촉하니 백성들의 원망이 무척 높았다.

12월 13일(신미) 서풍이 구름을 불어 왔다.

12월 14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신임 사또는 정무를 담당하면서 혼탁하여 서리들을 단속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인정(隣徵)과 족징(族徵)을 보고한 그대로 들어주었다. 지금 별차(別差)가 뒤쫓아 사방에서 소리치니 민간의 소요가 끝이 없을 정도이다.

12월 15일(계유) 북풍이 불고 혹독하게 추웠다.

12월 16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이 문안인사 왔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2말이다.

12월 17일(을해)

12월 18일(병자)

12월 19일(정축)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조카 이정규(李挺奎)가 새 장가를 들었다.

12월 20일(무인) 추웠다.

12월 21일(기묘) 온화하였다. 그저께 좌수(座首)와 이방(吏房)의 경우, 통영에서 상사(上使)로 관문(關文)을 보냈는데 이번 25일까지 환곡을 다 받아 납부하라는 취지로 납초(納招)하니 즉시 풀어주고 기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독촉했다. 어제 군뢰(軍牢) 2인을 보내 좌수와 이방 정처(正妻)를 쫓아 붙잡아갔는데 좌수(座首) 이명진(李命震)의 12살 아들을 군뢰(軍牢)가 움켜쥐어서 가니, 무척이나 애처롭다. 읍의 일이 탄식스럽고 시사(時事)를 알 수 있도다. 아관이 돌아갔다.

12월 22일(경진)

12월 23일(신사)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는데 눈이 거의 다 녹았다.

12월 24일(임오) 환곡에 관한 파견된 별차(別差)가 쫓아 소리쳐 부르니 또한 한 차례 혼란이었다.

12월 25일(계미)

12월 26일(갑신) 새벽에 북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는데 아침에 동풍이 불어 눈이 날렸다. 식후에 서풍이 갑자기 불어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와서 따뜻했다. 시가[市直]가 또 올랐는데 정조(正租) 14말, 천상도(天上稻) 16말이라고 한다.

12월 27일(을유) 큰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12월 28일(병술) 따뜻했다.

12월 29일(정해) 그믐. 온화했다. 금년 농사는 모든 곡식이 풍년이었는데, 들깨[水荏]만 도리어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다. 6·7월 사이에 보리의 궁핍이 특히 심했고, 지금 시가는 7·8말에 지나지 않는다. 목화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장맛비에 손해를 입어 6·7근(斤)에 지나지 않는다. 필목(疋木)은 시가가 전(錢)으로 거의 3냥에 이른다. 대구어(大口魚)는 잠깐 나왔는데 16·17마리 정도에 이르다가 또 나오지 않았다. 청어(靑魚)는 지금 시가가 1속(束)에 전(錢) 6·7푼이다. 소금 10말의 시가는 전(錢) 6·7전(錢)이다.

금주령이 여전히 매우 엄격한데 세시(歲時)를 앞두고 성상의 하교가 거듭 내렸다. 민간에 질병이 없고 기아가 없어 태평시절이라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세시(歲時)에 술이 없어 주인과 손님이 수작하는 예가 없으니 어떤 사람들은 흠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를 잃은 자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 자도 없으니 이것도 성상의 은혜이다.

성묘(聖廟) 중수를 마치고 오늘 환안(還安)²⁷⁴하였다.

사또 임의중(任毅中)은 한갓 착하기만 했고, 좌수(座首) 이명진(李命震)은 영성하고 서툴렀으며, 순상(巡相) 조운규(趙雲逵) 공은 정사가 공평하였고, 통제사 오혁(吳王+奕) 공은 오로지 독촉하고 성급한 정사를 하였다. 본현의 좌수와 이방(吏房) 차지(次知 담당자)는 설날 아침에도 풀어주지 않았다.

집에 저장된 것은 조(租)가 30섬, 쌀이 여섯 항아리, 콩과 팥[豆太]이 각각 2섬이다. 밖에 있는 것은 조 5섬, 메밀[木麥] 한 섬 남짓이며, 곳간[困倉]에 3마지기의 벼가 있다.

지난 10월 25일에 명정전(明政殿) 어좌(御坐)에서 전교(傳教)로 내린 금주령을 서판(書板)에

274) 환안(還安) : 다른 곳으로 옮겨진 신주를 도로 제자리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내는 제사가 환안제(還安祭)이다.

언문으로 써서 설날 아침에 각 고을의 관문(官門) 앞에 내걸도록 했는데 15일에 왔다고 한다. 교지 내용에 백성이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은 이는 나의 허물이니, 두세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고, 또 나라의 흥망이 이번 거사에 달려 있고, 나라와 함께 망한다는 등의 말이 있어 나도 모르게 슬픈 감정이 일었다.

무인년(1758년 영조34)

정월 소월. 1일 무자. 11일 우수(雨水) 월중. 26일 경칩 영절(令節).
2월 대월. 1일 정사. 13일 춘분 월중. 28일 청명 한식/ 잠절(蚕節).
3월 소월. 1일 정해. 13일 곡우 월중. 29일 입하 4월절.
4월 대월. 1일 병진. 15일 소만(小滿) 월중.
5월 소월. 1일 병술 망종절. 16일 하지(夏至) 월중.
6월 대월. 1일 을묘. 초3일 소서절. 16일 초복. 19일 대서(大暑) 월중.
7월 소월. 1일 을유. 초5일 입추절. 20일 처서 월중.
8월 대월. 1일 갑인. 초7일 백로절. 22일 추분 월중.
9월 대월. 1일 갑신. 초7일 한로절. 22일 상강 월중.
10월 대월. 1일 갑인. 7일 입동절. 22일 소설 월중.
11월 소월. 1일 갑신. 7일 대설절. 22일 동지 월중.
12월 대월. 1일 계축. 7일 소한절. 22일 대한 월중.

정월

1월 1일(무자) 새벽에 날씨가 온화하고 동풍이 갑자기 불어왔다. 아침이 되자 북풍이 불었는데, 밤에는 매우 온화했다.

1월 2일(기축) 바람이 불었는데 날씨가 따듯했다.

1월 3일(경인) 아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1월 4일(신묘) 온화했다.

1월 5일(임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1월 6일(계사) 눈이 몇 점 떨어졌다. 아관이 돌아갔다. 형제들이 오산(五山)²⁷⁵의 고(故) 도유사 이기징(李猗徵)의 재기(再碁)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송정(松亭)의 고 행수(行首) 최세구(崔世龜)의 재기를 조문하고, 또 상인(喪人) 허길(許佶)을 들렀다가 돌아왔다. 이날 일식(日食)이다. 저물녘에는 눈이 녹고 무척 봄기운이 느껴졌다.

인일(人日) (갑오) 따듯했다.

1월 8일(을미) 도유사(都有司) 이시종(李時宗)과 장의(掌議) 이익종(李益宗)이 와서 조문 왔는데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남았다.

1월 9일(병신) 장의 이익종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영창(營倉)의 감(監)이 어제 또 나왔는데 옛 환곡을 독촉하러 왔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1월 10일(정유)

1월 11일(무술)

1월 12일(기해) 아승(阿升)이 봉전에 갔다.

1월 13일(경자) 비가 내렸다. 춘비(春婢)가 새벽에 도망갔다.

275) 오산(五山) : 고성에서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을 쓴 것은 상리면(上里面) 오산리(烏山理)와 거류면 오산리(烏山理)가 있었으나, 후자는 현재 거산리(巨山理)로 바뀌었다. 여기서 오산(五山)은 거류면 거산리를 말한 것 같다.

1월 14일(신축) 금노(今奴)를 봉전으로 보냈다.

1월 15일(임인) 새벽에는 햇살이 구름을 뚫고 북풍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아침에는 찬 구름이 갑자기 모이고 바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정아(鼎阿)가 늦노[蕊奴]를 데리고 거제도 도망간 준비를 뒤쫓아 갔다. 아승이 돌아왔다. 달이 황혼에 떠올랐다.

1월 16일(계묘) 북풍이 불고 매우 추웠다. 아승(阿升)이 또 도망간 준비를 잡으려고 통영을 향해 갔다.

1월 17일(갑진) 아침 전에 정아(鼎阿)가 거제에서 배를 타고 돌아왔다. 이날 밤에 눈이 땅을 하얗게 덮었다.

1월 18일(을사) 북풍이 차가웠다. 아관과 아승 형제가 통영에서 거제로 가서 준비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13일 새벽비가 내리는 가운데 손귀산(孫貴山)이 중도까지 호송(護送)하였다. 비부(婢夫) 상백(翔白)의 경우, 벌써 초10일에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1월 19일(병오) 매우 추웠다. 아관이 돌아갔다. 강수용(姜守用)이 다른 읍으로 역(役)을 피해가서 그의 생질녀 정수단(丁守丹)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으므로 준비를 보내 데려오게 하였다. 학도(學徒)들이 재실(齋室)에 들어갔다.

1월 20일(정미)

1월 21일(무신)

1월 22일(기유) 이상 날씨가 따뜻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1월 23일(경술) 흐렸다.

1월 24일(신해)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1월 25일(임자) 따뜻했다.

1월 26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이 왔다.

1월 27일(갑인)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아관이 돌아갔다. 형제들이 계동(契洞)의 매형님에게 문안하고 이어서 고(故) 김백겸(金伯謙)의 재기(再募)의 입재(入齋)를 위문하고, 대장(代將) 김진추(金震秋)를 지나는 길에 방문하고 돌아왔다. 니교(泥橋)에 이르러 이미 빗방울이 내리더니 밤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나는 각기병(脚氣病)에 고통스러웠다.

1월 28일(을묘) 비가 쏟아지듯 많이 내려 냇물소리가 시끄럽더니 저물녘에 개었다.

1월 29일(병진) 북풍이 차가웠다. 나는 서재에서 묵었는데 입으로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시냇가 작은 집을 새로 지으니	溪邊小屋報新成
저물녘 지팡이 짚고 물소리 디디고 있네	向晚扶藜踏水聲
구름은 무심하고 산은 말이 없으니	雲自無心山不語
그 속에서 한평생 보낼 줄 생각하네	箇中料得度平生

2월

2월 1일(정사) 북풍이 불었다. 정명열(丁命說)의 강고산(江古山)²⁷⁶ 아래 논을 1두락지를 매입했다.

2월 2일(무오) 따뜻했다.

2월 3일(기미) 밤에 비가 흩먼지를 적셨다.

276) 강고산(江古山) : 달티마을에서 당동으로 가는 지방도변에 있는 산. 현재는 강금산(江金山)이라 한다.

2월 4일(경신) 비가 갑자기 걷혔으나 구름은 흩어지지 않았다.
 2월 5일(신유) 저녁에 우박이 떨어져 진흙탕이 되었다.
 2월 6일(임술) 구름이 끼었다.
 2월 7일(계해) 윤서방이 왔다.
 2월 8일(갑자) 비가 내렸다.
 2월 9일(을축) 습한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2월 10일(병인) 윤서방이 돌아갔다.
 2월 11일(정묘) 맑고 온화했다.
 2월 12일(무진) 하동(河東)의 강명제(姜命齊)가 방문했고, 군포(君浦)의 사위가 왔다.
 2월 13일(기사) 강생(姜生 강명제)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이서방이 통영에 들어갔다.
 2월 14일(경오) 온화했다.
 2월 15일(신미) 비가 보슬보슬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2월 16일(임신)
 2월 17일(계유) 이상 날씨는 따뜻했다. 이서방이 그저께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2월 18일(갑술) 정아(鼎阿)가 통영에 들어갔다. 김성복(金聖復)이 와서 공부하였다.
 2월 19일(을해)
 2월 20일(병자)
 2월 21일(정축) 이상 날씨가 따뜻했다.
 2월 22일(무인) 어제와 같다.
 2월 23일(기묘)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24일(경진)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2월 25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26일(임오) 동풍이 불었다.
 2월 27일(계미) 비가 갑자기 내렸다.
 2월 28일(갑신)
 2월 29일(을유) 죽은 딸아이의 초기일(初碁日)이다.
 2월 30일(병술) 동풍이 불어왔고 밤에 비가 쏟아져 내렸다.

3월

3월 1일(정해) 어제 바람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비가 삼 줄기처럼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흐
 렸다. 식후에 비가 내렸다.
 3월 2일(무자) 동풍이 불었다. 올벼와 증벼의 못자리를 밟았다.
 3월 3일(기축) 동풍이 불고 비가 날려 종일 그치지 않았다.
 3월 4일(경인)
 3월 5일(신묘)
 3월 6일(임진) 구름이 지나가면서 빗방울이 내렸다. 박봉갑(朴鳳甲)이 와서 공부하였다.
 3월 7일(계사) 따뜻했다. 순찰사 조운규(趙雲逵) 공이 지금 소속 주현을 순시할 적에 연민
 (烟民)을 동원하여 햇불을 들게 하니 민간의 소요가 극히 심했는데 본래 순찰사의 뜻은 아
 니었다. 바로 중간에서 관리(官吏)들이 스스로 겁박하여 그 속에서 백성들을 동요시킨 것이
 다.
 3월 8일(갑오) 순찰사 조운규가 통영에 들어갔다.

3월 9일(을미) 구름이 끼었다.
 3월 10일(병신) 비가 그치지 않아 넷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3월 11일(정유) 갑자기 비가 개었다.
 3월 12일(무술) 생도들이 산에 올라가 봄 경치를 감상했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3월 13일(기해)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14일(경자)
 3월 15일(신축)
 3월 16일(임인)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3월 17일(계묘) 비가 주룩주룩 내려 넷물이 불어났다.
 3월 18일(갑진) 맑고 온화하였다. 이날 재중(齋中)의 어린아이들에게 빙빙 주변을 날고 있는 매를 소재로 시를 짓게 하고, 나도 입으로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호기롭게 만 여리를 솟구쳐 날아	豪氣飛揚萬里餘
회오리바람 ²⁷⁷ 타고 한 점이 허공에 올라가네	扶搖一點上空虛
가련타 내가 장풍을 빌려줄 힘이 없어	憐吾未借長風力
홀로 산재 문 닫고 답답하게 지내도다	獨閉山齋鬱鬱居

3월 19일(을사)
 3월 20일(병오)
 3월 21일(정미)
 3월 22일(무신)
 3월 23일(기유)
 3월 24일(경술)
 3월 25일(신해) 동네 사람들이 망곡(望哭)하였다.
 3월 26일(임자)
 3월 27일(계축)
 3월 28일(갑인)
 3월 29일(을묘)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4월
 4월 1일(병진) 새벽에 처마에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으며, 동풍이 불어왔다.
 4월 2일(정사) 비가 그치다가 내리곤 하였다. 김흥손(金興孫) 형제가 와서 공부하였다.
 4월 3일(무오) 북풍이 불었다.
 4월 4일(기미) 내일은 바로 큰매형의 재기(再碁)인데 나는 병으로 인해 가서 곡하지 못해 자식들을 보내 제사에 참석하게 했다. 밤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4월 5일(경신) 봉전(鳳田)의 황상주(黃喪主)가 방문했다.
 4월 6일(신유) 손님이 돌아갔다. 김흥돌(金興玆)이 와서 공부하였다.

277) 회오리바람 :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물을 3천 리나 박차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날아오른 뒤에야 6월의 대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하였다.

4월 7일(임술)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8일(계해) 아침에 잠시 비가 내렸다.
 4월 9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10일(을축) 구름이 많았다.
 4월 11일(병인) 더웠다.
 4월 12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3일(무진) 구름이 끼었다.
 4월 14일(기사)
 4월 15일(경오)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4월 16일(신미)
 4월 17일(임신) 아관이 돌아갔다.
 4월 18일(계유) 근래에 서북풍이 불어오니 가뭄의 징조가 있을 듯 했다. 올벼와 중벼를 이양했다.
 4월 19일(갑술)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0일(을해)
 4월 21일(병자) 가뭄으로 농가(農家)에서 비가 내리길 간절히 기다렸다.
 4월 22일(정축)
 4월 23일(무인)
 4월 24일(기묘) 건조했다. 감흥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절구시를 지었다.

비를 기다리느라 꽃모양이 곱스럽고	待雨花容澹
바람 맞이한 제비꼬리는 부드럽구나	迎風燕尾柔
해가 떠오르다가 ²⁷⁸⁾ 산 아래로 저무니	三竿山日下
장차 자규의 수심 어이하리오	將奈子規愁

4월 25일(경진)
 4월 26일(신사)
 4월 27일(임오)
 4월 28일(계미) 이상 날씨는 건조했다.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하려고 왔다.
 4월 29일(갑신) 빗물이 흥건하게 내려 이미 이양한 논을 적해주었다.
 4월 30일(을유) 구름이 많았다.

5월
 5월 1일(병술) 아관이 돌아갔다.
 5월 2일(정해)
 5월 3일(무자) 이상 날씨는 구름이 많았다.
 5월 4일(기축) 밤이 깊어 천둥번개가 치고 빗소리가 들렸다.
 5월 5일(경인) 비가 주룩주룩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흐르니, 단비라고 할 수 있다.
 5월 6일(신묘) 구름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다.
 5월 7일(임진) 비가 갑자기 지나갔다.

278) 해가 떠오르다가 : 원문의 ‘삼간(三竿)’은 해가 세 길쯤 올라온 오전 8시경을 말한다.

5월 8일(계사) 맑고 더웠다.

5월 9일(갑오) 이양이 끝났다.

5월 10일(을미) 매우 더웠다.

5월 11일(병신)

5월 12일(정유)

5월 13일(무술) 이상 날씨는 비가 내릴 듯했으나 내리지 않았다.

5월 14일(기해)

5월 15일(경자) 이상 날씨는 아침에는 구름이 끼었으나 저물녘에는 햇볕이 내리쬐었다. 서재의 방에 벼룩이 많아 사벽(沙壁)²⁷⁹하려고 한다. 장난삼아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빈대가 이웃이 되고 이가 친구 되어	蠅作鄰親虱作朋
밤에는 숨었다가 저녁에 올라다네	晝間潛伏夜間乘
그 죄를 논한다면 과문어 버림이 가하니	若論其罪坑之可
다음날 내가 중벌로 다스리리라	明日吾將重法繩

5월 16일(신축)

5월 17일(임인) 저물녘 구름이 끼고 이슬비가 내렸으며 밤에 비가 가벼운 흙먼지를 적셨다.

5월 18일(계묘) 구름이 흩어졌다.

5월 19일(갑진) 날씨가 더웠다.

5월 20일(을사)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곧장 구름이 사라졌다.

5월 21일(병오)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그치고 달이 떠올라 밝게 비추었다.

5월 22일(정미) 더웠다.

5월 23일(무신)

5월 24일(기유) 아승(阿升)이 군포(君浦) 딸아이의 재기일(再碁日)에 가서 곡하였다.

5월 25일(경술)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통영의 굴량(掘梁)을 이번 달에 막아서 평지로 만들었다.

5월 26일(신해) 구름이 흩어졌다. 아승(阿升)이 이서방과 함께 왔는데, 이서방은 이미 진주의 신평(新豊) 정씨에게 새장가를 들었다. 5월 27일(임자) 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5월 28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9일(갑인)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이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6월

6월 1일(을묘) 날씨가 차가운 듯했다.

6월 2일(병진)

6월 3일(정사)

6월 4일(무오)

6월 5일(기미) 이상 날씨가 청량했다.

6월 6일(경신)

279) 사벽 [沙壁] : 누른빛의 차지고 고운 흙으로, 고운 모래나 말뚱 따위를 섞어 벽이나 방바닥에 바른다.

6월 7일(신유)

6월 8일(임술)

6월 9일(계해)이상 날씨가 모두 온화하지 못했고, 오늘 비가 내렸다.

6월 10일(갑자) 빗물이 흥건하게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6월 11일(을축) 아침에 비가 내렸다.

6월 12일(병인) 구름이 끼었다.

6월 13일(정묘) 구름과 햇별이 반반 정도였다.

6월 14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阿觀)이 왔다.

6월 15일(기사) 아침에 구름이 끼고 이슬비가 갑자기 내렸다. 이산로(李山老)가 와서 공부하였다.

6월 16일(경오) 아관이 돌아갔다.

6월 17일(신미)

6월 18일(임신) 밤에 한 차례 소낙비가 내렸다.

6월 19일(계유) 구름이 끼었다.

6월 20일(갑술)

6월 21일(을해)

6월 22일(병자)

6월 23일(정축) 이상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이 때 홍우(洪禹) 등이 서재에 와서 머물렀다.

6월 24일(무인)

6월 25일(기묘) 이상 날씨가 매우 더웠다.

6월 26일(경진) 구름이 얇게 끼었다.

6월 27일(신사)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28일(임오) 구름이 떠다녔다.

6월 29일(계미)

6월 30일(갑신) 밤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7월

7월 1일(을유) 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7월 2일(병술) 구름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였다.

7월 3일(정해) 구름이 떠다니고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4일(무자)

7월 5일(기축) 이상 날씨가 같았다.

7월 6일(경인) 산간에 때때로 이슬비가 내리면서 지나갔다.

7월 7일(신묘)

7월 8일(임진)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9일(계사)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0일(갑오) 습한 구름이 끼었다.

7월 11일(을미) 빗방울이 떨어지고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12일(병신) 더러 가끔 햇별이 나와 무더웠다가 더러 비가 내려 풀을 적셨다. 김응정(金應鼎)에게 가서 병문안하고 돌아왔다. 윤서방이 왔다.

7월 13일(정유) 비가 내렸다. 햅쌀을 수확했다.
7월 14일(무술)
7월 15일(기해) 김응정이 왔다.
7월 16일(경자) 이상 날씨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7월 17일(신축) 개었다. 윤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7월 18일(임인) 더웠다.
7월 19일(계묘) 밤에 비가 지나갔다.
7월 20일(갑진) 밤에 또 비가 내렸다.
7월 21일(을사) 비가 내리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7월 22일(병오)
7월 23일(정미)
7월 24일(무신)
7월 25일(기유)
7월 26일(경술)
7월 27일(신해)
7월 28일(임자)
7월 29일(계축)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8월

8월 1일(갑인) 시가[市直]가 쌀 6말, 추미(麴米) 7말이니, 농민이 불행하다.
8월 2일(을묘)
8월 3일(병진) 저녁에 비가 내렸다.
8월 4일(정사) 비가 내려 축축하다.
8월 5일(무오)
8월 6일(기미)
8월 7일(경신)
8월 8일(신유)
8월 9일(임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0일(계해) 맑았다.
8월 11일(갑자) 오후에 빗방울이 내렸다. 시가[市直]가 이전과 같다.
8월 12일(을축) 구름이 끼었다.
8월 13일(병인) 제사를 지낼 무렵 짙은 구름이 거의 다 걷히고 은하수이 환히 선명해지려고 하더니 잠깐 사이 다시 흐려졌다.
8월 14일(정묘)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8월 15일(무진)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새 그치지 않아 물소리가 우레처럼 시끄러웠다.
8월 16일(기사) 비가 계속 그치지 않아 들판의 물이 불어나고 길이 끊어졌다.
8월 17일(경오) 새벽꿈에서 막 돌아왔을 적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고 처마에 떨어지는 빗물이 구슬이 거꾸로 매달리는 듯했다. 아침에 보니 어제 자욱하던 구름은 걷혔으나 높이 뜬 구름은 흩어지지 않고 동풍도 그치지 않아 들판 사람들이 날씨가 춥다고 알려 왔다.
8월 18일(신미)

8월 19일(임신)

8월 20일(계유)

8월 21일(갑술) 비가 내렸다.

8월 22일(을해) 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들으니, 지난번 내린 큰 비로 과거에 응시하러 가던 선비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날 밤에 구름이 흩어지고 별이 나왔다.

선비(先妣) 재기(再基)에 입재(入齋)하였다. 제전(祭奠)은 계동(契洞) 작은 매형, 두포(頭浦) 매형, 갈산(葛山) 매형, 조카 태(泰), 한득량(韓得良), 정명열(丁命說), 정하중(丁夏中), 이진성(李進成), 이진태(李進太), 김상인(金尙仁), 박순기(朴順起), 강세평(姜世平), 김세태(金世泰), 김수천(金守天), 배악(裴岳), 정두만(鄭斗萬)이다.

부의

박흥손(金興孫) 백미(白米) 1말, 생계(生鷄) 1수(首), 홍합(紅蛤) 2도(刀), 건삼(乾參) 2도(刀), 문어(文魚) 2지(枝), 전복(全卜) 2개(介), 향(香) 2편(片), 표고(蓼古) 2도(刀).

김응정(金應鼎) 백미(白米) 1말, 생계(生鷄) 1수(首), 생어(生魚) 2숙(束).

김성중(金聖重) 백미 1말, 생계(生鷄) 1수(首), 명태(明太) 1숙(束).

김광옥(金光玉) 진(錢) 1전(錢).

김창록(金昌祿) 생계(生鷄) 1수(首), 조(租) 2되(斗).

천일징(千一徵) 생계(生鷄) 1수(首), 건어(乾魚) 1숙(束).

김성항(金聖恒) 건어(乾魚) 1숙.

김창제(金昌濟) 생계(生鷄) 1수.

이용재(李龍才) 백미 1말.

이삼열(李參悅) 생계 1수.

정재장(丁再長) 백미 1말.

김봉명(金鳳鳴) 백미 1말, 생계 1수.

정하명(丁夏明) 백미 1말.

김세홍(金世弘) 백미 1말.

조카 유상경(柳尙敬) 백미 1말, 생계 1수.

황성우(黃成右) 사어(沙魚 상어) 1미, 해삼 2곳.

이산로(李山老) 생계 1수, 백문어 1미, 건어 1숙.

강섬(姜暹) 백미 1말.

김흥삼(金興三) 백미 1말.

이한영(李汗永) 백미 1말.

박중항(朴重恒) 생계 1수, 건어 1숙.

봉진(鳳田) 운서방 생계 1수, 백미 1말.

박범주(朴範柱) 백미 1말.

고(故) 유 어른 집안 진(錢) 1전(錢).

강동백(姜東白) 백조(白租) 1말(斗).

8월 23일(병자) 따듯했다. 제사를 지낼 때 은하수가 밝게 빛나고 가끔 구름이 지나갔다.

8월 24일(정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봉진(鳳田)에 사는 사형(查兄) 황상주(黃喪主)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8월 25일(무인) 따듯했다. 나는 가리동(加里洞)의 상인(喪人) 백봉년(白鳳年)을 조문하고 들

아왔다. 윤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8월 26일(기묘) 따뜻했다.

8월 27일(경진)

8월 28일(신사)

8월 29일(임오)

8월 30일(계미)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강성거(姜聖舉)가 와서 공부하였다.

9월

9월 1일(갑신)

9월 2일(을유)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9월 3일(병술) 이날 밤 초경(初更) 끝날 무렵 여종 금례(今禮)가 병으로 누운 지 8일 만에 죽었다.

9월 4일(정해)

9월 5일(무자)

9월 6일(기축) 매우 따뜻했다. 여종 금례를 구방산(九方山)에 매장했다.

9월 7일(경인) 갑자기 비가 내렸다.

9월 8일(신묘) 온화했다. 작은 방을 만들었다.

9월 9일(임진)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이학응(李學膺)과 공도관(孔道貫)이 와서 공부했다.

9월 10일(계사)

9월 11일(갑오)

9월 12일(을미) 따뜻했다. 아관이 왔다.

9월 13일(병신) 김성소(金聖韶)가 와서 공부했다.

9월 14일(정유)

9월 15일(무술)

9월 16일(기해) 이상 날씨가 따뜻했다.

9월 17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대(冠帶)를 갖추고 새로 참여한 가리(佳里)에 사는 생원 이심열(李心悅) 댁에서 계회(契會)하였다. 9월 18일(신축)

9월 19일(임인) 날씨가 이상과 같았다. 백규삼(白圭三)이 와서 공부하였다.

9월 20일(계묘)

9월 21일(갑진)

9월 22일(을사) 동풍이 불고 맑았다.

9월 23일(병오)

9월 24일(정미)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9월 25일(무신) 아침 비가 갑자기 적셨다.

9월 26일(기유)

9월 27일(경술)

9월 28일(신해)

9월 29일(임자)

9월 30일(계축)

10월

10월 1일(갑인) 해가 나오고 따뜻했다.
 10월 2일(을묘)
 10월 3일(병진)
 10월 4일(정사)
 10월 5일(무오)
 10월 6일(기미) 비가 땅을 적셨다. 시가[市直]는 예전과 같았다. 술 제조를 더욱 엄금하여 글을 써서 각 마을 거리에 현판(懸板)을 걸게 하였다.
 10월 7일(경신)
 10월 8일(신유)
 10월 9일(임술) 저녁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 들으니, 성묘(聖廟)를 중수(重修)하기 위해 고유제에 쓰일 향축이 어제 밤에 도착했다고 한다.
 10월 10일(계해)
 10월 11일(갑자)
 10월 12일(을축) 매우 따뜻했다.
 10월 13일(병인)
 10월 14일(정묘) 온화했다. 답사(禫祀)²⁸⁰를 지냈다.
 10월 15일(무진)
 10월 16일(기사) 성묘(聖廟)를 중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데 미시(未時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에 길일을 잡았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왔다.
 10월 17일(경오)
 10월 18일(신미)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0월 19일(임신) 눈이 내렸다.
 10월 20일(계유)
 10월 21일(갑술) 추웠다.
 10월 22일(을해) 온화했다. 김문손(金文孫)이 와서 공부하였다.
 10월 23일(병자) 비가 흙먼지를 적시고는 곧바로 그쳤다.
 10월 24일(정축) 구름이 짙게 끼었으나 춥지 않았다.
 10월 25일(무인) 이학옹(李學膺)과 공도관(孔道貫) 등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10월 26일(기묘) 향교에 가서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10월 27일(경진)
 10월 28일(신사) 갑자기 비가 내렸다.
 10월 29일(임오) 벗 김석조(金錫祚)가 남촌진(南村鎭)에 환곡을 받으러 왔다가 방문했다.
 10월 30일(계미)

11월[至月]

11월 1일(갑신) 따뜻했다.
 11월 2일(을유) 이슬비가 내렸다.
 11월 3일(병술)
 11월 4일(정해)

280) 답사(禫祀) : 답제(禫祭)라고도 한다.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낸다.

11월 5일(무자)
 11월 6일(기축)
 11월 7일(경인)
 11월 8일(신묘) 이상 날씨가 따듯했다.
 11월 9일(임진) 산과 들관에 눈이 하얗게 쌓였다.
 11월 10일(계사) 온화하였다.
 11월 11일(갑오)
 11월 12일(을미)
 11월 13일(병신)
 11월 14일(정유) 이상 날씨가 온화했다. 벗 김석조를 만나기 위해 남촌(南村)에 가다가 돌아왔다.
 11월 15일(무술) 눈이 오고 서풍이 불었다.
 11월 16일(기해) 아관이 왔다.
 11월 17일(경자)
 11월 18일(신축)
 11월 19일(임인) 아관이 돌아갔다.
 11월 20일(계묘) 흠비가 내렸다.
 11월 21일(갑진) 매우 추웠다.
 11월 22일(을사) 청명하다가 밤이 깊어진 후에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11월 23일(병오) 새벽에 닭이 처음 울 때 빗소리가 조금씩 들리다가 곧바로 그치고, 아침이 되자 구름은 걷혔으나 잔뜩 흐렸다.
 11월 24일(정미)
 11월 25일(무신) 아관이 왔다.
 11월 26일(기유) 아관이 돌아갔다.
 11월 27일(경술) 큰 짐을 짓고 다음과 같이 축문으로 제사를 올렸다.

사람이 모든 금수와 다르니	人異虫魚
바람과 눈을 피해 살고자	居避風雪
풀과 나무를 엮어 만들어	爰用結構
거의 집과 비슷하게 세웠지	庶類家室
재앙은 사라지게 하고	以災則消
복만을 내려주소서	惟福而錫
아, 신령을 우러러	緊神是仰
경건히 고하나이다	虔忱而告

11월 28일(신해)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 갔다.
 11월 29일(임자)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12월
 12월 1일(계축) 아침에 비가 흠먼지를 적시고 그쳤다.
 12월 2일(갑인) 아승이 돌아갔다.

12월 3일(을묘) 저물녘에 이슬방울이 갑자기 내렸다.
 12월 4일(병진) 아침에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12월 5일(정사)
 12월 6일(무오) 이상 날씨는 밤에 추웠다.
 12월 7일(기미) 매우 추웠다.
 12월 8일(경신)
 12월 9일(신유)
 12월 10일(임술)
 12월 11일(계해) 아승(阿升)이 통영에 들어갔다.
 12월 12일(갑자) 아승이 돌아왔다.
 12월 13일(을축) 북풍이 불어 흙먼지가 날렸다.
 12월 14일(병인)
 12월 15일(정묘) 이상 날씨가 온화했다. 오는 17일에 작동(鵲洞)²⁸¹의 동지중추부사 이영만(李英晩)이 3대가 추증(追贈)되는 경사로 잔치를 연다고 했는데, 나는 병으로 인해 가서 축하하지 못하고, 대신 다음과 같이 읊시 한 수를 지어서 보냈다.

장수 마을에 봄 누대 ²⁸² 몇 층을 쌓았는가	壽域春臺築幾層
하늘이 선인에게 올라오도록 허락했네	天教善類許攀登
품계가 높이 중추부에 오르는 돌보심으로	秩高樞府通嘉護
구천에 계신 삼대 조상을 영예롭게 했네	榮顯泉塗父祖曾
절로 인간 세상에 진솔회 ²⁸³ 있으니	自在人間真率會
뭐 번거로이 바다 밖 일엽편주 타리오	何煩海外片舟乘
눈 가득 자식 손자 모두들 경사라	兒孫滿眼皆餘慶
끝없는 복록에 다시 하례 올리네	更賀無疆福祿興

12월 16일(무진)
 12월 17일(기사)
 12월 18일(경오)
 12월 19일(신미)
 12월 20일(임신)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2월 21일(계유) 추웠다.
 12월 22일(갑술) 극히 추웠다.
 12월 23일(을해)
 12월 24일(병자)
 12월 25일(정축) 성묘(聖廟)가 병오년에 옮겼던 옛 터로 어제 이건(移建)하고 오늘 제사를

281) 작동: 경남 고성군 구만면에 있는 마을. 일명 까치골, 간칫골이라 한다.

282) 봄 누대: 《노자(老子)》 제 20장에 “사람들 기분이 마냥 들떠서, 흡사 진수성찬을 먹은 듯도 하고 봄 누대에 오른 듯도 하네. [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는 말이 나온다.

283) 진솔회(眞率會):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양(洛陽)에 있으면서 고로(故老)들과 만든 모임인 진솔회(眞率會)에 비친 것이다. 이 모임의 규칙은 술은 다섯 순배 이상을 돌리지 못하고 음식은 다섯 가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지냈다.

12월 26일(무인)

12월 27일(기묘) 매우 추웠다. 조카사위 진성(晋城)의 신랑 최재원(崔再遠)을 새로 맞이하였다.

12월 28일(경진) 날씨가 조금 풀렸다.

12월 29일(신사)

12월 30일(임오) 눈비가 내렸다. 올해는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니지만 시가가 크게 올라 지금 정조(正租)는 15·16말로, 거의 전석(全石)²⁸⁴의 비용이 된다. 쌀은 6말 몇 되이기에 농가의 불행이 심하다.

금주령이 지극히 엄하여 각 도의 여러 고을에 금주를 범했다가 곤장을 맞고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고, 유배 간 자도 그렇게 많았다. 영상(領相) 유척기(兪拓基) 공이 경연에서 조사하여 논죄하자고 주청하였고, 성상께서 엄히 신칙하라고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본도(本道)의 조공(趙公 조운규(趙雲逵))이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또 다른 일로 파직 당했다. 금주령을 범한 자는 본읍에서 종으로 삼으라고 하였다고 한다.

목화가 처음 나올 때 16·17근이었고 본 읍의 시가는 11·12근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8근이다. 대구어가 처음 15마리 나왔고, 청어는 지금 1속(束) 남짓한 마리가 나왔다.

기묘년(1759년 영조35)

1월 소월. 1일 계미. 7일 입춘절. 22일 우수 월중(月中).

2월 대월. 1일 임자. 초8일 경칩절. 23일 춘분 월중.

3월 소월. 1일 임오. 초8일 청명절. 23일 곡우 월중.

4월 소월. 1일 신해. 초10일 입하절. 25일 소만 월중.

5월 대월. 1일 경진. 12일 망종절. 28일 하지 월중.

6월 소월. 1일 임술. 13일 소서절. 29일 대서 월중. 21일 초복.

윤6월 소월. 1일 기묘. 16일 입추 7월절.

7월 소월. 1일 기유. 처서 월중. 17일 백로 8월절.

8월 대월. 1일 무인. 초2일 추분 월중. 18일 한로 9월절.

9월 대월. 1일 무신. 4일 상강 월중. 19일 입동 10월절.

10월 소월. 1일 무인. 3일 소설 월중. 18일 대설 11월절.

11월 대월. 1일 정미. 초4일 동지 월중. 19일 소한 12월절.

12월 대월. 1일 정축. 초3일 대한 월중. 18일 입춘 정월절.

1월

1월 1일(계미)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인간(寅艮)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날 종일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해가 나오기도 했는데 길이 진흙탕이 되지는 않아 사람들의 통행이 끊기지 않았다. 산머리에는 눈꽃이 만발했다.

1월 2일(갑신) 바람이 차갑고 가끔 눈 몇 점이 내렸다.

1월 3일(을유) 해가 나왔다. 봉전(鳳田)에 갔다.

1월 4일(병술) 온화했다. 소산(所山)²⁸⁵의 허서방 집에 잠시 들렀다가 봉전에서 머물렀다.

284) 전석(全石) : 스무 말(斗)을 전석(全石) 또는 대곡(大斛)이라 하였다.

1월 5일(정해) 서풍이 차가웠다. 봉전에서 읍저(邑底)로 다시 돌아와 김흥손(金興孫) 집에서 숙박했다.

1월 6일(무자)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7일(기축) 인일(人日).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8일(경인) 햇별이 나왔다.

1월 9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阿觀)이 편지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초7일 저녁에 산후(産候)를 시작하더니 밤이 끝날 즈음에야 해산하여 아들을 낳으니 물과 음식을 주자, 닭 울음을 비로소 들렸다고 하니, 필시 초8일 자시(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이다. 사주는 기묘(己卯), 병인(丙寅), 경인(庚寅), 병자(丙子)이다.

1월 10일(임진)

1월 11일(계사)

1월 12일(갑오)

1월 13일(을미) 저물녘에 비가 흠뻑 젖었다. 구성채(仇聖采) 형제가 와서 공부하였다.

1월 14일(병신) 아침에 갑자기 눈이 왔다.

1월 15일(정유)

1월 16일(무술) 추웠다. 봉진(鳳田)의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황수일(黃秀一) 형제가 와서 공부하였다.

1월 17일(기해)

1월 18일(경자) 추웠다.

1월 19일(신축) 윤서방이 왔다.

1월 20일(임인)

1월 21일(계묘)

1월 22일(갑진) 이슬비가 내렸다.

1월 23일(을사) 비가 갑자기 개었다.

1월 24일(병오) 윤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가는데 아승(阿升)이 동행했다.

1월 25일(정미)

1월 26일(무신) 아승이 돌아왔다.

1월 27일(기유)

1월 28일(경술)

1월 29일(신해)

2월

2월 1일(임자) 시가[市直]가 쌀 6말, 조(租) 13,4말이다. 금년 역기(曆記)가 청력본(淸曆本) 청나라에서 만든 달력과 서로 틀렸는데, 2월과 3월의 대소(大小)가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조정에서 해당 두 달 부분을 다시 출간하여 반포했다.

2월 2일(계축)

2월 3일(갑인)

2월 4일(을묘)

2월 5일(병진)

2월 6일(정사) 이상 날씨가 동풍이 불고 온화했다. 봉진(鳳田)에서 온 사내종이 젓먹이인 외

285) 소산: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에 소재한 소홀산.

손이 요절했다고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

2월 7일(무오)

2월 8일(기미)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9일(경신) 종일 비가 흥건히 내려 샘물이 갑자기 통했다.

2월 10일(신유)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2월 11일(임술) 맑았다.

2월 12일(계해) 졸지에 한질(寒疾 감기)에 걸려 땀이 났는데 불쾌하였다.

2월 13일(갑자) 갑자기 비가 내렸다.

2월 14일(을축)

2월 15일(병인)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 왔다.

2월 16일(정묘)

2월 17일(무진) 예전 병이 아직껏 낫지 않아 박의원을 불러와서 연일 죽력(竹瀝)²⁸⁶, 강즙(姜汁)²⁸⁷과 소시호탕(小柴胡湯)²⁸⁸ 3첩을 복용하였으나 병이 그래도 낫지 않았다. 이슬비가 내렸다.

2월 18일(기사)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햇볕이 나왔다.

2월 19일(경오) 계속 약을 먹었다.

2월 20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21일(임신) 남관(南關)에서 약을 구해 와서 죽력(竹瀝)²⁸⁹을 타서 고(膏)를 만들어 복용하니 원래 입맛으로 돌아옴을 조금 느꼈다.

2월 22일(계유) 동풍이 불고 눈이 날렸다. 닭 울음소리를 비로소 듣고서야 조금 병든 회포가 나아졌다. 다음과 같이 절구시 한 수를 지었다.

닭소리에 깊이 잠든 집집마다 적막 깨우니 一鷄啼破萬家昏
꼬끼오 울음소리 모두 혼이 돌아온 듯 噉噉聲聲摠返魂
병든 몸이 베개 밀치고 일어나 앉으니 病枕推來方起坐
은근한 산 달빛이 중문에 들어오네 殷勤山月入重門

2월 23일(갑술)

2월 24일(을해) 이상 날씨가 온화했다.

2월 25일(병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저물녘에 연무(煙霧)가 걷혔다.

2월 26일(정축) 병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해수(咳嗽 기침)가 끊이질 않아 낮에는 잠시 괜찮더라도 밤에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움을 형언할 수 없다. 아관(阿觀)이 돌아갔다.

2월 27일(무인) 비가 그치지 않았다. 새벽에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한 번 병들어 지리한 몸 반달 남짓되어 一病支離半月餘
문 앞에 찾아오는 손님 날로 드물었네 門前車馬日應疎

286) 죽력 : 푸른 대쪽을 불에 구워서 받은 기름이다.

287) 강즙(姜汁) : 생강을 짓찧거나 강판 따위에 갈아서 짜낸 강즙(薑汁)인 듯하다.

288) 소시호탕(小柴胡湯) : 여러 가지 급성, 만성 질환으로 발열, 오한, 흉협고만(胸脇苦滿), 구고(口苦), 식욕 부진, 심번(心煩),

구토증 따위가 있을 때에 쓰인다. 시호(柴胡), 황금(黃芩), 인삼, 생강, 반하(半夏) 따위가 들어 있다.

289) 죽력 : 푸른 대쪽을 불에 구워서 받은 기름이다.

바람 부는 창문 아래에서 쓰러져 누워 있자니 頽然高臥風窓下
오만가지 생각 모두 한 조각 꿈속으로 들어가네 萬念都輸片夢虛

2월 28일(기묘)

2월 29일(경진) 북풍이 불었는데 따듯했다. 병이 계속 지속되어 음식 맛을 잃었으니 걱정스럽다.

3월

3월 1일(신사)

3월 2일(임오)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3월 3일(계미)

3월 4일(갑신)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 병이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서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이학옹(李學膺)과 황수일(黃秀一), 공도관(孔道貫) 등이 와서 곁에서 유숙했다.

3월 5일(을유)

3월 6일(병술) 아관이 왔다. 김홍조(金弘祚), 백상득(白尙得), 심득(沈得) 등이 와서 공부했다.

3월 7일(정해) 아관이 돌아갔다.

3월 8일(무자) 눈이 날리고 가랑비가 내렸는데 이어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려 산천이 흐릿하였다.

3월 9일(기축)

3월 10일(경인)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려 해를 가렸다.

3월 11일(신묘)

3월 12일(임진) 이상 날씨는 흠비가 내렸다.

3월 13일(계사) 저녁에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3월 14일(갑오) 흠비가 내렸다.

3월 15일(을미)

3월 16일(병신)

3월 17일(정유)

3월 18일(무술) 이상 맑고 온화하였다.

3월 19일(기해) 이대문(李大文)이 와서 공부했다.

3월 20일(경자)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3월 21일(신축) 저물녘에 비가 쏟아지듯 내려 냇물이 갑자기 통하였다.

3월 22일(임인) 비가 개었다.

3월 23일(계묘) 맑고 온화했다.

3월 24일(갑진) 비가 내렸다.

3월 25일(을사) 비가 내렸다.

3월 26일(병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조카 구봉조(仇鳳朝)는 그의 아내 류씨(柳氏)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가동(可洞)의 배씨 집안의 여자에게 새장가를 들었다.

3월 27일(정미) 비가 개었다.

3월 28일(무신)

3월 29일(기유)

3월 30일(경술)

4월

4월 1일(신해)

4월 2일(임자)

4월 3일(계축)

4월 5일(을묘)

4월 6일(병진) 맑고 온화했다. 이학응(李學膺), 황수일(黃秀一) 형제, 공도관(孔道貫) 등과 함께 걸어서 월치(月峙) 아현(阿見 峴) 길에서 남관(南關)으로 들어가 서교(西橋)에서 묵었다.

4월 7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박사문(朴思文) 군의 집에서 묵었다.

4월 8일(무오) 동풍이 불어 파랑을 일으켰는데 어두워져서야 바람이 그쳤다. 한 군영(軍營)의 등불이 북두성을 환히 비추었다. 계속 박사문 집에서 묵었다.

4월 9일(기미) 맑고 더웠다. 집으로 돌아갔다.

4월 10일(경신)

4월 11일(신유) 밤에 비가 흙먼지를 적셨다. 이서방이 왔다.

4월 12일(임술)

4월 13일(계해) 이서방이 돌아갔다.

4월 14일(갑자) 동풍이 불고 비가 와서 샘물이 갑자기 통했다.

4월 15일(을축) 비가 걷혔다.

4월 16일(병인)

4월 17일(정묘)

4월 18일(무진)

4월 19일(기사)

4월 20일(경오) 이상 날씨는 맑았다.

4월 21일(신미)

4월 22일(임신)

4월 23일(계유)

4월 24일(갑술) 비가 내려 들에 가득했다.

4월 25일(을해)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했는데 밤에 구름이 없었다.

4월 26일(병자) 또 비가 내렸다.

4월 27일(정축)

4월 28일(무인)

4월 29일(기묘)

5월

5월 1일(경진)

5월 2일(신사)

5월 3일(임오)

5월 4일(계미)

5월 5일(갑신) 종일 구름이 끼고 밤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

5월 6일(을유) 새벽에 빗방울이 내려 갑자기 물의 근원지를 적셔주었다.
 5월 7일(병술) 구름이 흩어졌다. 올벼 이앙을 시작했다.
 5월 8일(정해)
 5월 9일(무자)
 5월 10일(기축)
 5월 11일(경인) 이학응(李學膺)과 황수일(黃秀一) 등이 집으로 돌아갔다.
 5월 12일(신묘)
 5월 13일(임진)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5월 14일(계사) 밤에 몇 방울 비가 떨어졌다.
 5월 15일(갑오)
 5월 16일(을미) 가랑비가 이슬처럼 내리다가 그치더니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더웠다. 조카 류규응(柳奎應)이 신행을 갔다.
 5월 17일(병신)
 5월 18일(정유) 새벽에 이슬비가 흙먼지를 적셨다.
 5월 19일(무술) 밤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5월 20일(기해) 아침에 비가 내려 물의 근원지를 적셨다.
 5월 21일(경자)
 5월 22일(신축)
 5월 23일(임인)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5월 24일(계묘) 이슬비가 내렸다.
 5월 25일(갑진) 쾌청했다가 밤에 또 비가 내렸다.
 5월 26일(을사) 비가 내렸다.
 5월 27일(병오) 비가 내렸다.
 5월 28일(정미)
 5월 29일(무신)
 5월 30일(기유)

6월 국혼(國婚) 날짜가 이번 달로 정해졌다. 서대비(徐大妃)²⁹⁰가 승하한 후 금상(今上)께서 다시 혼례를 치르시는 것이다.

6월 1일(경술)
 6월 2일(신해)
 6월 3일(임자)
 6월 4일(계축) 비가 내렸다.
 6월 5일(갑인) 비가 내렸다.
 6월 6일(을묘)
 6월 7일(병진)
 6월 8일(정사)
 6월 9일(무오)

290) 서대비(徐大妃) : 영조의 정비(正妃)인 정성왕후(貞聖王后)로, 1757년(영조33) 2월 15일에 승하하였다. 달성서씨(達城徐氏)로 아버지는 달성부원군 서종계(徐宗悌)이다.

6월 10일(기미)
 6월 11일(경신)
 6월 12일(신유)
 6월 13일(임술) 이상 날씨가 동풍이 불고 어둑어둑하였다.
 6월 14일(계해)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5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6일(을축)
 6월 17일(병인) 이상 날씨는 비가 내릴 듯하였다.
 6월 18일(정묘) 이슬비가 내렸다.
 6월 19일(무진) 구름이 끼었다. 아승(阿升)이 서교(西橋)에 갔다.
 6월 20일(기사) 비가 올 듯 하더니 내리지 않았다. 아승이 왔다.
 6월 21일(경오) 가랑비가 내렸다.
 6월 22일(신미) 아침에 이슬비가 내렸다.
 6월 23일(임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6월 24일(계유) 새벽에 큰 비가 내려 들에 물이 넘쳤다.
 6월 25일(갑술) 비가 내렸다.
 6월 26일(을해)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비가 가끔 떨어졌다.
 6월 27일(병자)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6월 28일(정축)
 6월 29일(무인) 극히 더웠다.

윤6월

윤6월 1일(기묘) 극히 더웠다.
 윤6월 2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6월 3일(신사)
 윤6월 4일(임오)
 윤6월 5일(계미)
 윤6월 6일(갑신) 비를 뿌리고 갑자기 지나갔다.
 윤6월 7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6월 8일(병술) 소낙비가 흩먼지를 적셨다.
 윤6월 9일(정해) 갑자기 비가 내렸다.
 윤6월 10일(무자)
 윤6월 11일(기축) 새벽에 보니, 비가 흩먼지를 적시더니 또 갑자기 내리고 뜬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윤6월 12일(경인) 초6일에 미조항(彌助項)²⁹¹⁾ 첨사(僉使)의 치통(馳通) 내용에, ‘초5일 술시(戌時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무렵에 욕지도(欲旨島) 앞바다에 황당선(荒唐船) 바다에 출몰하는 외국 선박)이 와서 정박했다’고 하였다. 욕지도는 바로 본현의 경내이기 때문에 7일에 사또 임후(任侯)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사랑도(蛇梁島)에서 묵었다. 8일에 미조항에 속히 당도하여 그 배를 살펴보니, 두 개의 큰 돛이 양쪽에 서있는데, 앞쪽의 돛 깃발 면에 검은색으로 ‘원형이정(元亨利貞)’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두 개의 큰 돛에 기대어 각각 중간 돛 2

291) 남해현 동남쪽 87리 지점에 있다.

개가 서있고 깃발이 매달려 있는데 기면(旗面)이 그림인 듯 전서(篆書)인 듯하였다. 돛의 높이는 상세히 알 수 없다. 배의 후미에는 금색으로 ‘순풍상송(順風相送)’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선박 제도가 우리나라 전선(戰船)과 같았으나 길이가 길고, 선상(船上)의 앞쪽과 꼬리쪽에 집을 세웠는데 뒤쪽의 집 위에 별도로 1칸을 더 세워 금부처 11좌(坐)를 나열하였으며, 의복은 청나라 사람의 복장이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절강(浙江) 사람인데 화제(華製 중국 의복제도)를 잃고 모습을 바꾼 지 지금 7년이 되었으나 긴 소매 옷과 바지에 고깔과 면류관을 썼으며 지금까지 신사(神祠)의 위패를 남겨 두고 삭망(朔望)이면 곡을 한다고 하였다.

선호(船戶) 정대순(鄭大順) 나이 50세, 선공(船工) 정필발(鄭必發) 나이 42세, 그 아래 수수(水手 노질하는 사람) 26명은 모두 평호(平湖) 사람이다. 상인(商人) 오우주(吳右周)는 나이 38세로 장주(長洲) 사람이며, 원명형(阮明衡)은 나이 40세로 민현(閩縣) 사람이고, 그 아래 28명과 소시(小厮 부리는 아랫사람) 4명이 있다. 그들과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 글자를 써서 묻고 답하였다. 54명이 모두 삭발을 하였고, 의양(衣樣)은 어떤 사람은 청색, 어떤 사람은 흑색이다.

문기를, “가련하구나 너희들이 여기까지 표류해 오는데 무슨 수고로움은 없었느냐?”라고 하자, 답하기를 “바다에서 표류하는 동안 괴로움이 지극했습니다. 상인(商人)인 우리들은 올해 6월에 우리나라 각 헌관(憲官)의 명을 받들어 동쪽 바다 일본국으로 가서 구리 16냥쫘[觔]을 사들여서 국가의 주조 용도로 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월 18일에 절강(浙江)에서 출발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6월 26일에 큰 바다 가운데서 바람을 만나 표류하였고, 윤6월 5일 술시(戌時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에 이곳에 다다라 정박하였는데, 해시(亥時 밤 9시부터 11시까지) 무렵에 귀국(貴國)의 인도로 항구 안쪽에 이르러 정박하였으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원명형에게 문기를, “당(唐)나라 사람의 시에 ‘월락오제상만천(月落烏啼霜滿天), 강풍어화대수면(江楓漁火對愁眠)’²⁹²이라는 구절에서 오제(烏啼)와 수면(愁眠)은 모두 산이름이나 지명이라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하자, 답하기를 “강풍(江楓)이 지명이니, 바로 한산사(寒山寺)에 있습니다. 오제(烏啼)는 까마귀가 우는 것이고, 수면(愁眠)은 시인의 생각입니다.”라고 하였다.

윤6월 13일(신묘) 이상 날씨는 서북풍이 불었다.

윤6월 14일(임진) 소낙비가 농토의 곡식을 넉넉히 적셨다.

윤6월 15일(계사)

윤6월 16일(갑오)

윤6월 17일(을미) 극히 더웠다. 미륵동(彌勒洞)²⁹³ 개울가에 모여서 놀았다.

윤6월 18일(병신)

윤6월 19일(정유)

윤6월 20일(무술) 이상 날씨가 극히 더웠다.

292) 월락오제상만천(月落烏啼霜滿天) 강풍어화대수면(江楓漁火對愁眠) : 당나라 사람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전체 내용은 “달은 지고 까마귀 우니 천지에 서리 내리고 강풍 고깃배 불빛 바라보며 시름에 겨워 조는데, 고소성 밖 한산사에서 울리는 한밤 중 종소리가 객선에까지 들리누나.[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이다.

293) 미륵동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의 교동. 향교가 있다. 머리부분이 파손된 석불 2구와 금강역사(金剛力士) 1구로 이루어진 일명 교사리 삼존석불이 발견되어 이곳 일대가 옛 절터였기에 미륵동이라 불렀다. 이 석불은 경상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2호이다.

윤6월 21일(기해) 한 밤중에 북쪽 방면은 천둥번개가 크게 진동하였으나 이곳에는 은하수가 환히 밝혔다.

윤6월 22일(경자) 동풍이 불고 구름이 날아 다녔다.

윤6월 23일(신축) 새벽에 비가 흠뻑지를 적셨다.

윤6월 24일(임인)

윤6월 25일(계묘)

윤6월 26일(갑진)

윤6월 27일(을사) 황수일(黃秀一) 형제가 집으로 돌아왔다.

윤6월 28일(병오)

윤6월 29일(정미)

윤6월 30일(무신) 이상 날씨가 몹시 더웠다.

7월

7월 1일(기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고 밤에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7월 2일(경술) 비가 내렸다.

7월 3일(신해) 더러 비가 내리기도 더러 햇볕이 나오기도 했다.

7월 4일(임자) 이학옹(李學膺), 공도관(孔道貫), 한상기(韓相琦) 등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황수일 형제가 왔다.

7월 5일(계축)

7월 6일(갑인)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7일(을묘) 비가 흠뻑하게 내렸다.

7월 8일(병진)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9일(정사) 때때로 마을에서 방아 소리가 들려 다음과 같이 입으로 절구시 한 수를 읊조렸다.

을야 ²⁹⁴ 에 등불 나누어 비추고	乙夜分燈影
여명에 방아 소리 함께 내구나	未明共杵聲
가련타 마을 아낙네들 마주앉아	可憐村女伴
평생 동안 갖은 고생하구나	勤苦過平生

7월 10일(무오) 구름이 끼었다.

7월 11일(기미)

7월 12일(경신)

7월 13일(신유) 비가 내렸다.

7월 14일(임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7월 15일(계해) 비가 그치지 않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7월 16일(갑자) 또 비가 내렸다.

7월 17일(을축)

7월 18일(병인)

7월 19일(정묘)

294) 을야(乙夜) : 을야는 2경(更) 곧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이른다.

7월 20일(무진) 이상 날씨는 짙은 구름이 어지럽게 떠다녔다.
 7월 21일(기사) 따뜻하고 햇볕이 나왔다.
 7월 22일(경오) 이슬비가 내렸다.
 7월 23일(신미)
 7월 24일(임신)
 7월 25일(계유)
 7월 26일(갑술) 이상 날씨는 온화하였다.
 7월 27일(을해) 빗방울이 내렸다. 이 때 병충해가 조금씩 심해져 현풍(玄風)에서 포제(酺祭)²⁹⁵를 치렀는데 본관 사또가 지난번 제관(祭官)으로 그 곳에 갔다가 지금 비로소 관아로 돌아왔다.
 7월 28일(병자) 화창했다. 새 재실 집터를 아래 묘좌(卯坐 동쪽)에 새로 정하고 터를 닦았다. 월촌(月村)에 사는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7월 29일(정축)

8월

8월 1일(무인)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9말, 중도(中稻) 12말, 쌀 4말반 혹은 5말이다.
 8월 2일(기묘) 이전 재실을 허물었다. 생도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김창록(金昌祿)·김홍조(金弘祚)·김덕규(金德奎)는 우선 머물렀다. 이학응(李學膺) 역시 각종(脚腫) 다리가 붓는 병증(病證)으로 집으로 갈 수 없어 내 집에서 머물면서 식사를 하였다. 오후에 비가 내렸다.
 8월 3일(경진) 빗방울이 이따금 떨어졌다.
 8월 4일(신사)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재실에 상량(上樑)하였다. 이 때 동남풍이 불고 빗발이 비껴 날렸다. 김덕규 역시 집으로 돌아갔다. 밤에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8월 5일(임오) 재실이 바람에 무너졌다. 식후에 비가 개었다. 김학응(金學膺)이 집으로 돌아갔다.
 8월 6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 때 막 여문 곡식에 병충해가 끊이지 않았다.
 8월 7일(갑신) 쾌청했다. 이 때 조보(朝報)에서 태백성(太白星)²⁹⁶이 낮에 나타나고, 또 큰 별이 남방에 나타났다고 했다.
 8월 8일(을유) 맑았다.
 8월 9일(병술)
 8월 10일(정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8월 11일(무자) 찬비가 내렸다. 충주(虫蛀 좀벌레)가 사라지지 않았다.
 8월 12일(기축) 비가 그치지 않았다.
 8월 13일(경인) 비가 내렸다. 김창록(金昌祿)과 김홍조(金弘祚) 등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8월 14일(신묘) 닭이 아직 울지 않을 때 비가 쏟아지듯 내려 냇물 소리가 우레처럼 돌 구르는 소리가 포를 쏘는 듯해서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동요했다. 아침에 들판 논밭을 보니 출렁이는 바다와 같았다.
 8월 15일(임진) 풀잎에 약간 서리가 내린 흔적이 있고 북풍이 조금 차가웠다.
 8월 16일(계사)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시가[市直]가 쌀 3말 반인데, 시장이 텅 비었다고 한다.

295) 포제(酺祭) : 인물(人物)에 재해를 끼치는 나쁜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296) 태백성(太白星) : 별 이름인데, 태백성에 변괴(變怪)가 생기면 병란(兵亂)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

8월 17일(갑오) 온화했다. 김종간(李宗幹)이 호남에서 와서 대화를 나누고 과하였다. 바람에 쓰러진 재실을 다시 세웠다. 김창록과 김홍조가 왔다.

8월 18일(을미) 햇별이 나왔다. 김덕규(金德奎)와 김성항(金聖恒) 등이 방문했다.

8월 19일(병신)

8월 20일(정유) 이상 날씨는 온화하였다.

8월 21일(무술)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재실(齋室)을 상토(上土)로 승진(承塵)하고²⁹⁷, 부서진 띠풀로 덮어 비가 새는 것에 대비했다.

8월 22일(기해) 비가 내렸다.

8월 23일(경자) 재사 지낼 때에 달빛이 갑자기 밝았다. 한상기(韓相琦)가 왔다.

8월 24일(신축) 구름이 흩어져 날렸다.

8월 25일(임인) 맑고 추웠다.

8월 26일(계묘) 따뜻했다. 김학응, 공도관 등이 왔다.

8월 27일(갑진) 공도관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8월 28일(을사) 구름이 끼었다.

8월 29일(병오) 새벽에 이슬비가 내렸으나 식후에 해가 나오고 따뜻했다. 김홍조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김학응과 함께 향교에 들어갔다가 김덕규 집에서 묵었다.

8월 30일(정미) 식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9월

9월 1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이전과 같았다.

9월 2일(기유) 따뜻했다.

9월 3일(경술) 서풍이 불어 구름이 걷혔다. 관찰사 조엄(趙曷) 공이 순찰차 진해(鎭海)에서 길이 본현에 당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향교의 일을 보기 위해 읍에 들어갔다. 김학응(金學膺)과 함께 동행하고 김덕규 집에서 묵었다.

9월 4일(신해) 온화했다. 저녁에 관찰사가 본현에 들어와 유숙했다. 이번 관찰사의 순행에 여러 읍들이 무사한 일이 없었는데 유독 본읍만 번고(反庫)²⁹⁸하지 않았고 보호하는 방도가 많았다. 오직 두 세 명의 담당자만 형벌을 받았다. 나는 읍저(邑底)에 계속 머물렀다.

9월 5일(임자) 관찰사가 거제로 향했다. 나는 식후에 김학응과 함께 읍에서 나왔다. 재승(齋僧) 복련(福連)이 초3일부터 재실에서 머물렀다. 김홍조와 김창록이 왔다.

9월 6일(계축) 맑고 온화했다.

9월 7일(갑인)

9월 8일(을묘)

9월 9일(병진) 밤에 구름이 끼었다.

9월 10일(정사) 아침에 비가 흙먼지를 적셨다.

9월 11일(무오) 눈꽃이 날렸다. 아관이 가족을 데리고 왔다.

9월 12일(기미) 관대(冠帶)를 갖추고 계모임에 갔다.

9월 13일(경신) 비가 흙먼지를 적셨다. 조카 구봉조(仇鳳朝)가 작은 처[少妻]를 데리고 왔다.

9월 14일(신유)

9월 15일(임술) 서면(西面)의 손녀아이가 두창에 걸려 붉은 반점이 생겼다. 이날 비가 내렸

297) 상토(上土)로 승진(承塵)하고 : 흙의 기름짐과 메마름으로 상중하 3등을 구분하며 승진(承塵)은 먼지받이를 말한다.

298) 번고(反庫) :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9월 16일(계해) 바람이 숲을 흔들었다.

9월 17일(갑자) 온화했다. 감흥이 있어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한평생 병이 많고 또한 어려움 많아	一生多病亦多艱
남들 모르고 나를 평안하다고 여기네	人不能知謂我安
늙은이가 도리어 동자의 짝이 되어	老子還爲童子伴
마냥 외로웠던 마음 이로부터 풀리네	十分幽獨此中寬

9월 18일(을축)

9월 19일(병인)

9월 20일(정묘) 이상 날씨는 온화하였다.

9월 21일(무진)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9월 22일(기사) 정아(鼎阿)가 갈곡(葛谷)에 갔다.

9월 23일(경오) 밤에 비가 내렸다. 정아가 갈곡에서 돌아왔다.

9월 24일(신미) 이슬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9월 25일(임신) 온화했다.

9월 26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학응(李學膺)이 《통감절요》 제6권을 끝내고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양식을 대지 못한다면서 작별을 고하였다. 그래서 내가 글을 지어 작별하며 주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질병 근심에 휩싸인 한 늙은이일 뿐이다. 세상에 나다니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세상일과 사절했는데, 몇몇 제자들이 강권하는 바람에 어로(魚魯)를 분간 못하는 질문²⁹⁹에 억지로 답하였으니, 마치 봉사가 길을 가르쳐주는 꼴이었다. 옆에서 보는 자들이 입을 가리는 지경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장차 돌아가 옛 베개 베고 쉬면서 남은 생을 돌보려고 하였었다. 그런데 홀연 그대가 책상자를 짊어지고 공부하겠다고 방문하였는데, 낮 색을 보니 옥과 같았고 음성을 들으니 아양곡(峩洋曲)³⁰⁰과 같았으며, 재주를 시험해보니 빠르게 승승장구하여 원대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마침내 다시 병든 몸을 애써 일으켜 망년지우(忘年之友 나이 차이를 가리지 않고 사귀는 벗)로 삼았으니 벌써 일 년이 되었다. 두풍(頭風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두통)은 벌써 나았고 안막이 환히 걷혀 묵묵히 천 명의 병사가 고각(鼓角) 울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듯하였다. 지금 양식이 떨어져 군대를 퇴각하니 군막은 쓸쓸하고 진영은 조용하구나. 애석하도다 늙음이며, 실어다 먹일 힘이 없는 것이 부끄럽구나. 다만 생각건대 아궁이를 줄이는 계책³⁰¹에는 필히 집을 건사할 뜻이

299) 어로(魚魯)를 분간 못하는 질문 : ‘어(魚)’자와 ‘노(魯)’자를 분간 못할 정도로 무식하다는 뜻이다.

300) 아양곡(峩洋曲) : 춘추시대 백아(伯牙)가 타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들었다는 거문고 곡조로, 고산유수곡(高山流水曲)이라고도 한다. 백아가 거문고를 잘 땀는데 종자기는 이것을 잘 알아들었다. 그리하여 백아가 마음속에 ‘높은 산 [高山]’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이를 알아듣고 “아, 훌륭하다. 험준하기가 태산과 같다. [善哉 峨峨兮若泰山]” 하였으며, 백아가 마음속에 ‘흐르는 물 [流水]’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이를 알아듣고 “아, 훌륭하다. 광대히 흐름이 강하와 같다. [善哉 洋洋兮若江河]” 하였다. 이를 지음(知音)이라 하여 친구 간에 서로 상대의 포부나 경륜을 알아줄을 비유하게 되었다. 《列子 湯問》

301) 아궁이를 줄이는 계책 : 손빈이 방연(龐涓)과 함께 귀곡자(鬼谷子)에게 방법을 배웠는데, 위(魏) 나라 장수가 된 방연의 시기를 받아 발이 잘리고 묵형(墨刑)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뒤 제(齊)나라로 탈출, 치거(輜車)에 누워 군사를 지휘하였고, 급기야는 아궁이 숫자를 줄이는 계책[減竈策]을 써서 방연을 마릉(馬陵)에서 대패시켰다. 《史記 卷65》

있을 터이나 3년을 기다려 공부하려고 하니 어느 때나 눈을 수고롭게 공부하겠는가. 아, 세월은 흐르고 청춘은 머물러주지 않으니 지금과 같은 좋은 때에 힘쓰고 힘쓸지어다. 다음과 같이 시를 썼다.

길머리에서 행인들을 우두커니 바라보니	街頭佇立望征塵
이별의 회한 걸음걸음마다 새롭구나	別恨還隨步步新
용렬한 내 자신이 질차탁마 솜씨 부족하니	衰慵愧乏琢磨手
형옥을 옥인에게 돌려보내니 ³⁰²⁾ 어찌하리오	其奈荆珍歸玉人

9월 27일(갑술) 가랑비가 내렸다. 종대(從大)와 말대(末大) 등이 두창에 걸려 붉은 발진이 생겼다. 난손(蘭孫)은 이미 어제부터 붉은 발진이 생겼다.

9월 28일(을해) 온화했다.

9월 29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30일(정축) 온화했다. 서재 건물을 다 지었다.

10월

10월 1일(무인) 온화했다.

10월 2일(기묘)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10월 3일(경진)

10월 4일(신사) 밤에 비가 내렸다.

10월 5일(임오) 온화했다.

10월 6일(계미) 온화했다. 본관 사또 임의중(任毅中)이 6월 전최(殿最 근무평가)에서 상고(上考)를 받았는데 근무평론에 “권농을 비록 부지런히 했지만 위엄으로 단속하는 데 힘써야 한다[勸農雖勤, 威束宜勉]”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선박이 파손되는 사안으로 취리(就理)³⁰³⁾되었다. 경성(京城)에 도착하기 전 이틀거리에서 폄파(貶罷)된 소식을 듣고 이런 이유로 고성 관아로 돌아올 수 없었다. 신임 사또는 무변(武弁) 출신 평양 사람 김인권(金仁權)이 후보자로 추천되었다고 한다.

10월 7일(갑신) 어제와 같이 온화했다. 아관이 서면(西面)에 갔다.

10월 8일(을유) 종대(從大)에게 지난번 붉은 발진이 있는 듯했는데 한 두 쌍에 불과했고 이미 딱지가 떨어진 후에 그저께부터 통증이 있어 지금 붉은 발진이 시작했다.

10월 9일(병술) 구름이 얇게 끼었다. 김학응(金學膺)과 허경(許檄)이 왔다.

10월 10일(정해)

10월 11일(무자) 추웠다. 새 서재를 기념하여 다음과 같이 사운시(四韻詩) 2수를 지었다.

시끄러운 속세 밖에 집을 지으니 卜築囂塵外

302) 형옥(荆玉)을 옥인(玉人)에게 돌려보내니 : 형옥은 형산(荆山)의 옥으로, 바로 화씨벽(和氏璧)을 말한다.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박옥을 얻어 여왕(厲王)에게 바쳤는데 여왕은 가짜라고 의심한 나머지 그의 왼발을 베었고, 무왕(武王)도 역시 알아보기 못한 채 오른발을 베었다. 그 뒤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변화가 박옥을 안고서 3일간 주야를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니, 문왕이 옥인(玉人)에게 가공하게 하니 과연 보옥(寶玉)이었다는 고사가 있다. 《韓非子 和氏》이 구절의 뜻은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겸사이다.

303) 취리(就理) : 죄 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음을 말한다.

신선 되는 걸 배운다고 말들 하네	人言學作仙
시냇물과 산과 원래 교분 맺었으니	溪山元托契
바람과 달 값어치 따질 수 없네	風月不論錢
강학하는 나무에 현조가 열리고	講樹開玄棗
책 보는 등잔에 자연 ³⁰⁴ 이 일어나리라	書燈起紫烟
성현의 천만 마디 모든 말씀	聖賢千萬語
모두 양생편 ³⁰⁵ 이라네	皆是養生篇

또

동쪽 봉우리 위로 달이 걸리니	月掛東峯上
하늘이 우리 집안을 부르께 하네	天教號我家
정신이 온전히 백번 단련되어	精神全百鍊
둥글고 깨끗한 거울을 막 닦으니	圓潔鏡新磨
근심 즐거움 모두 잊어버려	憂樂都忘了
공후의 지위와 이를 바꾸지 않으리라	公侯不換他
차가운 한밤중 옥 나무에	玉樹寒夜半
홀로 자는 향아 ³⁰⁶ 를 상상하네	惟想獨眠娥

- 10월 12일(기축)
- 10월 13일(경인)
- 10월 14일(신묘)
- 10월 15일(임진) 이상 날씨가 추웠다.
- 10월 16일(계사) 맑고 온화하였다.
- 10월 17일(갑오)
- 10월 18일(을미)
- 10월 19일(병신) 이상 날씨가 추웠다. 이 때 대구어(大口魚)가 막 잡혔는데 값이 매우 싸서 1관(貫) 전(錢)에 25미(尾) 혹은 30미(尾)이다.
- 10월 20일(정유) 온화했다. 정아(鼎阿)이 뒤늦게 낳았던 딸이 역병으로 요절했다.
- 10월 21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봉전(鳳田)에 사는 아들의 세 살배기 큰딸 역시 두질(痘疾)에 걸려 요절했다.
- 10월 22일(기해) 온화했다. 역신(疫神)을 진송하는 곳을 했다.
- 10월 23일(경자)
- 10월 24일(신축)
- 10월 25일(임인)
- 10월 26일(계묘)
- 10월 27일(갑진) 이상 날씨는 매우 따뜻했다. 한득량(韓得良)의 관례(冠禮)가 있기에 가서

304) 자연(紫烟) : 깊은 산속에 이는 자줏빛 이내로, 신선의 세계를 뜻하기도 한다.
 305) 양생편(養生篇) : 진(晉)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인 혜강(嵇康)이 노장(老莊)을 좋아하여 《양생편(養生篇)》을 지었다.
 306) 향아(姮娥) : 예(羿)가 서왕모(西王母)에게서 불사약(不死藥)을 구해 놓았는데, 아직 먹기도 전에 그의 처인 향아가 몰래 복용하고는 신선이 되어 달 속으로 숨어 들어가 월정(月精)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淮南子 卷6 賢冥訓》

보고 돌아왔다.

10월 28일(을사)

10월 29일(병오) 새벽에 보니, 하얀 연무가 들판에 가득했다.

11월

11월 1일(정미) 온화했다가 밤에 추워졌다.

11월 2일(무신) 새벽에 보니, 눈꽃이 어지럽게 날려 들판 색깔이 새하얗게 되었으니, 몇 시각에 내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해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녹아버렸다.

11월 3일(기유) 춥지 않았다.

11월 4일(경술) 동지.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었다.

11월 5일(신해)

11월 6일(임자) 조금도 차가운 기운이 없었다. 저물녘에 보니 흰 안개가 서쪽 들판을 가로질러 있었다.

11월 7일(계축) 새벽에 연무가 들판에 가운데에 떠다니고 날씨가 봄처럼 온화했고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8일(갑인) 아침에 보니 가벼운 흙먼지가 갑자기 내린 비에 젖어 있었고 날씨는 어제처럼 따뜻했다. 소년들은 더러 솜옷을 벗었다.

11월 9일(을묘)

11월 10일(병진)

11월 11일(정사)

11월 12일(무오) 아승(升阿)이 봉전(鳳田)에 갔다.

11월 13일(기미)

11월 14일(경신)

11월 15일(신유) 이상 날씨가 춘삼월 즈음의 날과 같았다.

11월 16일(임술) 따뜻하였다. 아승과 윤서방이 왔다.

11월 17일(계해) 올해 처음으로 얼음을 보았지만 추위가 심하지 않았다. 사형(査兄) 황생원이 어제 계동(契洞)을 방문해서 묵었고 오늘 와서 계속 머물렀다.

11월 18일(갑자) 밤에 눈이 갑자기 내렸다. 김학웅과 공도관이 들어갔다.

11월 19일(을축) 아관이 왔다.

11월 20일(병인) 손님 황생원이 돌아갔다.

11월 21일(정묘) 매우 추웠다.

11월 22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3일(기사) 아관이 돌아갔다.

11월 24일(경오) 바람 소리가 진동했다.

11월 25일(신미)

11월 26일(임신) 이상 날씨가 추웠다.

11월 27일(계유) 춥지 않았다.

11월 28일(갑술)

11월 29일(을해) 이슬비가 내렸다.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시를 읊조리게 했다. 지금 먼 마을의 밤 등불로 제목을 삼아 절구시 한 수를 입으로 불렀다.

이때 두 횃불 아닌데 별빛처럼 나열되어 時非兩炬列如星
 빗속 너머 반짝반짝 희미하게 보이네 雨外微看燦燦形
 뉘 집 아낙네 부지런히 밤에도 일하는지 何處婦姑勤夜作
 마을마다 별탈 없고 집안 평안하네 村村無事室家寧

11월 30일(병자)

12월

12월 1일(정축)

12월 2일(무인)

12월 3일(기묘) 이상 날씨가 매우 추웠다. 큰 바다에 그물을 치는 사람을 소재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찬 파도 넘실대는데 몇 사람이 탄 배에 寒波出沒幾人舡
 그물 하나에 열 식구 근심이 모두 담겨있네 一網都輸十口愁
 알리노니 규중에 아내들이여 爲報閨中妻子道
 가난하여 가을맞이 없다고 한하지 마소 貧居莫恨不逢秋

12월 4일(경진) 지극히 따듯했다. 김학응이 왔는데, 김성수(金聲粹)가 함께 와서 공부했다.

12월 5일(신사) 몸이 다친 거지 아이가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저물녘 갈까마귀 다 날아가고 행인도 없는데 暮鴉歸盡路人無
 어느 곳 거리 모퉁이에서 슬피 우는가 何處悲號自巷隅
 소원이 금전 하나 정도에 불과하니 所願不過金一箇
 시대 구제할 계획 졸렬해 한미한 선비 부끄럽네 濟時謀拙愧寒儒

12월 6일(임오) 비가 그치지 않았다.

12월 7일(계미) 온화했다.

12월 8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9일(을유)

12월 10일(병술) 이상 모두 날씨가 같았다.

12월 11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는데,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12월 12일(무자) 밤에 비가 많이 쏟아졌다. 감홍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시를 읊조렸다.

임천에서 헛되이 삶 보낸 한 서생이 林泉虛老一書生
 한밤중 비바람에 서글픔 더하누나 風雨寒宵倍愴情
 모수의 송곳³⁰⁷은 천 그루 나무되지 못해 毛錐不作千章木

307) 모수의 송곳 : 모수(毛遂)는 전국 시대 조(趙)나라 평원군(平原君)의 문객(門客)이었던바, 평원군이 일찍이 그에게 말하기를, “현사의 처세는 비유하자면 마치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어 그 끝을 당장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진작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송곳 전체가 다 비어져 나왔을 것이요, 그 끝만 보일

기울어가는 큰 집 부여잡지 못해 한스럽네 恨未扶支大廈傾

12월 13일(기축) 비가 내렸다. 사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시를 읊조렸다.

곳은비 삼일 연속 내려	宿雨連三日
산문 닫혀 열리지 않구나	山門閉不開
층층 바위에 깊이 잠겨있고	層巖深鎖窮
그윽한 산길 축축한 이끼가 덮였네	幽逕濕封苔
저녁 풍경에 둥지에 깃든 학을 보고	晚景看巢鶴
봄 마음에 이른 매화를 묻네	春心問早梅
책을 안고 저녁내 누워있으니	抱書終夕臥
오만가지 상념 이미 재가 되었네	萬念已成灰

12월 14일(경인)

12월 15일(신묘)

12월 16일(임진) 아관이 왔다.

12월 17일(계사) 아관이 소곡(所谷)³⁰⁸과 봉전(鳳田)에 갔다. 밤에 눈이 내렸다.

12월 18일(갑오) 비가 내렸다.

12월 19일(을미) 아관이 돌아왔다. 김성수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12월 20일(병신) 아관이 이학웅·황수일·차인로 등과 같이 남관(南關)으로 들어갔고, 공도관은 옛 선창(艚倉)³⁰⁹으로 갔다. 오후에 이슬비가 내렸다.

12월 21일(정유) 새벽이전 한 밤중에 문을 열어 보니, 눈이 몇 치 정도 쌓였다. 식후에도 계속 개지 않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구름이 흩어졌다. 조카 성문(聖文)이 신행(新行)³¹⁰하였다.

12월 22일(무술) 하늘이 맑았다. 신임 통제사 이윤성(李潤成)³¹¹은 바로 옛 통제사 이창조(李昌肇)의 증손이다. 지금 부임하려고 내려오기에 아이들에게 글로 쓰게 했고, 나 역시 절구시 한 수를 읊조렸다.

궁궐에서 수레바퀴 밀고³¹² 호부³¹³ 나눠주니 天門推轂虎符分
 전제와 위풍이 관군후³¹⁴를 계승했네 專制威風屬冠軍
 서로들 말하니 변경에 비장군³¹⁵ 계셔 爭道三邊飛將在

뿐이 아니었을 것이다.[使遂蚤得處囊中 乃穎脫而出 非特其未見而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08) 소곡: 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재 마을.

309) 옛 선창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부마을 웃땀 서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옛날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 구선창(舊船倉)으로 불려왔다.

310) 신행(新行): 혼행(婚行)으로,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311) 《승충명록》에는 ‘李允成’으로 쓰여 있으나, 이윤성(李潤成)이 바로 표기이다. 그는 훗날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다.

312) 수레바퀴 밀고 : 원문의 ‘퇴곡(推轂)’은 옛날에 제왕이 장수를 파견할 때에 수레바퀴를 밀어 주면서 “곤내(關內)는 과인이 제어할 테니 곤외(關外)의 일은 그대가 제어하라.”고 하며 전권(全權)을 위임했던 것을 말한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313) 호부(虎符) : 구리로 범 모양을 만든 병부(兵符)이다.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군현의 수령에게 주어 군병을 출동시킬 때 표신으로 삼게 한 것이 처음이다.

314) 관군후(冠軍侯) : 한(漢)나라 광거병(霍去病)이 무제(武帝) 때 표요교위(嫖姚校尉)로서 뒤에 관군후로 여섯 번 흉노(匈奴)를 쳐 큰 공을 세웠다.

12월 23일(기해) 새벽에 보니, 지면에 또 눈이 쌓였다.

12월 24일(경자) 춥지 않았다.

12월 25일(신축) 떠다니는 구름 사이로 눈이 떨어졌다.

12월 26일(임인) 아침에 서산(西山)에 눈이 내리고 동쪽 고개에는 햇별이 나왔다. 전임 통제사 오혁(吳玉+奕) 공이 본현으로 나와 묵었다.

12월 27일(계묘) 신임 통제사 이윤성이 부임했다.

12월 28일(갑진) 이상 날씨가 춥지 않았다.

12월 29일(을사)

12월 30일(병오) 새벽에 보니, 동운(同雲 먹구름)에서 비가 새어 나와 아침 길이 갑자기 축축하더니 종일 비가 내려 재실에 많이 모여 평온하게 시간을 보냈다.

금년 농사는 곡식이 잘 여물긴 했는데 벼멸구 피해를 입어 흉년을 면치 못했다. 지금 시가는 추미(麴米)가 4말, 정미(精米)는 3말 반, 정조(正租)는 8말이다. 목화는 처음에 8·9근(斤)이었다가 끝 무렵에는 11·12근이었고, 필목(疋木)은 처음에는 2냥(兩)이었는데 연말에는 1냥 6·7전(錢)이었다. 대구어(大口魚)는 이곳에서 2속(束) 반, 혹은 3속이며, 청어(靑魚) 1급(級)은 돈으로 8푼[分]·7푼이다.

순상(巡相) 조엄(趙嚴) 공이 진주 목사 조성(趙姓)과 함께 남행(南行)하여 상의하면서 민정(民情)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창원(昌原) 마산포(馬山浦)와 진주 가산포(駕山浦)의 조창(漕倉)을 창설하여 열읍의 연호군(烟戶軍)을 크게 징발하여 민심이 흉흉하여 마치 죽임을 당하듯이 하였다. 가산포 조창의 재물을 실어 나를 때 죽은 사람이 셀 수가 없고 다친 자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는 대개 조창의 창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아무 이익이 없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신설하여 곤궁한 백성에게 부역을 독촉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상께서는 알지 못하는 일ियो, 중간에서 하는 일이니 나랏일의 끝을 알 수가 없구나. 한탄스러운 일이다.

경진년((1760년 영조36)

정월 소월. 1일 정미. 초3일 우수 월중. 18일 경칩 영령(令節).

2월 대월. 1일 병자. 초4일 춘분

3월 소월. 1일 병오. 초5일 곡우 월중. 20일 입하 4월절.

4월 소월. 1일 을해. 7일 소만 월중.³¹⁶⁾

5월 소월. 1일 갑진. 9일 하지 월중. 25일 소서 6월절.

6월 대월. 1일 계유. 11일 대서 월중. 21일 입추 7월절□…□.

7월 소월. 1일 계묘. 13일 처서 월중. 28일 백로 8월절.

8월 대월. 1일 임신. 15일 추분 월중. 30일 한로 9월절.

315) 비장군(飛將軍) : 한 무제 때 장군 이광(李廣)으로, 흉노(匈奴)가 비장군이라고 무서워하면서 감히 침입을 하지 못했다. 이백(李白)의 시에 “누가 이 비장(李飛將)을 동정해 줄까, 흰머리로 변방에서 쓰러졌나니.[誰憐李飛將 白首沒三邊]”라는 구절이 있다. 《李太白集 卷1 古風》

316) 원본에는 ‘헛되이 삶 보낸 한 서생[虛老一書生]’라는 글씨가 부기되어 있다. 전년 12월 12일(무자)에 “임천에서 헛되이 삶 보낸 한 서생이[林泉虛老一書生]”라는 시구 중 하나이다.

9월 대월. 1일 임인. 15일 상로 월중. 30일 입동 10월절.
10월 소월. 1일 임신. 15일 소설 월중. 29일 대설 11월절.
11월 대월. 1일 신축. 15일 동지 월중. 30일 소한 12월절.
12월 대월. 1일 신미. 15일 대한 월중. 29일 입춘 정월(政節).

1월

1월 1일(정미) 새벽에 보니 하늘이 맑고 들판에 안개가 떠다니더니 해가 뜨자 안개는 사라지고 날씨가 따듯했다.

1월 2일(무신) 오후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1월 3일(기유) 비가 그치지 않았다.

1월 4일(경술) 봉전(鳳田)의 며느리 아이가 친정에 갔다.

1월 5일(신해) 온화했다.

1월 6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7일(계축) 동운(同雲)이 끼어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아승이 봉전에서 돌아왔다.

1월 8일(갑인) 따듯했다.

1월 9일(을묘)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가서 김성소(金聖韶)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학응(李學膺)과 황수일(黃秀一) 등이 왔다.

1월 10일(병진) 온화했다.

1월 11일(정사) 바람이 불고 흐렸다. 이때 포구 가에 물가에 청태(靑苔)가 매우 많으니, 이 또한 무슨 징조인가?

1월 12일(무오)

1월 13일(기미) 봉전의 며느리아이가 친정에서 돌아왔다.

1월 14일(경신) 봉전의 후행(後行)³¹⁷ 황생(黃生)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15일(신유) 북풍이 불어 차갑고 구름이 끼었다. 도유사 배순문(裴舜文)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월 16일(임술) 눈이 어지럽게 떨어져 지면이 하얗게 되었으나 잠시 후에 해가 나오자 눈이 녹았다. 오후에 또 서산에 눈이 연기처럼 날리는 것을 보았다. 도유사 배순문(裴舜文)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조창(漕倉)에서 운반하던 역졸(役卒)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다. 하동(河東) 3개 면의 군정(軍丁)이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고 원성이 길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모두 난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고성(固城)의 서면과 북면의 연민(烟民) 일반 백성이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1천 5백 명이 부역을 나갔는데, 오늘 또 북면의 나머지 면민 및 동면과 남면, 서읍(西邑) 등에서 1천 5백 명이 부역을 나갔다. 눈보라를 무릅쓰고 길을 나설 즈음에 가는 사람은 탄식하고 남은 사람은 전송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으니 이 무슨 시대의 상황인가. 이상하고 이상하다.

1월 17일(계해)

1월 18일(갑자)

1월 19일(을축) 이상 날씨가 약간 추웠다.

1월 20일(병인)

317) 후행(後行) : 혼인 때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가족으로, 위요(圍繞)라고 한다.

1월 21일(정묘)

1월 22일(무진)

1월 23일(기사) 내일 한득량(韓得良)이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 때문에 나는 미리 가서 만나고 돌아왔다.

1월 24일(경오) 온화했다.

1월 25일(신미) 아침에 서산에 연무(烟霧)처럼 뿌옇게 눈이 내리다가 그치는 정경을 보았다. 재승(齋僧) 복련(福連)이 각처의 포흠(逋欠 미납 조세)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난달 초9일에 닥나무를 판다는 핑계로 나갔다가 아직껏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 21세 장암(莊庵)³¹⁸의 중 용학(龍學)이 지난 24일에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21일부터 병이 들어 자리보전만하고 있다가 오늘 역병이 발생하여 치료하느라 매우 힘든 상황이니, 괴롭고 괴롭도다.

1월 26일(임신) 화창했다.

1월 27일(계유)

1월 28일(갑술)

1월 29일(을해) 이상 날씨가 같았다.

2월

2월 1일(병자) 빗방울이 몇 번 떨어졌다.

2월 2일(정축) 본관 사또 김인권(金仁權) 모친의 부고 소식이 도착했다. 조창(漕倉)에 부역을 나갔던 본읍 사람들이 오늘 돌아왔는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다. 오직 하동 백성들만 사망자가 날마다 이어졌다고 한다.

2월 3일(무인) 약간 차가웠다. 황민중(黃敏中)이 집으로 돌아갔다.

2월 4일(기묘) 사또 김인권(金仁權)이 새벽에 분상(奔喪)하였다.

2월 5일(경진) 바람 불고 차가웠다.

2월 6일(신사)

2월 7일(임오)

2월 8일(계미)

2월 9일(갑신) 이상의 날씨는 바람이 불고 기후가 고르지 않았다.

2월 10일(을유) 해가 나왔는데 흠비가 내렸다.

2월 11일(병술)

2월 12일(정해)

2월 13일(무자) 이상 날씨가 무척 봄날처럼 온화한 기운이 있었다.

2월 14일(기축) 비가 내렸다.

2월 15일(경인)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새 그치지 않아 들에 물이 넘쳐흘렀다.

2월 16일(신묘) 구름이 흩어졌다.

2월 17일(임진) 화창했다. 백봉래(白鳳來)와 함께 왔다. 생도 홍우평(洪禹平)이 숲속 꽃놀이에 모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따라오고 친지들이 많이 모여 한 바탕 좋은 잔치를 벌이고 파하였다.

지난번 조창(漕倉)의 재목을 남벌해서 사사로이 팔려고 하였다가,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우려하여 각 읍의 조운선(漕運船)의 재목을 분담하여 정했다. 이 때문에 본 읍의 군정(軍丁)이

318) 장암: 경남 고성군 거류면 장의사.

또 7·8일 전에 달려가 끌고 왔는데 오늘 겨우 돌아왔으니, 그간의 고생한 정황은 이루 다 쓸 수가 없다. 이번 달 초에 의령(宜寧)의 군정 6천여 명이 조창 부역으로 달려왔는데, 순비(巡裨) 및 진주(晋州)의 색리(色吏 담당 아전)가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처리하여 부역의 배분이 고르지 않았다고 한다.

깃발을 휘둘러 군정을 모아 감색이 머물고 있던 마을을 에워쌌더니 감색이 먼지 받이[承塵] 위에 숨었는데, 군인이 마침내 불을 질러 찾아내어 마구 난봉(亂棒)했다. 순비(巡裨)는 몸을 노출한 채 빠져나와 도망하여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색리(色吏)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사천(泗川) 사또가 의령(宜寧) 향소(鄉所 향청(鄉廳))에 굳게 요구해서 감옥에 가두었더니, 의령 백성들이 또 깃발을 휘둘러 사천 성 밖을 에워싸고 장차 성문을 공격하여 부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천 사또가 하는 수 없이 의령 향소에서 내보냈다. 이곳의 사리(事理)가 매우 놀랄만하다.

남관(南關) 김불삭(金不朔) 형제와 김오손(金五孫)이 와서 배웠고, 박인득(朴寅得)도 왔다.

2월 18일(계사) 화창하다가 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2월 19일(갑오) 아침에 갑자기 비가 내려 축축했으나 식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2월 20일(을미) 오후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2월 21일(병신)

2월 22일(정유) 이상 날씨가 따듯하였다.

2월 23일(무술) 비가 내렸다.

2월 24일(기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때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다시 수정하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유사(有司)를 정하여 응당 수록되어야 할 내용을 모았다. 이런 이유로 면(面) 내로부터 본 마을의 사적을 수정할 때에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縣)의 동쪽 10리에 거류산(巨流山)³¹⁹이 있는데 일명 유민산(流民山)이라고도 한다. 이 산이 본래 영험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산 정상에 큰 돌이 있는데 마치 시위를 당긴 것처럼 길게 구부러져 있어 하늘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는 것 같다. 그리고 흡사 한 노인이 의관을 엄숙히 하고 서있는 것과 비슷하여 노수암(老壽巖)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이런 이름을 갖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은 은정리(銀亭里)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업은 밭 갈고 누에치는 것이며, 예의범절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다. 그리고 마을에 장수하고 강녕한 사람과 충효 절의(忠孝節義)한 사람이 많다. 옛날 임진왜란 때에는 모집에 호응하여 순국한 선비가 이 산 아래에서 많이 나왔다. 본 마을에도 고(故) 주부(主簿) 구(仇)○○가 있는데 바로 창원(昌原) 사람으로 성균 진사 ○○의 아들이다. 그 분은 왜적이 쳐들어와 혼란한 때를 당하여 낮에는 숨고 밤에 행군하여 의령 세간리(世干里)³²⁰에 있는 의병장 곽 망우당(郭忘憂堂 곽재우)의 진중(陣中)으로 달려갔다. 여러 차례 왜적의 수급을 바친 공로로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권되었는데, 이 일이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공과 조방장(助防將) 곽재우(郭再祐) 공의 장문(狀聞 장계) 내용 중에 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위 박광춘(朴光春)과 김희방(金希邦)도

319) 거류산 :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 소재한 산으로 높이는 570m이다. 고성의 진산은 무량산인데 진산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동으로는 당동만, 서로는 고성읍, 동북으로는 동해면과 구절산, 남으로는 통영시 광도면과 벽방산과 마주한다. 유민산이라고도 했다. 거류산은 벽방산으로부터 왔다.

320) 세간리(世干里) :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에 있는 리(里)이다.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있는 은행나무 옆에서 자라는 느티나무도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 곽재우(郭再祐)가 북을 달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훈련시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고수(懸鼓樹)라고 불리고 있다.

2등 공신에 참록되었는데 박광춘은 행군수(行郡守)이고 김희방은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니, 왜란 이후의 장적(帳籍)에서 상고할 수 있다.

본 마을의 고(故) 노직(老職)³²¹ 통정대부 구○○은 바로 주부공(主簿公)의 5대손이다. 그 분은 천성적으로 효성스럽고 순수하고 과묵하여 향리에서 칭송이 있었으며, 관례(冠禮)를 올린 이후로 흰머리가 되도록 남과 다툰 적이 없었다. 주부공의 아내는 함천이씨(陝川李氏)로, 잘 받들어 순종하며 어김이 없었고 예의범절이 숙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송하였다. 건륭 병인년(1746, 영조22) 회혼(回婚)³²² 해를 맞았을 때 나이 79세였고, 이씨는 나이 82세였다. 자식이 9명이고, 내외손 합하여 48명이다. 그 아들 상신(尙愼)과 상덕(尙德)이 올해 정월에 축수하는 잔치를 베풀어 모두 영예를 드러내는 자리를 마련하니, 관에서도 예물을 갖추어 보냈다. 온 고을의 상하노소가 다 모였고, 먼 고을의 선비들도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와 시를 지어 찬미하였으며, 길을 가득 메우고 노래하고 춤추며 감탄하는 자들이 실로 천여 명을 밀돌지 않았다. 보는 자들은 모두 성대한 일이라며 칭송하였다. 3년이 지난 무진년(1748)에 또 천작연(天爵宴)을 베풀자, 사람들이 모두 복되고 착한 경사라며 칭송하였다. 그 후 주부공께서는 향년 83세, 이씨는 향년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으니, 이는 근래 드문 일이라 후인들이 보고 감동하는 바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산 아래에 예로부터 기이한 행적이 많았는데 지금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 현지(縣誌 고성지)와 《여지승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2월 25일(경자) 청명하다가 밤에 서풍이 불어 지붕의 띠풀을 감아 말았다. 이학응(李學膺)이 황민중(黃敏中) 형제, 김성수(金聲粹) 등과 함께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2월 26일(신축) 청명했다.

2월 27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觀阿)이 문안인사 왔다.

2월 28일(계묘) 온화했다.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2월 29일(갑진) 아관이 돌아갔다.

2월 30일(을사) 그름.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갑자기 떨어졌다.

3월

3월 1일(병오)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3월 2일(정미) 쾌청하고 온화했다.

3월 3일(무신)

3월 4일(기유) 굿은비가 갑자기 개었다. 박명유(朴命宥), 백봉정(白鵬汀), 김창복(金昌復), 이익태(李益泰) 등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답소를 나누고 돌아갔다.

3월 5일(경술) 구름이 얇게 끼었다. 진성(晋城)의 사돈 최응천(崔應天)이 와서 유숙했다.

3월 6일(신해) 화창하고 온화했다.

3월 7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8일(계축) 온화하다가 저녁이 되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읍에 들어가서 홍우평(洪禹平) 집에서 묵었다.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9일(갑인)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신임 사또 무변(武弁) 출신 정운제(鄭雲濟)가 부임했다. 나는 홍생의 집에 계속 머물렀다.

321) 노직(老職) :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여 하사한 관직이다.

322) 회혼(回婚) :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맞는 예순 돌 되는 날. 또는 그해를 가리킨다.

3월 10일(을묘) 구름이 흩어졌다. 오후에 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1일(병진) 화창하고 온화했다.
 3월 12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영창(營倉)에서 환곡을 나누어 주었다.
 3월 13일(무오) 맑고 온화했다. 읍에 갔다가 현지(縣誌)를 만드는 곳에 들렀다가 왔다.
 3월 14일(기미)
 3월 15일(경신)
 3월 16일(신유) 구름이 얇게 끼었다. 읍에 들어갔다가 성서(城西)에 있는 김응규(金應奎) 집에서 묵었다.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17일(임술) 종일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3월 18일(계해) 쾌청하고 온화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들판이 추웠다.
 3월 19일(갑자) 짙은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더니 식후에 흩어졌다.
 3월 20일(을축) 식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저물녘에 쾌청했다.
 3월 21일(병인) 맑고 온화했다.
 3월 22일(정묘) 새벽에 달이 갑자기 사라지고 가는 빗줄기가 소리를 내며 내리더니 저물녘에 개었다.
 3월 23일(무진) 맑고 온화했다.
 3월 24일(기사) 새벽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본 고을의 삼세(三稅)는 동면·서면으로 반분하여 동면은 마산(馬山)의 여창(厲倉)으로 나르고, 견내량(見乃梁)³²³ 서쪽은 가산창(駕山倉)³²⁴에 속했다. 가산창은 21일에 바쳐야 하고 여창은 25일에 바쳐야 하므로, 동면의 민부(民夫)들이 오늘 뱃머리에서 날라 옮기느라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인 남녀들이 길에 이어졌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였다. 오후에 관(官)에서 다음 달 1일로 날짜를 연기하자 먼 면에서 뱃머리까지 이미 옮긴 것을 또 바람을 무릅쓰고 도로 운반하였다.
 3월 25일(경오) 구름이 흩어졌다. 현지(縣誌)를 만드는 곳에 갔다가 비내릴 때에 돌아왔다.
 3월 26일(신미) 북풍이 청량(淸涼)했다.
 3월 27일(임신) 박천광(朴天光)이 와서 공부했다.
 3월 28일(계유)
 3월 29일(갑술) 새벽에 비가 가벼운 흙먼지를 적시고는 그쳤다.

4월

4월 1일(을해) 해가 나왔다가 비가 내렸다가 했다.
 4월 2일(병자)
 4월 3일(정축) 재쟁 등이 산에 기도를 드렸다.
 4월 4일(무인) 저물녘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4월 5일(기묘)
 4월 6일(경진) 윤서방이 왔다.
 4월 7일(신사)

323) 견내량(見乃梁)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를 잇는 거제대교의 아래 쪽에 위치한 좁은 해협이다. 임진왜란 때 한산 대첩의 주요 배경이자, 현재는 거제대교와 신거제대교가 걸쳐 있는 곳이다.

324) 가산창(駕山倉) : 우조창(右漕倉)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40리 바닷가에 있다. 영조 경진년에 관찰사 조엄(趙巖)이 조정에 아뢰어 설치하여, 진주·곤양(昆陽)·하동·단성·남해·사천 및 고성 서북면, 의령 서남면의 전세(田稅)·대동(大同)을 거두어 수로로 서울에 이르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경상도(慶尙道) 진주목(晉州牧)

4월 8일(임오) 오후에 구름이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깊은 밤에 비를 뿌렸다.
4월 9일(계미) 비가 많이 내렸다.
4월 10일(갑신) 구름이 흩어졌다.
4월 11일(을유) 습한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4월 12일(병술) 새벽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4월 13일(정해) 거접(居接)을 시작했다.
4월 14일(무자)
4월 15일(기축)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4월 16일(경인) 해가 나왔다.
4월 17일(신묘) 맑고 온화했다. 올벼 이앙을 시작했다. 재당(齋堂)에 담을 쌓았다.
4월 18일(임진)
4월 19일(계사)
4월 20일(갑오) 김시혁(金時赫) 형제가 집으로 돌아갔다.
4월 21일(을미) 황민중(黃敏中)이 문안인사 왔다.
4월 22일(병신) 이학응(李學膺)이 문안인사 왔다.
4월 23일(정유) 더웠다.
4월 24일(무술) 더웠다. 나는 읍에 다녀왔다. 이학응과 황민중이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4월 25일(기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4월 26일(경자) 아침에 구름이 갑자기 이슬비를 내리다가 그쳤다. 김시혁(金時赫) 형제가 김시손(金時孫)과 함께 왔다.
4월 27일(신축) 밤에 안개가 끼고 낮에 햇볕이 나왔다.
4월 28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9일(계묘) 그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관(阿觀)이 어제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5월 소월.

5월 1일(갑진) 이슬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5월 2일(을사) 짙은 구름이 저녁이 되자 흩어졌다.
5월 3일(병오) 허경(許檄)과 김철수(金喆秀)가 왔다.
5월 4일(정미)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쳤다.
5월 5일(무신) 화창하고 더웠다.
5월 6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덕손(金德孫)이 와서 공부하였다.
5월 7일(경술)
5월 8일(신해) 아침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그쳤다.
5월 9일(임자) 비가 진흙탕을 만들고는 그쳤다.
5월 10일(계축)
5월 11일(갑인) 이상의 날씨는 비가 올 듯했지만 내리지 않았다. 김해(金海)에 사는 벗 김덕하(金德廈)가 통영에서 와서 방문하고 유숙했다.
5월 12일(을묘) 손님이 돌아갔다.
5월 13일(병진) 이른 새벽에 우레 소리가 크게 진동하고 빗줄기가 쏟아졌다. 아침에 보니, 냇물이 계속 흘렀고 봉천답(奉天畝)은 남김없이 이앙이 다 끝났다.

5월 14일(정사) 구름이 흩어졌다.
 5월 15일(무오) 화창하고 온화했다.
 5월 16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7일(경신)
 5월 18일(신유) 이상 날씨가 같았다. 김철수(金喆秀)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나는 읍에 다녀왔다. 들으니, 13일 내린 비가 북면에 부족했고, 또 상도(上道)의 각 읍에 막 기우제를 지내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
 5월 19일(임술) 저물녘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허경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5월 20일(계해) 비가 내렸다.
 5월 21일(갑자)
 5월 22일(을축) 이상 날씨는 비가 내렸다.
 5월 23일(병인)
 5월 24일(정묘)
 5월 25일(무진)
 5월 26일(기사) 이상 날씨는 짙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5월 27일(경오)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주셨다. 나는 깨어나서 감응이 있어 읍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꿈속에 어머니 얼굴 뵈니	夢裡慈顏近
저승에서도 날 멀리하지 않으셨네	冥間不我遐
침 맞을 때 자주 이마 어루만졌고	下針頻撫頂
사발 받들 때 가느다란 연기가 생겼지	承碗細生霞
영령을 만나도 오히려 소중하여	靈魄見猶重
하늘까지 망극한 애통 끼치니	昊天痛罔涯
아득한 하늘도 뜻을 아신다면	蒼茫如會意
아버지 어머니 함께 하길 소원하네	願得共阿爺

저녁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5월 28일(신미) 혹 햇별이 나오기도 했다가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5월 29일(임신) 그름. 햇별이 뜨겁지만 서남풍이 시원하게 불었다. 달이 하얗게 밝고 넓게 강산을 비추었다.

6월 대월.

6월 1일(계해)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더니 구름이 흩어지고 날이 더웠다. 저녁에 다시 구름이 끼고 서남풍이 불어왔다.
 6월 2일(갑술)
 6월 3일(을해) 매우 더웠다.
 6월 4일(병자) 더운데 미풍이 불었다. 이학응(李學膺)이 왔는데 김광복(金光復)과 함께 도착했다.
 6월 5일(정축) 새벽 침소에서 끌어 온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새들이 서로 화답하는 소리

를 듣고 드디어 읍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깊은 바위 입구에서 출발하여	發迹深岩口
큰 바다로 돌아갈 마음이라	歸心大海頭
바다로 흘러갈 ³²⁵⁾ 길만 묻고	朝宗惟問路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구나	晝夜莫停流
바람이 뗏목 탄 나그네 전송하고	風送乘槎客
달이 낚싯배 밝게 비추구나	月明下釣舟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데	終宵眠不寐
어느 곳 두견새가 수심 어리나	何處杜鵑愁

6월 6일(무인)

6월 7일(기묘) 갑자기 비가 내렸다. 남촌진장(南村鎭將) 임억주(林億柱)가 그의 손자 임시무(林時茂)를 보내 공부하게 하였다.

6월 8일(경진)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임시무가 돌아갔다.

6월 9일(신사) 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6월 10일(임오) 비가 내리다가 햇별이 나왔다.

6월 11일(계미) 임시무가 와서 공부하고 돌아갔다. 저물녘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6월 12일(갑신)

6월 13일(을유)

6월 14일(병술)

6월 15일(정해) 이상 날씨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6월 16일(무자) 비가 가끔 쏟아져 내렸다.

6월 17일(기축) 어제와 날씨가 같다.

6월 18일(경인)

6월 19일(신묘)

6월 20일(임진)

6월 21일(계사) 이상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괴롭게 여겼다.

6월 22일(갑오) 오후에 바람이 불고 맑으면서 날씨가 더웠다.

6월 23일(을미) 맑으면서 더웠다.

6월 24일(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25일(정유)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 나뉘어 있었다.

6월 26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7일(기해) 오늘 입추(立秋)인데 다시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학응(李學膺)과 김시혁(金時赫) 형제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6월 28일(경자) 비가 마구 쏟아졌다.

6월 29일(신축) 비가 저물녘에 개었다.

6월 30일(임인) 남풍이 불고 맑으면서 더웠다.

325) 바다로 흘러갈 : 원문의 '조종(朝宗)'은 원래 온갖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서경》 우공(禹貢)에 “강한(江漢)이 바다에 조회하듯 모여든다.[江漢朝宗于海]”라는 구절이 보인다.

7월

7월 1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오늘 조고(祖考)의 휘일(諱日 기일(忌日)) 제삿날인데 집안 살림이 부족하고 어려워져 단지 밥과 국 정도만 올리니, 끝없이 슬피 통곡하였다.

7월 2일(갑진)

7월 3일(을사) 이상 날씨가 맑으면서 더웠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7월 4일(병오)

7월 5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다.

7월 6일(무신) 저녁에 서북쪽 하늘 검은 구름 가운데를 보니, 번개가 번쩍번쩍하였다.

7월 7일(기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7월 8일(경술) 더웠다. 조카 류문경(柳文經)이 문안하고 유숙하였다.

7월 9일(신해) 구름이 계속 끼고 빗방울이 내렸다. 조카 류문경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7월 10일(임자)

7월 11일(계축) 이상 날씨가 비 내거나 무덥지 않은 날이 없었다.

7월 12일(갑인) 소낙비가 지나갔다.

7월 13일(을묘) 처서(處暑). 구름이 피어 올라왔다. 올벼를 수확했다.

7월 14일(병진) 구름이 계속 끼고 빗방울이 내렸다.

7월 15일(정사) 오후에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송도(松道)의 앞 들판을 바라보니, 물이 용두정(龍頭亭)³²⁶ 아래까지 범람하였다.

7월 16일(무오) 비가 내렸다.

7월 17일(기미) 비가 내렸다.

7월 18일(경신) 청량하였다.

7월 19일(신유)

7월 20일(임술) 이상 날씨가 같았다.

7월 21일(계해) 동풍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밤이 깊어지려고 할 적에 비가 내렸다. 나는 병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치료하였다.

7월 22일(갑자) 비가 흠뻑 내렸다. 추상갑(秋上甲)에 내린 비는 불길한 징조인 듯하다.³²⁷

7월 23일(을축) 맑고 온화하였다.

7월 24일(병인) 비가 저물녘에 개었다.

7월 25일(정묘)

7월 26일(무진) 이상 날씨가 오전에는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오후에 하늘이 맑았다.

7월 27일(기사) 비가 이따금 내려 가벼운 먼지를 적셨다. 서면(西面)의 손녀 딸아이가 왔다. 밤에 비가 흠뻑 내렸다.

7월 28일(경오) 저물녘에 비가 개었다. 어제 밤에 아랫집에 유기(鑰器)와 체발(髻髮)³²⁸ 등의 물건들을 잃어버렸다.

7월 29일(신미) 날씨가 더웠다. 세자 저하(世子邸下 사도세자)께서 이달 17일에 출발하여 20일에 온양(溫陽)의 온천에 거동한다고 하였다.

326) 용두정(龍頭亭) : 송도는 고성읍 송학동의 옛이름이다. 용두정의 실체는 미상이나 송도 어귀에 있었던 정자인 듯하다.

327) 추상갑(秋上甲)에 내린 비는 불길한 징조인 듯하다 : 추상갑은 입추 후의 첫 번째 갑자일로, 비가 오면 벼에서 싹이 나도록 장마가 진다고 여겼다. 《사시찬요》

328) 체발(髻髮) : 머리털에 덧드리는 다리, 또는 그것으로 틀어 만든 큰 머리이다. 체계(髻髻)·다리[月子]라고도 한다.

8월

8월 1일(임신) 다시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햇볕이 많이 나오고 날씨가 더웠다. 아관(阿觀)이 문안인사 왔다. 이서방이 문안 왔는데 조카 류상경(柳尙敬)과 함께 왔다. 이날 밤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바람소리가 우레처럼 들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잠시 뒤에 바람이 그쳤다. 시가[市直]는 햅쌀[新米] 3말이다.

8월 2일(계유) 구름이 흩어졌으나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관이 돌아갔다. 이서방과 류상경 역시 모두 돌아갔다. 김시혁(金時赫) 형제와 김광복(金光復)이 역시 작별하고 돌아갔는데, 수군 훈련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8월 3일(갑술)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지다가 그쳤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8월 4일(을해) 온화했다.

8월 5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6일(정축) 짙은 구름이 비를 몰고 왔으나 흙먼지도 적시지 못했다. 시가[市直]가 쌀[米] 4말이다.

8월 7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8일(기묘) 가랑비가 내렸다.

8월 9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0일(신사) 짙은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맺히다가 저물녘에 개었다.

8월 11일(임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8월 12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갈산 류매형(柳妹兄)이 와서 제사에 참여하였다.

8월 13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선친(先親)의 휘일(諱日 기일(忌日))인데, 형님이 ■...(원문 결락)■■ 통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8월 14일(을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5일(병술)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오늘은 바로 통영의 대조(大操 대규모 군사훈련)하는 날이다. 통제사 이윤성(李允成) 공이 비록 파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조정에서 임시로 군사 훈련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8월 16일(정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시가[市直]가 혹 3말 혹 3말 반인데 시장에 사람이 없어 적막하다고 하였다.³²⁹⁾

8월 17일(무자) 북풍이 불어 갑자기 서늘해졌다. 통영에서 활쏘기 시험을 치를 때 전주 상인(商人) 출신으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던 활꾼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8월 18일(기축) 햇볕이 나오고 따뜻했다. 사또가 배를 타고 돌아와 정박했다. 형님이 혼자 돌아왔다.

8월 19일(경인) 화창했다. 이 때 마을 사람 가운데 내게 고을 일에 관여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바탕 웃고 다음과 같이 절구시 한 수를 지었다.

조예³³⁰⁾처럼 맞지 않아 북창 아래 누웠으니 鑿柄相違臥北窓
문 앞 한 발자국도 위태로운 세상살이 門前寸步視危邦

329) 원문에는 ‘晉州八月中’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연문(衍文)인 듯하다.

330) 조예(鑿柄) : 초나라 송옥(宋玉)의 <구변(九辯)>에 “둥글게 깎인 구멍에 네모진 기둥 끝을 끼우려 함이여, 서로 맞지 않아 들어가기 어려움을 내가 참으로 알겠도다. [圓鑿而方柄兮 吾固知其鉏鍔而難入]” 한 데서 나왔다. 자신이 세상과 맞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다.

햇살이 높이 오르도록³³¹⁾ 봄잠 충분한데 三竿日旰春眠足
산 너머에는 삼살이 시끄럽게 짓구나 山外猶喧吠怪豕

이날 저녁 사내중 득금(得金)이 아침에 소에게 풀을 먹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8월 20일(신묘) 화창했다. 아침에 살짝 서리가 내린 흔적이 있었다.

8월 21일(임진)

8월 22일(계사) 구름이 짙게 끼고 밤에 동풍이 불었는데, 바람이 그치자 비가 내렸다.

8월 23일(갑오) 한창 제사를 지내고 있을 적에 비가 땅 위를 적셨다.

8월 24일(을미) 화창했다. 서면(西面)에 사는 손녀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갔다. 아승(阿升)이 봉전(鳳田)에 갔다. 아관(阿觀)이 와서 문안 인사를 하고 곧바로 돌아갔다. 이날 밤에 비가 또 갑자기 지나가면서 내렸다.

8월 25일(병신) 온화했다. 전임 통제사 이운성(李允成) 공은 나와서 신임 통제사를 맞이했는데 신임 통제사 이태상(李泰祥) 공이 본현에서 도착하자 관인(官印)을 인수인계하였다. 전임 통제사는 사천(泗川)으로 향해갔고 신임 통제사는 유숙하였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서문(西門) 밖에서 숙박했다.

8월 26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신임 통제사 이태상이 부임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저녁에 막 취침하려고 하는데 재실 서쪽 협실 북쪽 처마에서 불이 나서 즉시 불을 끄었다. 한바탕 크게 놀랐는데 아이들이 측간에서 실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8월 27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8일(기해) 친변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8월 29일(경자) 흐리다가 갑자기 빗방울이 내렸다.

8월 30일(신축) 그름.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9월 1일(임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9월 2일(계묘) 쾌청했는데 북풍이 갑자기 불어 구름을 몰고 왔다. 진성(晋城)의 조카딸이 신행(新行)을 갔다.

9월 3일(갑진) 온화했다. 진성(晋城)에 간 일행이 별탈없이 돌아왔다고 소식을 전하였다.

9월 4일(을사) 온화했다.

9월 5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6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가리(加里)의 백봉년(白鳳年) 집의 담제(禫祭)를 가서 보고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쌀 4말 반, 조(租) 11,2 말이다.

9월 7일(무신) 약간 흐렸다.

9월 8일(기유)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쳤다.

9월 9일(경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10일(신해) 생도(生徒) 가운데 양식을 잊지 못해 우선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었다.

9월 11일(임자)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331) 햇살이 높이 오르도록 : 원문의 '삼간(三竿)'은 해가 세 길쯤 올라온 오전 8시 경을 말한다.

9월 12일(계축) 관대(冠帶)를 갖추고 계모임에 참석했는데, 각자 3관(貫) 돈을 분담하여 수시로 소용되는 비용으로 삼았다.

9월 13일(갑인) 서풍이 숲을 흔들고 떠다니던 구름이 비를 몰고 왔다.

9월 14일(을묘) 온화했다. 김광백(金光白)이 초10일 갔다가 오늘 돌아왔다.

9월 15일(병진) 본동(本洞)의 사계(射契)가 작년에 광이(光二)와 당동(堂洞)에서 기예를 겨루었는데 패하고 돌아왔다. 이번 17일에 답례(答禮)를 행하려고 하므로 나에게 통문을 작성하여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변치 못한 저희들은 자신을 바로잡은 뒤에야 활을 발사하고³³²⁾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짐승을 사로잡는³³³⁾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물러나 양보하는 풍습을 행했으니, 마땅히 보답하는 예법을 닦아야 합니다. 맑은 가을에 달은 밝고 농사는 풍년들어 절기 좋은 때라, 장수의 단(壇)을 높이 열고 붉은 깃발 새로 세웠으니, 어찌 조맹덕(曹孟德 조조)의 회렵(會獵)³³⁴⁾을 꺼리겠습니까. 장차 황석공(黃石公)의 포상(包桑)³³⁵⁾을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는 17일에 당동에서 은정(銀亭) 아래로 옮기니 연례(燕禮)의 자리에 참석하여 향사(鄉射) 의식을 강해(講解)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기예를 겨루는 장소겠습니까. 덕을 살펴볼 수 있는 방도³³⁶⁾입니다. 매우 다행입니다.

9월 16일(정사) 온화했다. 생원 박증윤(朴增潤)이 방문하고 이어 유숙했다.

9월 17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활꾼들이 활쏘기를 시합했는데 본접(本接)이 승리했다.

9월 18일(기미)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정도 나뉘었다. 생원 박증윤이 돌아갔다.

9월 19일(경신)

9월 20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1일(임술) 진시(辰時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에 조카 정명열(丁命說)의 계증조모(繼曾祖母) 이씨가 86세로 별세했다. 정명열은 승중(承重)³³⁷⁾으로 상복을 입었다.

9월 22일(계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23일(갑자) 비가 내렸다.

9월 24일(을축)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9월 25일(병인) 또 비가 종일토록 내려 냇물이 넘쳤다.

332) 자신을……발사하고 : 《맹자》 〈공손추 상〉에 “인한 자는 활쏘기를 하는 것과 같으니, 활을 쏘는 자는 자신을 바로잡은 뒤에야 발사하여, 발사한 것이 맞지 않더라도 자신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자신에게서 찾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333) 정당하지……사로잡는 : 《맹자》 〈등문공 하〉에 보이는 말몰이꾼 왕량(王良)의 고사로, 부정한 방법으로 짐승을 만나게 해서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게 하였다는 것이다.

334) 회렵(會獵) : 회렵은 만나서 사냥하자는 뜻으로, 회전(會戰)과 같은 말이다. 위(魏)나라 조조(曹操)가 오(吳)나라 손권(孫權)에게, “지금 수군(水軍) 80만을 거느리고 장군과 더불어 오(吳) 땅에서 회렵(會獵)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

335) 황석공(黃石公)의 포상(包桑) : 한나라 장량(張良)이 하비(下邳)의 다리 위에서 황석공(黃石公)이라는 노인을 만나, 그의 신발을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공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신겨 준 일을 말한다. 그 덕분에 황석공으로부터 《태공병법(太公兵法)》을 받고 익힌 결과,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황석공의 저서 중 〈포상기(包桑記)〉가 있는데 거기에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이기고, 약함이 능히 강함을 이긴다.[柔能勝剛 弱能勝強]”라고 하였다.

336) 《예기(禮記)》 사의(射儀)에 “활쏘기를 통해 성대한 덕을 볼 수가 있다.[射者所以觀盛德也]”라고 하였다.

337) 승중(承重) : 적장자가 질병이 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적장손이 바로 조부를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9월 26일(정묘) 북풍이 불어 구름을 쓸어버렸다.

9월 27일(무진)

9월 28일(기사) 약간 흐렸다. 읍에 들어가서 묵었다. 사또가 순영에서 관아로 돌아왔다.

9월 29일(경오) 나는 집에 돌아오는데 중도에 비를 흠뻑 맞고 귀가했다. 얼마 뒤에 구름이 흩어지고 하늘이 맑아졌다. 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아이들에게 가을 무더위를 절구시로 읊조리게 하고, 장난삼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음양 이치 조화롭게 한 것이 재상 근심	調理陰陽宰相憂
가을철에 괴이하게 땀을 줄줄 흘리네	時秋怪底汗交流
천심이 빈한한 선비를 슬퍼하지 않으니	天心莫是哀寒士
병길처럼 소가 혈떡인 이유 물을 필요 없네 ³³⁸⁾	丙吉無勞問喘牛

또

구월 가을 무더위와 습기 아무리 걱정스러워도	九秋暑濕縱云憂
천하에 추위 없음 또한 교화가 유행함일세	天下無寒亦化流
게으른 아낙네 베틀에서 고개 돌리며 웃으며	懶婦機中回笑語
서서히 길쌈하세 춘우 ³³⁹⁾ 사면 되지	徐徐織得買春牛

9월 30일(신미) 그믐. 날씨가 맑고 북풍이 불어 서늘했다.

10월 소월.

10월 1일(임신) 온화했다. 김경용(金慶龍)이 와서 공부하였다.

10월 2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3일(갑술) 상인(喪人) 정명열이 계증조모(繼曾祖母) 이씨의 장례를 치렀다.

10월 4일(을해)

10월 5일(병자) 화청했다. 사또가 청어 차관(靑魚差官)으로써 어제 관아에 나와 유숙했다가 오늘 한양으로 출발했다.

10월 6일(정축) 시가[市直]가 쌀 5말, 정조(精租) 11, 2말이다.

10월 7일(무인) 어제와 같이 온화했다. 내가 읍에서 들어가 다시 구음곡(九音谷)에서 묵었다. 이날 어두워지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10월 8일(기묘) 맑고 따듯했다.

10월 9일(경진)

338) 병길처럼 소가 혈떡인 이유 물을 필요 없네 : 한(漢)나라 재상 병길(丙吉)이 길에서 사람들이 싸움하여 사상자(死傷者)가 났는데도 묻지 않더니, 사람이 소를 쫓아서 몰고 오는데 소가 혈떡이며 혀를 빼 문 것을 보고 병길이 수레를 멈추고, “소를 몇 리나 쫓아서 몰고 왔느냐.”하고 물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병길이 답하기를, “백성이 서로 싸워서 죽고 상하는 것은 장안령(長安令)과 경조윤(京兆尹)이 금단할 일이니 재상이 직접 간섭할 일이 아니요, 지금은 봄이라 크게 더운 철도 아니고 소가 멀리 오지 않았는데도 더위 때문에 혈떡인다면 이것은 음양(陰陽)이 조화되지 못한 것이 재상의 직책이다.” 하였다.
 339) 토우(土牛) : 진흙으로 빚은 소를 말한다. 옛날 입춘 날에 토우를 만들어 멩에를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며 관청 뜰에서 밭 가는 시늬를 하여 풍년을 기원하던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타춘(打春)이라고 한다. 후대에는 진흙 대신 짚이나 갈대 혹은 종이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를 총칭하여 춘우(春牛)라고 하였다.

10월 10일(신사) 바람이 불었다. 본도(本道) 공도회(公都會)를 예전에는 6월 10일에 시행했으나 금년부터는 오늘 날짜에 설행(設行)하였다.

10월 11일(임오) 온화했다.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10월 12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3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4일(을유) 서남풍이 불고 흙비가 해를 가렸다.

10월 15일(병술)

10월 16일(정해) 달이 올 때에 월식(月蝕)이 보였다.

10월 17일(무자) 구름이 짙게 끼고 저물녘에 비가 흩먼지를 적셨다.

10월 18일(기축) 새벽에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더니 아침이 되자 구름이 흩어졌다.

10월 19일(경인) 해가 나오고 따듯했다. 장대(長大)에 갔다가 송정(松亭)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0일(신묘)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황민중(黃敏中)이 문안인사 왔는데 이로 인해 남관(南關)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읍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황생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不見黃生久
속된 비린 짝이 조금 남아있네 ³⁴⁰⁾	稍存鄙吝萌
인정이 두텁지 않음이 아니건만	人情非不厚
세상길 평탄하기 어려움을 어이하라	世道奈難平
까치 소리에 아침 전 손님 올까 짐치니	鶻噪朝前卜
발자국 소리 빗줄기 너머 들리구나	蹠音雨外鳴
대문 열어 맞이하고 웃었지만	開門迎笑處
도리어 너 혼자 오는 게 이상하네	還怪爾單行

10월 21일(임진) 바람이 차가웠다. 아이들에게 꿀을 나누어 먹게 하고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소매로 동정굴 ³⁴¹⁾ 을 거두어들이니	袖中捲入洞庭秋
바람 불지만 맑은 향내 흩어지지 않구나	風簸清香散不收
잔에 경장 ³⁴²⁾ 을 부어 오랜 갈증 해소하니	爵得瓊漿消舊渴
봉토를 옮기는데 하필 주천을 구하리오 ³⁴³⁾	移封何必酒泉求

340) 황생(黃生) : 후한 때 사람 황헌(黃憲)을 가리킨다. 그는 모습이 청수하고 총명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공자 제자인 안자(顔子)에 비유되기까지 했는데, 그와 같은 고을 사람인 진번(陳蕃)과 주거(周舉)는 항상 말하기를 “두어 달만 황생을 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린한 생각이 다시 싹터 버린다.[時月之間不見黃生 則鄙吝之萌 復存乎心]”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53 黃憲列傳》

341) 동정굴(洞庭橋) : 감골에는 금굴(金橋) · 동정굴 · 청굴(靑橋) · 산굴(山橋) · 왜굴(倭橋) 등 5종이 있는데, 동정굴은 상품에 속한다고 한다. 절강성(浙江省) 태호(太湖) 가운데 있는 동정서산(洞庭西山)은 예부터 동정굴이 유명했다.

342) 경장(瓊漿) : 음료(飲料)로 아주 맛있다고 한다. 송옥(宋玉)의 〈초혼(招魂)〉에 “화려한 술잔 이미 베풀어졌는데 경장도 있네. [華酌既陳 有瓊漿些]”라고 한 말이 보인다.

343) 봉토를 옮기는데 하필 주천(酒泉)을 구하리오 : 이봉(移封)은 봉토(封土)를 바꿔 옮기는 것이다. 당(唐)나라의 여양왕(汝陽王) 이진(李璣)이 술고래로 유명해 양왕 겸 국부상서(釀王兼國部尙書)라는 별호를 얻기까지 하였는데, 그를 두고 지은 두보(杜甫)의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에서는 “여양왕은 서 말 술 마시고야 조정에 나갔고, 길에서 누룩 수레만 만나도

또

장회를 건너지 않고 구월 가을 기다리니 不渡長淮待九秋
 육적이 품었던 굴³⁴⁴ 먼저 거둘 수 있구나 陸兒懷裡可先收
 촌 늙은이가 양주의 흥취³⁴⁵ 일으키기 어려워 村翁難作楊洲興
 원하는 게 거의 연목구어³⁴⁶와 같구나 所欲殆同緣木求

10월 22일(계사) 추위 얼음이 얼었다.

10월 23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황민중(黃敏中)과 김광복(金光復) 등이 돌아간다고 말하기에 인하여 감회가 일어나 이학응(李學膺)에게 절구시를 다음과 같이 지어 보냈다.

입과 마음 전혀 다른 세상 젊은이들 口越心燕世上兒
 수많은 승낙 모두 헛된 말들이지 紛紛然諾摠虛辭
 몇 번인가 나아가 앞 시냇가 길 바라보며 幾回出望前溪路
 많은 행인들 속에 오는지 의심하네 多少行人信且疑

이학응은 병들어 올 수 없어 내가 몹시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처럼 농담삼아 시를 지어 보냈다.

10월 24일(을미)

10월 25일(병신)

10월 26일(정유)

10월 27일(무술) 이상 날씨가 추웠다.

10월 28일(기해) 병마절도사 이명준(李命峻) 공이 김해(金海) 조련소(操鍊所)에서 본현에 돌아와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먹였다. 나는 학도들에게 시를 짓게 하고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옥장³⁴⁷ 장군의 호령이 분명하여 玉帳將軍號令明
 북벌 남정 군사 계획 세웠지 詢謀北伐與南征
 병사들 강개한 마음에 다투어 나와 말하길 千兵慷慨爭前語
 먼저 연경에 쳐들어가 한번 휩쓸자고 하네 先去燕京一掃清

침을 흘렸으며, 추천군에 옮겨 봉해지지 못함을 한탄다네.[汝陽三斗始朝天 道逢麴車口流涎 恨不移封向酒泉]”라고 하였다.

344) 육적이 품었던 굴 : 삼국시대 오(吳)나라 육적(陸績)이 여섯 살 때 원술(袁術)에게서 굴을 선물받고는 모친에게 드리려고

남몰래 가슴속에 품고 나오다가 땅에 떨어뜨렸던 고사가 있다. 《三國志 卷57 吳志 陸績傳》
 345) 양주의 흥취 : 돈 십만 관(貫)을 허리에 차고 학을 타고 양주자사(揚州刺史)로 간다는 것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모두 겸하는 뜻이다. 옛날 어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각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양주 자사(揚州刺史)가 되고 싶다 하고, 또 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갖고 싶다 하고, 또 한 사람은 학(鶴)을 타고 승천(升天)을 하고 싶다고 하자,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허리에 십만 췌미의 돈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로 올라가서, 앞서 말한 세 사람의 소원을 겸하여 이루고 싶다.”라고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346)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비록 고기는 잡지 못하더라도 뒤의 재앙은 없거니와, 그와 같은 행위로 그와 같은 욕망을 구한다면 반드시 뒤의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한 테서 온 말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엉뚱한 수단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孟子 梁惠王上》

347) 옥장(玉帳) : 장군의 군영(軍營), 장군의 장막을 가리킨다. 즉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의 직책을 뜻한다.

10월 29일(경자) 그믐. 온화했다. 병마절도사 이명준이 사천으로 떠났다.

11월 대월.

대구어(大口魚) 값이 지극히 싸서 전(錢) 1관(貫)에 26,7미(尾)이고, 진해(鎭海)는 5, 60미라고 한다.

11월 1일(신축)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

11월 2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3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예전 운문(雲門) 댁과 혼사에 관한 의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복욱(卜旭)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을 전했다.

오래도록 빛나는 북두성을 우러르면서도 지란(芝蘭)의 사꺨(348)를 이어받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의 소망을 스스로 탄식하면서도 용문(龍門)에 오를 길이 없습니다.³⁴⁹ 겨울날씨에 생활하시는 데 신명의 도움이 있을 것이니, 삼가 위로됨이 보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저 구상덕은 일생토록 병에 많이 걸려 여러 해 자리보전을 하고 있으니, 나무 쟁기³⁵⁰에 부지하여 의탁하더라도 닭 둥지 속 아이처럼 늙어간 세월³⁵¹에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혼사에 관한 일은 이미 경첩(庚帖)³⁵²을 받았으니 바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연길³⁵³로 길일을 가려서 알려주시고 의제(衣製 신량의 옷 치수)를 써서 보내주십시오.

11월 4일(갑진)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11월 5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6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가[市直]가 쌀 6말이다.

11월 7일(정미) 따뜻했다.

11월 8일(무신) 온화했다. 송씨를 조카며느리로 맞이했다.

11월 9일(기유) 바람이 서늘했다. 가리(加里)를 지나 읍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348) 지란(芝蘭)의 사꺨 : 지란은 지초와 난초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선(善)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란(芝蘭)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그 향기는 못 맡더라도 오래 지나면 동화된다.” 하였다. 이는 어진 벗과 사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영향으로 어질게 된다는 뜻이다.

349) 용문(龍門)에 오를 길이 없습니다. : 후학들이 그의 풍도를 사모하며 귀의했다는 말이다. 후한 환제(桓帝) 때에 이웅(李膺)을 경모하는 선비들이 그의 집 마루에 올라가기만 해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라고면서 영광으로 알았던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德行》

350) 나무 쟁기 : 흰 나무로 자루를 만든 쟁기가 있어 이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두보(杜甫)의 〈우거동곡현작가(寓居同谷縣作歌)〉에 “흰 나무로 자루를 한 긴 보습이여 긴 보습이여, 내가 너를 의탁하여 생명으로 삼노라.[長鑿長鑿白木柄 我生託子以爲命]” 한 데서 온 말이다. 《杜詩批解 卷8》

351) 닭 둥지 속 아이처럼 늙어간 세월 : 원문의 ‘계과(鷄窠)’는 닭 둥지에 있는 아기로, 늙은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송(宋)나라 이수충(李守忠)이 서방(西方)으로 사신을 가다가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81세 된 양하거(楊遐擧)라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 그의 아버지를 뵈니 이름은 숙련(叔連)이고 나이는 1백 22세이며, 할아버지의 이름은 송경(宋卿)이고 나이는 1백 95세였다. 말하다가 보니 들보 위에 닭 둥지가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아기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송경은 “이 분은 나의 9대조인데 말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나이도 모른다.” 라고 하였다.

352) 경첩(庚帖) : 남녀(男女)가 혼인할 때 각각 그 주혼하는 자가 혼인하는 자의 성명(姓名)·연령(年齡)·본관(本貫) 등을 써서 서로 교환하는 문서이다.

353) 연길(涓吉) : 혼인 따위의 경사를 위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 일이다.

11월 10일(경술) 서풍이 흠을 감아 일으켰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1일(신해) 혹독하게 추웠다.

11월 12일(임자) 어제에 비해 날씨가 조금 풀렸다. 또 홍군(洪君)과 읍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본관 사또는 조정에 청어(靑魚)를 다 봉진(封進) 밀봉하여 진상함)하고 이번 달 남촌(南村) 바닷길로 밤중에 관아로 돌아왔다.

11월 13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속 읍저(邑底)에 머물렀다.

11월 14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5일(을묘) 기망(既望)³⁵⁴. 동지(冬至).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감흥이 있어 같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마음 비춤 부질없이 달을 보고	照心空見月
눈가림 거의 산을 혐의하네	遮眼幾嫌山
홀로 다정한 꿈을 꾸며	獨有多情夢
항상 갔다가 돌아오네	尋常往復還

11월 16일(병진) 온화했다. 이학응(李學膺)이 와서 계속 머물렀다.

11월 17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8일(무오) 바람이 어지럽게 불었다. 의령(宜寧)의 최동용(崔東龍)이 와서 공부했다. 그의 5촌 숙부 최형택은 이미 저번 달 그믐부터 와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최동용이 뒤따라 도착한 것이다.

11월 19일(기미) 온화했다. 아관(阿觀)이 서울에 갔다 오는 길에 문안인사차 왔다.

11월 20일(경신)

11월 21일(신유)

11월 22일(임술) 이상 날씨가 온화했다. 첨지 이재첨(李載瞻)이 방문하고 유숙하였다.

11월 23일(계해) 이슬비가 내렸다. 첨지 이재첨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1월 24일(갑자)

11월 25일(을축)

11월 26일(병인) 따뜻했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11월 27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8일(무진)

11월 29일(기사)

11월 30일(경오) 이상 날씨가 온화했다.

12월 대월.

12월 1일(신미) 온화했다.

12월 2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3일(계유) 집안에서 액막이를 하였다. 김성수(金聲粹)가 문안인사 와서 유숙했다.

12월 4일(갑술) 조금 추워졌다. 김성수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칠원(漆原)의 무릉리(武陵里)에 사는 주성윤(周聖胤)과 주성원(周聖元) 형제가 구씨(仇氏) 족보 편찬소의 통문(通文) 작성

354) 기망(既望)은 음력 16일로 원문의 오류이다.

■...(원문 결락)■ 방문하여 유숙했다.

12월 5일(을해) 따듯했다. 손님들이 돌아갔다. 신기(新基)의 초관(哨官) 김세적(金世迪)의 아들 형제와 머슴 한 명, 총 세 명이 벽방산(碧芳山) 대곡(大谷)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19세의 김세적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동네 사람들이 찾으러 갔다.

12월 6일(병자) 온화했다. 본관 사또가 직접 군사를 출동시켜 산을 빙 둘러싸고 대규모 사냥을 하였다. 당시 못된 호랑이가 횡행하여 사람을 삼 배듯이 많이 죽였으니, 이 역시 시대의 변고이다. 통영 역시 군사를 출동시켜 사냥했다고 한다.

12월 7일(정축) 호랑이가 도선(道善)에서도 사람을 물어 해쳤는데, 통영(統營)의 사냥꾼에게 호랑이가 잡혔으므로 본현에서는 사냥을 파하고 돌아왔다.

12월 8일(무인)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 왔다.

12월 9일(기묘)

12월 10일(경진)

12월 11일(신사) 아관이 돌아갔다. 시가[市直]가 쌀 5말 남짓이고, 청어(靑魚) 1속에 전(錢) 2푼이라고 한다.

12월 12일(임오)

12월 13일(계미)

12월 14일(갑신) 이슬비가 내렸다. 청어(靑魚) 1속(束)에 전(錢) 4, 5문(文)이다. 칠원(漆原)의 화산(華山) 산정(山亭)에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사물 밖 하늘이 열려 맑고 작은 골짜기	物外天開小洞晴
세상사람 보기 어렵고 이름만 들었지	世人難見但聞名
초가집 나란히 지어 언덕에 세워있고	茅廬並築龍岡立
산 위에 달 높이 걸려 수경인 양 밝도다	山月高懸水鏡明
여러 성현 천고의 말씀을 책으로 강론하고	書講群賢千古語
구고 ³⁵⁵)에서 우는 학 소리 거문고로 진하네	琴傳孤鶴九臯鳴
온화한 바람이 다시 창문 앞 풀을 일으키고	和風更起窓前草
시냇가 앞 십리 들판에 불어오네	吹接涇頭十里坪

12월 15일(을유) 대한(大寒). 날씨가 춥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다. 오늘은 바로 대한 절기인데 날씨가 이와 같았으니, 역시나 길조가 아니었다. 거접(居接)을 파하려고 할 적에 입으로 읊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불렀다.

일생동안 병 많은 나그네	一生多病客
나이도 오십 여세 되었구나	年又五旬餘
입에 개구리 미꾸라지 쓰고	入齒酸蛙鱗
찌푸린 이마 책벌레 원망했지	皺眉怨蠹魚
문 닫고 강석을 마다하고	閉門推講席
소매 저어 오거서 ³⁵⁶)를 사양하네	揮袖謝書車

355) 구고(九臯) : 구고는 수택(水澤)의 깊은 곳을 말하는데, 《시경(詩經)》 〈학명(鶴鳴)〉에 “학이 구고에서 울면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린다.[鶴鳴于九臯 聲聞于天]”라고 한 데서 왔다. 재덕(才德)이 깊고 두터운 군자는 아무리 비천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빛이 절로 드러나 명성이 임금에게까지 들린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월 대월. 초1일 신축. 14일 우수 월중. 29일 경칩 영절(令節).
 영월(令月 2월) 소월. 초1일 신미. 14일 춘분 월중. 29일 청명 잠절(蚕節).
 잠월(蠶月 3월) 대월. 초1일 경자. 17일 곡우 월중.
 정양지월(正陽之月 4월) 소월. 초1일 경오. 입하 4월절. 17일 초만 월중.
 고월(阜月 5월) 소월. 초1일 기해. 3일 망종 5월절. 19일 하지 월중.
 서월(暑月 6월) 소월. 초1일 무진. 6일 소서절. 22일 대서 월중.
 상월(相月 7월) 대월. 초1일 정유. 8일 입추절. 24일 처서 월중.
 계월(桂月) 소월. 초1일 정묘. 9일 백로절. 25일 추분 월중.
 국월(菊月)³⁵⁷ 대월. 초1일 병신. 11일 한로절. 26일 상강 월중.
 양월(良月)³⁵⁸ 소월. 초1일 병인. 11일 입동절. 26일 소설 월중.
 지월(至月) 대월. 초1일 을미. 12일 대설절. 26일 동지 월중.
 납월(臘月) 대월. 초1일 을축. 11일 소한절. 19일 납일. 26일 대한 월중.

1월 대월.

1월 1일(신축) 새벽에 동풍이 갑자기 불어오고, 남쪽 하늘에 점점이 구름이 떠 있더니 아침이 되자 흩어지고 날씨가 온화했다.
 1월 2일(임인) 열린 구름이 다시 사라졌다.
 1월 3일(계묘) 온화했다. 읍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1월 4일(갑진) 아침에 구름이 끼어 비올 기색이 있었으나 곧 걷히고 날씨가 온화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1월 5일(을사) 서풍이 소리를 내며 불어 열린 구름이 해를 가렸다. 식후에 북풍이 심하게 불고 점점이 내리는 눈이 바람에 흩날렸다.
 1월 6일(병오) 바람이 차가웠다.
 1월 7일(정미) 인일(人日)³⁵⁹. 청명하고 저물녘에도 온화했다. 김시혁(金時赫) 형제와 김광복(金光復), 황민중(黃敏中) 등이 문안 인사 왔다. 감회가 일어나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인일에 좋은 사람을 서로 만나니	人日相逢好箇人
하늘이 인일을 우리 사람에게 속하게 했네	天將人日屬吾人
금년에 우리네 인일이 좋게 되었으니	今年好做吾人日
인일은 해마다 사람을 저버리지 않네	人日年年不負人

종대(從大)가 공부를 시작하여 《천자문》을 읽었다.

1월 8일(무신) 곡일(穀日). 온화했다. 이학응(李學膺), 황굉중(黃宏中) 및 김몽룡(金夢龍), 김몽서(金夢瑞) 형제 등이 왔다.

357) 국월(菊月) : 국화가 피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구월을 이르는 말

358) 양월(良月) : 음력 10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10이라는 숫자가 꼭 들어섰다는 의미에서 길월(吉月)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359) 인일(人日) : 음력 정월 7일을 말한다. 이날 일곱 가지 채소로 국을 끓여먹고, 오색 종이로 깃발·제비·나비·금전 등의 형상을 만들어 머리 위에 꽂는가 하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 시를 짓는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976》

1월 9일(기유) 조금 추웠다.

1월 10일(경술) 온화했다. 봉전(鳳田)의 딸아이가 돌아왔기에 가마 메는 말을 서문 밖 별감 이성원(李聖源)에게 빌리고, 대장(代將) 박동채(朴東采)에게 후행(後行)에 필요한 말을 빌렸으며, 행구(行具)는 사내종 둘과 계집종 하나에게 지거나 머리에 이고 가게 했다.

1월 11일(신해) 이슬비가 흙먼지를 적셨다. 봉전(鳳田)으로 딸아이를 수행하여 갔던 사내종과 말이 돌아왔다. 김시성(金始聲)이 빗은 술을 가지고 왔다가 묵었다.

1월 12일(임자) 흐리고 서늘했다. 이학응(李學膺) 및 김시혁(金時赫) 형제, 황민중(黃敏中) 형제 등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김시성이 작별하고 돌아갔고, 신랑 윤신룡(尹莘龍)이 다시 왔다.

1월 13일(계축) 서풍이 불고 추워 눈이 내렸다.

1월 14일(갑인)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웠다.

1월 15일(을묘) 찬비가 갑자기 내렸다. 내가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1월 16일(병진) 맑고 추웠다. 신랑 윤신룡이 돌아갔다. 나는 첨지 이재첨(李載瞻)을 장대리(長大里)에 가서 보고 돌아왔다.

1월 17일(정사) 바람이 차가웠다.

1월 18일(무오)

1월 19일(기묘) 구름이 열게 끼고 바람이 차가웠다.

1월 20일(경신) 이슬비가 내려 갑자기 샘물이 통했다. 운자(韻字)를 불러 담배를 소재로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진실로 난새 꼬리인 양 난향을 불사르고	展如鸞尾燒蘭香
향로 대하고 거의 긴 밤을 지새우누나	幾對深爐過夜長
시장 멀고 사람 드문데 비까지 내리니	市遠人稀天又雨
부질없이 동자에게 빈 보따리 담게 하네 ³⁶⁰⁾	謾教童子括空囊

1월 21일(신유)

1월 22일(임술)

1월 23일(계해) 이상의 날씨는 바람이 차가웠다.

1월 24일(갑자) 맑고 온화했다. 소를 잃어버린 마을 사람이 있어 운자를 불렀다.

발해에 병기 지니는 걸 물을 것 없건만 ³⁶¹⁾	時無渤海問持兵
웅당 외양간을 성처럼 지켜야 하네	當守家囷若守城
어느 곳에 젊은이가 도리어 칼을 찾으니	何處少年還帶劔
농부가 부질없이 봄갈이 시기를 알리네	農人虛告及春耕

360) 부질없이 동자에게 빈 보따리 담게 하네 : 당나라 시인 이하(李賀)가 좋은 시를 지을 적마다 적어서 어린 종자에게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게 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361) 발해에 병기 지니는 걸 물을 것 없건만 : 한 선제(漢宣帝) 때 발해군(渤海郡)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자주 일어나자, 선제가 공수(龔遂)를 발해 태수(渤海太守)로 삼았다. 공수가 발해 태수로 부임하여, 백성들이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팔아서 [賣刀] 받 가는 소를 사계[買犢]한 뒤에 열심히 경작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들었다는 고사가 있다. 즉, 무기 대신 농기구를 잡고 농사에 열중하게 한다는 말로,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비유하는 말이다. 《漢書 卷89 循吏傳 龔遂》

1월 25일(을축) 어떤 생도 가운데 빗자루를 붓으로 바꾼 자가 있어 운자를 불렀다.

청명하여 한 점 띠끌 다시 없으니	清明不復一塵搖
만리 봉호 구했던 반초 ³⁶²)와 다르구나	萬里求封亦異超
초가집 한가히 청소하는 건 ³⁶³) 장부 뜻 아니니	閑掃茅茨非壯志
큰 글씨를 쓰고자 선교를 지나네 ³⁶⁴)	欲題大字過仙橋

1월 26일(병인)

1월 27일(정묘)

1월 28일(무진)

1월 29일(기사)

1월 30일(경오) 그믐. 북풍이 불어왔다. 박쥐를 소재로 시를 지었다.

새도 짐승도 아닌 가장 미천한 생물	非羽非毛最是微
낮에 어찌 깊이 숨어있고 밤에 어찌 날아가나	晝何深窺夜何飛
고개 돌려 인간 세상을 한번 보라	回頭試看人間世
또한 의관 있는 사람도 사이비니라	亦有衣冠似是非

2월 소월.

2월 1일(신미)

2월 2일(임신) 온화했다. 송정리(松亭里)에 가서 침지 이재첨(李載瞻)을 만나보고 돌아왔다.

2월 3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4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큰아이와 조카 태(泰)가 세계단자(世系單字)를 작성하여 창원(昌原)의 보소(譜所)에 갔다.

2월 5일(을해) 이슬비가 내렸다. 매화를 읊조리며 운자를 불려 절구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외론 뿌리가 유명한 정원에 의탁하지 않아	孤根不得托名園
촌아이들 도끼로 찍어내든 내맡겨두네	一任村童贈斧斤

362) 만리 봉호 구했던 반초 : 후한(後漢)의 반초(班超)가 관청의 대서(代書) 일을 하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다가 붓을 던지며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별다른 지략(智略)이 없으면, 그래도 부개자(傅介子)나 장건(張騫)처럼 이역(異域)에서 공을 세워 봉후(封侯)가 된 일이라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서역(西域)의 사신으로 가 큰 공을 세워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던 고사가 있다. 《後漢書 班超傳》

363) 초가집 한가히 청소하는 건 : 후한(後漢)의 진번(陳蕃)이 어렸을 적에 설근(薛勤)이 “아동은 어찌하여 소제를 하고서 빈객을 맞지 않는가?”라고 묻자, 진번이 “대장부가 세상에 처하여 응당 천하를 소제해야지, 어찌 하나의 실내를 문제 삼겠습니까. [大丈夫處世當掃除天下 安事一室乎]”라고 대답하니, 설근이 세상을 맑게 할 뜻을 품은 것을 알고는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전한다. 《後漢書 卷66 陳蕃列傳》

364) 큰 글씨를 쓰고자 선교를 지나네 : 촉군(蜀郡) 성도(成都) 사람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일찍이 촉군을 떠나 장안(長安)으로 가는 길에 성도의 성(城) 북쪽에 있는 승선교(昇仙橋)에 이르러 그 다리 기둥에 “고거사마를 타지 않고서는 다시 이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 [不乘駟馬高車 不復過此橋]”라고 써서, 기필코 공명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혔는데, 뒤에 그의 뛰어난 문장 실력을 한 무제(漢武帝)에게 인정받고 출세한 고사가 《화양국지(華陽國志)》에 전한다.

2월 10일(경진) 구름이 얇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2월 11일(신사)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2월 12일(임오) 아침에 산머리를 보니 눈이 쌓였다.
 2월 13일(계미) 청량했다. 김성수(金聲粹)가 문안 인사 와서 유숙했다.
 2월 14일(갑신) 구름이 끼었다.
 2월 15일(을유) 아침에 비가 흙먼지를 적시고는 그쳤다. 김성수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2월 16일(병술) 저물녘에 빗방울이 갑자기 내렸다.
 2월 17일(정해) 아침에 비가 갑자기 내렸다. 작년 오늘 날짜에 산에서 화전놀이를 했는데 감회가 있어 절구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좋은 날 옛 숲속에 다시 찾아오니	佳辰重返故林中
인생사 어찌하여 몹시 다르지 않는가	人事如何苦不同
산 두견새 밤마다 울음을 멀리서 빌려와	遙借山鶉啼夜夜
꽃가지 부질없이 붉은 눈물자국 남기네	花枝空帶淚痕紅

또

지난해 오늘 이 산속에서	去年今日此山中
소매 끌고 어깨 잡았던 사람 몇 명이었던가	牽裾把臂幾人同
예전에 없던 좋은 일을 유독 사랑해	偏憐好事殊前後
부질없이 바위 사이 꽃을 적막히 붉게 하네	空使岩花寂寞紅

또 운자를 불렀다. 깊은 밤 산재(山齋)에 앞마을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아전이 취렵하지 않자 호랑이가 황하 건넜는데 ³⁶⁹⁾	吏不發求虎渡河
상처 입은 늙은 개는 겁이 어찌나 많은지	曾傷老犬怯何多
거문고 소리 ³⁷⁰⁾ 속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니	絃歌聲裡眠應覺
구름 남쪽 시냇가 흩어져 가지에 달빛 가득하네	雲散溪南月滿柯

2월 18일(무자) 온화했다.
 2월 19일(기축) 구름이 얇게 끼었다가 저녁에 동풍이 불어 구름이 많아졌다.
 2월 20일(경인)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저녁에 생도들이 방에서 불을 때지 못해 냉방에 자고 또 등잔 기름도 없이 지내었기 때문에 장난삼아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시냇가 바람 산비가 뚫린 창문에 들어오니	溪風山雨破窓穿
글씨 보는데 땀나무 없어 온돌 불태우지 못했네	照字無薪突不燃
썰렁한 생애라고 사람들 비웃지 마소	冷薄生涯人莫笑

369) 호랑이가 황하 건넜는데 : 어진 수령이 선정(善政)을 베풀었다는 말이다. 진(晉)나라의 유곤(劉琨)이 홍농 태수(弘農太守)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호랑이가 새끼를 업고 그를 피해 황하를 건너갔다고 함. 《淵鑑類函》

370) 거문고 소리 : 현가(絃歌) :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읍재(邑宰)가 되어 백성들에게 예악을 가르쳤으므로, 곳곳마다 현가(絃歌 거문고 소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論語 陽貨》

아득히 마음은 수인씨³⁷¹⁾ 이전에 있다오

杳然心在燧皇前

운문(雲門)의 운서방이 왔다.

2월 21일(신묘)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종이 자르는 돌에 대해 운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태고적 여와가 하늘을 돌 갈아 김고³⁷²⁾
진시황 감히 성내어 채찍질하지 못했네
쟁그랑 굴러 서생의 손에 들어와
등나무 잎 뽕 뿌리보다 가격이 배가 되네

昔遇媧皇鍊補天
嬴兒不敢下嗔鞭
鏗然轉入書生手
藤葉桑根倍售錢

2월 22일(임진) 먼 산머리에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3일(계사) 동풍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읍에 가서 별감 이종손(李宗孫)이 유배 가는 길을 보고 돌아왔다.

2월 24일(갑오)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2월 25일(을미) 저물녘에 개었다.

2월 26일(병신)

2월 27일(정유)

2월 28일(무술)

2월 29일(기해) 그믐. 청명했다. 아관(阿觀)이 문안 인사 왔다. 김철(金鐵)의 아들이 와서 공부했다.

3월

3월 1일(경자)

3월 2일(신축) 바람이 온화했다. 생도들과 산에 올라 화전(花煎)놀이를 했다.

3월 3일(임인) 의관을 갖추고 계모임에 갔다.

3월 4일(계묘) 소낙비가 두 차례 지나가고 곧바로 개었다. 장대(長大)의 첩지 이재첨(李載瞻)의 노직(老職)³⁷³⁾을 축하하는 잔치를 가서 보고,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아득한 지난 일 슬퍼할 필요 없으니
묵은 재액 다 사라지고 만년 복이 오네
금봉황 진흙 물고 단조³⁷⁴⁾에서 달이네
옥사자 상서로움 보이고 수성³⁷⁵⁾이 돌아왔네

悠悠往事不須哀
宿厄全消晚福來
金鳳啣泥丹竈煉
玉獅呈瑞壽星回

371) 수인씨(燧人氏) : 삼황(三皇) 중 하나로, 불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전설적인 신인(神人)이다.

372) 태고적 여와가 하늘을 돌 갈아 김고 : 상고(上古) 때 공공씨(共工氏)라는 제후가 축융(祝融)과 싸우고 이기지 못하자 노하여 머리로 부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묶어 둔 밧줄이 이저러졌는데, 여선(女仙)인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갈아서 하늘을 김고 자라의 발을 잘라서 사극(四極)을 세우자 땅이 평정되고 하늘이 완전하게 되었다 한다. 《淮南子 覽冥訓》

373) 노직(老職) : 80세가 넘는 관원이나 90세가 넘는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관직이다.

374) 단조(丹竈) : 선약(仙藥)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덕이다.

375) 수성(壽星) : 남쪽 하늘에 뜨는 별로, 서양 이름은 카노푸스(Canopus)이다. 노인성(老人星)이라고도 하는데, 이 별을

교송 ³⁷⁶)이 어찌 처자식 봉양 필요하리오	喬松豈待妻兒養
의식이 살림살이와는 관계 없었지	服食非關產業開
수연회에서 절하고 북쪽 궁궐을 바라보니	拜手華筵瞻北闕
즐겁게 남녀노소 봄 누대 ³⁷⁷)에 앉아 있겠지	熙熙少長坐春臺

이재첨 어른은 상처(喪妻)하고 자식을 여의며 파산되어 집조차 없음을 슬피 여겨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울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를 언급했다. 오늘 잔치는 그 사위 이형징(李亨徵)이 마련했다. 이날 본관 사또가 나와 시장대(試場臺)에서 군대를 사열했다. 소낙비가 두 번 지나가면서 뿌렸는데 곧장 개었다. 나 역시 장대(長大)에서 지나는 길에 시장대 사열 광경을 보고 돌아왔다.

3월 5일(갑진) 하늘이 맑고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일이 있어 침지 이재첨을 다시 가서 방문했는데 그의 사위 이형징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괴질에 걸려 현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길로 읍에 들어갔다 저녁에 돌아왔다.

3월 6일(을사) 짙은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내리더니 곧 흠뻑 젖었다. 이형징이 어제 저녁에 사망했다는 부음을 들으니, 애통하고 애통하다.

3월 7일(병오) 아침에 구름이 비를 내릴 듯 하더니 곧 흠뻑 젖었다. 운자를 불러 어린아이들의 무성한 머리카락에 대해 절구시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해마다 옛 왕손을 오랫동안 기다리니 ³⁷⁸)	年年長待舊王孫
이슬 눈물과 연무 근심에 거의 혼이 끊어졌네	露泣烟愁幾斷魂
유독 봄 아쉬워하는 여자아이들이	獨有惜春兒女伴
구름같은 머리털 억지고 빗고 규문에 들어가네	強梳雲髮入闈門

3월 8일(정미)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전주(全州)에서 온 유배객 양시형(梁時亨)이 와서 묵으면서 읍조리자 나도 다음과 같이 화운하였다.

몇 칸 초가집 운근 ³⁷⁹) 가까이 있어	數間茅屋傍雲根
버들 꺾어 울타리 만들고 문을 세우지 않았네	折柳爲樊不設門
연무와 노을을 소매로 쓸고 돌을 높이 베고	袖掃烟霞高枕石
분전 ³⁸⁰)에 마음 쏟아 정원조차 보지 않았지 ³⁸¹)	心遊墳典懶窺園

보면 장수한다고 한다.

376) 교송(喬松) :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 왕자교(王子喬)와 선인(仙人)인 적송자(赤松子)를 말한 것인데 둘 다 불로장수했다고 한다.

377) 봄 누대 : 《노자(老子)》 제21장에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마치 큰 잔치상을 받은 듯하고 마치 봄에 대에 올라 구경하는 듯하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라고 하였다.

378) 옛 왕손을 오랫동안 기다리니 :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초은사(招隱士)〉에서 “왕손은 출유(出遊)하여 돌아오지 않건만, 봄풀은 돌아나서 무성하구나.[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다. 흔히 먼 곳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사모하는 고사로 사용되는 말이다.

379) 운근(雲根) : 산 위의 바위를, 구름이 부딪쳐서 일어난다고 하여, 구름의 뿌리 즉 운근이라고 한다.

380) 분전(墳典) : 분전은 삼분 오전(三墳五典)의 준말인데 일반적으로는 고서(古書)의 뜻으로 쓰인다.

381) 정원조차 보지 않았지 : 학문에만 전념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漢)나라 때 동중서(董仲舒)가 학문을 전념할 적에 3년 동안이나 원포(園圃)를 내다보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漢書 卷56》

울 밑에 스며든 시냇물 웅덩이 채우고 나가며	侵籬澗水盈科進
나무 가리는 산새 정답게 지저귀네	選樹山禽喚友喧
말마소 숨어사는 사람 가난한 살림	莫道幽人貧話計
평소 시 재료가 그 중에 있구료	尋常詩料箇中存

3월 9일(무신) 비가 부슬부슬 그치다가 내려 도로가 진흙탕이 되었다. 손님이 남촌진(南村鎭)으로 향했다.

3월 10일(기유) 청량했다. 읍에 들어갔다가 운문(雲門)의 사돈어른 생원 윤세규(尹世燿)의 부음을 갑자기 듣고, 그길로 읍저(邑底)에서 말 2마리를 빌어 돌아왔다.

3월 11일(경술) 말애(末愛)에게 행장(行裝)을 꾸려 길을 떠나보내 사돈어른의 장례에 분상(奔喪)하게 하고, 큰 아들에게 가는 길을 돌보도록 했다.

3월 12일(신해) 운문에 갔던 노비 등은 돌아왔으나 큰아들은 그대로 머물면서 초상을 보았다.

3월 13일(임자) 나는 그저께 감기에 걸려 다시 목은 병이 도져 음식을 물리치고 약을 복용했지만 구토와 설사로 자리에 누워만 있었는데 문생(門生) 공도관(孔道貫)이 소매에서 옥로(玉露 술)를 꺼내 주었다. 통영의 김덕남(金德男)이 와서 공부했다.

3월 14일(계축)

3월 15일(갑인) 큰아들이 운문(雲門)에서 돌아왔다.

3월 16일(을묘) 온화했다. 관찰사 황인검(黃仁儉) 공이 순찰차 사천(泗川)에서 본현에 도착했다. 밤에 달뜨기를 기다려 운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지었다.

오늘 새벽 작별을 밤에 약속하고	今晨作別夜爲期
창문을 닫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네	不閉書窓坐待期
혹시 시선 이태백이 채석강 ³⁸² 지나가다	或恐詩仙過采石
하늘로 올라가버려 더딜까 걱정되는 구료	携歸天上放還遲

3월 17일(병진)

3월 18일(정사) 빗물이 하천에 가득하여 관찰사 황인검이 통영(統營)에서 체류했다.

3월 19일(무오) 비가 겹쳐 관찰사 황인검이 통영에서 진해(鎭海)로 향해 갔다. 이날 생도들이 글짓기 모임을 개접(開接)했다.³⁸³

3월 20일(기사)

3월 21일(경신)

3월 22일(신유) 비가 내렸다.

3월 23일(임술) 서교(西橋)의 손녀가 왔다.

3월 24일(계해)

3월 25일(갑자) 손녀가 부학(婦孺) 며느리 곱보병, 학질)에 걸렸다.

382) 채석(采石)은 …… 들려주고 : 이 적선(李謫仙) 즉 이태백(李太白)이 최종지(崔宗之)와 함께 채석에서 금릉(金陵)까지 달밤에 배를 타고 갈 적에 시와 술을 즐기면서 방약무인(傍若無人)하게 노닐었는데, 뒷사람들이 두보(杜甫)의 <경어를 타고 가는 이백[李白騎鯨魚]> 이라는 시구가 있는 것을 빌미로, 이백이 술에 만취한 채 채석강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다

빠져 죽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唐才子傳 李白》

383) 개접(開接) : 글을 짓고 읽는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월 26일(을축)

3월 27일(병인) 이동양(李東樑)이 와서 공부했다.

3월 28일(정묘)

3월 29일(무진) 서면(西面)의 아관이 문안 인사 왔다.

3월 30일(기사) 그믐. 손녀의 병이 나왔다.

4월

4월 1일(경오) 아관(阿觀)이 손녀아이를 데리고 돌아갔다.

4월 2일(신미) 아침 안개가 사방에 가득했으나 해가 뜨자 곧 사라졌다.

4월 3일(임신) 가랑비가 내렸다.

4월 4일(계유) 가랑비가 내렸다.

4월 5일(갑술)

4월 6일(을해) 시가[市直]가 쌀 5말이다.

4월 7일(병자) 비가 내려 샘물의 물줄기가 통했다.

4월 8일(정축) 온화했다.

4월 9일(무인) 이슬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4월 10일(기묘) 김인래(金隣來)가 와서 공부했다.

4월 11일(경진) 맑고 온화했다. 김덕남(金德男)이 이질(痢疾)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다. 김대룡(金大龍)이 광백(光白)을 따라 와서 공부했다.

4월 12일(신사)

4월 13일(임오) 이슬비가 내렸다.

4월 14일(계미) 비가 내려 샘물의 물줄기가 불어났다. 이날 해시(亥時 밤 9시부터 11시까지)에 봉전(鳳田)의 승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주가 신사금(辛巳金), 계사수(癸巳水), 계미목(계未木), 계해수(癸亥水)이다.

4월 15일(갑신) 맑고 온화했다. 만일 자시생(子時生)이면 사주가 신사(辛巳), 계사(癸巳), 갑신수(甲申水), 갑자금(甲子金)이다.

4월 16일(을유)

4월 17일(병술) 찌는 듯이 더웠다. 관대(冠帶)를 차려입고 갈산 사동(蛇洞) 계모임에 가서 음식을 제공했다.

4월 18일(정해) 바람이 청량했다.

4월 19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0일(기축)

4월 21일(경인) 시가[市直]가 쌀 4말이다.

4월 22일(신묘)

4월 23일(임진)

4월 24일(계사)

4월 25일(갑오)

4월 26일(을미) 정택기(丁宅己)의 모친이 별세했다.

4월 27일(병신)

4월 28일(정유)

4월 29일(무술)

5월

5월 1일(기해) 올 봄 모맥(牟麥)이 처음에는 잘 자란다고 칭했는데, 병충해로 피해를 당해 행인들도 흉흉했다. 오늘 시가[市直]가 쌀 3말 4,5되, 정조(正租) 7말에 불과하다.

5월 2일(경자)

5월 3일(신축)

5월 4일(임인)

5월 5일(계묘) 동북풍이 불고 종일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번 가뭄이 이미 20일 지속되어 이양했던 전토(田土)가 대부분 말라 갈라졌고, 아직 이양하지 않았던 곳은 비오기를 고대하는데 농가에서 매우 간절히 소망했다.

5월 6일(갑진) 새벽에 보니, 가랑비가 그쳤다가 내렸지만 흙먼지를 적시지 못하면서 종일 내렸다. 시가[市直]가 쌀 3말, 정조(正租) 7말이다.

5월 7일(을사)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흐렸다가 개었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5월 8일(병오)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5월 9일(정미)

5월 10일(무신)

5월 11일(기유)

5월 12일(경술)

5월 13일(신해)

5월 14일(임자) 서늘한 바람이 저녁에 불었으나 뜨거운 태양이 낮에 내리쬐었다. 농민들이 논밭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또 각지 마을의 개들이 발광하여 혹은 사람을 물거나 소를 물었는데 대부분의 소가 죽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전하기를, 호남 지역이 특히 심한데 많은 농우(農牛)가 미친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인부들이 직접 밭을 갈고, 보리농사 흉년이 또 심하여 사람들이 모두 허둥지둥 불안하다고 한다.

5월 15일(계축) 새벽에 본관 사또가 문수산(文殊山)³⁸⁴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새벽부터 동풍이 갑자기 불고 동운(同雲 먹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시원스럽게 내릴 기세가 있을 듯했으나 이양한 벼 뿌리만 겨우 적셨다.

5월 16일(갑인) 하늘이 맑았다. 객사의 문밖에 흙으로 만든 용[土龍]과 비단에 수놓은 불화(佛畫)를 걸어두었다.

5월 17일(을묘) 옅은 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했다. 새벽에 향소(鄉所)³⁸⁵에서 보내어 벽방산(碧芳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5월 18일(병진) 날씨가 맑디맑았다. 내일 검단도(檢丹島)에 기우제를 지내고, 20일에 사직단(社稷壇) 기우제를 지낼 예정인데 내게 축문을 짓도록 요청하였다. 검단도는 송지암(松旨岩)이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망망대해 가운데
고성현의 남쪽이로다

大海之中
維縣之南

384) 문수산 : 《여지도서》에 보면, 고성현의 서쪽 25리에 있으며 감치산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해 놓았다.

385) 향소(鄉所) : 유향소로, 수령의 감독 밑에 좌수(座首) 따위가 시무(視務)하는 곳이다.

여러 신선들의 기이한 자취	群仙奇蹟
천고의 이름난 암석	千古名岩
밤이슬 ³⁸⁶ 마시고	吸沆呷瀧
구름과 비가 일어나네	雲興雨作
일이 생기면 기도하니	有事則禱
신령의 도움 어긋나지 않아	冥應不忒
밝으신 성상의 시대를 맞아	時當聖明
백성들이 수역 ³⁸⁷ 에 모여 살건만	民囿壽域
어찌하여 가뭄이	于何赤魃
감히 멋대로 잔학하는가	敢肆其虐
농사 기간이 어긋나	東作期愆
가을걷이 가망이 없어라	西成望缺
불쌍한 여러 백성들이여	哀哀群生
엉엉 모여 우는구나	嗷嗷聚泣
수령이 되어 가뭄 없앨 책무로	受牧責除
몸을 불사르는 뜻 ³⁸⁸ 절실했네	焚軀志切
정성어린 기도 이미 오래되었건만	誠禱已久
하늘의 뜻이 더욱 아득하여라	天意愈漠
재앙의 빌미 누구 때문인가	孽由誰崇
죄벌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네	罰欲自當
송지암 여기에 있으니	維岩斯在
살피심이 심히 드러나리라	厥鑑孔彰
목욕재계하고 묵고서	齋沐而宿
신령께 분주해 갔네	奔走于神
공경히 생각건대 존귀한 신령이여	恭惟尊靈
이 아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悶茲下民
칩거하는 교룡을 채찍질하고	鞭蛟龍蟄
강하의 자물쇠를 제거하시어	祛江河鑰
우리네 공전 사전에 비를 내려	雨我公私
우리 백성들을 살려 주소서	活我民物

미리 사직단 축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386) 항해(沆瀧) : 야간(夜間)의 수기(水氣)가 영긴 맑은 이슬을 말하는데, 보통 선인(仙人)의 음료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법으로, 신선을 가리킨다. 《한서》 권57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 에 “밤이슬을 마시고 아침놀을 먹는다.[呼吸沆瀧兮餐朝霞]”라고 한 말이 보인다.

387) 수역(壽域) :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흔히 태평성대를 뜻한다.

388) 몸을 불사르는 뜻 : 춘추시대 노 회공(魯僖公)이 가뭄을 중지시키기 위해 무당인 왕(甦)을 불태워 죽이려 하자, 장문중(臧文仲)이 말하기를, “가뭄에 대한 대비가 아닙니다. 성곽을 수리하고 먹는 것과 쓰는 것을 줄이고 농사에 힘쓰고 나눠 주는 것을 권하는 것이 가뭄에 대비해서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무당 왕(甦)을 죽인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늘이 그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를 살려 주지 않을 것 같고, 만일 가뭄을 부른 장본인이라면 불태워 죽일 경우 가뭄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니, 회공이 그의 말을 따랐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가뭄을 중지시키기 위해 하늘의 희생양이 되겠다는 뜻이다.

우리 백성들을 살리심은	活我民生
그 근본은 곡식이로다	爰本土穀
신령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르니	仰神休德
막중한 사직단일세	莫重社稷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유했고	有事必告
기도하면 부응하셨지	有禱則應
감히 미미한 정성 다했으리오	敢竭微誠
공경히 밝으신 신령 기다리네	恭俟明聽
돌아보건대 한 명의 신하가	顧念一介
구중궁궐 임금님 근심을 나누어	分憂九重
조금이나마 공효를 갚지 못해	效乏涓埃
마음속으로 항상 불안했네	心常忡忡
수령이 어질지 못해	尸土無良
가뭇이 제멋대로 혹독했지	旱魃肆兇
사방 들판이 거북 등처럼 갈라져	四野龜坼
만백성이 물고기처럼 입을 빼끔거리고	萬姓魚喁
불사르거나 땡볕에 몸 내놓는 정성 ³⁸⁹⁾ 추모하고	追慕焚曝
산천을 분주해 다녔건만	奔走山川
가벼운 먼지 정도만 적실 뿐	纔浥輕塵
샘물의 원천은 내리지 않았네	不沾源泉
생민이 무슨 죄가 있어	生民奚辜
수령의 책무를 받았나	受牧之責
면목 없이 굽어보고 우러러보니	無面俯仰
무슨 말로 보답해야 하나	何辭報答
희생과 제물 청결히 하여	載潔牲幣
다시금 신명을 번거롭게 하노니	更瀆神明
어진 보살핌을 밝혀	昭厥仁鑑
이 생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閔茲生靈
신룡을 몰고 와서	驅駕神龍
거침없이 단비를 쏟아	沛施甘澤
물 마른 물고기 ³⁹⁰⁾ 에 적시는 듯	涸鱗重沾
양성한 뼈에 다시 살을 붙이소서	枯骨再肉

젓먹이 손자가 삼칠일(三七日)³⁹¹⁾을 지나자마자 오른쪽 옆구리에 화단(火丹)³⁹²⁾이 생겼기에

389) 각주 중출

390) 물 마른 물고기: 붕어 한 마리가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에 있으면서 길 가는 장주(莊周)에게, 한 말이나 한 되쯤 되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고 하므로, 장주가 장차 오월(吳越) 지방으로 가서 서강(西江)의 물을 끌어다 대주겠다고 하자, 그 붕어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장 한 말이나 한 되쯤의 물만 얻으면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니, 일찌감치 나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莊子 外物》

391) 삼칠일(三七日): 아기가 출생한 지 21일이 되는 날이다. 아기가 태어난 지 7일이 되면 초이레, 14일이 되면 두이레,

경험자인 재종 정진형(鄭晉亨)에게 청하여 침으로 피를 빼고 황경피나무껍질 가루[黃栢末]를 술에 타서 발라주었는데, 피가 모이고 부풀어 오른 종기가 되었다가 터지자 생지황(生地黃)³⁹³을 붙이니 얼마 뒤에 옛 것이 제거되고 새 것이 생기는 효험이 있었다.

5월 19일(정사) 갈산(葛山)에 가는데 이 때 가랑비가 그치다가 부슬부슬 내렸다. 길가의 행인들 가운데 혹은 입모(笠帽)³⁹⁴를 착용한 자가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0일(무오) 비가 넉넉히 내려 물의 근원이 있게 되니, 사직단의 기우제를 우선 정지했다. 근래에 들으니 검단도(檢丹島)의 기우제 또한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5월 21일(기미) 아침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5월 22일(경신) 월촌(月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5월 23일(신유) 신음하여 음식을 물리쳤다.

5월 24일(임술)

5월 25일(계해)

5월 26일(갑자) 병에 약간 차도가 있었다. 시가[市直]가 쌀 3말 1되, 조(租) 7말, 혹은 6말 몇 되 정도, 걸보리 9말 혹은 10말이다. 들으니, 이번 비는 진주 이상 지역에서는 내리지 않았는데 진주(晉州) 남면(南面)의 백성들은 고성(固城)에서 흘러내린 물로 겨우 이양했다고 했다. 이 읍의 봉천담 역시 이양하지 않은 곳이 많고, 울대(粟代)³⁹⁵ 근교(近郊)에는 맨 땅이 태반이었다.

5월 27일(을축)

5월 28일(병인) 이슬비가 갑자기 내려 가벼운 흙먼지를 적셨다.

5월 29일(정묘) 그믐. 하늘이 맑다가 저녁에 이르러 북쪽에서 구름이 비를 몰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마른 뿌리를 적셨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무진) 청명했다. 시가[市直]가 쌀 3말, 정조(正租) 6말, 걸보리 10말이다.

6월 2일(기사) 구름이 짙게 끼고 한 밤중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3일(경오) 종일 비가 쏟아지듯 내려 이미 이양한 전토에 물이 흡족했다.

6월 4일(신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이웃 사람 최상봉(崔尙奉)의 논 1구(區)가 서재 앞에 있는데 지금 비로소 이종(移種)했다.

6월 5일(임신) 짙은 구름이 걷히지 않고 이슬비가 그치다가 내리더니 저녁이 되자 구름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고 햇별이 출몰했다. 금년 모맥(牟麥 밀보리)이 황모(黃蠹)에게 피해를 당하여 진주(晉州)와 함양(咸陽) 이상 여러 읍에서 전혀 수확하지 못했다. 현재 기근이 매우 심각한데 유독 연해(沿海)지역 몇 읍은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이 곳 골짜기는 사정이 조금 더 나았다.

6월 6일(계유) 아침에 산 변두리에 비 내릴 기색이 있어 안개 낀 듯 어두웠는데 갑자기 내리다가 갑자기 그치고, 오후가 되자 혹은 흐렸다가 혹은 햇별이 나왔다.

21일이 되면 세이레라 하여 행사하는 민속이 있었다. 7일을 기준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길하다는 속신 때문이다. 민속 방법이나 내용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392) 화단(火丹) : 한의학에서 단독(丹毒)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피부, 점막(粘膜) 따위의 현대나 다친 곳으로 연쇄상 구균(連鎖狀球菌)과 같은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급성 전염병이다.

393) 생지황(生地黃) : 지황(地黃) 뿌리의 날 것으로, 혈증(血症)을 다스리는 데 쓰인다.

394) 입모(笠帽) :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기름종이로 만든 물건으로 갈모라고도 한다.

395) 울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이곳에 선사시대의 울대고분이 있다.

6월 7일(갑술) 비가 내렸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했다. 봉전에 사는 승아가 운문(雲門)에 갔다가 이곳을 거쳐 봉전으로 향하려고 했다.

6월 8일(을해) 저녁이 되자 햇볕이 많이 났다.

6월 9일(병자) 짙은 구름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고 저물녘에 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했다. 봉전(鳳田)에 사는 승아가 운문(雲門)과 진성(晋城) 등의 마을에 초3일 비가 내려서 이앙을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다.

6월 10일(정축) 습한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가랑비가 이슬처럼 내렸다. 서면(西面)에 사는 아관이 지난 28일 서울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안인사하려고 왔는데, 초3일 묘시(卯時)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사내아이를 낳은 소식을 소상히 들었다. 또 서울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진주(晋州) 위쪽으로 경성(京城)에 이르기까지 맥추(麥秋) 보릿가을, 보리 수확기)가 온통 다 망쳐 밭에서 수확하지 못한 곳이 매우 많으며 흑심한 가뭄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京畿)는 마른 논에 부종(付種)³⁹⁶한 곳은 때에 맞춰 일을 마쳤고 수경(水耕)³⁹⁷하는 곳 역시 거의 끝나간다고 한다. 그 나머지 충청도 이하 진주의 여러 고을까지는 이앙한 곳이 절반 혹은 3분의 1이나 2인데, 유독 본읍(本邑)만 보리 이앙을 빨리 했기 때문에 또 흉년을 면했다고 한다.

6월 11일(무인)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6월 12일(기묘) 짙은 구름이 걷혔다가 퍼졌다가 하고 이슬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아관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6월 13일(경진) 구름이 흩어지고 바람이 맑았다.

6월 14일(신사) 통영에 사는 박일흥(朴一興)의 아홉 살 아이가 와서 공부하였다.

6월 15일(임오) 구름이 번갈아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했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산머리에 비올 기색이 마치 안개가 낀 듯했다. 운문(雲門)에 사는 윤서방이 왔다.

6월 16일(계미) 서풍이 불었는데 짙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6월 17일(갑신) 근래에 짙은 구름이 열흘 동안 개지 않았다. 군포(君浦)에 사는 이서방이 왔다.

6월 18일(을유)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이슬비가 내려 갑자기 진흙탕 되었다. 윤서방과 이서방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십리 길에 불과하지만 옷을 적시리라.

6월 19일(병술)

6월 20일(정해)

6월 21일(무자) 이상 날씨가 같았다. 바람 부는 날씨가 조금 차가워 노인들이 솜옷을 벗지 않았다.

6월 22일(기축) 구름은 흩어졌으나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다. 조카 류문경(柳文經)이 모래 경과(京科)에 응시하기 위해 떠나기에 오늘 인사하고 곧 돌아갔다.

6월 23일(경인)

6월 24일(신묘) 이상의 날씨가 청명하고 동풍이 그치지 않았으며, 밤기운이 조금 서늘했다.

6월 25일(임진) 구름과 햇볕이 서로 다투는 듯했다. 들으니, 서울에서 온 사람이 호서(湖西) 지역에 우박이 와서 사람이 다쳤다고 전했다.

내 복통(腹痛)이 날씨와 더불어 같이 흐리고 개었기 때문에 희룡삼아 측간에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396) 부종(付種) : 직파법으로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방법이다.

397) 수경(水耕) : 물을 댄 논에 씨를 뿌리고 벼를 재배하는 농법이다. 마른 논에 씨를 뿌리는 건경(乾耕)이 있다.

배속에 절로 하나의 건곤이 있으니 腹中自有一乾坤
 맑으면 청명하고 비가 오면 어둡네 晴則清明雨則昏
 음양을 조절하는 손씨 어디에서 얻어 安得陰陽調理手
 때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진원을 보충할까 隨時命藥補眞元

6월 26일(계사)

6월 27일(갑오)

6월 28일(을미)

6월 29일(병신) 그믐. 이상 날씨는 구름이 흩날리고 서늘하여 기상이 좋지 못했다.

7월

7월 1일(정유) 구름이 떠다니고 서북쪽 하늘에 비올 기색이 있다. 공도관(孔道貫)이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갔다.

7월 2일(무술) 바람과 날씨가 화창하였으며 저녁이 되자 서쪽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빗발이 흩어져 떨어졌으나 이곳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이날 형제와 자제, 조카들과 매형 이여섭과 생도 중 어른과 아이 6,7인이 김응종(金應鐘)과 김성기(金聖器)가 초대하기에 배를 타고 남포(南浦)와 송도(松島)에 가서 명승지를 잘 유람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7월 3일(기해) 서북쪽 하늘에 벼락이 쳤다. 박일흥(朴一興)의 아버지가 왔다가 오후에 작별하고 돌아갔다.

7월 4일(경자) 서북쪽 하늘에 우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7월 5일(신축) 더웠다.

7월 6일(임인)

7월 7일(계묘) 밤에 앞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7월 8일(갑진) 입추(立秋).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 갑자기 가벼운 흙먼지를 적셨다.

7월 9일(을사)

7월 10일(병오)

7월 11일(정미)

7월 12일(무신) 관개(灌溉)가 이미 끊어졌다. 생도 서동광(徐東光)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7월 13일(기유) 구름이 지나다녀 열기가 잠시 약해졌기 때문에 옥에 갇힌 안명륜(安命崙)과 백봉정(白鵬汀)을 만나고 돌아왔다. 밤에 가랑비가 갑자기 뿌리고 지나갔다.

7월 14일(경술) 햇별이 더러 나오기도 하고 더러 흐리기도 했으며 가끔 비가 흙먼지를 적시기도 했는데 오후에 구름이 걷히고 햇별이 내리쬐었다.

7월 15일(신해) 봉우리 모양으로 구름이 생기고 날씨가 찌는 듯했다. 올해 여름 두 차례 혹독한 가뭄을 겪으니 실로 괴이한 재앙이다.

7월 16일(임자)

7월 17일(계축) 이상 날씨가 매우 더웠다.

7월 18일(갑인)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은 차갑고 날씨는 건조했다.

7월 19일(을묘) 바람이 어지럽게 불어 구름이 조각조각 날리고 때때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20일(병진) 때때로 낙숫물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날 비바람이 거세게 일어

나는 기세가 있는 듯하더니 가끔 비가 내리다가 그쳤으며, 밤이 되자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졌으나 비가 겨우 벼의 뿌리만 적셨다.

7월 21일(정사) 서풍이 구름을 몰고 와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일정하지 않고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다. 시가[市直]가 쌀 3말 3되이다.

7월 22일(무오) 극히 더웠다. 근래에 괴질이 있는데 걸린 사람은 번번이 혼절하고 숨이 막히기에 반드시 주초(酒醋 술과 식초)를 바르거나 마시는데 그런 연후에 효험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니, '사리치지(司理治只)'라고 이름 했는데 괴이하고 괴이하도다.

7월 23일(기미)

7월 24일(경신)

7월 25일(신유)

7월 26일(임술)

7월 27일(계해)

7월 28일(갑자) 이상 바람이 불고 날씨가 건조했다.

7월 29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기우제를 지내라는 관문(關文)이 내려와서 거류산(巨流山) 상족암(床足巖)³⁹⁸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오늘은 법천사(法泉寺)와 안정사(安井寺)의 괘불(掛佛)을 마주 들고 성중(城中)에 들어갔다. 밤에 가랑비가 갑자기 지나가고, 밤이 깊어진 후에 동북풍이 크게 불더니 소낙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7월 30일(병인) 그름. 아침에 비가 이슬처럼 내려 흙도 적시지 못했으며, 식후에는 구름이 흩어지고 해가 내리찍었다.

8월

8월 1일(정묘) 날씨가 건조하다. 읍에 들어갔다가 송도(松道)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구름이 하늘에 가득했다.

8월 3일(기사) 아침에 가랑비가 갑자기 지나갔는데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건조했다. 생도들이 과업(課業)에 성실하지 않으므로 내가 공사(供辭 일종의 진술서)를 지어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너희들이 밭 갈거나 땔나무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것은 끝없는 부모의 은혜 때문이고,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가만있을 때마다 반드시 조심하고 반드시 일러주는 것 또한 부지런한 스승의 마음 때문이다. 설령 책 속의 좀 벌레가 별안간 하늘을 나는 큰 기러기[鴻鵠]가 된다 한들, 촌음(寸陰)을 아껴 공부해야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서 다만 석양이 오히려 더디다고 유감스러워 한다. 밤이 아닌데도 졸음이 찾아오는 것을 그대로 맞이하고 이미 새벽이 밝았는데도 코고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한 해가 지나도록 독서한 책은 다만 《사략(史略)》과 《통감절요(通鑑節要)》 몇 권뿐이니 혀로 오이 껍질을 헛되이 핥는 격이고, 과하(過夏) 공부³⁹⁹ 역시 연구(聯句)나 고풍(古風)⁴⁰⁰ 몇 장(章) 뿐이니 눈으로

398) 상족암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성현에서 서쪽으로 52리 떨어져 있으며 돌기둥이 네 개가 있고 바위가 평상과 같다. 조수가 밀려오면 물이 그 밑을 지나간다고 했다. 상족암 일대에는 공룡발자국이 새겨진 바위가 곳곳에 있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공룡박물관도 있다.

399) 과하(過夏) 공부 : 당나라 때 장안(長安)의 응시생들 중에 낙제한 자들이 6월 이후에는 도성(都城)을 떠나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흔히 조용한 묘원(廟院)이나 주택을 빌려 거주하면서 작문을 연습하여 바로 그해 7월에 새로 지은 문장을 재차 헌상(獻上)하는데, 이 과정을 통틀어 과하(過夏)라고 한다.

400) 고풍(古風) : 당나라 이전 시대에 나온 시로서 압운(押韻)과 정형율(定型律)은 있지만 평측(平仄)은 없는 한시 문체이다.

남의 슬갑(膝甲)을 훔치려는 격⁴⁰¹이다. 이미 우수한 자제⁴⁰²도 아니면서 또 좋은 교육 환경도 저버려⁴⁰³ 전당(鱸堂)⁴⁰⁴에서 스승을 모시고 배우기 어려우니,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어찌 볼 것인가.⁴⁰⁵ 낱고 가르쳐주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소가 사람 옷을 입고 있는 꼴⁴⁰⁶을 달갑게 여긴다면 필시 남몰래 벌을 받을 터이니 어찌 잘못이 드러나 꾸짖음을 피하겠는가.

식후에 다시 구름이 끼고, 비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뜰에 물이 흘러 흙먼지를 씻고, 벼의 뿌리를 조금 적셨는데 저녁이 되어서는 구름이 흩어졌다.

8월 4일(경오) 때때로 빗방울이 떨어짐 떨어졌다.

8월 5일(신미) 밤비가 흙을 적셨다.

8월 6일(임신)

8월 7일(계유)

8월 8일(갑술) 저물녘에 이슬비가 내렸다.

8월 9일(을해) 이슬비가 그치다가 내리더니 길이 진흙탕이 되었다.

8월 10일(병자) 비가 그치다가 내렸다.

8월 11일(정축) 비바람이 거셌지만 샘물의 근원을 겨우 보태주고 그쳤다.

8월 12일(무인) 구름이 흩어졌으나 저녁이 되자 다시 흐려졌다.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명되었지만, 장맛비가 이처럼 지루하게 내리니 필시 목화에 피해를 끼칠 것이다.

8월 13일(기묘) 선친의 휘일(諱日)이다. 한 밤중에 이미 비가 퍼붓듯이 내리더니 식후에는 구름이 흩어졌다.

8월 14일(경진) 아침 하늘이 청명하고 바다 안개가 떠다니다 들판을 가렸으나 곧바로 사라졌다. 남산의 청룡(靑龍 동쪽) 머리 부분에 마치 바람이 돌고 물살이 터진 소리가 있는 듯했다. 식후에 구름이 또 하늘을 가렸다. 이때 생도들이 성묘(省墓)하기 위해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의령(宜寧) 최생(崔生) 3명과 본촌(本村) 5,6명의 동자(童子)만이 서재에 남아 있었다.

8월 15일(신사) 비가 가끔 퍼붓듯이 내려 비로소 들판의 샘물이 울면서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8월 16일(임오) 청량했다.

8월 17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01) 눈으로 남의 슬갑(膝甲)을 훔치려는 격 : 옛날에 남의 슬갑(膝甲)을 훔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이마에 붙이고 나갔다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비웃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귀를 훔쳐서 잘못 사용하는 자를 '슬갑적(膝甲賊)'이라고 한다. 《芝峯類說 卷16 語言部 諧諷》

402) 우수한 자제 : 원문의 '사수(謝樹)'는 귀한 집안의 우수한 자제를 예찬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현(謝玄)이 재주가 뛰어난 자 숙부인 사안(謝安)이 "비유하면 지란 옥수가 집안 섬돌에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하였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謝玄》

403) 좋은 교육 환경도 저버려 : 원문의 '맹린(孟麟)'은 맹씨지방린(孟氏之芳隣)의 준말로, 맹모삼천지교를 가리킨다.

404) 전당(鱸堂) : 제자들을 모아 강의하는 곳을 말한다. 한(漢)나라 때 양진(楊震)이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들을 모아 강의하였는데, 양진의 꿈에 새가 전어(鱸魚) 3마리를 물고 날아와 강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형상을 하였다는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54 楊震列傳》

405) 아버지의 얼굴을 어찌 볼 것인가 : 집안에서 부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그의 아들 이(鯉)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자 불러 세우고는 시(詩)와 예(禮)를 배워야 한다고 훈계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406) 말이나 소가 사람 옷을 입고 있는 꼴 : 한유(韓愈)의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 이라는 시에 "사람이 고금의 일 통달하지 못하면 마소에다 옷을 입혀놓은 격이니[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8월 18일(갑신) 매우 서늘했다. 6대 조부모님 주부공(主簿公)의 합묘(合墓)와 5대 조부모님 충위공(忠衛公)의 합묘, 그리고 어머니의 묘소가 송정리(松亭里) 건좌(乾坐)⁴⁰⁷⁾ 언덕에 있는데, 5대조 할아버지 선산의 봉축(封築)이 매우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가토(加土)하였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무덤이 오래될수록	封塋彌久
봉분이 점차 평평해지니	丘隴漸平
혹 물이 흐르지 못할까	或不流水
혼령을 편치 못할까 염려되어	恐難妥靈
수시로 살피고 돌보며	隨時瞻掃
매양 걱정과 두려움 절실했네	每切憂懼
지금 길일을 점쳐	今卜吉辰
다시 사토 ⁴⁰⁸⁾ 를 더하니	更加莎土
삼가 존귀하신 영령께서는	伏惟尊靈
진노하거나 놀라지 마소서	不震不驚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이분들을 모신	其位葬于
이 산 아래에	茲山之下
백년이 지난 무덤이	百年丘壟
밀리고 허물어져	一杯堆殘
땅의 도가 편치 못하고	地道不便
혼백이 편안키 어려워	靈魄難安
이에 길일을 점쳐	茲卜吉辰
다시 사토를 더하니	將加莎土
삼가 존귀하신 신령께서	伏惟尊神
길이 도와주소서	永垂冥佑

또 글을 지어 6대 조부모님 및 어머니의 묘에 고하였다. 내 목은 병 때문에 직접 참배할 수 없으니 통탄이 끝이 없다.

8월 19일(을유)

8월 20일(병술) 저물녘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밤새 그치지 않았다. 오늘 감시(監試)의 초장(初場)이다.

8월 21일(정해) 종일 비가 개지 않고 들판에 물이 시끄럽게 흘렀다. 시가[市直]는 쌀 3말 반 이라고 한다.

8월 22일(무자) 구름이 차츰 흩어졌다. 아관(阿觀)이 문안인사 왔다.

8월 23일(기축) 새벽달이 밝게 비쳤다. 오늘은 선비(先妣)의 제삿날인데 내가 목은 병이 막

407) 건좌(乾坐) : 서북쪽을 등지고 동남쪽으로 향한 자리이다.

408) 사토(莎土) : 무덤의 잔디와 흙을 가리킨다.

심해져 직접 제사를 올릴 수 있어 자식들에게 대신 행하게 했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8월 24일(경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8월 25일(신묘) 맑고 온화했다.

<서기 1761년 영조37년>

나 정규(庭奎)는 일찍이 공의 덕행과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어 외며 전해진 것이 지금까지 백여 년이 되었다고 들었다. 내가 도산공(道山公)의 증손인 석검(錫儉)의 집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바로 내 외재종 숙부이다. 공의 일기 책자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기에 손을 씻고 두 번 절하고 나서 받들어 읽었는데, 마치 곁에서 모시고 직접 가르침을 듣는 듯 나도 모르게 흠모와 공경심이 일어났다. 그 분의 평생의 행록(行錄)이 책자 가운데 나타나 있었으니, 사건의 서술과 사실의 기록과 권계(勸戒)에 역사가로서의 남긴 뜻을 터득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분의 우뚝한 풍채에 특 트인 흉금, 호쾌한 기상, 고결함과 화평함, 보석 같이 아름다운 시문이 고루 다 구비되어 있어, 그 몸에 온축되어 일에 드러난 것이 우뚝하고 탁월하였다. 또한 그분의 지조와 행실이 단정하고 엄숙하며, 식견이 높고 뛰어나며, 계획이 크고 통달하니, 이를 보면 공의 포부가 평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후대에까지 경사가 끊어지지 않아 본손과 지손들이 난옥(蘭玉)⁴⁰⁹과 같고, 부지런히 경전의 가르침을 공부하여 신실한 인재를 이루었다고 할 만하니 우리 공의 유교적 교화가 거의 지금 세상에서 다시 펼쳐졌도다. 내가 후학으로서 말채찍을 잡고 싶은 소원⁴¹⁰이 있었기에 감히 이 일을 칭송할 수 없다. 그러나 외람되어 외손자의 항렬에 있으니 이 용렬함을 잊고서 대략 이와 같이 쓴다.

정사년(1857, 철종8) 7월 하한(下澣 하순)에 외손자 이정규(李庭奎)가 삼가 쓰다.

409) 난옥(蘭玉) : 지란옥수(芝蘭玉樹)의 준말로, 남의 집안의 훌륭한 자제를 예찬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때 큰 문벌을 이루었던 사안(謝安)이 자질(子姪)들에게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제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묻자, 조카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과 옥수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410) 후학으로서 말채찍을 잡고 싶은 소원 : 선현이나 선생에 대한 흠모를 나타내는 말로,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자(晏子)가 지금 살아 있다면 그의 마부가 되어 말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흔쾌히 할 것이다.[假令晏子而在 余雖爲之執鞭 所忻慕焉]”라는 사마천(司馬遷)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史記 卷62 管晏列傳贊》